

신약
5

BELIEVER'S BIBLE COMMENTARY
ACTS

윌리엄 맥도날드 신자 성경주석
사도행전

윌리엄 맥도날드 '신자 성경주석'

사도행전

송기섭 옮김

BELIEVER'S BIBLE COMMENTARY
BY
WILLIAM MACDONALD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전도출판사

BELIEVER'S BIBLE COMMENTARY

ACTS

WILLIAM MACDONALD

THOMAS NELSON PUBLISHERS
Nashville

그리스도의 복음과 진리를 전하는

전도출판사

410-828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1233-4
전화: (031) 914-2732, 팩스: (031) 917-4520

Evangelical Publication Inc.

1233-4, Jeongbalsan-dong, Ilsandong-gu,
Goyang-si, Gyeonggi-do, 410-828, KOREA

차 례

약어표.....	5
저자 서언.....	7
편집자 서언.....	9
신약성경 개론.....	13
사도행전.....	21
사도행전 서론.....	22
1.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1장-7장).....	29
1) 부활하신 주님의 성령님에 대한 약속(1:1-5) / 29	
2) 승천하시는 주님의 사도들을 향한 명령(1:6-11) / 33	
3)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기도 중에 기다림(1:12-26) / 37	
사도행전에 나타난 기도.....	42
4) 오순절과 교회의 탄생(2:1-47) / 45	
가정 교회와 교회 밖의 단체들.....	64
5) 치료받은 앓은뱅이와 이스라엘을 향한 베드로의 고소(3:1-26)	
/ 74	
(6) 박해와 교회성장(4:1-7:60) / 83	
그리스도인과 정부와의 관계.....	101
2. 유대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8:1-9:31).....	115
1) 사마리아에서 빌립의 사역(8:1-25) / 115	

2)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8:26-40) / 122	
믿는 자의 침례(세례)……………126	
3) 다소 출신 사울의 회심(9:1-31) / 128	
평신도 사역……………132	
3. 땅 끝에 있는 교회(9:32-28:31)……………138	
1) 이방인을 향한 베드로의 복음 전파(9:32-11:18) / 138	
2) 안디옥에서의 교회 개척(11:19-30) / 149	
3) 헤롯이 가한 핍박과 그의 죽음(12:1-23) / 153	
4) 바울의 제1차 전도여행-갈라디아(12:24-14:28) / 157	
선교전략……………184	
5) 예루살렘 공동회의(15:1-35) / 186	
6)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소아시아와 그리스(15:36-18:22) / 196	
지역교회의 독립성……………197	
하나님의 인도하심……………204	
기적(奇蹟)……………207	
형식에 메이지 않는 강단 사역……………222	
7) 바울의 제3차 전도여행-소아시아와 그리스(18:23-21:26) / 230	
8) 체포당한 바울과 심문(21:27-26:32) / 258	
9) 바울의 로마 항해와 난파선(27:1-28:16) / 286	
10) 바울의 가택연금과 로마 거주 유대인을 향한 전도(28:17-31)	
/ 294	
사도행전의 메시지……………300	
참고 문헌……………309	

약어표

- ASV-미국 표준역(American Standard Version)
FWG-그란트의 숫자 성경(F.W. Grant's *Numerical Bible*)
JND-다아비의 새번역(John Nelson Darby's *New Translation*)
JBP-필립의 의역본(J.B. Phillips' Paraphrase)
KJV-흠정역(King James Version)
KSW-(Kenneth S. Wuest's *An Expanded Translation*)
LB-현대어 성경(Living Bible)
NASB-새 미국 표준역 성경(New American Standard Bible)
NEB-새 영어성경(New English Bible)
NIV-새 국제역 성경(New International Version)
NKJV-새 흠정역(New King James Version)
RSV-개정 표준역(Revised Standard Version)
RV-개정역(Revised Version〈England〉)
A.D-주후(主後; *Anno Domini*, in the year of our Lord)
B.C-주전(主前; Before Christ)
NU-가장 오래된 헬라어 비평 사본

저자 서언

“신자 성경 주석”은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는 진지한 학도가 되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집필되었다. 그러나 어떤 주석도 성경을 대신할 수는 없다. 다만 주석이 도와줄 수 있는 최선은 일반적인 의미를 이해하기 쉬운 방법으로 설명해준 다음 보다 깊은 연구를 하도록 독자를 성경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이다.

본 주석은 쉽고 비전문적인 언어로 집필되었으며, 학적이거나 신학적인 인상을 풍기지 않는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친구약 성경의 원어들을 잘 알지 못하지만 그 때문에 말씀의 실질적인 유익을 얻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저는 어떤 그리스도인도 성경의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인정한 일꾼”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딤후 2:15).

본 주석의 논조는 간결명료하므로 독자는 어떤 구절에 대한 도움을 얻기 위해 여러 쪽에 걸친 설명을 애써 다 읽어볼 필요는 없다. 분주히 돌아가는 현대생활은 진리가 짧고 간결하게 제시될 것을 요구한다.

그렇다고 해서 어려운 구절들을 그냥 지나치지는 않았다. 많은 경우에 다양한 설명들을 소개함으로 독자로 하여금 어떤 설명이 문맥과 나머지 성경의 가르침에 가장 부합하는지 스스로 결정하도록 배려해 주었다.

성경에 대한 지식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말씀을 삶에 실제로 적용해야만 한다. 따라서 본 주석은 어떻게 성경본문이 하나님의 백성의 삶 속에서 구현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제시하고자 노력한다.

만일 본서가 목적 그 자체로 사용된다면 도움을 주기보다 오히려 헛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만일 본서가 성경을 개인적으로 연구하는 일을 독려하고 주님의 교훈에 대한 순종심을 일깨우는데 사용된다면 그 목적을 이룰 것이다.

모쪼록 성경에 영감을 불어넣으신 성령께서 그분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추구하는 독자의 마음에 빛을 비취 주시기를 바란다.

편집자 서언

“주석을 무시하지 마십시오.”

이 말은 1950년대 후반에 어떤 성경교사가 엠마오 성경학교(지금의 엠마오 성경 대학)에서 학생들에게 던진 충고였다. 그 중 적어도 한 학생이 지난 30년 동안 그 말을 잊지 않고 기억했다. 그 교사는 본 “신자 성경 주석”의 저자인 윌리엄 맥도날드였고, 그 학생은 당시에 갓 입학한 신입생이었던 본 편집자 아더 화스타드(Arthur Farstad)였다. 그는 평생에 단 한 권의 주석만 보았는데 헤리 A. 아이언사이드의 에베소서 강해서인 “하늘에 속한”(In the Heavenly)이 그것이었다. 10대 시절 어느 해 여름에 그 책을 숙독한 후에 아더 화스타드는 주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다.

1. 주석이란?

주석이란 정확히 무엇이며 왜 우리는 주석을 무시해서는 안 되는가? 최근에 한 유명한 그리스도인 발행인이 성경에 관계된 책을 15가지로 분류했다. 따라서 혹 어떤 이들이 정확히 어떻게 주석이 스테디바이블이나 심지어 성구사전, 성경지도, 성경사전 등과도 다른지를 알지 못한다 해도 그것은 전혀 놀랄 일이 못된다.

주석은 절별 혹은 단락별로 성경 본문에 대해 “논평을 하거

나”(comments) 도움을 줄만한 언급을 한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주석을 저만치 제껴두며 “저는 단지 강단의 말씀을 듣고 성경 자체만 읽고 싶습니다”라고 말한다. 제법 경건한 말처럼 들리나 그렇지 않다. 주석은 단지 최선의(그리고 가장 어려운) 형태의 성경강해-하나님의 말씀을 절별로 가르치고 전하는 것-를 문자화하는 것에 불과하다. 어떤 주석들(가령 아이언사이드 주석)은 설교를 그대로 책으로 출간했다. 게다가 모든 시대 모든 언어로 된 유명한 성경강해서들이 영어로 보급된 실정이다. 그러나 불행히도 많은 강해서들이 너무 오래되고 너무 시대에 뒤떨어지고 또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일반 신자들로서는 절망할 정도는 아니라 해도 낙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그런 까닭에 이 “신자 성경 주석”이 간행된 것이다.

2. 주석의 종류

신학적으로 말한다면 성경에 관심 있는 모든 이들이 주석을 집필할 수 있다. 그런 까닭에 주석은 매우 개방적인 것에서 매우 보수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그 종류가 아주 다양하다. 본 “신자 성경 주석”은 성경을 신앙과 삶 모두에 절대 충분한 영감되고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매우 보수적인 주석이다.

주석은 매우 전문적인 것(예를 들어 헬라어와 히브리어의 구문에 대해서까지 세세한 설명을 가한 것)에서 매우 간략한 것에 이르기까지 아주 범위가 넓은데 본 주석은 그 중간 어딘가에 위치한다. 전문적인 설명은 주로 각주로 돌렸으나 본문 해설에 관한 한은 난이도에 관계없이 대충 얼버무림 없이 충실히 다루었다.

맥도날드 형제님의 글은 “강해가 풍부하다.” 형제님의 글의 목적

은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제자”를 양성하는 일을 돕는데 있다.

주석은 또한 신학적인 진영에 따라서 보수적인 것과 자유주의적인 것, 개신교적인 것과 로마 카톨릭적인 것, 전천년적인 것과 무천년적인 것 등으로 나뉘는데 본 주석은 보수적이며 개신교적이며 그리고 전천년적이다.

3. 본서를 사용하는 방법

본 주석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으나 다음 순서로 접근할 것을 제안한다.

(1) 대강 훑어봄

만일 여러분이 성경을 좋아하거나 사랑한다면 여러분은 이 책을 여기저기 조금씩 읽으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2) 특정 구절에 대한 참조

어떤 구절에 대해 의문이 생길 경우 여러분은 해당 구절이나 문맥에 대한 설명을 찾아봄으로써 분명 적절한 자료를 얻게 될 것이다.

(3) 교리에 대한 연구

안식일, 침례, 선택, 삼위일체 등에 대해 알고 싶으면 그 주제를 다루는 구절들을 찾아보라.

(4) 책별 연구

만일 성인 주일학교나 정규집회에서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하고 있다면 매주 해당 본문을 미리 공부해 둬으로써 큰 유익을 얻을 수 있다(토론을 하면 더 큰 유익이 있다). (물론, 만일 인도자도 본서를 주요 참고서로 사용하고 있을 때는 여러분은 다른 주석을 추가로 사용할 수도 있다!)

(5) 성경 전체에 대한 연구

결국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경 전체”를 상고해야 한다. 성경 전체에는 난해한 본문이 흩어져 있으며 본서와 같은 주의 깊고 보수적인 책이 당신의 성경공부를 크게 증진시킬 것이다.

성경공부는 광활한 사막을 여행하듯이 그 출발이 막막하고 아득하지만 조금씩 진보하면서 꿀맛과 같이 달콤한 시간이 된다.

맥도날드 형제님은 30년 전에 제게 “주석을 무시하지 말라”고 충고해 주신바 있다. 새 흠정역본(New King James text)에 맞춰 편집을 하면서 이 성경주석을 매우 주의 깊게 연구해 봄으로써 저는 한 단계 더 나아가 “주석을 즐겨 사용하라!”는 충고를 독자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다.

신약성경 서론

“이 신약성경 책들의 역사적, 영적인 면에서의 가치는 그 책들의 수나 양에 도저히 비견되지 않으며, 그 책들이 삶과 역사에 미친 영향은 헤아릴 수조차 없다. 여기 에텐에서 동이 뜨기 시작한 시대의 정점이 있다. 구약의 예언의 그리스도는 복음서의 역사의 그리스도요, 서신서의 경험의 그리스도와, 계시록의 영광의 그리스도가 되신다.”-W. 그레햄 스크로기

1. “신약”의 뜻

신약성경을 연구하는 깊은 바다, 혹은 그 중 한 책을 연구하는 비교적 작은 영역으로 발을 들여놓기 전에 우리가 “신약”이라고 부르는 거룩한 책에 대한 몇 가지 일반적인 사실을 간략히 개괄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약속”(testament)과 “언약”(covenant)은 둘 다 동일한 헬라어 단어(*디아테케*)를 옮긴 것이며, 히브리어로는 한 두 곳에서 어떤 번역이 더 나은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기독교 성경상의 용어로는 “언약”이란 의미가 확실히 더 낮게 여겨지는데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 간의 하나의 협정, 맹약, 혹은 “언약”을 이루기 때문이다.

기독교 성경은 옛(혹은 “오랜”) 약속과 대조해서 “새” 약속(혹은 언약)으로 불리운다.

두 약속 모두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았으며, 따라서 모든 그리

스도인들에게 유익하다. 그러나 자연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은 특히 우리 주님과 그분의 교회에 대해, 또 그분이 그분의 제자들이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지에 대해 말씀하는 성경의 그 부분에 보다 종종 관심을 기울이는 경향이 있다.

구약과 신약의 관계는 어거스틴에 의해 다음과 같이 훌륭하게 표현된바 있다.

“신약은 구약 속에 감추어져 있고 구약은 신약 속에 드러나 있다.”

2. 신약성경 정경

“정경”(canon, 헬-카논)이란, 어떤 사물을 측정 내지 평가하는 “기준”(rule)을 가리킨다. 신약성경의 정경은 영감 받은 책들을 집대성한 것이다. 그러면, 이 책들만이 정경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 혹은 이 27권의 책 모두가 정경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기독교 초기부터 여타 기독교 서신 및 문헌들(이단적인 것을 포함해서)이 있었는데 어떻게 이 책들이 옳은 것이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가?

사람들은 종종 주장하기를 A. D 3세기 후반에 한 교회회의가 정경목록을 정비했다고 한다. 그러나 사실 그 책들은 기록된 즉시 “정경적이었다.” 경건하고 분별력 있는 제자들은 베드로가 바울의 서신들을 인정했듯이(벧후 3:15-16) 처음부터 영감 받은 성경들을 인정했다. 그러나 일부 교회들에서는 한동안 일부 성경(유다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등)에 대해 논란이 있었다.

일반적으로 어떤 책이 마태나 베드로, 요한, 혹은 바울, 혹은 마가나 누가와 같은 사도의 범주에 드는 사람에 의해 기록되었을 경우

에는 그 책의 정경성에 대해 아무 의문이 없었다.

신약성경 정경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교회회의는 사실 여러 해 동안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져 온 것을 “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말하자면 교회회의는 책들의 “영감된 목록”을 정비한 것이 아니라 “영감된 책들”의 목록을 정비한 것이었다.

3. 저자 문제

신약성경의 저자는 성령이시다. 성령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바울, 야고보, 베드로, 유다 및 히브리서의 익명의 저자(히브리서 서론 참조)를 감동하사 집필하도록 하셨다. 신약성경이 어떻게 나왔는가 하는 문제를 이해하는 최선의 정확한 이론은 “이중 저작권”이다. 신약성경은 부분적으로는 인간적이고 부분적으로는 신적인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인간적인 동시에 전적으로 신적인 것이다. 신적인 요소가 인간적인 요소로 하여금 아무 실수도 범하지 않게 했다. 그 결과 원본상 무오무류한 책이 나오게 되었다.

이 기록된 말씀에 비견되는 유용한 유추는 살아있는 말씀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중적인 속성이다. 그분은 부분적으로는 인간이고 부분적으로는 하나님이 아니라(희랍 신화에 나오는 신들처럼) 완전한 인간인 동시에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그 신적인 속성이 인간적인 속성으로 하여금 여하한 과오나 죄를 범하지 못하게 했다.

4. 연대 문제

약 1천년이 걸쳐 완성된 구약성경(BC 1400-400)과는 달리 신약성경

은 불과 반세기만에(A.D 50-100) 집필되었다.

신약성경의 현재 순서는 모든 시대 교회를 위해 매우 적합한 순서이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생애로 시작하여 교회를 말하고 그런 다음 그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제시하고 끝으로 교회와 세상의 장래를 밝힌다. 그러나 이 책들은 집필 순서대로 배열된 것이 아니다. 이 책들은 필요가 발생하는 대로 집필된 것이다.

초기의 책들은 필립스(Phillips)가 부르는 대로 “어린 교회들에게 보낸 서신들”이다. 야고보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서 등이 기독교 첫 세기 중반에 기록된 최초의 신약성경들일 것이다.

복음서들은 그 다음에 기록되었는데 마태나 마가복음이 먼저 기록되었고 다음에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의 순으로 기록되었다. 끝으로 아마도 1세기 끝 무렵에 계시록이 기록되었다.

5. 분류

신약성경은 내용상 다음과 같이 분류될 수 있다.

역사서-복음서, 사도행전

서신서-바울 서신, 공동 서신

예언서-요한계시록

이 책들에 대한 적절한 통찰을 지닌 그리스도인은 “모든 선한 일을 하기에 온전히 구비하게” 될 것이다.

많은 신자들로 하여금 바로 그런 자질을 갖추도록 돕는 것이 본 주석을 펴내는 우리의 바람이다.

6. 언어

신약성경은 “일상 언어”(“코이네”, 혹은 “일상 헬라어”)로 기록되었다. 이것은 오늘날 영어만큼이나 잘 알려지고 널리 사용된 1세기 당시 거의 전 세계적으로 사용된 제2의 언어였다.

히브리어의 정감 있고 다채로운 표현법이 구약성경의 예언과 시 및 일반 해설에 꼭 알맞듯이 헬라어는 신약성경을 위해 섭리적으로 예비된 놀라운 표현 도구였다. 헬라어는 알렉산더 대제의 정복 활동을 통해 널리 보급되었으며 그의 군대는 대중을 위해 헬라어를 단순화 내지 대중화시켰다.

헬라어는 동사의 시제, 격, 어휘 및 기타 요소들의 정밀성으로 인해 서신서(특히 로마서와 같은 책)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교리적인 진리들을 표현하는데 적격이었다.

“코이네” 헬라어는 지식층을 위한 문학적인 언어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통속 언어”(street language)나 조악(粗惡)한 헬라어도 아니다. 신약성경의 일부(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후서)은 거의 문학적인 수준에 이른다. 또한 누가는 때때로 고전적인 기법을 사용하며 바울도 때로는(고전 13,15장 등) 아름다운 문학적인 표현법을 동원한다.

7. 번역

영어는 많은(아마도 너무 많은) 역본을 지니는 축복을 받았는데 이들은 다음의 네 가지 일반적인 유형으로 분류된다.

(1) 문자적인 번역

J. N. 다비역, 영어 개정역(English Revised Version, 1881)과 그 미국판, 미국 표준역(American Standard Version, 1901) 등의 역본은 지나치게 문자적이다. 이것은 그 역본들로 하여금 연구를 위해서는 유용하지만 예배나 공중 성경공부나 암기를 위해서는 취약하다. 흠정역(KJV)은 위의 역본들에 비해 그 위엄과 미려함이 뛰어난데 그런 까닭에 많은 그리스도인 회중들은 흠정역을 선호해 왔다.

(2) 완전 직역(Complete Equivalence)

매우 문자적이며, 영어어법이 허락할 경우 히브리어나 헬라이어 표현을 거의 그대로 사용하는 동시에, 좋은 표현법이나 속어가 필요할 때는 보다 자유로운 번역을 시도한 역본들이 있는데 흠정역(KJV), 개정 표준역(RSV), 새 미국 표준 성경(NASB), 새 흠정역(NKJV) 등이 거기에 속한다. 불행히도 개정 표준역(RSV)은 신약은 대체로 믿을만 하나 구약의 경우 많은 메시아 예언들을 가볍게 다루는 과오를 범했다. 오늘날 심지어 전에는 건전했던 몇몇 학자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위험한 경향이 엿보인다. 본 “신자 성경 주석”은 새 흠정역(NKJV)에 맞춰 편집을 했는데, 새 흠정역(NKJV)은 고어체 대명사(three와 thou)를 사용하지 않은 채 미려한(그러나 고풍적인) 흠정역(KJV)과 현대 영어 사이에서 가장 독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그것은 대부분 현대어 성경에는 빠져있는 많은 동사와 단어들을 내포하고 있다(본 주석의 해설란에서 그 실례들을 볼 수 있다).

(3) 탄력적인 직역(Dynamic Equivalence)

이 유형의 번역은 완전 직역보다는 자유로운 번역으로써 때로는

독자가 그것을 인식하는 한 유효한 기술인 의역(意譯, paraphrase)을 사용한다. 모팻역, 새 영어 성경(NEB), 새 국제역 성경(NIV), 예루살렘 성경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 역본들은 요한과 바울이 만일 오늘날, 그것도 영어로 집필한다면 사용했을 만한 구조로 전체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을 시도했다. 이러한 방법론은 보수적인 입장에서 취해질 경우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4) 의역(Paraphrase)

의역이란 본문을 개념 단위로(thought by thought) 의미를 전달하는 번역 방법을 말하는데 이 번역은 종종 자료를 “추가”하는데 많은 자유를 누린다. 이것은 어휘 선택에 있어 원문을 너무 벗어나 있기 때문에 항상 “지나치게 장황한 번역”이 될 위험이 있다. 예를 들어 현대어 성경(Living Bible)은 복음적이긴 하나 논란의 여지가 있는 해석상의 문제점들을 많이 내포한다.

J.B. 필립스의 의역본(그는 그것을 역본으로 부른다)은 문자적인 관점에서 매우 번역이 잘 되어 있는데, 그는 거기서 베드로와 바울이 “그들의” 어휘로 의미했다고 믿는 것을 “그의” 어휘로 말하고 있다.

위의 네 유형 중 적어도 세 유형의 역본을 소유하는 것이 비교연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믿기에는 완전 직역본이 본 주석에서 제시되는 것과 같은 세세한 성경연구를 위해 가장 안전한 역본이라 믿어진다.

사도행전

사도행전 서론

“그리스도는 그 주재요, 교회는 그 수단이며, 그리고 성령이 그 능력이다”—W. 그래함 스크로기

1. 정경 안에서의 독특한 위치

사도행전이야말로 유일하게 영감 받은 교회사이며, 또한 최초의 교회사이다. 그리고 독특하게 초대교회 당시의 믿음을 다룬 초유의 교회사이다. 사실상 다른 교회사들은 단지 소수의 전통과 많은 추측을 한 채 본서의 기자인 누가의 사역에 접근할 뿐이다. 따라서 사도행전이 없었다면 우리는 모든 교회 역사를 잃었을지도 모른다. 복음서에 기록된 주님의 생애에서 곧바로 서신서로 건너가려면 말할 수 없는 큰 비약(飛躍)을 해야만 할 것이다. 도대체 많은 서신서들이 누구를 대상으로 메시지가 선포되었는가? 그리고 그들은 또한 어떻게 반응했는가? 사도행전은 이같은 질문들과 그 외 다수의 질문들에 답변을 준다. 본서는 그리스도의 생애와 서신서들에서 가르쳐진 그리스도 중심의 삶(Christ-life) 사이를 연결하는 교두보일 뿐만 아니라, 유대주의와 기독교, 율법과 은혜 사이의 과도기적인 연결고리이다. 이는 사도행전 해석상의 주 난제 중의 하나, 즉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소규모 유대 운동으로부터 로마 제국의 수도에까지

확장되는 편만한 신앙의 점차적인 확장 범위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2 저자

대부분의 학자들이 동의하는 것처럼, 누가복음서와 사도행전의 저자는 동일 인물이다. 만일 세 번째 복음서인 누가복음서의 저자가 누가라면 사도행전의 저자 또한 동일인일 것이며, 반대로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가라면 누가복음서의 저자 또한 동일인일 것이다 (누가복음 서론을 참조하라).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다고 하는 외적 증거는 교회사 초기에 서부터 강력하고 폭넓게 받아들여졌다. 예컨대 누가에게 보낸 반(反)말시온주의 서언(序言, A.D 160-180), 무라토리안 정경(A.D 170-200), 그리고 초대교회 교부들인 이레니우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터툴리안, 오리겐 등 대부분이 누가의 친저성(親著性)을 받아들였다. 게다가 유세비우스나 제롬같은 권위 있는 사람들을 포함하여 초대 교부들을 계승한 많은 다른 사람들이 동일한 입장을 취하였다.

사도행전의 저자에 관한 내적 증거는 세 가지이다.

첫째로 본서 서론을 살펴보면 저자는 특별히 전술(前述)한 작품을 언급하면서 두 작품 모두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봉헌되어 있다. 누가복음 1장 1-4절은 제3복음서로 불리는 누가복음서가 의미하는바 그대로 누가의 기록임을 밝힌다.

문체, 정열적인 시야, 어휘, 변증적인 강조체, 그리고 수많은 상세한 서술 형식이 두 권의 책을 함께 묶어준다. 누가복음서가 다른 세 복음서와 함께 그 내용이 조화를 이루지 않았다면 의심할 바 없이

누가복음서와 사도행전은 고린도전후서와 같은 형태로 배치되었을 것이다.

두 번째로 사도행전 본문은 저자가 바울의 동료임을 명백히 밝힌다. 이는 그 유명한 ‘우리’ 구절(‘We’ passages; 16:10-17; 20:5-21; 27:1-28:16)에 나타나 있는데, 저자는 사실상 사건 기록들 속에 소개되고 있다. 따라서 허구적인 수법이라는 말로 ‘우리’ 구절을 설명하려는 실로 회의적인 견해는 전혀 신빙성이 없다.

만일 ‘우리’ 구절이 단지 본서가 진서(眞書)라는 사실만을 보여줄 목적으로 첨가된 것이라면, 왜 본서에는 ‘우리’라는 말을 그렇게 희귀하게 사용했겠는가? 또한 왜 ‘우리’라는 말 속에 함축되어 있는 ‘나’라는 사람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는가?

마지막으로 ‘우리 구문’으로 기록된 기간 동안에 바울과 함께 동행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진 동료들 뿐 아니라, 저자가 3인칭으로 언급했던 바울의 다른 동료들의 이름을 배제하면 오직 누가만이 본서의 저자라는 가능성 있는 사람으로 남게 된다.

3 기록 연대

신약의 몇몇 책의 기록 연대는 정확히 알기 어렵기 때문에 사도행전의 기록 연대를 아는 일은 더욱 중차대하다. 사도행전은 특별히 다른 책들과는 달리 교회사요, 그 가운데서도 최초의 교회사이기 때문이다. 본서의 기록 연대에 관한 각기 다른 세 가지 설(說)이 제시되었는데 그 중에 두 가지는 누가의 저작권을 받아들이지만 다른 하나는 그것을 부인한다.

(1) 2세기에 기록되었다는 견해

물론 이 주장에 따르면 누가는 본서의 저자가 될 수 없다. 사실상 누가는 주후 80년 혹은 더 길게 잡아야 85년을 넘지 못했을 것이다. 몇몇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저자는 요세푸스의 작품인 고사(古事, Antiquities, A.D 93년)를 인용하고 있다고 느꼈지만 그들이 드다(행 5:6)에 관해 주장하는 비교 부분들은 동의할 수 없을 뿐더러 그 유사성도 매우 빈약하다.

(2)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는 견해로써 누가가 주후 70-80년 경에 누가복음서와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는 견해

이 견해는 누가가 대략 60년 경에 마가가 쓴 마가복음서를 기초로 해서 누가복음서를 기술했다는 이론을 수용한다.

(3) 강한 설득력을 가진 견해 중의 하나로써 누가가 사도행전의 역사가 끝나는 대로 곧바로 본서를 기록했다는 견해

이때는 바울이 처음으로 로마에 투옥되어 있던 기간이었다. 누가가 세 번째 책을 쓸 의도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가능성 있는 이론이다(물론 이것이 명백하게 하나님의 뜻은 아니었을지라도 말이다). 아무튼 누가는 주후 63년에서 70년에 있었던 바, 그리스도인들에게 끔찍스러웠던 재난에 관해서 본서에는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다음과 같은 사건들에 관한 삭제는 본서의 기록 연대가 다소 초기였음을 제시해 준다. 예컨대 로마 대화제 후에 이탈리아에서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네로 황제의 잔인한 박해 사건(64년경), 반(反)유대인 전쟁(66-70년경), 베드로와 바울의 순교(60년대 후반), 유대인과 히브리계 그리스도인에 대한 핍박, 예루살렘 멸망(70년) 등. 그러므로 주후 62년이나 63년경

바울이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던 시기에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는 견해가 설득력이 있다.

3. 배경과 주제

사도행전은 생동감 있고 박진감 넘친다. 그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교회를 형성하시며, 교회에 능력을 덧입히시고, 더 나아가 교회 선교의 확장을 주도해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주목한다. 이는 성령께서 주권을 가지사 가장 형편없는 도구들을 사용하고, 가장 무서운 장애물들을 극복하며, 철저하게 비단계적인 방법들을 채택할 뿐 아니라, 최상의 괄목할 만한 결과들을 성취하시는 이른바 성령님의 주권에 관한 탁월한 기록물이다.

사도행전은 사복음서에서 넘겨준 이야기를 곧바로 이어받아 우리에게 초대교회에 관한 극적인 묘사를 보여주며 초기 유아기적인 교회의 불안정한 시기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본서는 신약교회가 유대주의란 수의(壽衣)를 벗어 던지고 신약교회의 독특한 성격, 즉 그리스도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라는 새로운 교제권을 덧입는 일종의 대전환기의 기록이다. 이같은 이유 때문에 사도행전은 ‘이삭의 젃 떼는 시기에 관한 이야기’라는 말을 들어왔다.

본서를 읽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부어지는 영적 고양(高揚)의 실재를 감지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죄와 사단이 반박하고 올무를 놓을 때 나타나는 팽팽한 긴장감을 우리는 인식할 것이다.

1장부터 12장까지는 사도 베드로가 중심 역할을 맡아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 담대하게 설교한다. 13장부터 사도 바울이 영감 받은 열정적인 전도자요 지칠 줄 모르는 이방인의 사도로서 사도행전 역

사의 중심인물로 등장한다.

사도행전은 대략 33년간의 기간을 다루고 있다. 필립(J. B. Phillips)은 다음과 같이 지적한바 있다.

“어떤 인간사 기간 중에 일단의 소수 공동체가 세상을 그토록 움직여 대적자들조차도 분노의 눈물을 흘리면서 ‘이 사람들이 세상을 뒤집어엎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시기였다.”¹⁾

4. 개요

1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1장-7장)

- (1) 부활하신 주님의 성령님에 대한 약속(1:1-5)
- (2) 승천하시는 주님의 사도들을 향한 명령(1:6-11)
- (3)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이 기도 중에 기다림(1:12-26)
- (4) 오순절과 교회의 탄생(2:1-47)
- (5) 치료받은 앉은뱅이와 이스라엘을 향한 베드로의 고소(3:1~26)
- (6) 박해와 교회 성장(4:1-7:60)

2 유대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8:1-9:31)

- (1) 사마리아에서 빌립의 사역(8:1-25)
- (2)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8:26-40)
- (3) 다소 출신 사울의 회심(9:1-31)

3 땅 끝에 있는 교회(9:32-28:31)

- (1) 이방인을 향한 베드로의 복음 전파(9:32-11:18)

1) J. B. Phillips의 저서 *The Young Church in Action*의 서론 중에 p. 7를 보라.

- (2) 안디옥에서의 교회 개척(11:19-30)
- (3) 헤롯이 가한 핍박과 그의 죽음(12:1-23)
- (4) 바울의 제1차 전도여행-갈라디아(12:24-14:28)
- (5) 예루살렘 공동회의(15:1-35)
- (6) 바울의 제2차 전도여행-소아시아와 그리스(15:36-18:22)
- (7) 바울의 제3차 전도여행-소아시아와 그리스(18:23-21:26)
- (8) 체포당한 바울과 심문(21:27-26:32)
- (9) 바울의 로마 항해와 난파선(難破船)(27:1-28:16)
- (10) 바울의 가택연금과 로마 거주 유대인을 향한 전도(28:17-31)

1.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1-7장)

1. 부활하신 주님의 성령님에 관한 약속(1:1-5)

1:1 사도행전은 한 가지를 상기시킴으로써 시작된다. 사랑받는 의사 누가는 이전에 데오빌로에게 서신을 보냈는데 이는 현재 우리에게 누가복음서로 알려져 있다(눅 1:1-4 참조). 누가복음서의 마지막 장 세 구절에서 누가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데오빌로에게 보고했다. 즉, 승천하시기 직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약속하시기를 그들이 성령으로 세례(침례)를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다(눅 24:48-53).

이제 누가는 이야기를 계속 진전시킨다. 그는 이 감동적인 약속으로 거슬러 올라감으로써 본서의 출발점을 삼고 있다. 누가의 이 같은 시도는 타당성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님의 강림에 관한 약속이 사도행전에 계시된 모든 영적 승리의 근원으로 깔려 있기 때문이다. 누가는 누가복음서를 첫 번째 혹은 ‘먼저 쓴 글’로 묘사하고 있다. 누가복음서에서 그는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하셨던 일들을 기록했었다. 본서에서 그는 예수께서 부활 후에 성령님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행하시고 가르치심에 관한 일들을 상술(詳述)한다.

주님의 사역이 항상 행하심과 가르치심 둘 중의 하나였음을 주목하라. 그것은 단지 행할 의무가 없는 교리체계나 반대로 행동강령이 없는 낡은 신조만이 아니었다. 구세주는 그분께서 가르치신 내용에 대한 살아있는 화신(化身)이었다. 요컨대, 그분은 설교하신 그대로 실행에 옮기셨다.

1:2 데오빌로는 누가의 이전 글이 구세주의 승천에 관한 기사로 마무리되었음을 기억할 것이다. 그런데 본문에는 ‘승천’이란 표현을 그분의 존재가 ‘들어올려졌다’고 묘사하고 있다. 그는 또한 주님께서 떠나시기 전에 그분의 열 한 사도들에게 베푸신 부드러운 마지막 교훈들을 기억할 것이다.

1:3 주님의 부활과 승천, 제자들에게 나타나심, 육체적인 부활에 관한 확실한 증거들을 보여주는 일련의 사건들 사이에는 40일이란 간격이 있었다(요 20:19; 행 2:1,14).

이 기간 동안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왕국)에 대한 일들을 제자들과 더불어 강론하셨다. 하지만 주님의 우선적인 관심은 이 세상의 왕국이 아닌 하나님이 왕으로 인식되는 영역 혹은 공간으로서의 왕국이었다.

하나님의 나라(왕국)는 교회와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주 예수님은 자신을 왕으로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제시하셨으나 그들로부터 거절당하셨다(마 23:37). 따라서 주님의 문자적인 지상 왕국은 장차 이스라엘 민족이 회개하고 주님을 메시아로 영접하게 될 때까지 연기되었다(행 3:19-21).

현재 왕께서는 부재중이시다. 그러나 그분은 지상에 비가시적(非

可視的)인 왕국을 소유하고 계신다(골 1:13). 그 왕국은 주님께 충성을 서약한 모든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마 25:1-12). 물론 한 측면을 볼 때 그 왕국(나라)은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는 왕국의 외적 측면이다(마 13:1-52). 그러나 내적 측면으로 이 왕국은 거듭난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다(요 3:3,5). 이같은 하나님의 왕국(나라)의 현재 상태는 마태복음 13장의 비유 속에 묘사되어 있다.

교회는 전적으로 새로운 어떤 것이다. 이 교회는 구약 예언의 주제가 아니었다(엡 3:5). 교회의 구성원은 오순절 날 성령강림 때부터 주님의 공중 재림시 휴거되는 모든 믿는 성도들로 이루고 있다. 실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교회는 천년왕국 기간에 주님과 더불어 통치할 것이고 그분의 영광을 영원토록 공유하게 될 것이다. 그리스도는 7년간의 대환난이 끝날 무렵 왕으로서 지상에 재림하여 그의 대적자를 파괴시키고 지상에 주님의 의의 통치를 실현하게 될 것이다(시 72:8).

비록 주님의 의의 통치가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천년동안 지속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왕국(나라)은 다음과 같은 면에서 지속된다. 즉, 모든 하나님의 대적자들은 궁극적으로 멸망할 것이고 마침내 주님은 어떤 공격이나 방해가 없이 하늘에서 영원토록 통치하실 것이라는 점에서 말이다(벧후 1:11).

1:4 이제 누가는 주님께서 예루살렘 다락방에 사도와 같이 모였던 내용을 다루고 있다. 부활하신 구세주는 그들에게 예루살렘에 머물라고 부탁하셨다. 그런데 왜 하필이면 예루살렘인가? 제자들은 분명 의아해 했을 것이다. 그들에게 있어 예루살렘은 증오의 도시

요, 폭동과 핍박을 받았던 도시였다. 그렇다. 아버지의 약속 성취는 예루살렘에서 일어날 것이다. 성령강림은 주님께서 십자가에 처형 당하셨던 바로 그 도성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 도성에 대한 성령님의 강림은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한 것에 대한 명백한 증거이리라. 실로 진리의 성령께서 죄와 의, 심판에 대해 세상을 책망할 것이다. 그런데 이 사건은 다른 곳이 아닌 바로 예루살렘에서 첫 번째로 발생할 것이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도성에서 성령을 받을 것인데, 그곳은 그들이 주님을 배반하여 버리고 목숨을 구하기 위하여 도망쳤던 장소이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들 스스로가 연약하고 겁 많은 모습을 드러냈던 바로 그 도성에서 장차 강하고 두려움 모르는 담대한 자로 변화될 것이다.

제자들이 구세주의 입을 통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에 대해 들었던 적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그분의 지상사역 전반에 걸쳐서 특히 다락방 강화(講話)에서 주님은 장차 오실 보혜사(겔에서 듣는 자)에 관해 제자들에게 언급했었다(눅 24:49; 요 14:16,26; 15:26; 16:7,13).

1:5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주님은 성령의 강림에 관한 약속을 반복하신다. 제자들 중 몇몇은 이미 물로 요한의 침례(세례)를 받았다. 그러나 요한의 침례는 성격상 외적이고 육체적인 것이었다. 며칠 후에²⁾ 그들은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인데 그 침례는 내적이고 영적인 것이리라. 첫 번째로 받은 요한의 침례가 제자들이 외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회개를 동일시한 것이었다면 두 번째

2)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 사이에는 40일이란 간격이 있다. 그렇다면 오순절이 되려면 아직도 10일 가량이 더 남아 있는 셈이다. 하지만 주님은 몇 일이란 정확한 날짜를 말씀하지 않았는데, 이는 아마도 제자들이 기대감을 계속 갖도록 한 것 같다.

로 받게 될 성령의 침례는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지체로 가입시키고 봉사를 위한 능력을 그들에게 부여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을 것이라고 약속하셨으나, 그러나 거기에는 불세례에 관한 언급은 없다(마 3:11; 눅 3:16-17). 사실상 불세례는 불신자를 향한 심판의 세례로써 아직까지 미래에 속한 심판이다.

2. 승천하시는 주님의 사도들을 향한 명령(1:6-11)

1:6 여기서 기록된 사건은 베다니 반대편에 위치한 감람산에서 발생했던 것 같다. 주 예수님께서 이 장소에서 하늘로 오르셨다.

제자들은 성령강림에 관해 생각해 왔었다. 그들은 일찍이 선지자 요엘이 메시아의 영광스러운 통치와 연계된 성령의 부으심에 관해 예언했음을 기억했다(요엘 2:28). 따라서 그들은 주님께서 곧바로 그분의 나라를 세울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 성령께서 몇 날이 못 되어 주어질 것이라는 내용이 주님의 첫 번째 말씀이었기 때문이다. 제자들은 아직도 주님께서 문자 그대로 지상의 나라(왕국)를 즉시 설립하실 것을 고대했음을 그들의 질문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1:7 주님은 지상에서 그분의 통치를 고대하는 제자들의 그릇된 생각을 교정하지 않으셨다. 주님은 간단히 자신의 나라가 언제 도래할지 그 때를 제자들은 알 수 없을 것임을 천명하셨다. 성부 하나님님의 엄위한 권위에 의해 그 정확한 날짜는 고정되었고 주님께서 그 날짜를 계시하시길 원하지 않으셨다. 요컨대 그것은 하나님 자

신에게만 속해 있는 배타적인 정보였다.

‘때와 시기’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국가와 연계해서 아직 성취되지 않은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여러 사건들과 연관해서 성경에 사용되었다. 유대교 배경을 가진 제자들은 이 ‘때와 시기’라는 말을 그리스도의 천 년간의 지상 통치가 실현되기 전에 있을 중차대한 어떤 시기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했을 것이다.

1:8 이제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 미래시기에 잔뜩 호기심을 품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 예수님은 훨씬 급박한 사역, 즉 제자들이 받게 될 사명의 본질과 범위에 그들의 주위를 환기시키셨다. 제자들이 받은 사명의 본질에 있어 그들은 증인이 되어야 했다. 또한 사명의 영역에 있어 제자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어야 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자들은 권능, 즉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만 한다. 이 권능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제자들에게 절대 필요한 능력이었다. 누군가 탁월한 재능을 소유했고, 적절한 훈련을 받았으며, 다양한 경험을 소유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성령의 권능이 없다면 그는 비효과적인 일꾼이 될 수밖에 없다. 반면에 누군가 교육을 받지 못했고, 별 매력적인 요소가 없으며, 촌스러운 구석이 많을지라도 그 사람에게 성령의 권능이 임했다면 세상은 뒤집어져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열정을 주목하게 될 것이다. 주님을 증거하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거룩한 담대함을 갖기 위해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같은 권능이 요청되었다. 제자들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할 때 그같은 권능을 받게 되리라.

제자들의 증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섭리 속에서 예루살렘

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했다. 요컨대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믿음을 갖도록 최초로 초청받은 곳이 바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그 도성이었다. 그리고 유대, 즉 예루살렘을 수도로 하는 유대교의 인구가 많은 팔레스틴 남부지역이 그 대상이었다. 그 후에 사마리아로서 그곳은 팔레스틴의 중앙에 위치한 반목의 장소로써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혼혈인들의 도성이다. 그리고 당시에 세상의 끝으로 알려진 세계, 즉 종교적인 특권에 관한 한 그 때까지 배척을 당해왔던 이방국가들이 그 증거의 대상이었다. 이같은 복음 전도의 폭넓은 범위 안에서 우리는 사도행전 역사의 전반적인 개요를 다음과 같이 그려볼 수 있다.

- (1) 예루살렘에서의 증거(1-7장).
- (2) 유대와 사마리아에서의 증거(8:1-9:31).
- (3) 땅 끝까지 이른 증거(8:32-28:31).

1:9 구세주께서 제자들에게 선교 사명을 주시자마자 그분은 하늘로 올리워 가셨다. 이것이 언급하는 전부이다. 곧 “저희 보는데서 올리워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실로 이처럼 극적인 사건을 성경은 극히 단순하고 차분하게 묘사하고 있다! 성경의 저자들이 이야기를 기술할 때 사용했던 이같은 절제 감각은 성경이 영감 받은 기록의 산물이라는 사실을 증거해준다. 비상한 사건을 다룸에 있어 이같은 절제된 묘사는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익숙해 있지 않다.

1:10 다시금 충격적인 표현 없이 누가는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의 출현을 언급한다. 이 두 사람들은 분명 천사들로서 사람의 모양으

로 지상에 나타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였다. 아마도 이들은 부활 후의 주님의 무덤에 나타났던 바로 그 천사들인 것 같다(눅 24:4).

1:11 천사들은 먼저 제자들을 향해 ‘갈릴리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알다시피 가롯 유다를 제외한 다른 모든 제자들은 갈릴리 바다 서쪽 지방 출신들이다.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 천사는 경외감에 빠져 있을 제자들을 일깨워 주었다. 왜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았을까? 그 이유는 주님을 보내드리는 슬픔 때문인가? 그분께 경배하는 중이었을까? 아니면 주님의 부활에 대한 경탄 때문이었을까? 의심할 바 없이 슬픈 감정이 지배적이었을지라도 그들에게는 이 세 감정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었을 것이다.

따라서 제자들에게 위로의 말이 주어졌다. 즉, 부활하신 주님은 분명 재림하실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지상에 하나님의 나라(왕국)를 세우기 위한 주님의 재림 사건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갖게 된다. 물론 이 재림 사건은 휴거와는 분명히 구분되지만 아무튼 지상을 통치하시기 위해 오실 것이다.

- (1) 주님은 감람산에서 승천하셨다(12절).
 - ▶ 주님은 감람산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슌 14:4).
- (2) 주님은 인격적으로 승천하셨다.
 - ▶ 주님은 인격적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말 3:1).
- (3) 주님은 가시적으로 승천하셨다.
 - ▶ 주님은 가시적으로 오실 것이다(마 24:30).
- (4) 주님은 구름 가운데로 영접하셨다(9절).

- ▶ 주님은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마 24:30).
- (5) 주님은 영광중에 승천하셨다.
- ▶ 주님은 큰 영광과 능력으로 다시 오실 것이다(마 24:30).

3. 제자들이 예루살렘에서 기도 중에 기다림(1:12-26).

1:12 누가복음 24장 52절에는 제자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고 기록하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빛이 이 제자들의 마음을 밝게 비추었을 뿐 아니라 온갖 문제의 바다에 둘러싸인 그들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만들었다.”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기드론 계곡을 지나 예루살렘 도성에 이르는 길은 불과 1km 남짓한 짧은 여정이었다. 이것이 신약 시대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여행할 수 있는 최대 거리 구간이었다.

1:13 제자들은 예루살렘 도성에 들어온 후에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갔다. 하나님의 성령은 여기서 제자들의 이름을 네 번째이자 마지막으로 언급한다(마 10:2-4; 막 3:16-19; 눅 6:14-16). 하지만 거기에는 주목할 만한 삭제가 있다. 즉, 가롯 유다의 이름이 제자들의 명단에서 빠져 있다. 반역자는 영원한 저주의 장소로 가고 없다.

1:14 제자들은 함께 모여 마음을 같이 하였다. “마음을 같이 했다”는 이 표현은 사도행전에 11회에 걸쳐 나타나는데 축복의 비밀을 열어주는 열쇠 중의 하나이다. 형제들이 연합하여 동거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명하신다(시 133편).

축복의 비밀을 열어주는 두 번째 열쇠는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는 표현에 나타나 있다.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역사하신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기도하기보다는 무슨 일을 먼저 시도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의 큰 능력이 쏟아 부어지는 부흥은 오직 우리가 절대적인 확신에 찬 기도와 서둘지 않으나 형제간에 깊이 연합된 기도로써 하나님을 기다릴 때만 임하게 된다.

요컨대 형제간의 연합과 기도가 오순절의 전주곡이었다고 아무리 강조해도 결코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제자들과 함께 하는 무리들 중에는 아마도 주님을 추종했었던 익명의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여기에는 몇 가지 흥미로운 점들이 있다.

(1) 이 부분이 신약성경 중에 마리아에 관한 마지막 언급 부분이다. 이는 의심할 바 없이 성모 마리아 송배에 대한 소리 없는 대항이다. 제자들은 결코 마리아에게 기도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와 함께 주님께 기도했다. 그녀는 제자들과 함께 성령을 선물로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2) 마리아는 본문에서 하나님의 모친이 아니라 “예수의 모친”으로 불리었다. 예수는 그분의 인성(人性)을 강조해 주는 우리 주님의 이름이다. 그분은 인간으로서 마리아를 통해 출생했기에 그녀가 예수의 모친이란 칭호로 언급된 것은 극히 정상적이다. 그러나 성경 가운데서 그녀는 결코 ‘하나님의 모친’(the mother of God)으로 명명된 적이 없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임에는 틀림없을지라도 마리아가 ‘하나님의 모친’이란 말은 교리적으로 부정확하다. 또한 하

나님을 인간 모친을 소유한 하나님으로 묘사하는 것은 어불성설(語不成說)이다. 사실 하나님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는 성부 하나님과 더불어 영원부터 존재해 오셨다.

(3) 마리아에 관한 언급 뒤에 나오는 예수의 아우에 대한 표현은 그들이 사실상의 마리아의 자녀들이고 예수의 씨와는 다른 형제들이었음을 자연스럽게 보여준다. 이같은 구절과 더불어 몇몇 다른 참고 구절들이, 마리아는 평생 동안 동정녀였고 예수 수태 후에는 결코 다른 자녀를 출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카톨릭 계통의 이론들을 정면으로 논박한다(참고; 마 24:46; 막 6:3; 요 7:3,5; 고전 9:5; 갈 1:19; 시 69:8).

1:15 어느날 120명의 제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 베드로는 그들에게 메시아를 배척하게 될 사람에 관한 구약성경의 내용을 상기시켰다.

1:16-17 맨 처음으로 베드로는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응하였으니”라고 언급했다. 그러나 이 “성경”이라는 말을 인용하기에 앞서 베드로는 다음과 같은 사실을 제자들에게 유념시켰다. 즉, 비록 유다가 12제자 중 하나였고, 사도로서의 사역에 동참했던 사람이었을지라도 그는 예수를 붙잡은 자들의 길잡이가 되었노라고 지적했다. 이 비열한 행위에 관한 베드로의 완곡한 표현을 주목해 보자. 가룟 유다는, 누군가가 주님의 대적에게 그분을 팔게 되리라는 예언을 성취하게 된 것이다.

1:18-19 이 두 구절은 누가에 의해 삽입된 구절로써 베드로의 설교 부분이 아닌 것 같다. 누가와 베드로는 유다가 맞이한 죽음의 시점을 끝으로 그에 관한 역사적인 사실들을 종결짓고 있다. 그리고 다음 사도직 계승자를 지명할 준비를 갖춘다.

사도행전에 언급된 유다의 죽음의 형태와 마태복음 27장 3-10절에서 발견되는 내용과의 사이에 모순점은 없다. 마태는 유다가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고 난 후에 가서 목매달아 자살했다고 기록한다.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그 돈을 취하여 무덤을 구입했다. 본문에서 누가는 유다가 돈으로 밭을 사고 후에 곤두박질하여 창자가 밖으로 흘러나왔다고 기록하고 있다.

두 기록을 종합해 보면 밭 구입에 관한 실제 거래는 대제사장들이 주도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그 돈이 유다의 소유물이었고 단지 대제사장들은 유다의 대리인으로서 행동했다는 관점에서 볼 때 유다가 그 밭을 샀다는 표현은 정당하다. 그후 유다는 공동묘지에서 나무에 목매달아 자살했는데 아마도 끈이 떨어지면서 배가 터져 창자가 흘러나왔을 것이다.

이 사건이 예루살렘 도성 안에 알려지게 되자 그 토기장이의 밭은 ‘아겔다마’라고 하니 이는 ‘피밭’ 혹은 아람어로 ‘피흘린 밭’이라 불리게 되었다.

1:20 누가의 주석 성격을 띤 삽입구에 이어 베드로의 설교가 계속되고 있다. 첫 번째로 베드로는 다윗의 시편 69편 25절에서 예수의 배척자에 관해서 언급했다고 설명한다.

“그의 거처로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³⁾

3) 실상 본문은 시편 원문의 정확한 인용이 아니다. 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 가능성이 있는 답변이 있다. (1) 신약성경 저자들은, 우리가 사용하는 번역이 구약 히브

이제 베드로는 성취되어야 할 특별한 예언에 집중하고 있다. “그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시 109:8). 사도 베드로는 이 구절을 유다의 변절 후에 다른 사람이 그의 사도직을 보충하기 위해 지명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는 베드로의 열망을 가히 본받을 만하다.

1:21-22 누군가가 사도로서 선택되려면 다음 두 가지 요구가 충족되어야 했다.

(1) 그는 그리스도의 3년간의 공생애 기간 동안(즉 요한에 의한 주의 침례부터 승천시기) 제자들과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 했다.

(2) 그는 기꺼이 주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책임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어야 했다.

1:23-26 필요한 자격을 갖춘 두 사람의 이름, 즉 유스도라는 요셉과 맛디아가 거론되었다. 그러나 누구를 선택해야 하는가?

사도들은 주님의 뜻을 보여주시길 간구하면서 그 문제를 주님께 의탁하였다. 그 후 그들은 제비뽑아 맛디아를, 제 곳(영원한 심판의 장소)으로 간 유다를 대신한 사도 직무의 적절한 계승자로 인식하였다. 여기서 피할 수 없는 두 가지 의문이 생긴다.

(1) 사도들이 맛디아의 이름을 거론할 때 정당하게 행동했던 것인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일으킴으로써 그 공백을 채울 때까지 사도들이 기다려야 했던 것은 아닌가?

리어 원문에서 온 것임에 반해 종종 구약을 인용할 때 70인역(헬라이어 구약성경) 본문에서 인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다소간의 용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2) 종종 있는 일이지만 구약에 영감을 불어넣은 성령께서 신약에서 구약을 인용할 때 어떤 의미에서 다소간의 자유를 허락하셨다는 점이다.

(2) 주의 마음을 분별하기 위해 제비 뽑은 일이 과연 사도들에게 합당한 것이었는가?

첫 번째 질문에 관해서, 제자들이 잘못 행동했다는 점을 지적해 주는 성경 기록은 없다. 실로 그들은 많은 시간을 기도 가운데 보냈고, 성경을 순종하려고 노력했고, 또한 유다에 이은 계승자를 선택하는데 있어 한 마음이 되었던 것 같다. 게다가 바울의 사역은 다른 열 두 사도들의 그것과 명백히 구별되고 있다. 그리고 바울 자신도 유다를 대신하려는 어떠한 의도가 있었다는 제안이 없다.

열 두 사도는 이스라엘 사람에게 전도하기 위해 주님께서 지상생애 중에 선택한 사람들이었는데 반해,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에 의해 영광중에 선택된 이방인을 위한 일꾼이었다.

제비뽑기에 관한 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는 이같은 방법은 구약성경에서 인정받고 있었다.

“사람이 제비는 뽑으나 일을 결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잠 16:33). 제비뽑기에 의한 맛디아의 선출은 명백히 주님에 의해 허락된 일이었다. 왜냐하면 사도들은 그 후에 “열 두 사도”로 불려졌다(행 6:2 참조).

☞ 사도행전에 나타난 기도

사도행전은 성공적인 기도에 관한 연구서이다. 1장에서 이미 우리는 두 가지 다른 상황 아래에서 제자들이 했던 기도를 보아왔다. 주님의 승천 후에 다락방에서 가진 그들의 기도는 오순절날 그 응답을 받았다. 또한 유다에 이은 계승자의 선출을 인도해 달라는 그들의 기도는 제비뽑기가 맛디아에게 임함으로써 응답을 받았다. 이처럼 사도행전 전반은 기도와 그 응답이 특징 있게 나타나고 있다.

오순절 날 회심한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기도에 전념했다(2:42). 그리고 2장 43-47절에서는 이같은 기도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교제가 풍성한, 실로 이상적인 교회의 상태가 묘사되고 있다.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서 풀려나게 되자 믿는 자들은 담대하게 기도하였다(4:29). 그 결과 모인 장소가 진동하였고 그들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또한 그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였다(4:31).

재정관리를 위해 일곱 사람을 선출할 것과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은 오직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일에 전념하기 원한다고 열 두 사도는 성도들에게 제안했었다(6:3,4). 그래서 사도들은 기도했고 일곱 집사들에게 안수하였다(6:6). 그 다음 구절은 복음 전파에 있어 괄목할 만한 성공을 거두는 감동적인 기록을 담고 있다(6:7-8).

스테반은 순교당하는 장엄한 순간에 중보의 기도를 올렸다(7:60). 9장에서는 스테반의 그 기도 응답으로 방관자였던 다소 출신 사울의 회심을 기록하고 있다.

베드로와 요한은 사마리아의 믿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했고 그 결과로써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을 받았다(8:15-17).

다소의 사울은 회심 후에 유다의 집에서 기도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응답하사 아나니아를 사울에게 보내주셨다(9:11-17).

베드로가 욥바에서 기도하자 병들어 죽었던 자매인 도르가가 살아났다(9:40). 그 결과 다수가 주님을 믿게 되었다(9:42).

이방인 로마 백부장 고넬료가 기도하자(10:2) 하나님 앞에서 그 기도가 기억되었다(10:4). 곧이어 한 천사가 환상 중에 그에게 나타나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에게 사람을 보내라는 지시를 했다(10:5). 다음날 베드로가 기도하였다(10:9). 그러자 고넬료와 다른 이방인

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문을 열도록 베드로를 준비시켰던 하늘의 환상을 보여주심으로써 베드로의 기도를 응답하셨다(10:10-48).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금식하며 기도하였다(13:3). 이같은 기도의 결과로써 바울과 바나바의 제1차 전도여행이 발진되었다. 어느 성도의 다음과 같은 해석은 흥미할 만하다. “이같은 선교의 출발을 잉태케 한 그들의 기도는, 전에는 그 예를 찾기 어려운 가장 막강한 기도의 사역이었다. 그 기도는 전도자 바울과 바나바를 땅 끝까지, 아니 심지어 우리들에게까지 복음을 듣게 하는 영향력을 끼쳤기 때문이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바울과 바나바는 주를 믿는 신자들을 위해 기도했다(14:23). 그 믿는 성도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디모데였다. 후에 디모데가 바울과 실라의 제2차 전도여행에 합류한 것이 그 기도응답이 아니었을까?

빌립보 감옥에서 한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드린 기도는 지진을 발생하게 만들었고 간수와 그 가족의 회심을 가져오는 것으로 응답되었다(16:25-34).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과 함께 기도했다(20:34). 이는 곧 바울에 대한 장로 형제들의 감동적인 사랑의 표현을 낳게 하였다!

두로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바닷가에서 바울과 함께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21:5). 이 기도는 의심할 바 없이 바울이 로마에 있을 때, 그리고 심지어 사형장에 끌려갔을 때조차도 그와 함께 했을 것이다.

자신이 승선한 배가 파선하기 전에 바울은 공적으로 기도를 올렸고 음식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다. 이같은 바울의 태도는 절

망에 처한 승무원들과 승객들을 고무시켰다(27:35-36).

멜리데 섬에서 바울은 그 섬의 통치자의 부친이 앓는 질병의 치료를 위해 기도했다. 그 결과 기적적인 방법으로 환자의 병이 치료를 받았다(28:8).

그러므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영위한 삶의 분위기가말로 기도였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 기도에 따라 역사하셨다. ♠

4. 오순절과 교회의 탄생(2:1-47)

2:1 성령의 부어주심의 모형인 오순절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선포해주는 초실절로부터 50일 후에 있다. 이 특별한 오순절 날 제자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 이렇게 모인 제자들의 대화 주제는 아마도 오순절에 관한 구약성경 본문이었을 것이다(예를 들면 레위기 23: 15,16).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시편 133편의 내용, 즉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를 노래했었을 것이다.⁴⁾

2:2 성령강림은 들을 수 있는 소리, 볼 수 있는 광경, 체험할 수 있는 기적을 동반하였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온 집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그 소리는 마치 거친 광풍과도 같았다. 바람은 성령의 여러 유동적인 모형들(예: 기름, 불, 불) 중의 하나로서 하나님의 주권과 예견할 수 없는 운동을 말해 준다.

4) 사도행전에서 ‘한 곳에’라고 사용된 같은 말이 시편 133편 1절의 헬라어 역본에는 ‘동거함’이라고 사용되었다.

2:3 볼 수 있는 광경으로는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제자들에게 임하였다. 여기에서 불의 혀가 아니라 ‘불의 혀같은’이란 표현을 주목해 보라.

이같은 현상은 불세례로 혼동되어서는 안 된다. 비록 성령세례와 불세례가 함께 언급되었다 할지라도 이 둘은 별개의 것으로서 분명히 구분된다(마 3:11-12; 눅 3:16-17). 요컨대 성령세례는 축복의 세례이지만 불세례는 심판의 세례이다. 전자가 신자들에게 영향을 준 것이라면 후자는 불신자에게 영향을 끼칠 것이다. 전자에 의해 신자들은 능력을 부여받아 살게 되었고 또한 교회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후자에 의해 불신자들은 멸망하게 될 것이다.

세례 요한이 회개한 사람과 회개하지 않는 혼성그룹(마 3:6-7 참조)에게 설교했을 때 그는 그리스도께서 성령과 불로써 그들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에 그가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들에게 말할 때(막 1:5)에는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막 1:8).

그렇다면 본질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혀’는 의심 없이 표현력과 관계되는 것으로서 아마도 당시 사도들에게 부여된 타국어를 말할 수 있는 기적적인 은사를 가르치는 것 같다. ‘불’은 이같은 은사의 원천이 성령과 관계된 것으로서 향후 계속되는 제자들의 담대하고 불타는 열정적인 설교를 의미하는 것 같다. 특별히 ‘열정적인 전도 설교’라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 것은 정열은 성령 충만한 삶의 정상적인 상태요, 전도는 성령 충만한 삶의 필수적인 열매이기 때문이다.

2:4 오순절과 연관해서 경험된 기적은 성령의 충만으로써 끝이

어 다른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뒤따랐다.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성령이 제자들과 함께 있었으나, 그러나 지금부터는 성령께서 제자들 안에 거처를 삼으셨다(요 14:17). 따라서 본 구절은 사람을 향한 성령의 다루심에 일대 중차대한 전환점을 표기(表記)한 셈이다. 구약에서 성령은 사람 위에 임하기는 했어도 사람 속에 거처를 삼지는 않았었다(시 51:11). 하지만 오순절을 기점으로 성령은 사람 속에 영원히 내주하신다. 요컨대 성령이 사람 속에 머물기 위해 강림하셨다(요 14:16).

오순절 날, 믿는 자들은 성령님의 내주 뿐 아니라 성령님의 충만함을 경험했다. 오늘날 우리는 구원받은 순간에 성령님의 내주하심을 체험한다. 반면에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와 묵상으로 주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⁵⁾ 만일 성령 충만이 성도들에게 자동적으로 발생하는 것이었다면 “성령 충만을 받으라”는 권면을 우리는 받지 않았을 것이다(엡 5:18).

오순절 날의 성령강림은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형성하여 서로 지체가 되게 하였다. 한 성령으로 우리 모두는 한 몸 안으로 세례를 받았다. 이제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간에 상관없이 모두 함께 한 성령 안에서 마시게 하셨다(고전 12:13). 그러므로 믿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 구별이 없이 한 새사람이 되었고 같은 몸의 지체들이 된 것이다(엡 2:11-22).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받은 제자들은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발설하게 하신대로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했다. 원어적으로나 계속되

5) 회심과 연관된 성령님의 다른 사역들은 기름 부으심(요일 2:27), 인치심(엡 1:13), 보증하심(엡 1:14) 등이다. 또한 성도들의 순종과 비례해서 나타나는 성령님의 사역들은 인도하심(행 8:29), 기쁨(살전 1:6)과 능력(롬 15:13) 등이다.

는 이하 구절들을 참고해 볼 때 제자들은 이전에 결코 공부한 적이 없는 실제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기적적인 능력을 부여받은 것이 분명하다. 그 방언(언어)은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이상한 말이나 무아지경에서 내뱉는 말이 아닌 세상 어느 지역에서 당시에 사용되고 있는 명백한 언어였다. 이 방언의 은사는 여러 표적 중의 하나였거나 아니면 사도들이 전파하는 복음진리를 증거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곤 했던 기사 중에 하나였을 것이다(히 2:3,4). 사실상 그 당시에는 신약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었다. 따라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지금으로써는 이같은 기적의 은사의 필요성이 거의 사라졌다고 우리는 믿는다(물론 하나님의 성령의 주권적인 의지에 따라 하나님은 지금도 이같은 방법을 동원하실 수 있으시다).

오순절 날 일어났던 방언 사건은, 방언이 성령의 은사들을 선물로 받는데 있어 필수적인 증거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만일 방언이 성령 받은 증거로 나타난 것이었다면 왜 우리는 그같은 이유로 사용된 다른 언급들을 발견할 수 없는 것인가?

- (1) 3,000명의 회심 사건은 어떤가(행 2:41)?
- (2) 5,000명의 회심 사건은 어떤가(행 4:4)?
- (3) 성령을 받은 사마리아인의 경우는 어떠한가(행 7:17)?

사실상 사도행전에서 방언이 언급된 곳은 다음과 같은 경우이다.

- (1) 고넬료 집에서 이방인의 회심 사건(행 10:46).
- (2) 에베소에 있는 요한의 제자들의 재침례 사건(행 19:6).

4절로 넘어가기 전에 우리는 성령세례에 관한 주제는 성경학자들 간에 숙고할 만한 차이점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성령세례를 받은 결과에 관한 의견도 분분하다.

성령세례가 일어난 회수와 연관해서 몇몇 사람들은 다음과 같이 믿고 있다.

(1) 오순절 날 단 한 번만 일어났다는 견해-그리스도의 몸은 바로 그때 형성되었고 그때로부터 모든 신자는 세례의 영향권에 들게 되었다는 주장이다.

(2) 3,4단계를 거쳤다는 견해-예컨대 오순절 날(2장), 사마리아(8장), 고넬료의 집(10장), 에베소(19장) 등에서 단계적으로 일어났다는 주장이다.

(3) 사람이 구원받을 때마다 성령세례를 받는다는 견해

개인적인 삶에 영향을 끼치는 면과 연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일반적인 회심 사건 이후에 발생하는 ‘제2의 은혜 사역’이 있으며 그것은 다소간에 완전 성화를 가져온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견해는 성경적인 지지가 매우 빈약하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대로 성령 세례는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갖는다.

(1) 믿는 성도들을 교회의 지체로 가입시킨다(고전 12:13).

(2) 믿는 성도들에게 능력을 부여해 주는 성령의 역사이다(행 1:8).

2:5-13 경건한 유대인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당시에 전 세계로 알려진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다. 예루살렘에서 발생한 성령강림에 대해 들었을 때, 그들은 사도들이 체류하고 있는 집으로 모여들었다.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를 목격하게 되자 그들은 매료당하고 말았다.

큰 무리가 그 집에 도착할 즈음에 사도들은 이미 방언을 말하고 있었다. 방문자들은 이 갈릴리 사람들이 다양하게 외국어를 구사하는 것을 보고 크게 놀라며 들었다. 그러나 그같은 기적은 목격자들이 아닌 그곳에 사도들과 함께 한 사람들에게만 일어났다. 청중이 동서남북 어느 지역에서 왔든지 간에 모든 방문객들은 각각 자기 나라 언어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큰일을 듣게 되었다.

오순절 날 방언의 은사를 주신 목적은 동시에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위함이었다는 견해가 폭넓게 받아들여진다. 실제로 한 저술가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하나님은 한 특정 국가에 하나의 언어로 된 당신의 율법을 주셨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족속에게 각 언어로 당신의 복음을 주셨다.”

그러나 위와 같은 개념이 본문에 내포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사실상 방언을 말했던 사람들은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했다(2:11). 그런데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한 표적으로써(고전 14:21-22) 그들이 크게 흥분하고 놀라도록 의도되었던 것이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베드로는 대부분이 알아들을 수 있었던 한 언어로 복음을 증거했다.

방언을 들었던 방문자들 사이의 반응은 가지각색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한편에서 ‘사도들이 새 술에 취한 것이 아니냐’고 비아냥거리는 태도와는 달리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제자들은 진정 자신의 능력을 초월한 어떤 영향력 아래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술이 아닌 성령의 영향력이었다.

중생하지 못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영적 현상을 자연적으로 해석하려 든다. 실례로, 한 때 하나님의 목소리가 하늘로부터 들려 왔

을 때 사람들은 그것이 천둥소리였다고 단정지었다(요 12:28-29). 이제 이곳의 불신자들은 성령의 강림으로 인해 흥분된 상태를 보고 새 술에 취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이러한 현상에 관한 스킨러(Schiller)의 논평은 숙지할 만하다.

“세상은 흔히 빛나는 물체를 퇴색시키기를 좋아하고 존귀한 것을 흠먼지 속으로 끌어당기기를 좋아하는 법이다.”

2:14 맹세와 저주의 말들로 주님을 부인했던 제자가 이제 군중들에게 설교하기 위해 나아가고 있다. 그는 더 이상 겁 많고 머뭇거리는 추종자가 아니라 사자처럼 용맹스럽고 강인한 사람이 되었다. 오순절의 경험이 이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킨 것이었다. 베드로는 이제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시겠노라고 약속하셨다(마 16:19). 이제 여기 2장에서 우리는 베드로를 사용하여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한 문을 열고 계심을 목격한다(14절).

그 후 10장에서 그는 다시금 이방인들에게 그 열쇠를 사용하여 문을 열게 된다.

2:15 무엇보다도 사도 베드로는 오순절 날의 비상한 사건은 새 술에 취한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설명한다. 사실 당시 시각은 오전 9시 경이었는데 이처럼 이른 시간에 그 많은 사람들이 술 취해 있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였다. 또한 유대인들은 명절 기간에는 오전 10시가 되기 전에는 먹고 마시는 것을 금지하는 회당 규례를 준수하고 있었다. 매일 드리는 상번제가 마쳐지는 시간까지 혹

은 경우에 따라 오후까지도 먹고 마시는 것을 금하기도 했다.

2:16-19 오순절 날에 제자들이 경험했던 신비한 사건에 대한 진정한 해석은 선지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부어졌기 때문이었다.

오순절 사건은 선지자 요엘을 통한 예언의 완전한 성취는 아니었다. 본문 17-20절에 묘사된 대부분의 현상들이 오순절 날의 체험 당시에는 모두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오순절에 일어났던 일들은 장차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 곧 말세에 일어날 사건들의 전조(前兆)였다. 만일 요엘이 예언한 내용들이 오순절 날 완전히 성취되었다면 왜 3장 19절과 같은 약속이 후에 주어진 것일까? 다시 말하면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국가적으로 회개하고 자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을 영접한다면 그분께서 왜 주의 날에 다시 오사 여러 징조들을 베풀 것이라고 말했겠는가 말이다. 요엘서의 인용구절들은 이중 예언 성취법의 한 실례이다. 이는 과거 한때 그 내용이 부분적으로 성취되었고 후에 그 내용이 완전히 성취되는 성경 예언을 가리킨다.

하나님의 성령은 오순절 날에 부어졌으나 모든 육체에 부어진 것은 아니었다. 그 예언의 최종적인 성취는 대환난 기간 중에 일어날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재림 전에 하늘에 기사(奇事)와 지상에 징조(徵兆)가 있을 것이다(마 24:29-30). 주 예수 그리스도는 그때 지상에 나타나사 주의 대적을 밟으시고 주님의 나라(왕국)를 설립하실 것이다. 천년왕국 초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모든 육체, 즉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막론하고 부어질 것이다. 그리고 본 구절에 언급된 상태가 천년왕국 전 기간에 걸쳐 온 세상에 충만하게 나타날 것

이다. 성별, 나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의 다양한 나타나심이 있을 것이다. 예컨대 지식의 습득을 제시해 주는 환상과 꿈이 있을 것이고 타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는 예언이 있을 것이다. 또한 계시의 은사와 상호교제가 충만하게 드러날 것이다.

이 모든 사건은 요엘이 묘사한 대로 말세에 발생하게 될 것이다 (17절). 물론 이같은 예언은 말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결코 교회에 주어진 것은 아니다.

2:20 하늘에 있을 초자연적인 징조는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발생할 것임을 명백히 밝혀준다. 본문에서 ‘주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재림을 가리키는 말로써 그분은 대적을 멸망시키려고 지상에 재림하여 능력과 큰 영광으로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다.

2:21 베드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는 약속의 말씀으로 요엘서의 인용을 끝맺고 있다. 이 약속은 만세대를 위한 복음인바, 구원은 주님을 믿는 만민에게 주어질 것이다. “주의 이름”이란 표현은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전부 내포하는 말이다. 그리고 그분의 “이름을 부른다”는 의미는 주님을 믿음의 참 대상이요 구원의 유일한 길로써 그분을 부르는 것을 가리킨다.

2:22-24 그렇다면 도대체 주님은 누구이신가? 베드로는 계속해서 충격적인 소식을 선포하기를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았던 이 예수가 공히 주와 그리스도이시라고 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제일 먼저 예수의 생애를 언급하였다. 그리고 이어

그분의 죽음, 부활, 승천을 증거한 후에 마지막으로 성부 하나님께 우편에 계신 그분의 영화로우심을 선포했다. 만일 청중이 예수님이 아직까지 유대에 있는 무덤에 계실 것이라는 환상을 가졌다면 분명코 베드로의 설교는 그들의 그릇된 생각을 단번에 일깨웠을 것이다! 청중들은 그들이 살해했던 예수께서 지금은 부활해서 하늘에 계시다는 사실을 들어야 했다. 주님께 관한 일이 그분의 죽음으로써 결코 다 끝난 것이 아님을 그들은 깨달아야 했다.

여기서 사도 베드로의 논리 전개에 흐름을 볼 수 있다. 즉 나사렛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많은 기사를 베푸심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사람이심을 확증한 분이시다.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손에 예수를 내어주었다. 그러자 유대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 위해 무법자들인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었다(23절). 그러나 하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그분을 살리사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주셨다.⁶⁾ 그분께서 사망 가운데 수감자로 붙잡혀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하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부활을 요구하셨다. 예수는 죄 없는 분으로서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대한 당신의 완전한 만족을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 예수를 살리셔야만 했다.

(2) 예수의 부활에 관한 구약성경의 예언들이 예수의 부활을 요구한다. 이것이 베드로가 다음 구절들에게 특별히 강조하고자 한

6) '고통'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일반적으로 고역(苦役)을 가리킨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죽음에서 생명의 출생으로 비유된다. 제반 고통은 심도 깊은 것이었으나 일시적인 성격이었다. 시편 18편 5절에서는 동일한 표현이 '음부의 고통'으로 사용되었다(우리말 성경에는 '음부의 줄로 나와 있음).

점이다.

2:25-27 시편 16편에서 다윗은 주님의 생애, 죽음, 부활, 그리고 그분의 영화롭게 되심에 관하여 예언적인 기록을 하였다.

주님의 생애에 대해서 다윗은 성부와 더불어 방해받지 않는 친교 가운데 사셨던 그분에 관한 무한한 확신과 신뢰를 묘사하였다. 마음, 입술, 그리고 육체, 즉 그분의 전 인격이 기쁨과 희망으로 충만하였다.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임을 예견했다.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후, 주님의 몸은 무덤에 있었을지라도 그분의 영혼은 하늘로⁷⁾ 올라가셨다(눅 23:43).

2:28 주님의 부활에 대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생명의 길을 보이실 것임을 확신에 차서 말했다. 시편 16편 11절 상반절에서 다윗은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라고 썼다. 그런데 본서 2장 28절 상반절에서 베드로는 이 구절을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라고 인용했다. 베드로는 이 과정에서 “보이시니”라는 미래 시제를 “보이셨으니”란 과거시제로 바꾸었다. 성령께서 명백히 베드로를 인도하여 이같이 인용하게 했는데 그 이유는 주님의 부활이 이제 과거사가 되었기 때문이다.

구세주의 현재 영광은 다윗의 다음과 같은 말에 예견되어 있다.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또한 시편 16편 11절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

7) 낙원은 삼층천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었다(고후 12:24).

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2:29 이같은 상태에 관한 다윗의 말이 그 자신에 관한 언급일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다윗의 몸은 썩었기 때문이라고 베드로는 논박하고 있다. 사실 다윗이 묻힌 무덤의 위치는 당시 유대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었다. 따라서 그들은 다윗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지 못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었다.

2:30-31 다윗이 시편을 썼을 때 그는 선지자로서 말했던 것이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 자손 중의 한 사람을 죽음에서 일으키사 영원히 그 보좌에 앉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음을 기억하였다. 다윗은 이 한 사람이 장차 메시아이실 것이고 비록 그분이 죽을지라도 그분의 영혼은 지옥에 내버려지지 않고 그분의 육신도 부패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인식하였다.

2:32-33 베드로는 유대 청중들이 충격을 받을만한 내용을 반복해서 말한다. 다윗이 예언했던 메시아가 바로 나사렛 예수시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는데 이는 사도들이 모두 증거할 수 있는 사실이었다. 사도들 모두가 주님의 부활의 목격자들이기 때문이다. 부활에 연이어 주님은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말미암아 높임을 받으셨다. 그리고 지금은 아버지로 말미암아 약속된 성령을 받게 되었다. 이것이 당시 예루살렘 교회 초기에 일어났던 사건에 관한 해석이었다.

2:34-35 다윗조차도 메시아의 승귀(昇貴)를 예견하지 않았던가!

다윗은 자신에 관해 시편 110편 1절에서 말한 것이 아니었다. 대신 그는 여호와께서 메시아에게 말하듯이 인용하고 있다. “내가 네 원수로 네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본문 33-35절에 그리스도의 영화롭게 되심과 재림하여 대적들을 심판하시고 그분의 왕국을 세우시는 것 사이에 다소 대기하는 시간이 있음을 예견한 점은 주목할 만하다.)

2:36 다시 한 번 유대 사람들의 정곡을 찌르는 말씀선포가 이어진다. “너희가 십자가에 처형한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라.” 벵겔(Bengel)이 지적한 것처럼 그는 “끝으로 설교의 일침을 가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기쁨부음 받은 자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지만 성령의 강림은 예수께서 하늘에서 존귀를 얻으셨음을 증거해준다.

2:37 청중들로부터 적극적인 반응이 있을 정도로 죄를 깨닫게 하는 성령의 능력은 막강하였다. 베드로가 어떤 구원의 초청이나 간청을 하지 않았어도 그들은 “우리가 어찌하여야 하리이까?”라고 울부짖었다. 이 질문은 실로 깊은 죄책감에서 나온 말이었다. 그들은 지금 자신들이 살해한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이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지금은 하늘에서 존귀를 얻으신 것이다. 사건 전모가 이러할진대 이같은 살인범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모면할 수 있겠는가?

2:38 베드로는 답변하기를 그들은 ‘회개해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야’ 한다고 하였다. 첫째로 그들은

회개해야 했다. 즉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온갖 본성에 대항하여 하나님 편에 서야 한다.

그때서야 그들은 죄를 사함 받기 위해 세례를 받을 수 있었다. 얼핏 보면 이 구절은 마치 세례를 통한 구원을 가르치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다수의 사람들이 이 구절이 그같은 생각을 지지해 준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같은 해석은 다음과 같은 이유들을 살펴볼 때 가능성이 없다.

(1) 신약성경 중 수많은 구절이, 구원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을 수 있음을 가르친다(요 1:12; 3:16,36; 6:47; 행 16:31; 롬 10:9 참조). 한 두 구절로 이처럼 방대한 증거 구절들을 반박할 수 없다.

(2) 십자가의 강도는 세례와 상관없이 구원의 확신을 소유했다(눅 23:43).

(3) 구세주께서 어느 누구에게도 세례를 베풀었다는 기록이 없다. 만일 세례가 구원의 필수요소라면 이는 이상한 생략이 아닐 수 없다.

(4) 사도 바울은 자신이 소수의 고린도 교인들에게 세례를 주었음에 대해 감사드렸다. 만일 세례가 구원받는데 큰 장점으로 작용한다면 바울의 감사는 이상한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오직 유대인에게만, 죄사함을 받으려면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언급이 있다는 것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행 22:16 참조). 이것은 본문을 이해하는 열쇠이다. 이스라엘 민족은 영광의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 유대인들은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마 27:25).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죽인 죄값을 스스로 감당하겠다고 요청하였다.

이제 유대인 중에 몇몇이 자신의 큰 잘못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들은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께 범죄하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하여 자신의 구세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들은 거듭나게 되었고 영원히 죄사함을 받았다. 이제 공적인 세례의식을 통하여 그들은 자신들을 주님을 못 박은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탈퇴하여 이제 주님과 함께 연합되었다는 점을 고백하였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의 세례는 자신의 개인적인 죄는 물론 민족적으로 그리스도를 거절한 죄가 다 씻음 받았다는 것에 대한 외적인 표식이었다. 실로 세례는 그들을 유대교 땅에서 뽑아 기독교 터전에 심게 하였다. 그러나 결코 세례가 그들을 구원하지 못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만이 구원을 가능케 하였다. 이처럼 이신칭의(以信稱義) 교훈이 아니면 그것은 다른 복음이요, 그같은 그릇된 교훈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갈 1:8-9).

‘죄사함을 받게 하는 세례’에 관한 라일(Ryrie)의 또다른 해석을 참조해 보자.

“본문은 죄가 용서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신약성경 곳곳마다 죄는 세례를 받는 결과로써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가진 결과로써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문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세례 받게 되었다는 말이다. 헬라어 전치사 에이스(*eis*)는 이곳 뿐 아니라 마태복음 12:41에서도 사용되었는데 그 의미는 ‘...때문에’(because of)란 의미를 갖는다. 따라서 마태복음 12장 41절은 ‘그들이 요나의 전도 때문에(‘위하여’가 아님) 회개하였다’라고 해석될 수 있다. 요컨대 회개는 오순절 날에 모인 군중들에게 죄사함을 가져왔다. 그리고 죄사함을 얻었기 때문에 그들은 세례를 받으라고 요청받았다.”⁸⁾

베드로는 그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라고 확신시켜 주었다. 이같은 순서를 오늘날에도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초대교회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오해한 것이다. 바커(H. P. Barker)가 ‘그리스도의 대리자’(The Vicar of Christ)라는 저서에서 잘 지적했듯이 사도행전에는 세 부류의 신자 공동체가 있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일과 연관된 사건의 순서는 제각기 다르다. 본문 2장 38절에서 우리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보게 된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받은 순서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회개→(2) 물세례→(3) 성령을 받음.

사마리아인의 회개는 사도행전 8장 14-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들이 성령 받은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그들이 믿었다→(2) 그들이 물세례를 받았다→(3) 사도들이 그들을 위해 기도했다→(4) 사도들이 그들에게 안수했다→(5)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사도행전 10장 44-48절에서는 이방인의 회심이 나타나 있다. 이곳에 나타난 순서를 주목하라.

(1) 믿음→(2) 성령을 받음→(3) 물세례(침례).

신자들의 마지막 공동체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사도행전 19장 1-7절을 보면 그들은 아래와 같이 성령을 받았다.

(1) 그들이 믿었다→(2) 그들이 재차 세례를 받았다→(3) 사도

8) Charles C. Ryrie의 저서 *The Acts of the Apostle*, p. 24를 참고하라.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했다→ (4)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그렇다면 이같은 구분이 사도행전에는 네 가지 구원방법이 기록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가? 물론 그렇지 않다. 구원은 과거나 현재, 그리고 미래에도 오직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을 근거로만 얻게 된다. 하지만 사도행전에 기록된 과도기 동안에 하나님은 성령을 받는 것과 관련해서 다양한 사건을 선택하셨다. 그리고 그 이유는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시며 우리에게는 비밀에 붙여 두셨다.

그런데 이같은 여러 실례 가운데서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되는 경우는 어떤 것인가?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그리스도를 거절한 이래로 유대 사람들은 그들이 이전에 소유했음지도 모를 어떤 특권들을 상실케 되었다. 그리고 오늘날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을 위한 백성으로서 이방인을 부르고 계신다(행 15:14).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에게 모범이 되는 실례는 사도행전 10장에서 발견되는 순서이다.

(1) 믿음→ (2) 성령받음→ (3) 물세례(침례)

이같은 순서는 오늘날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에게도 적용된다고 우리는 믿는다. 이 말이 독단적인 말처럼 들릴지 모른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지도 모른다. “언제부터 사도행전 2장 38절의 순서가 유대인들에게 적용되는 것이 끝나고 이제 사도행전 10장 44-48절의 순서가 적용되기 시작했단 말인가?” 물론 정확한 시기를 말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사도행전은 일차적으로 유대인을 향한 복음의 확장으로부터 유대인들에 의해 복음이 거절당함, 그리고 그 후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데까지의 전 과정에 대한 점진적인 전환을 그리고 있다.

사도행전 끝 부분에 이르면 이스라엘 민족은 복음의 주 전파 대

상에서 확실히 제외되어 있다. 믿기 어렵게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선민으로서의 어떤 특권을 상실당했음을 목격하게 된다. 요컨대 교회시대가 도래하면서 이스라엘은 이방인과 동등하게 취급당하게 되었고 따라서 사도행전 10장 44-48절에 나타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경륜의 순서가 유대인에게도 적용되게 된 것이다.

2:39 베드로는 다음으로 성령의 약속이 유대인과 그 후손들, 그리고 모든 먼 데 사람들인 이방인들, 심지어는 얼마든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자들을 위해 주어지는 것임을 그들에게 상기시키고 있다.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라고 외쳐왔던 바로 그 사람들, 지금은 그들과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확신하게 되었다. 만일 그들이 주님을 믿고 영접하기만 한다면 말이다.

이 구절은 성도의 자녀들이 자동적으로 구원받게 된다고 주장하는 그릇된 가르침을 위한 근거 구절로 오해되어 왔다. 차제에 이 문제에 대한 스펀전(Spurgeon)의 적절한 답변을 들어보자.

“하나님의 교회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요 3:6)고 하는 사실을 알지 못한단 말인가? 누가 부정한 것으로부터 정결한 것을 가져올 수 있겠는가? 본성에 의한 출생은 본성적인 욕망과 교류한다. 하지만 그 본성적인 욕망은 결코 평안을 가져올 수 없다. 새 언약 하에서는 다음과 같은 선언만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요 1:13).”⁹⁾

주목해야 할 중대한 사실은 ‘약속’이 단지 ‘너희와 너희 자녀’ 뿐

9) Charles H. Spurgeon의 저서 *The Treasury of the New Testament* 1권, p. 530을 보라.

만 아니라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는 점이다. 복음의 초청은 ‘누구든지’라고 표현할 만큼 광범위하다.

2:40 본장에 베드로의 메시지 전체가 기록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나머지 설교의 요점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유대 청중들은 주 예수를 거절하고 살인한 구부러지고 패역한 세대로부터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예수를 자신의 메시아와 구세주로 영접하므로, 그리고 더 나아가 민족적인 이스라엘의 죄악과 단절된다든 공적표시로서 그리스도인의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었다.

2:41 거기에 엄청난 동요가 일어나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받기를 갈망하였다. 이 열망은 베드로의 말을 주의 말씀으로 ‘기쁘게’ 받았다고 하는 외적 증거였다.¹⁰⁾

그는 3000명가량 되는 사람들이 믿는 성도의 무리에 더하게 되었다. 만일 성령 사역의 확실한 증거가 영혼의 회심이라고 할 것 같으면, 그렇다면 베드로의 사역은 바로 그같은 사역의 확실한 본이었다. 의심할 바 없이 이 갈릴리 출신 어부는 주 예수의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마 4:19)는 말씀을 기억했을 것이다. 또한 아마도 구세주의 다음 말씀도 기억했으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요 14:12). 회심자의 숫자를 3000명‘가량’이라고 표현한 것은 교훈적인 말로써 살펴볼 만하다. 주님의 모든 종들은 소위 그리스도

10) 비평본문(NV)은 ‘기쁘게’란 말이 생략되어 있다.

를 영접했다고 하는 결신자 수를 헤아리는데 있어 이같은 주위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2:42 유대인들의 회심이 진실했음이 계속적으로 입증되고 있다. 이 회심자들은 신앙고백의 진정성을 다음과 같은 일을 힘씀으로써 증명하였다.

(1) **사도의 가르침**-이 말은 처음에는 구두(口頭)로 증거되었다가 지금은 신약성경으로 보존되어 있는 사도들의 영감 받은 가르침을 의미한다.

(2) **교제**-새 생명을 가진 또 다른 증거는 새 신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어울리고자 하고 그들과 소유물을 나누고자 하는 갈망이다.

(3) **떡을 떼**-이 표현은 신약성경에서 공히 주의 만찬과 일반 음식을 먹는 두 경우에 사용되었다. 따라서 그 특별한 의미는 명백하게 주의 만찬을 가리키는 말로 사용되었다. 그들이 계속해서 음식을 먹었다고 하는 말을 구태여 언급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20장 7절로부터, 초대교회의 예식은 매주일 첫날 떡을 떼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배우게 된다. 초대교회 당시 다른 성도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써 애찬(love feast)이 주의 만찬과 더불어 행해졌다. 그러나 아가페 혹은 애찬에 대한 남용이 문제가 되어 결국 잘 지속되지 못한 것 같다.

(4) **기도**-기도는 초대교회의 중요한 실행 중 네 번째 원리로서 예배, 인도, 보존, 봉사에 대해 철저하게 주님을 의존한다는 표현이다.

2:43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 사람들 중에 임하였다. 성령의 탁월한 능력이 너무도 확실히 증명되자 사람들의 마음은 차분히 가라앉았다. 사도들이 행하는 기사와 표적을 보았을 때 그들의 영혼은 크게 충격을 받았다. 기사(wonders)가 경이로움과 놀람으로 흥분하게 만드는 기적이라면, 표적(signs)은 교훈을 전달해 주고자 고안된 기적이었다. 이렇듯 기적은 기사와 표적 둘 다를 내포하는 말이다.

2:44-45 신자들은 지속적으로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였다.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마음에 임하였고, 그 때문에 그들은 자기 재산과 소유물을 자신의 것으로 주장하지 않았다(4:32). 교제권 가운데 진정한 필요가 요청될 때마다 그들은 개인의 재산을 팔았고 그 수입을 분배하였다. 그런 까닭에 성도들의 삶의 질이 균등하였다.

신앙을 소유한 사람들 가운데 마음과 관심의 일치가 나타났다. 그리고 자신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사랑이 타락한 본성에서 나온 이기심을 지배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모든 소유를 함께 나누되 어떤 법이나 외적 강요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것을 실행하였다. 사실 외부적인 강요와 같은 인위적인 방법들은 사랑의 봉사란 본 의도를 망쳐버리게 만들 것이다. 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이 주님께 어떠한 존재들이었는가에 대한 깨달음과, 반대로 자신들에게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셨는가에 대한 인식 때문에 그같은 사랑의 나눔을 실천할 수 있었다.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 결코 감소될 수 없는 복으로 충족하였다. 따라서 그들이 그 복을 나누면 나눌수록 그 복을 더욱더 소유하고 누릴 수 있었다. “그들은 자신들의 소유물과 재산을 팔았고 필요에 따라 그것을 모두에게 분배했다.¹¹⁾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우리는 이같은 초대교회 실천 사항들을 본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사람이 자신만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할 바에야 차라리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처럼 자신의 전 재산과 사적 소유물을 나누는 일은 성령 충만한 삶의 필수적인 열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참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이 너무 적게 소유하고 있을 때 자신은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을 견딜 수 없어 한다.”

2:46 이 구절은 오순절 성령강림의 효과가 신앙생활과 가정생활에 영향을 끼쳤음을 보여준다. 신앙생활 면에서, 우리는 이같은 초대교회 개종자들이 유대주의 배경을 가진 자들이었음을 기억해야 한다. 비록 교회가 현존하고 있긴 하지만 유대교 성전과의 관계가 엄격하게 정리되지는 못하고 있었다. 사실상 유대교 수의(壽衣)를 벗어던지는 과정은 사도행전 전 기간을 통해서 지속되었다. 따라서 믿는 성도들은 아직도 예배드리기 위해 성전에 모였고¹²⁾ 그곳에서 그들은 구약성경을 봉독하고 그 말씀에 대한 해석을 청종하였다. 덧붙여 그들은 42절에 열거된 기능을 위하여 각 가정에서도 함께 모임을 가졌다.

가정생활 면에서, 우리는 그들이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었음을 읽는다. 여기서 ‘떡을 떼는’ 것은 일반적인 식사를 지칭하는 것이 분명하다. 이제 구원의 기쁨이 그들의 매일의 삶속에 흘러 넘쳤고, 현세의 삶은 영광으로 아름답게 단장되었

11) F. W. Grant의 저서 *The Numerical Bible* 중 사도행전 부분을 보라.

12) 우리는 바울과 그의 일행이 성전에 들어갔다는 표현을 읽을 때마다 그것은 성소가 아닌 성전 뜰을 가리킨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 당시는 단지 제사장들만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이방인들은 성전 바깥뜰(outer court)에 들어가는 것만 허락 받았다. 그 이상 들어가면 곧바로 돌로 쳐 죽임을 당해야 했다.

다.

2:47 인생은, 어두움의 권세에서 구출되어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에 들어간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찬송의 노래와 감사의 시가 되었다.

처음으로 성도들은 온 백성에게 칭송을 들었다. 하지만 이같은 환대는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의 본질은 어쩔 수 없이 인간의 마음에 위배되고 배척을 당하도록 되어 있는 법이다. 사실상 주님은 제자들에게 세상 명성을 추구하지 말도록 경고하면서(눅 6:26) 도리어 핍박과 환난을 약속하였다(마 10:22-23). 이같은 칭송은 그런 까닭에 일시적이었고 곧이어 잔혹한 반대와 핍박이 그 칭송을 대신하게 된다.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그 교회에 더해 주셨다. 그리스도인의 교제권이 계속 성장해 갔다. 그런데 복음을 들은 사람들은 확고한 의지를 드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책임이 있었다. 주님의 선택과 구원받는 숫자를 더하심에 있어 결코 인간의 책임이 배제되지 않는다.

본장에서 우리는 성령강림, 유대인을 향한 베드로의 탁월한 설교, 큰 무리의 개종, 그리고 초대교회 신자들의 삶에 관한 기록 등을 갖게 된다. 이중 마지막 부분에 관한 훌륭한 요약이 “브리태니커 백과사전”(Encyclopaedia Britannica, 제13판)에 ‘교회사’란 제목 하에 이렇게 기술되어 있다.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있어 특기할 만한 사항은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생생한 인식이었다. 그들의 사고에서 그리스도인 교회는 인간적, 제도적이 아닌 신적(神的)인 것이

었다. 그 교회는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하였고 하나님의 통제를 받았다. 그리고 세상조차도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고 믿었다. 이와 같은 사상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의 개인생활 및 사회생활 전반을 지배하였다. 그들은 스스로를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사람으로 여겼고 그들 간의 특별한 연대감과 소속감을 공유하였다. 그들의 시민권은 지상이 아닌 하늘에 있었다. 그리고 하늘로부터 온 영적 원리와 법칙에 기꺼이 순복하였다. 현세는 단지 일시적이었고, 그들의 진정한 삶은 미래에 속한 것이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장차 재림하실 것을 신앙했다. 현재의 일과 노고, 그리고 쾌락은 영원한 것에 비교할 때 별로 큰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리스도인의 매일의 삶 속에 성령이 임재하였고, 그리스도인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살았다. 이같은 믿음 때문에 그들의 삶은 열정적이었고 점차 그들은 신령한 성품으로 변화되어 갔다. 그들은 평범한 사람들의 통상적인 경험이 아닌 자신들로부터 해방되어 더 높은 경지에서 이른바 신령한 삶을 영위하였다.”

이같은 기사를 살펴보는 이유는 오늘날 현대교회가 얼마나 초대교회의 열정과 삶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반성해 보기 위함이다.

☞ 가정교회와 교회 밖의 단체들

사도행전에서 교회(헬, 에클레시아)라는 용어는 2장 47절에서 최초로 사용되었다.¹³⁾ 여기서 잠시 초대교회의 교회 중심성에 대해 상고해 보자.

사도행전과 신약성경 나머지 서신서 등에 나타난 교회는 종종 가

13) 비평적인 사본에는 교회가 사도행전 5장 11절에 처음으로 언급되어 있다(우리 말 성경도 동일하다).

정교회로 불리는 교회였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특별한 예배당으로서의 건물보다는 일상적인 집에서 주로 모였다. 초대교회 기독교는 특이하게 신성한 장소에서 탈피하여 이제 우주적인 삶의 공간인 가정이 중심지가 되었다.

가정이 2세기 동안 그리스도인 모임의 장소로 사용되었다고 언저(Unger)는 언급했다.¹⁴⁾

개인의 가정이 모임 장소로 사용된 것은 영적인 숙고의 결과이기보다 경제적인 필요를 감안한 결론이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다. 우리는 예배당 사용에 너무 익숙해진 나머지 그같은 건물 사용이 하나님의 이상적인 계획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1세기 신자들이 우리보다 더 지혜로웠다는 이유가 몇 가지 있다.

첫째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필요가 요청되는 시기에 현란한 건물을 짓기 위해 엄청난 물질을 투자하는 것은 결코 그리스도인의 믿음이나 사랑 실천에 부합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서 스텐리 존즈(E. Stanley Jones)는 아래와 같이 지적한 바 있다.

“나는 로마 성당 내부에 값비싼 보석으로 단장한 아기 그리스도의 동상을 본 후, 성당 밖 길거리에서 굶주린 아이들을 쳐다보았다. 그때 나는 주님께서 과연 길거리의 불쌍한 아이들을 지켜보면서 자신의 동상에 덧입힌 보석을 만족해 하셨을까 잠시 생각해 보았다. 그리고 만일 주님께서 그같은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셨다면 더 이상 그리스도를 목상하는 것이 즐거움이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나는 결론지었다. 보석을 입힌 아기 예수 동상과 굶주린 아이들은, 인간사회에 존재하는 근본적인 잘못을 방관한 채 성당과 예배당을 초호화

14) Merrill F. Unger의 사전인 *Unger's Bible Handbook*, p. 586을 보라.

관으로 치장하는 등 주님의 주변을 더럽힌 행위들에 대한 상징이다. 사실상 주님은 실직당하고 소유가 없어 굶주린 채 관심밖에 있는데 말이다.”¹⁵⁾

일주일에 기껏해야 5-7시간 사용하는 건물에 것처럼 많은 재물을 투자하는 행위는 비인간적이고 비경제적인 처사이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이처럼 무상(無常)한 꿈의 세계, 즉 너무도 작은 보상을 위해 너무나도 큰 투자를 기꺼이 하려는 헛된 생각의 세계에 빠져 들었는지 모른다. 사실상 대규모 건축시설 및 부대시설 비용은 교회 인도자들로 하여금 모임의 분가와 교회 개척의 노력을 부담스럽게 생각하도록 만들었던 것이다. 어떤 의미로든 성도 수의 감소는 예배당 건축과 그 유지에 필요한 수입원을 위협할 것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불신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훌륭한 건물을 소유해야만 한다고 주장하곤 한다. 이같은 생각이 육신적인 사고라고 하는 문제는 접어두고라도 명백하게 그것이 신약의 모범을 간과한 것만은 사실이다. 초대교회 모임들은 성도들에게 폭넓게 열려 있었다. 그들은 함께 모여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교제를 나누었고, 떡을 떤었으며, 또한 함께 기도하기를 힘썼다(행 2:42). 주일에 불신자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증거하기보다 그들은 주간 중에 접촉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였다. 이 방법으로 사람들이 회심하게 되면 그때 그들은 교제권 안으로 인도되었고, 그곳 가정교회의 따뜻한 온기가 그들을 격려하고 양육하였다.

엄숙한 교회 예배에 사람들을 초청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형식적인 모임에 반발심을 갖는 법이다. 또한

15) E. Stanley Jones의 저서 *Christ's Alternative to Communism*, p. 78을 보라.

현금 강요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도 있다. “교회가 원하는 전부가 바로 나의 돈이다”라는 것이 통상적인 생각이다. 하지만 이같은 오해를 하는 사람들도 가정에서 갖는 대화식 성경공부에는 마음이 열려 있다. 가정에서 모이는 틀에 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분위기에 쉽게 동화되는 것이다.

실제적으로 가정교회는 모든 인종과 문화를 뛰어넘는 이상적인 형태의 모임이다. 만일 우리가 전 세계를 살필 수 있다면, 우리는 어떤 다른 모임의 형태보다도 가정 집회의 모임을 더 발견하게 될 것이다.

고도의 기술과 조직화된 교단총회, 선교본부, 그리고 교회 밖의 각종 단체들 뿐 아니라, 오늘날의 웅장한 성당이나 예배당 건물과는 대조적으로 사도행전에 나타난 사도들은 주님의 사역을 수행할 목적으로 어떤 종류의 조직단체도 만들려고 하지 않았다.

지역교회는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을 전파하기 위한 하나님의 단위였고, 제자들은 그 교회 안에서 사역하는 것으로 만족하였다.

최근 기독교에서는 각종 조직단체를 만드는 것이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어떤 그리스도인이 기독교의 진보를 위한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질 때마다, 그는 새로 선교회나 협력단체 혹은 신학교를 창설한다.

그 결과 유능한 성경교사나 설교자가 그들이 우선적으로 했던 사역 일선에서 떠나 행정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만일 모든 선교단체 임원들이 사무실에서 떠나 선교지에서 사역한다면, 선교지에서의 인력난은 크게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각종 기독교 단체의 확산으로 말미암은 또 다른 결과는 거액의 재정이 직접적인 복음전도 보다는 간접비용으로 사용된다는 것이

다. 수많은 기독교 단체에 기부된 굉장한 현금이 애초에 단체 설립의 근본목적을 위해 쓰이기보다는 그 단체를 유지하는 비용으로 더 투자되고 있다.

기독교 각종 단체들은 때로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성취함에 있어 일종의 걸림돌이다. 예수께서는 자신이 명령했던 모든 것을 가르치도록 제자들에게 명령하셨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기독교 단체를 위해 일하는 많은 일꾼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모든 진리들을 가르치도록 허락받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한다. 그들은 어떤 논쟁이 될 만한 성경의 주제를 가르칠 수가 없는데 그 이유는 재정적인 보조를 바라는 고객 교회들로부터 외면당하거나 거절당할까봐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기독교 단체들의 배가(倍加)는 종종 그리스도인들 간의 다툼, 질서를 가져왔고, 또한 그리스도인의 간증에 치명적인 해악을 가져오는 경쟁의식을 불러 일으켰다.

“직장이나 가정, 그리고 해외 사역을 위한 각종 기독교 단체들의 배가로 인한 중복현상을 생각해 보라. 각 기관들은 제한된 인력을 끌어들이고, 재정의 원천이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쟁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비록 하나님의 뜻을 따라 진행한다고 공표(公表)한다고 할지라도 그 많은 단체 중에서 순수하게 경쟁하는 곳이 얼마나 되겠는가?”(성서 유니온 발행 ‘매일의 노트’에서).

흔히 기독교 단체들은 본래 존재 이유를 상실한 후에도 오랫동안 존속할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다. 비록 창시자들의 비전은 사라지고 한때 활력 있던 운동의 영광은 사라졌다 할지라도 그 단체의 수

레바퀴는 힘겹지만 돌아갈 수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시점에서 기억해야 할 진리가 있다. 즉,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님의 사역을 수행하기 위해 인간조직을 형성하지 않았던 것은 그들의 무식이나 그들이 고지식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영적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말이다. 랭(G. H. Lang)은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사도들의 사역과는 상반되는 현대 선교 방법론을 주장하는 한 영리한 저술가는 ‘우리는 선교를 창설했고 사도들은 교회를 창설했다’고 말했다. 얼핏 이같은 구분은 건전해 보이고 의미심장해 보인다. 사실상 사도들은 교회 이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았다. 교회보다 더 적합한 것은 없었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사역했던 각 지역에서 사도들은 회심자들로 지역교회를 형성하였다. 그리고 각 교회에는 주님에 의해 자격을 인정받고 성도들에 의해 인식되어진 장로들(결코 단수가 아닌 복수 장로를 두었음)을 두어 그들로 하여금 모임을 인도하고 치리하며, 목양하도록 하였다(행 14:23; 15:16; 20:17; 빌 1:1; 고전 16:15; 살전 5:12-13; 딤펴전 5:17-19). 또한 거기에는 모임 성도들에 의해 지명 받은 집사들이 (장로들의 경우와는 다름) 중차대한 교회의 실제 현안을 다루었고, 특히 모임 재정을 관리하고 분배했다(행 6:1-6; 빌 1:1).… 사도들이 조직한 것이라고는 단지 주의 제자들을 모아 또 다른 교회를 이루는 것이었다. 요컨대, 신약성경에는 지역교회 외에 다른 어떤 조직은 나타나지 않으며 더 나아가 지역교회보다 한걸음 더 나아가 어떤 종류의 조직 형태는 더더군다나 발견되지 않는다.”¹⁶⁾

초대교회 그리스도인과 사도들에게 있어 회중은 하나님의 사역

16) G. H. Lang의 저서 *The Churches of God*, p. 11를 보라.

을 위해 지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신적 임명 단위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약속하신 유일한 신적 임명 단위는 바로 교회뿐이었다. ♠

5. 치료받은 앓은뱅이와 이스라엘을 향한 베드로의 고소(3:1-26).

3:1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을 올라간 때는 오후 3시경이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초대교회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교회가 형성된 후에도 얼마간 성전 예배에 참석하였다. 이때는 갓 태어난 교회의 적응기요 과도기로서 유대교는 금방 붕괴하지 않았다. 따라서 현 그리스도인들이 당시 그들의 실례를 추종하는 것이 합당하지 못한 이유는, 오늘날 우리는 완전한 신약성경이란 계시를 소유하고 있으며, “그 능욕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라는 권면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히 13:13; 고후 6:17-18 참조).

3:2 사도들이 성전에 가까이 갔을 때, 그들은 미문(美門)이라 불리는 성전 문으로 불구자 거지를 메고 오는 사람들을 보았다. 출생시부터 앓은뱅이가 된 소망 없는 그 사람의 상태는 실로 아름다운 성전의 건축양식과 대조를 이루고 있었다. 이것은 거대한 성당의 짙은 그림자 속에 드리워진 빈곤과 무지를 우리에게 생각나게 한다. 또한 신체적, 영적 불구자들을 돕겠다고 하는 휘황찬란한 예배당과 그 조직의 무력함을 역설적으로 대변해 준다.

3:3 그 앓은뱅이는 자신의 병을 치료받겠다는 어떤 소망도 완전

히 상실한 채 하루하루 그렇게 구걸하면서 생명을 연장하고 있었다.

3:3 이 사람을 한 소망 없는 불행한 인간으로 보는 대신에, 베드로는 그를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을 나타내 보여줄 사람으로 바라보았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끌림을 받는다면, 우리는 불붙은 빈 탄약통에 관심을 갖거나 허공을 때리는 행위 같은 일을 그만 두게 될 것이다. 반면 그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려는 사람들을 주목하게 될 것이다”(신앙지에서 발췌).

“우리를 보라”는 베드로의 명령은 베드로와 요한을 공적으로 과시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단순히 구걸자의 관심을 집중시키기 위함이었다.

3:5-6 그때까지도 물질적인 동정만을 기대했던 그 불구자는 이제 비로소 사도들을 쳐다보았다. 그때 그는 자신에게 실망과 흥분의 감정을 교차시켜주는 한 뜻밖의 선포를 들었다. 물질적인 동정에 관한 베드로는 그에게 아무것도 주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그것보다 더 고귀한 무엇을 그에게 선물하였다. 베드로는 그 불구자에게 “나사렛 예수의 권세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하였다. 유머가 많은 어느 설교자는 “불구자 걸인은 자선금(alms)을 요청했으나 대신 두 다리(legs)를 얻게 되었다”고 익살스럽게 언급했다.

한번은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가 엄청난 현금 계산을 방금 전에 마친 교황을 방문했다고 한다. 그 때 교황은 자랑스럽게 “우리는 더 이상 베드로처럼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라고 말할 필요가 없게 되었소”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는 곧바로 “물론 베드로

처럼 ‘일어나 걸으라’고 말할 수도 없겠지요”라고 답변했다고 한다.

3:7 베드로가 그 사람을 도와주자 무기력했던 발과 발목에 큰 힘이 들어갔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 생활의 중요한 교훈을 재차 상기하게 된다. 즉 영적 생활에는 하나님의 역사와 인간의 책임이 신비하게 얽혀 있다는 점이다. 요컨대 베드로는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도록 도와주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질병을 치료해 주셨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대한으로 해야 한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것이다.

3:8 치유의 기적은 점차적이 아니라 일순간에 일어났다. 하나님의 성령이 그 치료에 대해 어떻게 표현했는지를 주목해 보라. “뛰어서서 걸으며…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유아들의 느리고 고통스러운 걸음마 과정을 감안해 볼 때 이 불구자가 처음부터 걷고 뛰었다는 사실은 실로 경이로운 기적이 아닐 수 없다.

예수의 이름으로 베풀어진 이 기적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죽음에서 살아나셨고, 그 뿐만 아니라 기꺼이 그들의 치료사와 구세주가 되셨다고 하는 사실을 한층 더 드러내 주는 간증이다.

3:9-10 이 거지가 매일 성전 문 앞에 앉아 있었다고 하는 사실은 그를 더 주목받는 사람으로 만들었다. 그런데 지금 그가 병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이 기적의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게 되었다. 모든 백성들은 이 가공할 만한 기적이 실제로 발생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같은 기적이 뜻하는 바가 무엇이란 말인가?

3:11 고침을 받은 그 앓은뱅이가 자신을 치료해 준 의사격인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을 때에 모든 사람들이 성전 내에 있는 솔로몬 행각(行閣)으로 그들에게 모여들었다. 군중들이 크게 놀라 주목하는 것이 오히려 베드로에게는 설교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하였다.

3:12 베드로는 치료받은 사람과 사도들을 주목하는 군중들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전환시켰다. 사실 백성들 중에 어느 누구도 이 기적에 대한 올바른 해석을 할 수 없었다.

3:13-16 재빠르게 베드로는 기적의 진정한 주관자를 그들에게 소개한다. 그분은 바로 유대인들이 배척하고 부인하고 급기야는 죽였던 예수이셨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천국에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제 예수를 통하여 나온 믿음이 절망 중에 처한 이 걸인을 완전히 치료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을 책망하면서 증거한 베드로의 담대한 설교는 탁월한 설교가 아닐 수 없다. 그는 다음과 같이 그들의 죄를 고소하였다

- (1)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예수를 심문하도록 넘겨주었다.
- (2) 그들은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심한 것을 그 앞에서 반대하였다.
- (3) 그들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부인하고 도리어 살인자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간청하였다.
- (4) 그들은 생명의 주를 죽였다.

반대로 예수를 향한 하나님의 환대를 주목하라.

(1) 그분은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셨다(15절).

(2) 그분은 그분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13절).

마지막으로 이 신유의 기적에 대한 해석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강조한 점을 주목하라(16절). 다른 부분과 마찬가지로 이 구절에 나타난 ‘그 이름’은 ‘그분’을 지칭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그분의 이름 안에 있는 믿음’(faith in His name)이란 표현은 곧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faith in Christ)이란 뜻을 갖고 있다.

3:17 베드로의 어조가 본절에서는 명백히 이전과 다르게 나타난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 예수를 죽였노라고 고소했던 그는 이제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형제로 표현하고 있다. 그는 그들이 알지 못해서 그같은 행위를 했던 것이라고 은혜롭게 인정하면서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촉구한다.

유대인들이 무지 가운데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베드로의 언급은 얼핏 보기에 모순처럼 보인다. 주님께서 메시아로서의 충분한 신임을 받지 않으셨던가? 그분께서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경이로운 기적을 향하지 않으셨던가? 그분께서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그들의 반발을 사지 않으셨던가? 물론, 그 모든 질문은 맞는 말이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에 관한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지한 자들이었다. 그들은 메시아가 연약한 은혜의 방법이 아닌, 막강한 군사력을 소유한 구원자로 출현하기를 고대했었다. 따라서 그들에게 있어 예수는 단지 험잡꾼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다.

그들은 주님께서 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

했다. 그들은 아마도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래서 구세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이렇게 기도했던 것이다. “저희는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눅 23:34). 그리고 바울은 후에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으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고전 2:8).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용서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다 용서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들은 증거하고 있다.

3:18 베드로는 이스라엘인들의 죄를 심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그들의 무지를 사용하셨다고 지적하고 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해 받으실 일을 예언하였다. 유대인들은 주님께 십자가의 고통을 가한 사람들이었다. 그러나 지금 주님은 그들에게 주와 구세주로 자신을 드러내고 있다. 그분을 통해서만 그들은 죄의 용서를 받을 수 있었다.

3:19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하여 완전히 전향해야 한다. 그들이 그같이 할 때, 그들의 죄는 사함 받을 것이고, 유쾌하게 되는 날이 올 것이다.

이같은 메시지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증거되었음을 기억해야 한다(12절). 이는 민족적인 회개가 민족적인 회복과 축복보다 선행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해 준다.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라는 표현은 다음 구절에서 언급되듯이 장차 세워질 그리스도의 지상왕국이 가져올 축복과 연관되어 있다.

3:20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회개에 이어 하나님께서 메시아 예수를 보내실 것이다. 앞에서 지적한 바처럼 이 말씀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지상에 천년왕국을 세우실 사건과 관계되어 있다.

3:21 이 시점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떠오를 것이다. “만일 이스라엘이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회개했다면, 주 예수께서 지상에 재림하셨을 것인가?” 위대하고 경건한 분들도 이 주제에 대해서는 각기 다른 견해를 갖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회개했다면 곧바로 주님께서 재림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지 않았다면, 그 약속은 진실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 다른 사람들은 이 본문을 예언적인 내용으로 받아들여 장차 일어날 일로 생각한다. 그러나 이같은 질문 자체가 단순히 가설에 전제하고 있다. 사실상 이스라엘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고 주 예수께서도 오시지 않았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리스도를 거절할 것을 예견하셨고 현재는 은혜의 시대로써 주님의 재림 이전에 있는 막간의 기간이라는 사실이 21절 내용을 볼 때 극명해진다. 하늘은 그리스도께서 만유(萬有)를 회복하실 때까지 받아들여야 한다. ‘만유를 회복하실 때’는 장차 있을 천년왕국을 가리킨다. 이 말씀은 몇몇이 주장하듯이 결코 만인 구원론(Universal Salvation)을 가리키지 않는다. 성경에는 만인 구원론 같은 가르침이 없다. 오히려 이 말씀은 온 창조계가 타락의 속박으로부터 구출될 때가 있음을 지적해 준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의 왕으로서 의의 통치를 실현할 것임을 지적해 준다.

이 회복의 때는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에 의해 예언된 시기였다. 21절은 환난 전 휴거(Pretribulation Rapture) 이론을 논박할 목적으로 사용되곤 하였다. 만일 하늘이 예수를 천년왕국의 시초까지 받아두어야 한다면, 그때는 주님께서 천년왕국이 될 때까지 교회를 하늘에 데리고 가기 위해 오실 수 없다는 논쟁이다. 물론 이같은 논박에 대한 대답은, 베드로가 여기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해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12절). 주님은 여기서 이스라엘을 국가적으로 다루시는 문제를 거론하고 계신다. 이스라엘 국가에 관한한 주 예수님은 하늘에 머물러 계실 것이다. 그러나 이 교회시대 동안에 주님을 개인적으로 믿은 유대인들은 순식간에 일어날 교회의 휴거시에 믿는 이방인들과 함께 복을 누리게 된 것이다. 또한 휴거 중에 주님께서 하늘을 떠나지 않고 우리는 공중에서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다.

3:22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통치를 대망하는 하나의 구약 예언의 실례로써, 베드로는 신명기 18장 15,18,19절을 인용한다. 그 본문은 주 예수를 이스라엘의 황금기에 하나님의 뜻과 율법을 선포했던 하나님의 선지자로 묘사하고 있다.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라고 모세가 말했을 때, 그가 ‘같다’(likeness)고 하는 의미는 성격이나 능력이 동일하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 세움 받았다는 측면에서 같다고 하는 뜻이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던 것처럼 그분을 또한 세우실 것이다”는 의미이다.

3:23 그리스도의 지상 통치 기간 중에 그분의 말씀 듣기를 거절하고 불복종하는 자들은 누구나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물론 오늘

날도 그분을 불복종하고 거절하는 자들은 영원한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 본문의 일차적인 의도는, 그리스도께서 장차 철장의 권세를 갖고 통치할 것이고 그같은 주님의 권위를 거스르고 불복하는 자들에게 형벌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3:24 회복기가 확실히 예언되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베드로는 사무엘로부터 그 뒤를 이어 예언한 모든 선지자들도 한결같이 ‘이 때’를 말했다고 덧붙였다.

3:25 이제 베드로는 이 때의 복에 관한 약속이 선지자들의 자손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 성취되었노라고 청중들에게 상기시킨다. 결국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어 그의 씨, 즉 그리스도로 인해 땅위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였다. 그런 까닭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해야만 했다.

3:26 하나님께서 이미 ‘그 종을 세우시고’(3:13),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먼저 그 아들 예수를 보내셨다. 이 말은 주님의 부활보다도 오히려 그분의 성육신과 그분의 지상생애와 연관된 내용이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을 영접했다라면, 그분은 각각 그들을 악한 행실로부터 돌아서게 하셨을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증거된 베드로의 설교 중에서 우리는 교회보다도 나라(왕국)에 관한 전망을 주목하게 된다. 또한 개인보다도 국가적인 정황에 더 강조점이 있음을 보게 된다. 하나님의 성령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비로 오래 참았고, 영화로우신 주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도록 자신의 백성들에게 호소하셨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상왕국 건설을 연기하기도 하셨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분과 그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6. 박해와 교회 성장(4:1-7:60)

4:1-4 유아기 교회를 향한 핍박이 최초로 가해질 무렵이었다. 그 핍박은 마치 정형화된 것처럼 종교 지도자들 가운데서 시작되었다. 예컨대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대적하여 일어났다.

스크로기(Scroggie)는 제안하기를, 제사장들은 종교적인 편견을, 성전 맡은 자는 정치적인 적대감을, 그리고 사두개인들은 합리주의적 불신을 각각 상징한다고 했다. 아무튼 사두개인들은 부활의 교리를 부정하였다. 그들의 이같은 태도는 주님의 부활이 사도들의 설교의 중심이 된 이후로 사도들과 더불어 자주 공개적인 투쟁을 초래하게 하였다. 스펀전(Spurgon)은 여기 두 견해간의 팽팽한 대립을 직시하였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두개인들은 개방파요 자유주의자들이고 당대 진보주의 사상가들이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쓰디쓴 냉소와 신랄한 풍자 혹은 잔인한 행동을 원한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 넓은 마음의 신사들을 추천합니다. 그들은 진리를 굳게 붙들고 있는 사람만 아니라면 누구에게나 자유스럽게 대해줍니다. 하지만 그들은 진리를 믿는 자들에 대해서는 쓴 나물과 쓸개즙보다도 더 쓰디쓴 맛을 비축해 두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자신들의 형제적

인 오류자들에게는 너무 관대한 나머지 복음 전도자들에 대해서는 인내할만한 여지를 두지 못하고 있습니다.”¹⁷⁾

이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에 분개했다. 그들은 백성을 가르치고 선도하는 일이 자신들만의 엄숙한 특권이라고 느꼈다. 또한 그들은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고 하는 선포에 대해 분노를 느꼈다. 만일 예수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사두개인들은 백성들로부터 불신을 당하게 될 것이다.

2절에 나타나 있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이라는 표현은 의미심장한 말이다. 이 표현은 세상 마지막에 모든 사람이 부활하게 되리라는 통상적인 생각을 반박하기 때문이다. 이 본문과 다른 곳에서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을 지지하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사람들은 부활하게 될 것이지만 다른 불신자들은 최후 심판의 순간까지 무덤에 머물게 될 것이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잡아 다음 날까지 집에 가두기로 결정하였다. 밤이 어두워졌기 때문이었다(3장에 나타난 병 고침의 기적은 오후 3시경에 일어났었다).

공공연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 5천명 가량의 남자(헬, ‘안드레스’로서 ‘남자들’이란 뜻)가 그리스도인의 교제권 속으로 들어왔다고 언급되어 있다. 이 제자가 오순절 날 구원 받은 3천명을 포함한 것이냐의 여부에 대해서는 주석가들 사이에도 의견이 분분하다. 어쨌든 간에 이 5천명이란 숫자 속에는 여자들과 아이들이 제외되어 있다.

17) Charles H. Spurgeon의 사도행전 4장 1-4절에 대한 언급을 참조하라.

4:5-6 이튿날 산헤드린으로 알려져 있는 공회원들이 일종의 재판관의 자격으로서 이같은 공해(公害)를 주는 활동을 저지시킬 의도로 자리에 앉았다. 그러나 이같은 일련의 행사들은 사도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를 제공하였다. 관원과 장로와 서기관들이 함께 모인 곳에는 아래와 같은 인물들이 배석하였다.

(1) 대제사장 안나스-주님께서 붙잡히셨을 때 이 사람 앞에 서 계셨었다. 그는 전직 제사장이었으나 아마도 예우 차원에서 대제사장 타이틀을 그대로 갖고 있었던 것 같다.

(2) 가야바-안나스의 사위로서 주님을 재판하는 일에 사회를 맡은 자였다.

(3) 요한과 알렉산더-특별히 알려진 바가 없는 인물이다.

(4) 대제사장의 문중-대제사장의 후손들을 가리킨다.

4:7 재판은 사도들에게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그같은 기적을 행했느냐는 그들의 질문으로 시작되었다.

금번 베드로의 공적 고백은 그가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 그리스도를 믿노라고 한 세 번째의 그것이었다. 실상 종교 기득권을 가진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값으로 헤아릴 수 없는 기회였다. 그는 담대하고 열정적으로 복음을 증거해 나갔다.

4:8-12 먼저 그는 사도들이 ‘병인에게 착한 일’을 했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의 기분이 상했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비록 베드로가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병 고침을 받은 그 사람은 분명 성전 문

에서 그들에게 도움을 요청했을 것이지만 그들은 그를 치료하지 못했을 것이다. 그때 베드로 사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이 치료를 받았노라고 청천벽력(靑天霹靂) 같은 메시지를 선포하였다. 요컨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를 살리셨고’, 병든 자가 고침 받은 기적은 오직 예수의 능력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다.

유대인들은 그들의 건축 공간 중 예수에게 아무런 여지를 주지 않았고 급기야 그분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사 하늘에서 그분을 영화롭게 하셨다. 이제 그들이 ‘버린 돌’이 건축을 완성하자면 절대 필요한 ‘모퉁이 돌’이 되었다. 진정 주님은 절대 필요한 분이시다. 그분이 없이는 결코 인간의 구원이 성사될 수 없다. 그분은 유일한 구세주 이시다. 천하에 다른 이름이 구원을 위해 주어지지 않았다. 우리가 구원을 얻으려면 오직 그분의 이름으로만 가능하다.

본문 8-12절을 읽을 때 우리는 이같은 설교가, 세 번씩이나 맹세와 저주의 말로 주님을 부인했던 바로 그 사람의 입술에서 나왔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

4:13 메마르고 형식적인 종교는 결코 마음과 삶을 변화시키는 열정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신앙전도를 참아내지 못한다. 다른 사람들의 영육간의 문제를 전혀 해결하지 못하는 자들에 반해, 이 학문 없는 범인들이 유대인 사회에 그같은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목도하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은 큰 곤혹스러움을 느꼈다.

신약성경에서는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의 구분을 두지 않는다. 이같은 구분은 로마 교회로부터 물려받은 한 잔재물이다. 요한 후스

(John Huss)는 체코슬로바키아에서 모든 신자들의 제사장직 교리를 고수하다가 순교당하였다. 그리고 현대에 있어 후스파의 상징은 바로 열린 성경 앞에 있는 만찬예식의 잔이다.

초대교회의 활력은 바로 전 성도의 제사장 직분과 전도의 삶을 고수하는데 있었다. 어떤 현대 장비나 교통수단, 그리고 번역본이나 출판 인쇄물의 도움 없이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은 전 로마제국을 뒤흔들었는바 심지어 가이사 황제의 가족 중에서도 믿는 성도가 있을 정도였다. 하나님은 우리가 초대교회의 원리로 복귀하기를 원하신다.¹⁸⁾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거리낌 없이 말하는 것을 보고 적잖은 충격을 받았다. 그들은 이 둘을 학문 없는 자들이요 갈릴리 출신의 무식한 어부들로 치부해 버리고자 했다. 그러나 이들의 자제력, 능력 있는 생활, 담대함 등은 반대자들로 하여금 예수의 심문당할 때의 어떤 모습을 생각나게 만들었다. 그들은 사도들이 이처럼 담대한 이유가 그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기 때문일 것이라고 단정지었다. 그러나 사실상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4:14-18 게다가 법정에 그 고침 받은 불구자가 있는 것이 그들을 당혹스럽게 만들었다. 아무래도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점을 부인할 길이 없었다. 조위트(J. H. Jowett)는 다음과 같이 썼다.

“사람들은 교묘한 논증을 당신 앞에 펼쳐 보일 수 있다. 때로 지적인 논증으로 당신이 쉽게 패배당하는 고통을 당할 수 있다. 그리할지라도 구속받은 사람의 논증은 난공불락(難攻不落)이다. ‘그들과

18) James A. Stewart의 저서 *Evangelism*, p. 95를 보라.

함께 서 있는 병 고침 받은 사람을 보는 동안, 대적자들은 그것을 대항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¹⁹⁾

반격을 위한 전략회의를 위해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잠시 동안 밖에 머물도록 했다. 종교 지도자들의 딜레마는 이것이었다. 즉, 그들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일을 빌미로 사도들을 심판할 수 없었다. 그러나 만일 그들이 이같은 광신적인 행위를 중단시키지 않는다면, 유대교는 심각한 위협을 받게 될 것이었다. 그래서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 예수에 관하여 사람들에게 사적이든 공적이든 간에 증거하는 것을 금하게 하자고 결의하였다.

4:19-20 베드로와 요한은 이같은 제재(制裁)에 동의할 수 없었다. 그들의 일차적인 충성심과 책임감의 대상은 하나님이지 사람이 아니었다. 만일 그들이 정직했다면, 그 통치자들이 이같은 내용을 수긍했어야 했다.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부활과 승천을 증거하였다. 그들은 매일매일 주님의 가르침 속에서 살았다. 그들은 주님이자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할 책임이 있었다.

4:21-22 이 권세자들의 무력함은, 그들이 사도들을 심판할 수 없었다는 사실 속에 밝히 드러난다. 모든 사람들이 이 은혜스러운 기적이 사실이라고 믿게 되었다. 사십여 세나 된 그 병 고침 받은 사람은 워낙 잘 알려져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오랫동안 불쌍한 처지로 삶을 연명해 왔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사도들을 위협하면서 풀어줄 수밖에 없었다.

19) J. H. Jowett의 저서 *The Redeemed Family of God*, p. 137을 보라.

4:23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함을 소유한 사도들은 종교 당국자들이 방면하자마자 곧바로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로 직행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죽인 것이 바로 자신들의 죄였노라고 고백하는 성도 무리들과 더불어 교제 나누기를 갈망하였다. 이렇듯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인가의 여부는 그가 어디서 누구와 더불어 교제하기를 원하는가를 보면 판명되는 법이다.

4:24-26 성도들은 사도들로부터 그간 발생한 일들에 대한 전문을 듣고 나자 주님께 무릎 꿇고 간절히 부르짖었다. 이때 그들은 신약에서는 좀처럼 사용되지 않았던 ‘절대주권자’란 의미를 함축하고 있는 ‘하나님’이란 칭호를 쓰면서 주님을 만유의 창조주로서 찬송하였다. 요컨대, 이 고백은 지금 주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피조물들보다 주님이 훨씬 뛰어나신 존재라는 의미이다.

그때 그들은 시편 2편에 있는 다윗의 글을 인용했는데, 다윗은 거기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세상의 군왕들에 관해 언급하였다. 사실상, 이 시편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왕국을 세우실 때와, 군왕과 관원들이 그 주님의 목적을 훼방하게 될 시기를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당시의 환경이 그 내용과 유사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그 말씀을 자신들에게 적용했던 것이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들은 자신들의 기도 중에 성경을 적절히 인용함으로써 깊은 영성을 보여 주었다.

4:27-28 시편 인용구에 대한 그들의 적용이 다음에 나타나 있다. 예루살렘 바로 그 장소에서 로마인들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종²⁰⁾ 예수를 합동하여 대적하였다. 헤롯은 유대인을 대표했고, 빌라도는 이방인을 대표하는 자들이었다. 하지만 28절에는 놀라운 결말이 기록되어 있다. 사람들은 이 군왕들이 자신들의 사악한 계획에 따라 함께 집결했을 것으로 언급되기를 바랬을 것이다. 하지만 거기에는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예정된 것을 행하기 위해 함께 모였노라고 기록되었다.

마테손(Matheson)이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했다.

“본문이 내포한 사상은 하나님의 뜻을 대적한 군왕들의 노력이 오히려 동맹자들에게 큰 타격이 되었음을 입증했다는 것이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대적할 목적으로 전략회의를 가졌다. 그러나 무의식적으로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증진시키는 조약을 체결하고 말았다. … 우리 하나님은 자신을 대적해서 일어나는 폭풍우를 잠재우지 않으신다. 도리어 그 폭풍우의 기류를 타시고, 그것을 통하여 당신의 뜻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²¹⁾

4:29-30 하나님의 탁월한 통치력을 인식하면서 성도들은 하나님께 세 가지 특별한 간청을 올렸다.

(1)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그들은 하나님께 이 사악한 무리들을 어떻게 처벌해 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 다만 그 문제들을 전적으로 주님께 의탁할 뿐이었다.

(2)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여 주옵시며”-그들은 개인적인 안전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말씀 선포를 담대히 하

20) 여기서 사용된 ‘종’은 헬라어 ‘파이스’(pais)의 번역 용례 중의 하나로 문맥상 잘 번역되었다(3:13,26, 4:30 참조). 때로 ‘파이스’는 어린 아이를 지칭하기도 한다(마 21:15 참조).

21) George Matheson의 저서 *Rest By the River*, p. 75-77를 참고하라.

는 일이 가장 중차대한 관건이었다.

(3)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초대교회 복음 전파는 예수의 이름으로 행해진 표적과 기사를 통하여 하나님에 의하여 증명되었다. 여기서 그들은 이 방법으로 사도들의 사역을 지속적으로 확증해 주시도록 하나님께 간구하였다.

4:31 그들이 기도를 마치자 함께 모여 있는 곳이 진동(震動)하였다. 이는 당시에 임재했던 영적 권능에 대한 물리적인 표현이다.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는 주님께 대한 그들의 굴복된 심령과 순종을 드러내 주고, 그들이 빛 가운데 견고 있었음을 지시해 준다. 그들은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는데, 이는 29절에 나타난 기도의 명백한 응답이었다.

사도행전에는 사람이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표현이 일곱 번 나온다.

- (1) 말하기 위하여(2:4, 4:8, 4:31)
- (2) 섬기기 위하여(6:3)
- (3) 목양을 위하여(11:24)
- (4) 책망하기 위하여(13:9)
- (5) 죽기 위하여(7:55)

4:32-35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으로 불타오르자, 성도들은 서로를 향해서 사랑이 뜨거워졌다. 이 사랑은 주는 행위로 표현되었다. 이렇듯 초대 그리스도인들은 모임의 유익을 도모함으로써 주안에서 소유한 하늘 생명의 실재를 드러내었다. 그들은 개인의 소유를 이기적으로 움켜잡는 대신에, 자신의 소유물들을 모든 교제

권에 속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어디든 필요가 요청되는 곳에 대해, 그들은 밭과 집을 팔아 그 값을 분배하도록 사도들에게 가지고 나왔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주었다”는 사실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한번의 특별한 시기에 그것을 임의대로 균등히 분배하지 않았다. 그랜트(F. W. Grant)는 이를 적절하게 묘사하였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일반적인 개인 신분의 포기가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소유물을 되돌려 받지 못할 것임을 알고도 행하는 참 사랑의 실천이 있었다. 또한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사 가신 하늘나라에서 참된 소유를 얻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그들의 마음에 충만하였다.”²²⁾

근래에 비록 신랄한 비평이기는 하나 슬프게도 아주 적중하고 있는 내용을 마쉬(M. E. Marsh)는 이렇게 꼬집었다.

“오늘날의 기독교를 초대교회와 대조시키면서 어떤 사람은 말했다. ‘만일 누가복음서 기자가 초대교회 대신에 현대교회를 기술했다면, 그는 사도행전 4장 32-35절의 내용을 이렇게 바꾸었을 것이다. ‘신앙을 고백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돌같이 굳은 마음과 영혼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리고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신이 소유한 재물은 모두가 자기 것이라고 고백하였다. 그들은 세상에서 인기 있는 사람들로서 모든 귀중품을 갖고 있었다. 또한 그들은 큰 권능을 가지고 이 세상에 속한 매력과 장점을 증거하였으며, 극도의 이기주의가 그들 중에 팽배하였다. 왜냐하면 땅을 소유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한 더 많은 땅을 사들였기 때문이다. 물론 그들은 공익사업

22) Grant의 저서 *Acts*, p. 34를 보라.

을 위해 소량의 기부금을 내기는 하였다. 그럴 때면 그 기증자의 이름은 곧바로 신문지상을 통해 범인에게 소개가 되었다. 그리고 칭송의 분배가 원하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제공되었다.”²³⁾

당시 주님께 헌신한 사람들의 삶을 살펴볼 때 거기에는 신비한 능력이 있었다. 따라서 우리가 33절에서 읽은 내용은 결코 우연의 일치가 아니다. 아무튼 자신의 소유물을 주님께 기꺼이 헌신한 사람들을 발견하자, 하나님은 그들의 삶과 간증을 탁월하고 힘있게 만들어 주셨다.

많은 사람들이 이같은 물건 통용은 초대교회의 일시적인 삶의 모습일 뿐, 오늘날 우리가 따라야 할 본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그같은 변명은 단지 우리가 소유한 영적 빈곤을 폭로할 뿐이다. 만일 우리가 중심에 오순절의 능력을 소유했다면, 우리도 삶 속에서 오순절의 결과들을 가져야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라이리(Ryrie)는 지적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공산주의’가 아니다. 소유물에 대한 처분은 철저히 자원함으로 이루어졌다(34절). 다시 말하면, 사유재산권이 철폐되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교회 공동체는 물건이 사도들에게 자원함으로 드러지기 전까지는 그 돈을 관리하지 않았다. 또한 동등한 분배가 실행되기보다는 필요에 따라서 지출이 되었다. 따라서 이것은 공산주의의 원리가 아니다. 이 모델은 기독교가 최고로 발휘할 수 있는 기독교 자비 행위 바로 그것이었다.”²⁴⁾

33절에 언급된 훌륭한 교회의 두 가지 표지(標識), 즉 큰 권능과 큰

23) F. E. Marsh의 저서 *Fully Furnished*, p. 74를 보라.

24) Ryrie의 저서 *Acts*, p. 36을 보라.

은혜를 주목해 보라. 하브너(V. Havner)는 여기에 4개를 덧붙였다. 즉, 큰 두려움(5:5,11), 큰 핍박(8:1), 큰 기쁨(8:8, 15:3), 믿는 큰 무리(11:21)가 그것이다.

4:36-37 이 구절들은 서론적으로 5장을 자연스럽게 연결해 준다. 바나바의 관대한 태도는 아나니아의 외식적인 행위와 대조를 이룬다. 바나바로 일컬어진 요셉은 레위인으로서 그가 땅을 소유했다는 것은 다소 기이한 현상이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친히 레위인의 기업이 되셔야 했기 때문이다. 어쨌든 우리는 그가 어떻게, 왜 그 땅을 소유하게 되었는지 그 배경은 모른다. 하지만 우리는 사랑의 법이 이 ‘위로자’의 삶 속에 능력 있게 역사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결국 그는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그 값을 내어놓았다.

5:1-4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역사하면, 사단도 비슷하게 그 능력을 위조하고 부패시키며, 다툼을 일으킨다. 하지만 진정한 영력이 있다면 그 같은 사기(詐欺)와 외식은 곧바로 폭로될 것이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분명 바나바의 관대한 헌신과 다른 성도들의 충성심에 큰 감동을 받았을 것이다. 아마도 이 둘은 그같은 친절한 행위로 인해 사람들의 칭송을 듣기 원했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소유를 팔아 사도들에게 그 값의 일부를 드렸다. 요컨대, 그들의 죄는 단지 일부를 드리면서 전부를 바친 것처럼 거짓말한 것에 있었다. 사실상, 아무도 그들에게 소유물을 팔라고 요청하지 않았다. 그것을 판 후에도 그들은 그 판매 수입 전부를 드릴 의무를 갖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그들은 실제로는 그 값의 상당수를 소유한 채 그 값 전부를 헌신한 것처럼 속였던 것이다.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성령을 속이고 있노라고 정죄하였다. 사실상 성령을 속인다는 것은 곧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는 것이다. 성령은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5:5-6 이 시점에서 아나니아가 엎드려졌고, 젊은 사람들이 무덤에 장사지내기 위해 메고 나갔다. 이 사건은 초대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엄숙한 징계 행위였다. 이 징계는 아나니아의 영원한 안전에 관한 그의 구원의 문제가 취소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 교회 속의 최초의 범죄 행위에 대한 혐오를 보여준다. 리차드 베워(Richard Bewes)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어떤 주석가가 주석했듯이 아나니아 아니면 성령 둘 중에 하나가 떠나야 했다. 이렇듯 초대교회의 교제권은 그같은 거짓이 공존할 수 없을 정도로 극도의 순결을 갖고 있었다.”

5:7-11 세 시간쯤 지나 삼비라가 나타났을 때, 베드로는 그녀에게 주의 영을 시험하는 죄에 그 남편과 공모했다고 정죄하였다. 그러자 곧바로 그녀가 엎드려져 죽었고, 사람들이 무덤으로 시신을 옮겼다.

이 부부를 향한 베드로의 심판 선언의 능력은 사도들에게 부여된 특별한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의 한 실례에 불과하다. 아마도 이 기적의 사건은 “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고 한 주님의 약속의 성취였을 것이다(요 20:23). 덧붙여 육신을 멸하기 위해 사단에게 범죄한 그리스도인을 내어준 바울의 능력이 진일보한 장면이다(고전 5:15). 그러나 이같은 능력이 사도시대 이후에도 계속 되었다고 말할만한 이유는 없다.

사람들은 교회에 충만한 경외감을 감지할 수 있었는데, 특히 두

사람의 번사(變死)에 관한 소식을 듣고 난 후에 더 그러했다.

5:12-16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후 사도들은 계속해서 기적을 행하였고, 사람들은 솔로몬 행각에 집결하였다. 이렇듯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지력은 생생하였다. 또한 거기에는 사람들이 가법계 성도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진실치 못한 거짓 고백을 할 수 없게 만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칭찬했고, 또한 주님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많았다. 게다가 사람들은 병든 자들을 길거리로 메고 나가서 침상과 자리 위에 눕어 놓고 그곳을 지나가는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기대하였다. 이렇듯 어느 누구든지 간에 사도들의 삶 속에 존재하는 능력의 실재를 목도할 수 있었다. 실로 사도들은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하나님의 통로였다. 예루살렘 근읍에 사는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들린 사람들이 와서는 결국 다 나음을 얻었다. 이와 같은 기적들은 사도들의 복음 증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했던 것이라는 사실이 히브리서 2장 4절에 극명히 나타나 있다. 그런 까닭에 신약성경이 기록된 형태로 완성되자 더 이상 그같은 표적의 필요성은 감소하게 되었다. 현대 주변에서 목격하는 ‘신유집회’에 관해 조언을 한다면, 당시 사도들에 의해 시행된 병 고침의 경우 그들이 ‘다 나음을 얻으리라’는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는 것이다.

5:17-20 참된 성령의 사역은 필수적으로 두 가지 결과를 가져오는 바, 한편으로는 영혼의 회심을 가져오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심각한 적대감을 야기시킨다. 바로 이같은 현상이 이때 발생하

였다. 대제사장(아마도 가야바)과 그의 사두개파 친구들은 예수의 광신적인 제자들이 백성 가운데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분노를 느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로서 자신들만이 누리는 배타적인 역할에 그 어떤 위협에 대해서도 분개하였는데, 특히 그들이 전적으로 부인하는 몸의 부활을 설교하는데 대해 그러하였다.

어떤 물리적인 힘으로도 사도들을 대항할 수 없음을 감지한 그들은 사도들을 체포하여 감옥에 집어넣었다. 그 날 밤 주의 사자는 사도들을 도와 감옥에서 나가도록 인도하였다. 또한 덧붙여 “가서 성전에 가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들에게 전하라”는 주의 말씀을 증거하였다. 누가는 놀라는 기색이 전혀 없이 자연스럽게 주의 천사의 기적적인 개입을 기록한다. 본문 기사엔 사도들이 이같은 사자(천사)의 출현에 대해 충격을 받았다고 하는 어떤 암시도 나타나 있지 않다. 그 사자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이 생명’이라고 적절하게 묘사하였다. 요컨대,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단순히 어떤 신조나 교리 체계가 아니라, 생명 곧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수여되는 주 예수의 부활 생명을 가리킨다.

5:21 사도들은 새벽에 말씀을 증거하였다. 한편, 대제사장들은 공회와 원로(모든 장로들)들과 더불어 비밀회의를 소집하여 감옥에 갇힌 사도들을 자신들 앞에 호출해 오기를 기다렸다.

5:22-25 당황한 경비원들은 죄수들이 사라진 것을 제외하고 감옥에 모든 것이 질서정연하다는 사실을 회의장에 가서 보고해야만 하였다. 옥문은 든든히 잠겨 있었고 간수들은 자신의 위치에 서 있었으나, 그러나 체포해 온 사람들은 감쪽같이 사라져버린 것이다.

실로 낙심천만의 보고였다. “도대체 이 일이 어떻게 된 것이란 말인가?” 성전 책임자와 경비원들은 근심하였다. “이 대중 운동이 도대체 어디까지 갈 것이란 말인가?” 그때 그들의 이같은 질문은 탈출한 죄수들이 다시금 성전에 가서 백성들을 가르친다고 하는 보고 때문에 중단되었다. 우리는 진정 이 사도들의 용기를 칭송해야 하리라. 더 나아가 우리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우리가 확신한 진리를 위해 고난을 감수하려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자세를 본받아야 한다.

5:26 경비원들은 사도들을 공권력을 쓰지 않고 순전히 데리고 왔다. 만일 그들이 예수의 제자들을 공적으로 거칠게 다룬다면, 백성들이 돌을 던지거나 앓을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이제 사도들은 백성들로부터 존경받고 있었다.

5:27-28 여기서 대제사장이 대표자 노릇을 하고 있다.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嚴禁)하지 않았던가?” 그는 의도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지 않고 있다. 그는 또한 사도들의 사역의 효과에 대하여 무의식적인 불평을 했다. 너희가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그러나 실상 유대교 지도자들은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이다”(마 27:25)라고 부르짖었을 때 이미 그같은 행위를 자행한 장본인들이었다.

5:29-32 일전에 사도들은 담대히 말씀을 증거하기 원한다고 하나님께 간구한 적이 있다. 이제 하늘로부터 임한 용기가 충만하여

사도들은, 그들의 의무는 사람을 순종하기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예수를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에 의해 예수께서 부활하셨다고 그들은 단호하게 선포하였다. 또한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예수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음을 그들은 증거하였다. 이제 하나님은 기꺼이 이스라엘 사람들로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사 죄사함을 얻게 하고 계신다. 잠시 목척을 기다듬은 후 사도들은, 자신들이 “이 일에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리하니라”고 덧붙였다.

5:33-37 유대인들은 양심에 깊은 찢림을 받았는데, 그 정도가 심하자 결국 사도들을 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민다. 이 중대한 시기에 가말리엘이 끼어들었다. 그는 이스라엘 랍비 중 가장 탁월한 인물 가운데 하나로서 다소 출신 사울의 스승이기도 했다. 물론 그의 적절한 충고가, 그가 그리스도인이었다는 사실을 가리키지는 않는다. 그것은 단지 한마디로 세상적인 지혜에서 나온 충고였다.

사도들을 잠시 밖에 내보낸 후에, 그는 공회원들에게 우선적으로 이 운동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하지 않았다면 곧 흩어지게 될 것임을 상기시켰다. 이 원리를 근거로 두 가지 실례가 제시되었다.

(1) 지도자로 자처한 드다가 약 사백의 혁명가들을 거느렸으나 그가 죽자 추종자들이 흩어졌다는 이야기.

(2) 또 다른 광신자 갈릴리 유다가 백성을 미혹했으나 그가 망한 즉 그의 추종자들 역시 흩어졌다는 이야기가 그것이었다.

5:38-39 만일 이 그리스도인 종교가 하나님으로부터 유래한 것

이 아니라면, 최선책은 상관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두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곧 그 단체가 소멸되고 말 것이기 때문이다. 오히려 그 종교와 더불어 투쟁하는 것은 그것을 더 확장시킬 뿐이다(그러나 이 논리가 항상 맞는 것은 아니다. 수많은 불경건한 제도들이 수세기에 걸쳐 득세한 바 있다. 사실상 그같은 거짓 종교들이 참 신앙보다도 더 세인의 지지를 얻곤 했다. 하지만 그같은 이론이 사람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과 시간 속에서는 사실이다).

반면에 그 신앙운동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했다면 유대인들이 그 종교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모한 자들이 될 것이다. 가말리엘의 논리가 통치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서 때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못하도록 명령한 후에 놓아주었다. 그 채찍질은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완악한 사람들의 몰상식하고 부당한 반응이었다.²⁵⁾ 구타를 동반한 그들의 명령은 어리석고 무익한 것이었다. 제자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지한 것은 마치 태양을 향해서 빛을 받지 말라는 요구와 진배없는 행위였다.

5:41-42 사도들에게 가한 구타(毆打)는 예기치 못한 두 가지 결과를 초래했다. 첫째로, 그같은 가해 행위는 사도들로 하여금 그들의 이름을 위해 모욕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짐을 기뻐하게 만들었다.²⁶⁾ 둘째로, 이 사건으로 사도들은 새로운 열정과 인내로 날마다 성전에서나 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전파하는 것을

25) 채찍질은 이전의 공회령 명령에 대한 그들의 불순종 행위를 보여준 것이라고 라일(Ryrie)은 지적한다.

26) 사본들 중에는 세 가지 다소 흥미로운 표현이 있다. 즉, 네슬 알란드(NV)에는 ‘그 이름(the Name)으로, TR에는 ‘그의 이름(His name)으로, 그리고 대부분의 사본에는 ‘예수의 이름으로’ 번역되어 있다.

쉬지 않게 되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사단은 자해(自害)하는 실수를 범하고 말았다.

☞ 그리스도인과 정부와의 관계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확장해 나감에 따라 불가피하게 정부당국의 반대를 직면하게 되었다. 특히 당시 민원을 처리하고 재판하는 종교 지도자들로부터의 반대를 무릅써야 했다. 신자들은 이같은 마찰을 대비하되 평안과 품위를 갖고 대처해야 했다.

일반적인 그들의 정책은, 통치자들은 하나님에 의해 임명된 종으로서 일반적인 복지증진을 꾀하는 자들이기에 그 통치권에 복종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바울이 실수로 대제사장을 책망하고 곧이어 그의 신분을 알았을 때 그는 출애굽기 22장 28절의 내용, 즉 “너희 백성의 관원을 비방치 말라”(창 23:5)는 말씀을 인용하면서 정식으로 사과를 했다.

하지만 사람의 법이 하나님의 계명과 상충될 때,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정부의 정책에 불복종하고 그 결과가 어떠하든지 간에 감수해야 했다. 예컨대, 베드로와 요한에게 복음 증거를 금했을 때, 그들은 이같이 답변하였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4:19-20). 또한 베드로와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 가르치는 것에 대해 심문을 받았을 때, 베드로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단호히 대처하였다(5:29).

사실상 초대교인들이 당시 정부를 전복시키려거나 그같은 반역 음모에 동조했었다는 암시는 전혀 없다. 오히려 모진 핍박과 억압

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통치자들의 복지를 빌었을 뿐이었다(26:29).

그들은 정부로부터 호의를 얻고자 어떤 형태의 부정직한 행동도 하지 않았다. 총독 벨릭스는 바울로부터 뇌물을 받고자 기다렸으나 헛수고였다(24:26).

그들은 시민권을 사용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부르심과 부합하지 않는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았다(16:37, 21:39, 22:25-28, 23:17-21, 25:10-11). 그러나 그들은 스스로 이 세상의 정치에 관여하지 않았다. 왜 그랬는가? 이에 대한 설명은 없다. 하지만 이것만은 분명했다. 즉, 그들은 생에 있어 한 가지 목적—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려는 목적만을 소유하였다. 따라서 이 목적을 성취하고자 최선을 다했다. 그들은 복음이 인간의 제반 문제에 대한 유일한 해답임을 믿었다. 그들은 이 확신이 너무 강해서 정치 같은 부차적인 일에 시간을 쓸 겨를이 없었다.

6:1 만일 마귀가 외부공격으로 성공할 수 없다면, 그는 곧 내적 불화로 교회를 전복시키려고 들 것이다. 이 구절이 그에 대한 정확한 실례이다. 초대교회 시대에는 생계수단을 갖지 못한 교회의 불쌍한 과부들에게 매일 생활비를 관례적으로 지급하였다. 헬라어를 사용하는 유대인 출신 신자 중의 몇몇이, 헬라 출신 과부들이 히브리파 과부들(예루살렘과 유대 출신자들)과 동일하지 못한 대립을 받겠다고 불평하였다.

6:2-3 열두 사도는 교회의 수적 증가로 인해 야기된 구제 업무 취급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야겠다는 필요를 인식하였다. 그들은 재정업무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저버리기를 원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교회의 일반적인 업무를 다룰 일곱 명의 영적인 사람을 임명해야 한다고 교회에 의견을 제출하였다.

비록 성경에는 이 일곱 명을 집사로 임명했다는 표현이 없지만, 그들이 임명되었을 것이라는 생각은 타당성이 있다. 공궤(供饌: Serving tables, 식단을 돌봄)라는 표현에서 ‘섬긴다’는 단어는 영어의 집사(deacon)란 명사에서 유래한 동사 형태이다. 그래서 그들의 기능은 문자적으로 ‘식단을 돌보는 집사’이어야 했다.

집사의 자격은 여기에 삼중적으로 언급되어 있다.

- (1) 칭찬을 들음-평판이 좋음
- (2) 성령이 충만함-영적인 면
- (3) 지혜가 충만함-실제적인 면

집사 자격에 관한 자세한 언급은 디모데전서 3장 8-13절에 나타나 있다.

6:4 사도들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봉사)에 전적으로 헌신하였다. 여기서 순서가 의미심장한데, 첫째가 기도이고, 그 다음이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봉사)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 사람들에게 전하기 전에 사람에게 대해서 하나님께 아뢰는 이 순서를 분명히 인식하였다.

6:5-6 선택받은 일곱 명의 이름을 미루어 보건대, 그들 대부분은 구원받기 전에 헬라어를 말하는 유대인들이었던 것 같다. 이는 불평했던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극히 은혜로운 조치였음이 분명하다. 그 후로부터 더 이상 편애(偏愛)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의 마음을 채울 때, 그것은 좁아진 마

음과 이기심을 극복하고 승리를 가져온다.

일곱 집사들 중에 단지 두 명의 일꾼만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다. 즉, 초대교회 최초의 순교자가 된 스테반과 후에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에디오피아 내시를 주님께 인도했으며, 가이사랴에서 바울과 교제했던 전도자 빌립이 바로 그들이다.

기도 후에 사도들은 일곱 명의 집사들에게 안수함으로써 교회의 선택과 더불어 그들의 교제를 표현하였다.

6:7 7절이 6절에 계속되는 말씀으로 볼 때, 성도의 공궐에 관한 집사들의 전담조치가 복음전파에 큰 진보를 초래한 것 같다. 하나님의 말씀이 널리 전파되자, 많은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교제권에 더하게 되었고, 제사장의 큰 무리도 주 예수의 추종자들이 되었다.

6:8 이제 이야기의 초점은 일곱 집사 중의 한 사람인 스테반²⁷⁾에게 모아진다. 그는 기적을 베풀고 말씀을 증거하는 등 하나님께 능력 있게 쓰임 받은 인물이었다. 그는 사도행전에 나타난 기적의 실행에 있어 사도들보다도 먼저 언급된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과연 이같은 경지의 봉사를 하게 한 것이 그가 집사로서 충성스럽게 봉사했기 때문인가? 아니면 그가 집사 일을 하면서 단순히 부가적인 사역을 준행했던 것인가? 본문을 통해서만 이것을 명백히 구별하기가 어렵다.

6:9 스테반의 능력 있는 사역에 대한 반발은 회당에서부터 시작

27) 스테반(헬, 스테파노스)은 '화관'(花冠) 혹은 '쟁취한 부'(富)를 의미한다.

되었다. 그곳은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율법의 교훈을 받기 위해 함께 모이는 장소였다. 회당이란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에 따라서 붙여진 이름이었다. 그곳 회당(synagogue)의 이름은 회당(문자적으로 '자유민'의 뜻을 가짐)으로서 이는 아마도 로마인의 종살이에서 자유케 된 유대인을 지칭하는 것 같다. 구레네는 아프리카에 위치한 한 도성으로 그곳 출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정착해 있었다. 알렉산드리아계 유대인들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 항구 도시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길리기아는 소아시아 동남부에 위치한 지역이었고, 그리고 아시아는 세 영역으로 구성된 소아시아의 한 도(道)였다.

분명코 이같이 각기 다른 지역 출신의 유대인 공동체가 예루살렘 안이나 혹은 근교에 회당을 소유했을 것이다.

6:10-14 열정적인 유대인들도 스테반과의 논쟁에서 그를 당해낼 수가 없었다. 스테반이 유대인들에게 증거한 말과 그 말의 능력을 유대인들은 저항할 수 없었다.

한마디도 응수할 수 없었던 유대인들은 은밀히 사람들을 매수(買收)하여 스테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거스려 신성모독을 했다고 거짓 증거하게 하였다.²⁸⁾ 그는 성전과 율법을 거스려 모독하는 말을 했다는 죄목으로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게 되었다. 그들은 스테반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모독하였다. 즉, 예수가 그 성전을 헐 것이고, 또한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전해준 규례 전체를 변경시키겠다고 말했다는 거짓 증거였다.

6:15 산헤드린이 그 고소를 듣고 스테반을 주목했을 때, 그들은

28) 어순은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모세의 영광에 더 질투심을 가졌음을 지적해 준다.

마귀의 얼굴이 아닌 천사의 얼굴과 같은 얼굴을 보았다. 그들은 실로 주님께 전적으로 굴복한 인생, 그리고 진리를 선포하기로 작정한 인생, 더 나아가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가 보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진 한 사람의 삶에 나타난 신비한 아름다움을 목격하였다. 그들은 주님께 헌신한 한 제자의 밝게 빛나는 얼굴 속에서 그리스도의 반사(反射)된 영광의 일면을 보았다.

7장에서 우리는 스테반의 탁월한 변호를 보게 된다. 그 변증 메시지는 처음에는 조용하게 유대 역사를 개관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점차 메시지가 계속되면서, 그것은 두 인물 요셉과 모세에게 초점이 모아지는 바,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 세움을 받았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 거절당했고, 결국에는 구출자와 구원자로 승격된 인물들이었다. 비록 스테반이 두 인물의 경험을 그리스도의 그것과 직접적으로 비교하지는 않았지만, 분명 청중들은 설교자의 의도가 무엇인지 깨닫게 되었을 것이다. 마침내 스테반은 노골적으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신랄하게 공격하였다. 즉, 그들은 성령을 거스렸고, 의로운 분을 살해했으며, 하나님의 율법을 받고도 그것을 준수하지 못했던 자들이라고 고소하였다.

스테반은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했다. 따라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타협적이고 회유적인 설교를 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거룩한 신앙을 저버리기보다는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였다. 그의 거룩한 용기를 칭송할지라!

7:1-8 설교의 초반부는 우리를 히브리 국가의 출발점으로 인도한다. 여기서 아브라함의 역사를 왜 다소 길게 다루었는지 그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적어도 아래와 같은 의도가 있었을 것이다.

(1)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사랑과 친밀감을 보여주기 위함.

(2) 그리스도의 거절에 대한 모형으로서 요셉과 모세의 이야기를 도입하기 위함.

(3) 비록 특별한 예배 처소가 없었을지라도 아브라함의 예배를 하나님이 열납하셨음을 보여주기 위함(스데반은 성전[거룩한 장소]에 가서 말한다는 고소를 당했다).

아브라함의 생애에 관한 기록 속에는 다음 특기 사항들이 있다.

(1) 하나님으로부터 메소포타미아에서 부르심을 받음(2-3절).

(2) 하란을 거친 가나안 땅으로의 순례 여행(4절).

(3)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가나안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사실상 아브라함 자신은 그 땅을 실제로 유업으로 소유하지 못했는데, 이는 아내 사라의 묘지로 막벨라 동굴을 샀던 기록을 통해 확인된다(5절; 창 23:9). 이 약속의 완전 성취는 아직도 미래에 속해 있다(히 11:13-40).

(4) 이스라엘의 애굽 종살이와 구출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6-7절).

애굽의 종살이와 그 후의 구원의 예언은 공히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배척당했던 요셉(9-19절)과 모세(20-36절)에 의하여 성취되었다. 한편, 6절과 창세기 15:31에 언급된 사백 년은 유대 백성들이 애굽에서 괴로움을 당했던 시기와 관계가 있다. 출애굽기 12장 40절과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 언급된 430년은 야곱과 그의 가족이

애굽에 정착함으로부터 출애굽 하여 율법을 받기까지의 전 기간을 포함한다. 이스라엘 민족은 처음 애굽 정착 30년 기간에는 애굽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지 않았다. 사실 그들은 오히려 왕족처럼 대우를 받았었다.

(5) 할례의 언약(8절 전반부).

(6) 이삭의 출생, 그리고 야곱의 열 두 조상의 출현(8절 후반부).

물론 이 기사는 유대사를 야곱의 열 두 아들 중의 하나인 요셉에게로 초점을 모으게 한다.

7:9-19 요셉은 구약에 나타난 그리스도의 모형들 중에서 가장 탁월한 실례이다. 확신하건대, 스테반이 요셉의 생애를 재조명하는 동안 그들은 나사렛 예수에게 행했던 일들을 기억하며 심한 죄책감에 양심이 찢렸을 것이다.

(1) 그의 형제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다(9절).

(2) 한때 거절당했던 요셉이 애굽에서 권세와 영광을 얻었다(10절).

(3) 요셉의 형제들이 흉년 때문에 애굽에 내려갔으나,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다(11-12절).

(4) 두 번째로 보냈을 때에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알려졌다. 그때 거절당했던 요셉은 자기 가족의 구원자가 되었다(13-14절). 한편, 14절에 언급된 야곱의 온 친족이 일흔 다섯이라고 하는 숫자는 창세기 46장 27절에 나타난 일흔 명이란 인명수와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스테반은 창세기 46장 27절과 출애굽기 1장 5절의 히브리서 본문에 대한 헬라어 번역을 따라 일흔 다섯으로 표기했다. 사실상 히브리서 본문은 '일흔'으로 표기되어 있는 바, 이것은 단지

야곱 가족에 대한 다른 계산법의 차이일 뿐이다.²⁹⁾

(5) 족장들의 죽음과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장사지냄(15-16절).

또 다른 난제가 이 구절에 있다. 본문에서는 아브라함이 하몰에게서 매장지를 구입했노라고 밝힌다. 그런데 창세기 23장 16-17절에서는 아브라함이 헷의 자손들로부터 헤브론에 위치한 막벨라 동굴을 샀노라고 언급하고 있다. 야곱은 하몰 자손에게서 세겜에 있는 땅을 구입하였다(창 33:19).

이것에 대해서는 여러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

① 아브라함은 헤브론 뿐 아니라 세겜에서도 땅을 샀을지도 모른다. 후에 야곱은 세겜에 있는 그 땅을 재구입했을 수도 있다.

② 스테반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야곱에 대해 아브라함이란 용어를 사용했을 수도 있다.

③ 스테반이 아브라함과 야곱이 구입한 일에 대해 간략하게 요약했을 수도 있다.³⁰⁾

(6) 애굽에서 야곱 친족의 번성과 요셉 사후의 노예생활(17-19절).

물론 이 내용은 스테반의 다음 논쟁, 즉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받았던 대접에 관한 논쟁으로 우리를 준비시키고 있다.

7:20-43 유대인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구원자들을 거절했던바, 최소한 두 번에 걸친 범죄 행위를 스테반은 지적하고 있다. 이제 스테반의 두 번째 증거는 모세이다.

29) 원본과 헬라어 번역 모두가 맞다고 할 수 있다. '일흔 다섯'으로 계산된 것은 이 집트에서 태어난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다섯 후손들을 포함시켰기 때문이다(대상 7:14-27).

30) 이 문제에 관한 적절한 답변은 Kelly의 *Acts*, p. 84,85를 참조하라.

스데반은 방금 전에 모세를 거스려 신성모독의 발언을 했다고 고소당했다(6:11).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이 거절한 죄가 있음을 그는 증명한다. 스테반은 간략히 모세의 생애를 재추적한다.

(1) 그의 출생, 유년시절, 그리고 애굽에서 받은 교육(20-22절). 여기서 ‘말에 승했다’는 표현은 모세 자신이 능변가가 아님을 주장했던 사실을 감안해 볼 때, 그의 글 솜씨와 연관 있는 것 같다(출 4:10).

(2) 애굽인들을 대항하면서 유대인을 변호할 때, 그 형제들에게 당했던 첫 번째 거절 사건(23-28절). 특히 25절을 주목해 보라. 이 내용은 자기 백성들에게 거절당한 그리스도를 얼마나 잘 묘사해 주고 있는가!

(3) 미디안 땅으로의 그의 도피 생활(29절).

(4) 가시덤불 속의 불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자기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도록 돌려보냄(30-35절).

(5) 그가 이스라엘 민족의 구원자가 됨(36절).

(6) 장차 오실 메시아에 관한 예언(37절). ‘나와 같은’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처럼’이란 의미이다.

(7) 광야 교회(광야 회중을 의미)를 향한 모세의 율법 수여자로서의 역할(38절).

(8) 이스라엘 백성이 금송아지를 섬김으로써 두 번째로 모세를 거절함(39-41절). 이 이스라엘의 영적 간음은 42-43절에 상세히 설명되어 있다. 그들은 주님께 희생을 드린다고 고백하면서, 고대 시대 간음 형태 중 가장 혐오스러운 것 중에 하나인 물록의 장막을 만들었고, 또한 별신 레판을 경배하였다. 이같은 범죄 결과로 그들

이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갈 것이라고 하나님은 경고하셨다. 본문 42-43절에서 스테반은 70인역 아모스 5장 25-27절을 인용하였다. 따라서 이것이 포로생활을 언급함에 있어 ‘다메섹 밖으로’ 대신 ‘바벨론 밖’이라고 기록한 이유이다. 물론 이 두 표현은 모두가 옳다.

역사는 그 자체가 반복된다. 매 세대마다 우리는 동일한 삶의 형태를 발견한다. 사람은 언제나 동일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접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하였다(25절). 화목하게 살라고 권고했을 때, 그들은 듣기를 거부하였다(27절). 하나님이 세운 구원자를 보냈을 때, 그들은 그분을 거절하였다(39절). 사악한 환경에서 구해주었을 때, 그들은 무익한 우상을 자비의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였다(41절). 이것이 바로 반역, 배은망덕, 무지몽매 등을 소유하고 있는 인간의 본성이다. 한편, 하나님께서도 언제나 동일하시다. 모세 시대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그의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시다(32절). 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괴로움을 들으신다(34절). 그리고 그분은 구원자로 지상에 오신다(34절). 그분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의 백성들을 이끄신다(30절). 그분은 자신을 고의적으로 거절하는 자들의 욕심을 그대로 두신다(42절). 바로 이분이 우리가 섬기는 위대한 하나님이시다! 즉, 그분은 자비로우시고, 능력 있으시며, 거룩하신 분이시다. 그리고 그분은 무슨 일이 일어나든지 항상 동일하신 분이시다(말 3:6). 그러므로 스테반은 청중을 향해서 하나님과 다투지 말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선포하였다. 또는 그는 하나님의 제반 약속은 영원토록 굳건히 서 있노라고 확신 있게 강론하였다.³¹⁾

31) 성서 유니온에서 발행한 ‘매일의 노트’(Daily notes) 1969년 5월 31일자 내용을 보라.

7:44-46 스테반은 성전을 거슬러 말한다고 고소당한바 있다.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증거의 장막을 가졌던 시기로 화제를 바꿈으로써 그는 그 고소에 답변한다. 그 당시에 그들은 또한 하늘의 성신(星辰)을 숭배했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고 가서 이방 거주자들을 추방했을 때, 장막은 그 땅으로 인도되어 다윗의 때까지 계속되었다. 그때 조상들은 야곱의 하나님을 위한 성막을 마련하려고 간구했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다.

7:47-50 성전을 건축하려는 다윗의 소원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나, 그러나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하여 집을 지었다.

비록 성전이 하나님의 백성 중에 그분의 거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그 건물 속에 제한적으로 계신 분이 아니었다. 솔로몬은 성전을 봉헌할 때 이 사실을 명백히 하였다(왕하 8:27). 또한 이사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산하시는 것은 성전이 아니라 오히려 백성들의 도덕적, 영적 상태임을 경고하였다(사 66:1-2). 하나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원하시고, 그분의 말씀 때문에 떠는 사람을 찾으신다.

7:51-53 유대 지도자들은 율법을 거슬러 모독하는 말을 한다고 스테반을 고소했다. 이제 그는 짧게 구두 탄핵으로 그 고소에 대해 답변한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그는 하나님의 이스라엘로서가 아니라, 완고하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이방인으로서 유대인들을 책망하고 있다.” 그들은 습관적으로 성령을 거스려온 이스라

엘 조상들의 후손들이었다. 그들의 조상들은 그리스도가 ‘오시리라 예고한 선지자들을’ 핍박하였다. 지금 그들은 이 의인을 배척하고 살인하였다. 그들은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은 장본인들로서 율법을 준수하는데 실패한 사람들이었다.

더 이상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는가! 처음에 그들은 스테반을 피고자로 정죄하였다. 그러나 이제 스테반이 기소자가 되어 그들을 피고자로 정죄하고 있다. 요컨대, 스테반의 메시지는,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증거되기에 앞서 유대민족을 향해 선언된 최후통첩(通牒) 중의 하나였다.

7:54-60 스테반이 하늘이 열렸음을 보았다고 공개적으로 말하자마자, 그 폭도들은 더 이상 그의 설교를 들으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은 격앙되어 소리 지르고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끌어낸 후에 돌로 쳤다.

우연한 것처럼, 성령은 영광적인 사형 집행자들의 옷을 지키고 있던 젊은 청년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다. 그 이름의 주인공은 바로 사울이었다. 이는 마치 성령께서 이처럼 말하는 것 같다. “사울이란 이름을 기억하고 있으라. 너희들은 다시 그 이름을 듣게 될 것이다!”

스테반의 죽음은 우리 주 예수님의 죽음과 닮았다.

(1) 스테반은 기도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59절). 예수님은 기도하셨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 하나이다”(눅 23:46).

(2) 스테반은 또 기도했다.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60절).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눅 23:34).

이는 스테반이 주님께 완전히 사로잡혀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고후 3:18) 체험을 보여준 것이 아닐까? 그같이 말한 후에 그는 잠들었다. ‘잠잔다’는 말이 신약에서 죽음과 관련해서 사용되었을 때, 그것은 영혼의 죽음이 아닌 몸의 죽음을 가리킨다. 사실상, 신자의 영혼은 죽는 즉시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거한다(고후 5:8). 그리고 그 몸은 죽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사형시킬 권한이 주어지지 않았다. 이 사형 집행권은 로마인들에게 위임되어 있었다(요 18:31 하반절). 그리고 로마인들은 성전이 위협받을 경우에는 예외를 두었던 것 같다. 스테반은 성전을 거스려 말한다고 고소당해 왔다. 그리고 그 정죄 내용도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채 유대인들에게 사형당했다. 주 예수께서도 성전을 파괴하겠다고 위협했다는 고소를 받았으나, 그러나 증인들의 증거도 서로 상충되었었다.

2.

유대와 사마리아에 있는 교회(8:1-9:31)

1. 사마리아에서 빌립의 사역(8:1-25)

8:1 하나님의 성령은 재차 사울이란 이름을 소개한다. 그의 영혼은 크게 격동하고 있었다. 유대교를 위한 그의 테러 행위는 외적으로 진척을 보이는 것 같았으나, 기독교에 대한 대적자로서 그의 시간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사울은 스테반의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다.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그는 잔혹한 박해자로서 자신의 파멸의 길을 포장하고 있었다.

새 시대가 ‘그 날’이란 말로써 시작되고 있다. 스테반의 죽음은 전역에 걸친 교회를 향한 공격에 방어쇠 역할을 했던 것 같다. 성도들은 결국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명하셨다. 그리고 더 나아가 유대로 확장되고, 급기야 땅 끝까지 이르도록 명하셨다. 하지만 그때까지 그들의 전도 활동은 전적으로 예루살렘 지역에 국한되어 있었다. 아마도 그들은 복음을 확장시키는 것을 두려워했던 것 같다. 이제 그들은 펄박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이외의 지역에 대한 복음 전도를 강요당하고 있다.

사도 자신들은 예루살렘 도성에 머물러 있었다. 켈리(kelly)가 공

정하게 관찰했듯이 “머물러 있던 사람들은 자연히 모든 사람 가운데 가장 혐오의 대상이 되리라.”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실로 성도들에게는 어둠의 시기가 아닐 수 없었다. 교제권에 속해 있었던 지체들의 생명이 희생당하였다. 그들은 마치 쫓김 당하는 토끼 같은 신세가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때는 전혀 어둠의 시기가 아니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심기어졌고, 이제 기필코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될 것이었다. 환란의 바람이 복음의 씨앗을 멀리 멀리 흩뿌렸다. 그 누가 이 추수의 범위를 헤아릴 수 있겠는가?

8:2 스테반을 장사지낸 경건한 사람들이 정확히 누구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아마도 그들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던 소수의 그리스도인이었는지 모른다. 그렇지 않으면 순교자 속에서 무엇인가를 목격한 경건한 유대인으로서, 스테반을 장사지내야 마땅한 고귀한 사람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인지도 모른다.

8:3 다시금 사울의 이름이 언급된다. 주체할 수 없는 정력을 가진 그는 교회를 괴롭히고, 그의 불쌍한 희생자들을 집에서 끌어내어 옥에 넘겼다. 만일 그가 스테반의 (그처럼 경건하고 확고부동한 확신을 가진) 천사같은 얼굴을 잊을 수가 있었다면! 그는 자신의 뇌리에서 그에 관한 기억을 떨쳐버리려고 노력했다. 그리고 그는 스테반의 동료 신자들을 향한 공격을 한층 더 가함으로써 그 기억을 지우려 시도했다.

8:4-8 그리스도인의 분산도 그들의 간증을 침묵하게 만들지는

못했다. 그들이 두루 다니며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파하였다. 6장의 일곱 집사 중 하나인 빌립은 사마리아 성에 가기 위해 북쪽으로 방향을 돌렸다.³²⁾ 그는 그리스도를 선포할 뿐 아니라, 많은 표적을 행하였다. 그러자 더러운 귀신들이 나가고, 중풍병자와 앉은뱅이가 완치되었다. 사람들은 복음에 관심을 기울였고, 기대했던 대로 큰 기쁨이 충만하였다.

초대교회는 주 예수의 분명한 명령을 순종하였다.

초대교회는 그리스도께서 모범을 보이셨던 것처럼 나아갔다(요 20:21, 행 8:1-4 참조).

초대교회는 물건을 팔아 그 값을 가난한 자에게 주었다(눅 12:33, 18:22, 행 2:45, 4:34 참조).

초대교회는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 부모, 집, 본토를 과감히 떠났다(마 10:37, 행 8:1-4참조).

초대교회는 제자를 삼아 그들을 가르쳐 사역하고 순종하게 하였다(마 28:18, 살전 1:6).

초대교회는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랐다(행 4장, 살전 2장).

초대교회는 환난과 핍박을 즐거워하였다(마 5:11-12, 행 16:25, 살전 1:6-8).

초대교회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를 장사지내도록 하고 그들은 먼저 복음을 증거하였다(눅 9:59-60).

초대교회는 사람들이 복음 듣기를 거절했을 때 발의 먼지를 털어 버리고 다른 곳으로 갔다(눅 9:5, 행 13:51 참조).

초대교회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죽은 자를 살렸고, 또한 소멸되지 않는 영구한 열매를 맺었다(막 16:18, 행 3-16장).³³⁾

32) 사마리아는 예루살렘보다 고도가 낮다.

33) The Sunday School Times(1964년 2월 22일자) 신앙잡지 중 Homer L. Payne의

8:9-11 빌립의 전도를 받은 사람 가운데 가장 주목할 만한 사람은 시몬이라 하는 마술사였다. 그는 마술을 행함으로 전부터 사마리아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하였다. 그는 특별한 사람인체 했고, 더구나 많은 사람들에게 의해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으로 존경을 받아왔다.

8:12-13 다수의 사람들이 빌립의 전도를 받아들여 믿고 세례를 받았다. 그러자 시몬도 믿는다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은 후에 빌립이 행하는 표적에 매료되어 그를 꾸준히 따라 다녔다. 계속되는 이야기를 볼 때, 시몬은 진정으로 거듭난 신자가 아닌 것 같다. 그는 신앙을 고백한 사람이었지(a professor) 참 신앙의 소유자(a possessor)는 아니었다.³⁴⁾ 세례에 의한 구원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이 본문에서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시몬은 세례(침례)를 받았으나 아직까지 죄용서를 받은 성도는 아니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했음을 주목하라. 하나님 나라(The Kingdom of God)는 하나님의 통치가 받아들여지는 영역을 가리킨다. 현재, 왕은 부재중이시다. 문자적인 지상왕국 대신에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는 모든 생애 속에서 영적, 비가시적(非可視的) 왕국을 소유하고 있다. 장차 왕은 문자적인 왕국(Kingdom)을 세우시기 위해 재림하셔서 예루살렘을 수도로 삼으실 것이다. 어쨌든, 그 왕국에 들어가려면 사람은 누구든지 거듭나야만 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있는 믿음이 중생을 경

*What is a missionary church*란 제목하의 글 중에 p. 129를 보라.

34) 본문에서 시몬은 '믿었다'고 표현되어 있고, 베드로에게 기도를 요청한 것을 볼 때(24절), 구원은 받았으나 매우 육신적인 사람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협하게 하는 수단이다. 그러므로 의심할 바 없이 이 같은 내용이 빌립 설교의 요지(要旨)였다.

8:14-17 사마리아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정적으로 받았다는 소식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들려왔을 때,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을 그곳으로 보냈다. 그들이 도착할 즈음에 믿는 사람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으나, 그러나 그들은 성령을 받지 못하였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일치된 행위로서 사도들은 이 신자들이 성령 받기를 기도하며 저희에게 안수하였다. 안수 기도가 끝나자마자 그들은 성령을 받았다.

이 구절들은 즉시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갖게 한다. 즉, “왜 이곳에 기록된 사건의 순서와 오순절 날에 임한 성령강림의 순서가 다른가?” 오순절 날 유대인들이 성령을 받은 순서는 아래와 같다.

(1) 회개함→(2) 침례 받음→(3) 성령을 받음

그런데 본문의 사마리아 성도의 경우는 유대인의 그것과는 달랐다.

(1) 믿음→(2) 침례 받음→(3) 사도들이 기도하고 안수함→(4) 성령을 받음

우리는 다음 한 가지 사실을 확신할 수 있다. 즉 그들은 동일한 방법으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으로 그들은 구원을 받았다! 주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 그러나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가는 과도기(過渡期)에 하나님은 여러 부류의 신자 공동체와 관련하여 주권적으로 역사하셨다. 유대인 신자들은 성령을 받기 전에 스스로 이스라엘 민족과의 단절을 침례로써 표현하도록 요청받았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특별한

기도와 사도들의 안수가 필요하였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

아마도 그 이유에 대한 최선의 답변은 곧 유대인이든 사마리아인이든 구별 없이 새로 구성된 교회의 통일성을 드러내주기 위해 의도된 행위였다는 것이다. 예루살렘 교회가 유대인 우월주의를 고수하고, 사마리아 형제들과 지속적으로 관계가 단절될 위험성이 있었다. 성도들 간의 분열을 막고, 유대인 교회와 사마리아인 교회 등 두 개의 교회가 생기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하나님은 사마리아 성도들에게 안수하도록 사도들을 보냈다. 이는 주 예수 안에서 두 그룹간의 완전한 교제를 표현하도록 만들었다. 그들은 한 몸 안에서 모두 지체들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두 하나였다.

본문 16절에 그들이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라고 말할 때(10:48, 19:5 참조), 이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마 28:19) 세례를 받는다는 말과 다른 것이 아니다. 바인(W. E. Vine)은 “누가는 공식적인 어법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역사적 사실을 기술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 받는다는 것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 받는다는 두 표현은 모두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모든 참된 신자는 기쁘게 삼위일체 하나님과 주 예수께 충성을 바쳐야 하는 것이다.

8:18-21 마술사 시몬은 사도들이 사마리아 신자들에게 안수할 때, 성령 받는 사실로 인해 깊은 감동을 받았다. 그는 이 사건의 영적 의미에 대한 올바른 분별력이 없었다. 그는 단지 그것을 자신의 사업에 이득을 줄 초자연적인 능력으로만 보았다. 그래서 그는 사도들에게 뇌물을 주고 그 능력을 사고자 했다.

베드로의 답변은 그 시몬이 진정 회심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암시해 준다.

(1) “네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요 3:16).

(2) “이 도에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 될 것도 없느니라.” 다른 말로 하면 그는 교제권에 들지 않았다는 의미이다.

(3)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는 구원받지 않은 사람을 묘사할 때 사용하는 용어다.

(4) “너는 악독이 가득하여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이같은 상태가 진정 중생한 사람에게 가능하겠는가?

8:22-24 베드로는 시몬에게 그의 큰 죄를 회개하라고 권면하였고, 그 악한 계획이 용서되도록 기도하였다. 이에 대한 시몬의 응답은, 베드로가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중보자의 역할을 해달라는 요청이었다. 실로 그는 주님께 가기보다는 인간 중보자에게 먼저 가고자 하는 못 사람들의 선구자였다. 시몬 편에서 진정한 회개가 없었음이 다음 말에 여실히 드러난다. “나를 위하여 주께 간구하여서 당신이 내게 말한 일이 임하지 않게 하소서.” 그는 자신의 범죄를 회개하기보다는 장차 자신에게 임할지도 모를 결과에 대해서만 두려워했다.

현대 영어 중 ‘거룩한 것을 상업화하는 것’, 즉 시몬이(Simony)란 단어가 바로 이 시몬에게서 유래한다. 그것은 면죄부(免罪符) 판매와 그 외 다른 고안된 영적 유익물, 그리고 종교의 탈을 쓴 온갖 종류의 상업주의를 내포한다.

8:25 베드로와 요한이 주의 말씀을 전파한 후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들은 이제 복음 전파를 위한 교두보를 설치하게 되었다. 그것을 계기로 그들은 사마리아인의 여러 촌(村)에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

2. 빌립과 에디오피아 내시(8:26-40)

8:26 주의 사자가 빌립을 새 사역지로 인도하던 때는 사마리아에 대영적 각성(覺醒)이 일어나던 때였다. 그는 많은 사람이 영적인 복을 경험하는 장소를 떠나 한 사람에게 사역하기 위해 가야했다. 주의 사자(천사)는 빌립을 인도할 수는 있어도, 빌립의 복음전파 사역을 대신할 수는 없었다. 요컨대, 복음증거의 특권은 사람들에게 수여된 것이지, 천사들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

빌립은 이의없이 순종해서 사마리아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남쪽으로 여행했는데, 그 도로 중에 하나는 가사까지 연결되었다.³⁵⁾ ‘그 길은 광야라’는 말이 가사로 가는 길을 지칭하는 것인지 아니면 가사 지명 그 자체를 일컫는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어쨌든 그 효과는 동일했다. 빌립은 황폐한 지역으로 가기 위해 정든 거주지와 영적 부흥지를 기꺼이 떠났다.

8:27-29 길을 얼마 정도 가다가 그는 대상(隊商) 행렬을 따라 잡았다. 그리고 마차 중앙에는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³⁶⁾의 휘하에서 모든 재정을 담당하는 큰 권세를 지닌 내

35) 고대 블레셋 도시는 예루살렘 남서쪽 지중해 연안에 위치해 있었고, 블레셋에서 이집트까지 길이 나 있었다.

36) 간다게는 바로(파라오)처럼 인명이라기보다는 신분을 가리킨다.

시³⁷)가 있었다(에디오피아는 이집트와 수단 남쪽에 위치해 있었음). 이 사람은 유대교에 입교한 사람임이 분명한데, 그 이유는 그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방문했다가 귀국하는 여정이었기 때문이다. 마차를 타고 가면서 그는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 바로 이같은 시기 적절한 때에 성령께서 빌립더러 그 마차로 가까이 나아가라고 지시하였다.

8:30-31 빌립은 “당신이 읽고 있는 것을 이해하느냐?”라고 친근하게 질문함으로써 대화의 말문을 텃다. 그 내시는 곧바로 자신을 지도해줄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빌립에게 마차에 올라앉으라고 청하였다. 여기 인종차별의 벽이 완전히 제거되는 모습이 오히려 분위기를 새롭게 환기시킨다.

8:32-33 고난 받는 메시아에 관한 탁월한 묘사를 담은 이사야 53장을 내시가 우연히 읽고 있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가! 또한 왜 빌립이 그가 그 본문을 읽는 바로 그 특정한 시간에 접근하였는가?

이사야 본문은 그의 대적 앞에서 겸손하고 온유하신 분, 공평과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신 분, 그리고 청년으로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에 자손의 소망이 없으신 분에 대해 묘사하고 있다.

8:34-35 이사야 선지자가 자기를 가리킴인지 타인을 가리킴인

37) 여성 통치자를 모시는 남종들은 종종 거세를 당하였다. 내시는 유대교에서 일등 시민권자가 될 수 없었다(신 23:1). 그들은 여호와와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로 천대를 받았다. 하지만 본문에서 내시는 이제 그리스도의 교회의 당당한 한 지체로 영접 받았다.

지 내시는 의아해 하였다. 물론 이 질문은 빌립에게 어떻게 이 성경 구절이 나사렛 예수의 삶과 죽음 안에서 완전히 성취되었는지를 말할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의심할 바 없이, 그가 예루살렘에 머무르는 동안, 이 에디오피아인은 예수란 이름에 관해 들었을 것이다. 예수에 관한 이야기가 그에게 달갑게 느껴지지 않는 것이었다. 하지만 지금 내시는 나사렛 예수가 이사야가 쓴바, 고난 받는 여호와와의 종이라는 것을 배우게 되었다.

8:36 아마도 빌립은 그에게 그리스도인이 받는 침례, 즉 그리스도의 죽음과 장사 지냄, 그리고 부활에 자신을 동일시하는 예식의 특권을 설명한 것 같다. 이제 그들이 물가에 이르렀을 때, 내시는 침례 받고자 하는 소원을 나타내었다.

8:37 흠정역(KJV)과 새 흠정역(NKJV)에 기록된 37절의 내용이 대부분 헬라이어 신약 사본에는 생략되어 있다. 물론 이는 그 내용의 교훈이 나머지 신약성경의 그것과 다르기 때문이 아니다. 사실상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이 침례식에 선행되어야 함이 마땅하다. 다만 이 구절은 주요 신약 사본에 실려 있지 않기 때문에 지지를 못 받고 있을 뿐이다.³⁸⁾

8:38 마차는 멈추었고, 빌립은 내시에게 세례를 주었다. 세례가 침수(洗水)였다는 사실은 다음 표현에 의해 확실히 입증된다. “둘 다

38) 헬라이어 네슬 알란드(Nestle-Aland)판이나 대부분의 주요 사본들은 이 구절을 실지 않고 있다. 라틴 역본을 포함해서 서방 사본들에서 발견되는 본 내용은 제2세기경 로마 지역에서 실행했던 침례식의 원형이기도 하다. 한편, 침례에 의한 중생 교리를 주장하는 자들은 분명 본 내용들을 놓치지 않을 것이다.

물에 내려가…물속에서 올라갈새.”³⁹⁾

우리는 이 침례의식의 단순성에 감동을 받는다. 사막 길 주변에서 한 성도가 새 신자에게 침례를 베풀었다. 교회가 그 자리에 함께 하지 않았다. 사도 중에 어느 누구도 그 자리에 함께 하지 않았다. 의심 없이 대상의 수행원들만이 그 주인이 받는 침례의 증인들이었다. 그들은 이제 그가 나사렛 예수의 제자가 되었음을 이해했을 것이다.

8:39 침례식이 끝나자마자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가셨다. 이것은 단지 타 지역으로 안내한 것 이상을 의미한다. 그것은 기적적이고 갑자기 그를 옮기신 것을 가리킨다. 이는 내시가 회심에 있어 인간 도구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주님 자신만을 주목하게 할 의도였다.

“내가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했을 때,
주님의 아름다움만이 내게 머물기 바라네.
그들 모두가 주님의 통로들을 다 잃어버리고,
오직 그분만을 바라보기를 원하네.”

(케이트 윌킨슨)

내시는 기쁨으로 자기 길을 갔다. 주님께 순종할 때 제반 다른 쾌락을 뛰어넘는 참 기쁨이 있다.

8:40 한편, 빌립은 가사의 북쪽이자 예루살렘의 서쪽 해안 근교

39) 초대교회가 준수했던 세례의식은 침수(沈水)였다는 것이 로마 카톨릭 신학자나 칼빈, 그 외 약식세례를 실행하는 자들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인 아소도에서 복음전도 사역을 시작한다. 그곳에서부터 그는 북쪽으로 해안을 따라 전도하다가 가이사랴에 이르렀다.

그렇다면 내시는 어떻게 되었는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정상적인 양육을 빌립은 시행하지 못했다. 그 전도자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다만 이 새 신자를 주님과 구약성경에 의탁하는 일이었다. 하지만 성령의 능력 가운데 이 새 제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기 위해 에디오피아로 돌아왔다.⁴⁰⁾

☞ 믿는 자의 침례(세례)

방금 전에 상고했던 에디오피아 내시의 침례는, 그리스도인 침례가 초대교회에 의해 가르쳐지고 실행되었다는 많은 증거 중의 하나이다(2:38, 22:16). 이같은 침례는 회개를 지시해 주는 요한의 침례와는 다른 것이다(13:24, 19:4). 믿는 자의 침례는 그리스도와 자신을 동일시하는 공적 고백이었다.

침례는 항상 회심 후에 뒤따랐고(2:41, 8:12, 18:8), 남자 뿐 아니라 여자에게도 행했으며(8:12), 유대인 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실행하였다(10:48). 가정이 침례 받았노라고 언급되었으나(10:47-48, 16:15, 16:33), 최소한 그것에 관한 언급 중에 두 경우는 가정의 모든 식구들이 믿었다고 하는 언급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다. 유아들이 침례를 받았다고 언급된 경우는 성경에는 전혀 없다.

새로 믿음을 가진 성도는 회심 후에 곧바로 침례를 받았다(8:36, 9:18, 16:33). 명백하게 침례는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의 고백을 기초로 베풀어졌다. 그 고백의 진실성을 입증하기 위한 일정한 시험기

40) 에디오피아는 아프리카 대륙 중에서 초대교회 시대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기독교 전통을 소유하고 있는 유일한 국가이다. 빌립의 충성심이 에디오피아의 복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던 것 같다.

간도 없었던 것 같다. 물론, 무서운 핍박의 위협이 아마도 사람들로 하여금 공적 고백을 쉽게 하지 못하게 했을 것이다.

침례가 구원을 가져다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시몬의 경우가 보여 준다(8:13). 그는 심지어 믿음을 고백하고 침례를 받은 후에도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었다”(8:23). 그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지 못했다(8:21).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례 형태는 침수(沈水)였다.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둘이 물 속에서 올라갈새”(8:38-39). 소위 약식 세례(머리에 물을 뿌리는 방법)를 옹호하는 많은 현대 기독교인들도 침수가 1세기 성도들의 세례 방식이었음을 인정하고 있다.

두 번의 침례는 죄용서와 연관된 것 같다. 오순절 날 베드로는 말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2:38). 후에 아나니아는 사울에게 말했다.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22:16). 이 두 경우 침례에 관한 교훈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다. 이방인에게 죄 용서를 위해 침례 받으라고 언급된 경우는 없다. 믿는 자의 침례에 있어 유대인들은 공적으로 그들의 메시야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이스라엘 국가와의 관계를 끊어야 했다. 물론 그들의 죄용서의 기초는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이었다. 요컨대, 사죄를 위한 구매가격은 오직 주님의 보혈이었다. 그들의 죄용서가 집행되었던 방법은 물 침례를 통하여 이루어졌는데, 그 이유는 공적 침례가 유대인의 토대에서 옮겨 그들을 그리스도인의 토대로 심게 하기 때문이었다.

침례식 문구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마 28:19)는 사도행전에 나타나지 않는다. 사마리아인들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고(8:16), 또한 요한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다(19:5). 그

러나 이 언급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사용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실상 “주 예수의 이름으로”란 문구는 “주 예수의 권위로”란 의미일 것이다.

요한의 제자들은 두 번 침례를 받았다. 먼저는 요한의 회개의 침례요, 두 번째는 회심 이후에 받은 믿는 자의 침례였다(19:3,5). 이는 구원받기 전에 침례를 받은 사람들에게 재침례(rebaptism)를 받아야 하는 전례(前例)를 제공한다. ♠

3. 다소 출신 사울의 회심(9:1-31)

9:1-2 본서 9장은 사도행전에서 특별한 전환점을 이룬다. 지금까지 베드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복음을 선포함으로써 탁월한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사도 바울이 점차적으로 두각을 나타내고, 복음은 이스라엘 민족에서 벗어나 점차적으로 이방인들에게 증거될 것이다.

다소 출신의 사울은 그 당시 아마도 삼십대 초반이었던 것 같다. 그는 일차적으로 랍비로 간주되었고 유대교에서 장래가 촉망받는 젊은 청년 중의 하나였다. 열정적인 측면에서, 그는 동료 중 타의 추종(追從)을 불허하는 인물이었다.

그가 ‘그 도(道)’⁴¹⁾로 알려진 기독교의 믿음의 성장을 지켜보았을 때, 그는 기독교 안에서 자신의 고유 종교를 향한 큰 위협 요소를 보았다. 그러므로 그는 억제할 수 없는 열심으로 이 위협스러운 종파를 파멸시키고자 했다. 실례로 그는 대제사장으로부터 공적 권위를 승인받아 다메섹에 있는 예수의 제자들을 예루살렘으로 잡아와

41) 동일한 표현을 한 사도행전 19장 9,23절, 22장 4절, 24장 14,22절도 참조하라.

재판하고 형벌을 줄 계락을 세웠다.

9:3-6 사울 일행이 다메섹 가까이에 이르렀다. 그때 갑자기 큰 빛이 하늘로서 비추어 사울로 하여금 땅에 엎드리게 만들었다. 그는 자신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당신은 누구시나이까?”라는 사울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였다.

당시 사울의 감정을 헤아려보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가 죽어 유대인의 무덤에 장사지냈다는 사실을 사울이 알고 있었다는 점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독교의 지도자인 예수가 죽은 이래로 이제 필요한 모든 조치는 그 지도자의 추종자들을 파멸시키는 일 뿐이었다. 그렇게 되면 이 땅은 큰 두통거리로부터 자유하게 될 것이다.

이제 막강한 힘에 의해, 예수님은 전혀 사망에 머무르지 않았고, 오히려 그분은 죽음에서 살아나사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영광을 얻으셨다는 사실을 사울은 깨닫게 된다. 그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한 것은 영광 받으실 구세주를 봄으로 말미암았다.

또한 사울은 그가 예수의 제자들을 핍박했던 것이 바로 주 예수 자신을 핍박해왔던 것임을 알게 되었다. 요컨대, 지상에 존재하는 몸의 지체에 가해진 고통은 하늘에 있는 몸의 머리에게도 동일하게 감지된 것이다.

사울에게 있어 첫 번째는 교리였고, 둘째가 의무였다. 즉, 먼저 그는 예수의 인격에 대해 적절히 교훈을 받았다. 그 후에 그는 다메섹으로 보내져 그곳에서 다음 행동의 순서를 받아야 했다.

9:7-9 그때 같이 가던 사람들은 얼떨떨한 채 있었다. 그들은 하

늘로부터 소리를 들었으나 사울이 들었던 것과 같은 분명한 말로는 듣지 못했다(22:9). 또한 그들은 주님을 보지 못했다. 다만 사울이 주님을 보았고, 그 시간에 사도권을 부여받았다.

교만한 바리새인은 지금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그곳에 머물렀다. 그동안 그는 식음을 전폐하였다.

9:10-14 우리는 다메섹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소식을 들었을 때의 감동을 상상해 볼 수 있다.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하려고 온다는 소식을 성도들은 들었을 것이다. 분명 그들은 하나님의 간섭하심을 간구했을 것이다. 아마도 그들은 감히 사울의 회심을 위해서도 간구했을 것이다. 이제 그들은 신앙의 큰 대적자가 변하여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실로 그들은 자신들의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주님께서 다메섹의 성도들 중에 하나인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방문하라고 명하셨을 때에, 아나니아는 그 사람에 대한 자신의 맘속에 있는 모든 불편한 감정을 쏟아 놓았다. 그러나 사울이 지금 핍박 대신에 기도하는 중이라는 것을 확신했을 때 아나니아는 직가(直街)에 위치한 유다 집으로 갔다.

9:15-16 주께서 사울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셨다. 우선적으로 사울은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야 했다. 그리고 이 사명은 그를 임금들 앞으로 이끌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는 또한 육체를 따라 그의 동족인들에게 전도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그는 심히 고통스러운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9:17-18 그리스도인의 은혜와 사랑의 표현으로써 아나니아는 그를 “형제 사울”로 부르고, 그에게 안수함으로써 새 신자에 대한 친근한 교제를 나타내었다. 또한 그는 방문 목적을 설명했는데, 그것은 사울이 다시 보게 되고,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성령이 한 평범한 제자의 안수를 통하여 사울에게 수여되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아나니아는 주석가들이 흔히 ‘평신도’라고 부르는 사람이었다. 주님께서 사도가 아닌 성도를 사용하셔야 했다는 사실은 소위 성직자에게만 영적 특권을 부여하려는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을 간접적으로 책망한다.

어떤 사람이 진정 회심했다면, 거기에는 항상 어떠한 일이 발생한다. 즉, 회심의 진정성을 입증해 보이는 어떤 표지가 있는 법이다. 이는 다소 출신 사울에게도 마찬가지였다. 그렇다면 그가 진정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는 무엇이었는가? 디슨(Francis W. Dixon)은 다음과 같은 목록을 작성하였다.

- (1) 그는 주님을 만났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행 9:4-6). 그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고, 그 계시가 그를 깨닫게 하였다. 또한 그 계시로 말미암아 그는 겸손하고 헌신된 주님의 추종자가 되었다.
- (2) 그는 주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뜻을 준행하려는 열망으로 충만하였다(행 9:6).
- (3) 그는 기도하였다(행 9:11).
- (4) 그는 침례를 받았다(행 9:18).
- (5) 그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교제권을 형성하였다(행 9:19).

(6) 그는 능력있게 증거하기 시작하였다(행 9:20).

(7) 그는 은혜 안에서 자라갔다(행 9:22).

☞ 평신도 사역(使役)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배울 수 있는 가장 중차대한 교훈 중의 하나는 곧 기독교는 평신도 운동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복음 증거 사역은 어떤 특정한 그룹, 예를 들면 승려나 성직자들에게 위임된 것이 아니라,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주어졌다. 선교학자 하르낙(Harnack)은 말했다.

“교회가 초기에 로마제국 안에서 가장 위대한 승리를 쟁취했을 때, 그것은 교사들이나 설교자들이나 사도들에 의한 것이 아니라, 평범하게 보낸 받은 성도들에 의해 이룩된 것이었다.”⁴²⁾

인제(Dean Inge)는 기술하였다.

“기독교는 하나의 평신도 예언 신앙으로 출발하였다.…요컨대 기독교의 장래는 평신도에게 의존되어 있다.”⁴³⁾

그린(Byran Green)은 말한다.

“기독교 장래와 세계 복음화는 평범한 남녀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직업적인 기독교 목회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⁴⁴⁾

포드(Leighton Ford)는 언급한다.

“복음 증거를 특별한 사람들에게 제한을 두는 교회는 공히 교회의 머리되신 분의 의도나 초대교회 그리스도인의 지속적인 삶의 모

42) Leighton Ford의 저서인 *The Christian Persuader*에서 Harnack의 인용문을 보라.

43) E. Stanley Jones의 저서 *Conversion*, p. 219에 실린 Dean Inge의 글을 참조하라.

44) 상기서(上記書)의 Bryan Cree 글을 참조하라.

범과는 완전히 대조된다. 복음 전도는 전 교회의 과업이었지, 단지 유명 인사들의 점유사역이 아니었다.”⁴⁵⁾

그리고 마지막으로 스튜어트(J. A. Stewart)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지역모임의 각 지체들은 일상생활 중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했다. 그리고 새롭게 얻은 영적 갓난아이들을 각 지역교회에 데리고 왔는데, 그곳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안에서 교리를 배우고 힘을 얻어 자라갔다. 그후 그들은 다시금 동일한 전도사역을 위해 밖으로 나아갔다.”⁴⁶⁾

사도시대에 있었던 특징 중의 하나는 당시 지역교회 회중을 관장하는 성직자나 목사와 같은 특별 계급이 없었다는 점이다. 단지 정상적인 지역교회는 성도들, 집사들, 그리고 장로들로 구성되어 있었다(빌 1:1). 사실상 신약성경적인 입장에서 볼 때 전 성도가 모두 봉사하는 사역자들이었다. 감독들은 장로들로서 교회의 영적 인도자들이었다. 집사들은 특히 지역교회의 재정을 맡아 관리하는 봉사자들이었다.

일인(一人) 감독이나 장로(목사)가 성직자의 직분을 갖고 교회를 통치하지 않았다. 그곳에는 모임의 목자들로서 함께 동역하는 일단의 장로 그룹이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다면 사도, 선지자, 복음 전파자, 목사(목자), 교사는 누구입니까?”라고 질문할지 모르겠다. “그들은 모두 초대교회의 성직자들이 아닙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에베소서 4:12에 있다. 이 은사자들은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 교회에 주어진 사람들로서 그들은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하고, 그렇게 함

45) Jones가 *Conversion*에서 인용한 Leighton Ford의 글을 보라.

46) James A. Steward의 저서 *Pastures of Tender Grass*, p. 70을 보라.

으로써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도록 하는 자들이다. 이 은사자들은 한 지역교회에 영원한 직분자로서 정착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교회가 스스로 그 사역을 감당할 수준이 되도록 세우는 것이 그 목적이었다. 따라서 그 교회가 자립하면 그들은 순회성격을 띠고 다른 연약한 모임을 돌아보고 세울 수 있었고, 심지어 타 지역으로 옮겨갈 수 있었다.

교회 역사가들에 따르면, 성직제도는 주후 2세기경부터 시작되었다. 사실상 성직제도는 사도행전이 기록될 당시에는 전혀 알려지지 않은 생소한 이론이었다. 이 성직제도는 세계 복음화와 교회 확장에 하나의 큰 장애물이었는데, 그 제도는 극히 소수의 사람들에게 너무 과다하게 의존하게끔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신약성경에서 신자들은 단지 사역자(봉사자)들만이 아니었다. 그들은 또한 모두 제사장들이었다.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그들은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존전에 지속적으로 접근하였다(벧전 2:5).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그들은 어두움 가운데서 하나님의 놀라운 빛으로 그들을 불러내신 하나님에 관해서 증거할 수 있는 특권을 소유하였다(벧전 2:9).

그렇지만 여기서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다. 즉, 전 성도의 제사장직은 모든 사람이 다 공적으로 설교를 하거나 가르칠 수 있는 자격을 가졌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것은 일차적으로 예배와 증거하는 사람과 연관된 것이다. 또 한편으로 전 성도의 제사장직은, 교회 안에는 예배와 봉사를 전적으로 통제하는 특별한 제사장 직분을 가진 사람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을 강조해 준다. ♠

9:19-25 다메섹에 사는 제자들은 마음을 열고 사울을 영접했다.

그는 곧 회당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담대하게 선포하였다. 그러자 유대 청중들은 심히 당황하게 되었다. 사울이 전에는 예수란 이름을 심히 증오했었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다. 그런데 지금 그는 예수가 하나님이라고 가르치고 있지 않은가?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단 말인가?

이 첫 방문 동안 그가 얼마나 다메섹에 체류했었는지 우리는 잘 모른다. 하지만 갈라디아서 1장 17절을 참고해 볼 때, 그는 다메섹을 떠나서 불특정한 기간 동안 아라비아에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귀향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아라비아 여행이 사도행전 9장의 기록 중 어느 곳에 위치할까? 아마도 21절과 22절 사이의 사건일 것이다.

하나님께 탁월하게 쓰임 받았던 수많은 종들은 복음전도자로 보내심을 받기 전에 대체로 이같은 아라비아 혹은 광야 경험을 한 바 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사울은 자신의 생애에 일어났던 엄청난 사건들을 묵상할 기회를 가졌는데, 특히 자신에게 위임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에 대해 그러하였다. 그가 다메섹에 다시 돌아왔을 때(22절), 그는 이 예수께서 메시아가 되심을 증명(證明)함으로써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굴복시킬 수 있었다. 이같은 일련의 일들은 유대인들을 격분시켰다. 그래서 그들은 한때 자신들의 전사였으나 지금은 돌변하여 ‘배교자’, ‘이탈자’, ‘배반자’가 된 사울을 죽이기로 모의하였다. 사울은 밤중에 큰 광주리에 담겨 성문 벽에 있는 구멍을 통하여 내려 보내졌다. 그것은 수치스러운 탈출이었으나, 사울은 이제 자아가 깨어진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그같이 주님 앞에서 깨어진 사람은 타인이 꺼려하는바 그리스도를 위한 비난을 기꺼이 감내할

수 있다.

9:26-30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예루살렘은 사울이 방문할 수 있는 장소 가운데 가장 위험한 곳이었다. 하지만 자신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하는 확신을 소유하는 것이야말로 그가 자신의 신상 안전을 가장 적절하게 고려한 것이었다. 이번이 그리스도인의 신분으로서 사울의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이었는지는 모르지만, 그의 회심 3년 후에 있었던 예루살렘 방문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에서 그는 베드로와 야고보를 만났고, 그 외에 다른 사도는 아무도 만나지 않았다. 그런데 여기 27절에서는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사도들에게 갔다고 언급되어 있다. 물론 바나바가 사울을 인사시켜 준 대상이 베드로와 야고보일 수 있고, 아니면 다른 모든 사도일 수도 있다. 만일 후자가 맞다면, 이번 방문은 다른 곳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제2차 예루살렘 방문이다.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사울의 신자로서의 신앙 고백에 대한 진실 여부를 의심하여, 사울을 영접하기를 두려워했다. 바나바는 사울에게 친밀성을 보이면서 그의 회심을 상세히 설명하였다. 그리고 다메섹에서의 그리스도를 위한 담대한 증거를 이야기함으로써 위로의 아들이란 자신의 이름에 걸맞게 행동했다. 예루살렘에서의 사울의 담대한 증거를 보았을 때, 예루살렘 성도들은 그의 회심이 진실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사울은 헬라파 유대인들 중에서도 가장 심한 반대자들을 극도로 자극시켰다. 이 격분한 유대인들로 인해 사울의 생명이 위협하다는 사실을 직감했을 때, 주안의 형제들은 사울을 가이사라 해안으로 데리고 갔다. 그곳에서 그는 소아시아 동남쪽 근해에 위치한 고향 다소로 갔다.

9:31 그때서야 비로소 팔레스틴에 있는 교회들이 숨 쉴 수 있는 틈을 가질 수 있었다. 실로 이때는 그들이 쟁취한 것으로 인해 위로와 격려를 받는 시간이었다. 또한 이때야말로 교제권이 숫자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을 목격하는 시간이었다.

3. 땅 끝에 있는 교회(9:32-28:31)

1. 이방인을 향한 베드로의 복음 전파(9:32-11:18)

9:33-34 이제 이야기의 중심이 베드로로 전환되는데, 우리는 그가 유대 여러 지역에 있는 신자들을 방문하는 모습을 발견한다. 드디어 베드로는 예루살렘 북서쪽, 읍바(현재는 자파 혹은 야포로 불리움)로 가는 길에 위치한 룻다에 도착했다. 그곳에서 그는 중풍으로 팔 년 동안 침상에 누워있는 한 병자를 발견했다. 베드로는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치료자이심을 선포하였다. 그러자 애니아는 즉시 일어나 자신의 자리를 거두었다. 애니아가 영생과 더불어 육체적인 병 고침을 동시에 받았다는 추측은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

9:35 병고침 받은 중풍병자는 룻다 도성과 사론 전 지역에 걸쳐 주님의 역사를 간증하며 다녔다.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왔다.

9:36-38 읍바는 팔레스틴의 주요 항구로서 예루살렘 북서쪽 48km 정도 떨어진 지중해에 위치하였다. 그리스도인 중에는 도르

가⁴⁷)라는 이름을 가진 친절한 마음씨를 가진 부인이 있었는데, 그녀는 가난한 자들을 위해 옷을 만든 여인으로 잘 알려져 있었다. 갑자기 그녀가 죽자, 제자들은 룻다에 베드로가 지체 없이 오기를 간청하는 급한 전갈을 보냈다.

9:39-41 베드로가 그곳에 도착했을 때, 모든 과부들은 생전에 도르가가 그들을 위해 만든 옷가지들을 보여주면서 슬프게 울었다. 베드로는 그들을 다 내어 보낸 후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였고, 다비다에게 일어나라고 명하였다. 그러자 그녀는 즉시로 회생하여 그리스도인 친구들과 더불어 재회(再會)의 기쁨을 나누었다.

9:42 이 여인의 부활의 기적 사건은 사람들에게 널리 알려졌고, 그 결과 다수의 사람들이 주님을 믿게 되었다. 하지만 42절과 35절을 비교해 볼 때 도르가의 회생 사건보다 애니아의 병 고침을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이 회심한 것 같이 보인다.

9:43 베드로는 읍바에서 여러 날을 피혁장이 시몬의 집에 체류하였다. 여기 시몬의 직업에 관한 언급은 의미심장하다.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피혁장이 일을 비천한 직업으로 생각했다. 동물 사체(死體)의 지속적인 접촉은 의식법 차원에서 볼 때 불결한 요인이 되었다. 따라서 베드로가 시몬과 함께 기거했다는 사실은, 베드로가 더이상 특별한 유대주의적 의식에 묶여 있지 않음을 보여준다.

기독교 복음 전파의 성공적인 기록을 담고 있는 세 장에서 우리는 노아의 세 아들 중의 하나인 함의 후손의 회심을 보게 되었다고

47) 다비다는 아람어이고, 도르가는 헬라어 표기이다.

말하곤 한다. 사실 에디오피아 내시(8장)는 의심할 바 없이 함의 족보에 속해 있었다. 그리고 다소의 사울(9장)은 셈의 후손이었다. 또한 이제 10장에서 우리는 야벳의 후손인 고넬료를 보게 된다. 이는 복음이 모든 민족과 문화를 위한 것임과 아울러 그리스도 안에서 제반 민족의 구분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에 대한 강력한 증거이다.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에서 유대인들의 믿음의 문을 여는데 있어 왕국의 열쇠를 사용했던 것처럼, 그는 이제 여기 10장에서 이방인들에게도 동일한 역할을 하고 있다.

10:1-2 본장은 옴바에서 북쪽으로 48km 가량 떨어진 가이사라에서부터 시작된다. 고넬료는 로마군 소속 장교였다. 백부장으로서 그는 백여 명 가량의 사병을 지휘하였다. 그는 군인으로서의 신분보다 경건한 사람으로 더 주목받는 인물이었다.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가난한 유대 사람들을 구제하고 기도를 쉬지 않는 자였다. 라이리(Ryrie)는 고넬료를 이같이 묘사하였다.

“그는 기독교 입문을 앞두고 있는 자일 것이다. 즉, 그는 유대교의 하나님과 그분의 통치를 믿었다. 그러나 아직은 진정한 개종자가 되기 위한 어떤 걸음을 내딛지 못한 사람이었다.”⁴⁸⁾

고넬료가 당시 구원받은 사람이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가 구원받은 자였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베드로가 명백히 고넬료에 관해서 언급한 2절, 35절을 근거로 제시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35절). 반면, 고넬료가 당시 구원받지 못했다고 가르치는 사람들은 11장

48) Ryrie의 저서 *Acts*, p. 61를 보라.

14절을 근거로 제시한다. 그곳에서는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구원받게 할 말을 전하게 될 것이라는 천사의 말이 인용되어 있다.

우리가 믿기로, 고넬료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빛을 따라 산 사람의 본보기라고 본다. 이 빛이 그를 구원하기에 불충분했기에 하나님은 그에게 복음의 빛을 부가적으로 수여하셨노라고 확인시켰다. 베드로의 방문 전에, 그는 구원의 확신을 소유하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참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과 혈연관계를 맺고 있다고 느꼈다.

10:3-8 어느 날 오후 3시쯤 고넬료는 하나님의 사자(使者)가 나타나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환상을 보았다. 이방인으로서 그는 유대인의 경우와는 달리 천사(사자)들의 사역을 잘 인식하지 못했다. 그래서 몹시 두려움을 느낀 그는 천사를 주님으로 착각하였다. 천사는 그의 기도와 구제를 하나님께서 열납하셨다는 것을 재확인시켜 주었다. 또한 해변에⁴⁹⁾ 있는 피혁장이 시몬의 집에 머물고 있는 시몬 베드로를 찾아 남쪽에 위치한 읍바로 가라고 천사는 말하였다. 절대적인 순종의 자세를 갖고 백부장은 집안 하인 두 명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군인들을 함께 읍바로 보냈다.

10:9-14 이튿날 정오쯤에 베드로는 읍바 시몬의 집에 부속된 평평한 지붕 위로 기도하기 위해 올라갔다. 사실 그는 시장기를 느껴 음식을 먹고 싶었으나, 아직 아래층에서는 식사를 준비하는 중이었다. 물론 그의 시장기는 곧이어 일어날 현상에 대한 적절한 준비가 된 셈이었다.

49) 당시 피혁공들은 도성 외곽에서 작업을 했다. 바닷가에 인접한 것이 동물 가죽을 위생적으로 처리 하는데 이상적인 장소였다.

무아경(無我境) 속에서 그는 하늘에서 네 모퉁이가 끈으로 묶인 채 땅으로 내려오는 보자기를 보았는데, 그 안에는 네 발 가진 각종 짐승들과 새들, 그리고 부정한 파충류가 들어 있었다. 그때 하늘로부터 직접 전달된 소리가 배고픈 사도에게 들려왔다. “일어나 잡아먹으라!” 유대인으로 하여금 어떤 부정한 생물의 섭생을 금한 모세 율법을 기억하면서 베드로는 역사적으로 기억될만한 모순된 발언을 했다.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이에 대해 스크로기(Scroggie)는 “누구든지 ‘그럴 수 없나이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거기에 주님을 덧붙여서는 안 되며, 누구든지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그럴 수 없나이다’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고 주석하였다.

10:15-16 베드로가 자신은 단지 율법에 허락된 음식을 섭취했었노라는 과거 기록을 설명했을 때, 하늘로부터 다음과 같은 소리가 있었다. “하나님께서 깨끗케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 하지 말라.” 이 같은 내용의 대화가 세 번 있을 후 그 그릇이 하늘로 올리워갔다.

그 환상이 정하거나 부정한 음식을 먹는 것 이상의 심오한 의미가 있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물론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소유하면 구약과 같은 음식에 관한 규정이 더 이상 제한을 주지 못한다. 그러나 이 환상의 진정한 의미는 이것이니 곧 하나님께서 이방인에 계도 믿음의 문을 열고자 하신다는 점이다. 유대인으로서 베드로는 항상 이방인을 부정한 자, 나그네, 이방인, 그리고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자들로 여겨 멸시해 왔다. 하지만 바야흐로 하나님은 이제 새 일을 진행하고 계셨다. 유대인들(정결한 짐승들과 새들)이 이미 성령을 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이방인들(부정한 새들로 대표됨)도 성령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민족간, 종교간의 담은 허물어지고 주 예수 안에서

모든 참 성도들은 동등하게 그리스도인의 교제권을 갖게 될 것이었다.

10:17-23a 베드로가 이 환상이 무슨 뜻인가 생각할 즈음, 고넬료가 보낸 종들이 시몬의 집 문에 도착하여 베드로가 집안에 있는지를 물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는 방문객들을 영접하고자 지붕에서 내려왔다. 그들의 방문 목적을 들은 후, 그는 그들을 환영하고 숙소를 제공하였다. 그 종들은 자신의 주인을 존칭을 쓰며 불렀다. 그분은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10:23b-29 이튿날 베드로는 고넬료의 세 종들과 읍바 두어 형제와 함께 가이사랴로 갔다. 그들은 꼬박 하루를 여행한 것 같다. 왜냐하면 그들이 가이사랴에 도착한 것은 이튿날이었기 때문이다.

베드로의 방문을 기다리면서 고넬료는 일가(一家)와 가까운 친구들을 초청하였다. 베드로가 도착했을 때, 그 백부장은 경외의 표시로써 베드로 발 앞에 엎드렸다. 이같은 예의 표시를 만류하면서 베드로는 자신은 단지 사람일뿐임을 밝혔다. 만일 베드로의 계승자로 자처하는 사람들이 자신들 앞에 무릎 꿇는 것을 금함으로써 베드로의 이같은 겸손을 배울 수만 있었다면!

집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집결한 것을 발견한 베드로는, 유대인으로서 그가 이처럼 이방인의 집에 출입하는 것이 합당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더 이상 이방인을 접촉 못할 존재로 생각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노라고 증거했다. 그후 그는 자신을 초청한 이 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10:30-33 고넬료는 재빨리 사흘 전에 보았던 환상을 설명해 주었다. 즉, 천사가 나타나 그의 기도가 상달되었으니 베드로를 청하라고 확신시켰다는 내용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이들의 마음의 갈증은 칭찬할 만하다. 고넬료는 덧붙였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이처럼 열려 있고 배우려는 정신은 분명 하나님의 교훈을 보상받을 것임에 틀림없다.

10:34-35 베드로는 간략한 수공의 말로 그의 메시지의 서론을 대신하였다. 지금까지 그는 하나님은 다른 민족보다 이스라엘을 편애하시는 분으로 믿어 왔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은 인간의 국적 때문에 그 사람을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지를 막론하고 정직하고 상한 마음을 소유한 사람에게 관심을 보이신다는 사실을 그는 깨닫게 되었다.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받으신다.”

본문 35절은 다음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1) 몇몇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 참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면 비록 그가 주 예수에 대해 못 들었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대속적 희생에 관해 몰랐을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감안하여 주님의 희생을 근거로 그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것이 그 논지이다. 요컨대, 하나님은 어디서든지 참 믿음을 발견하면 그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역의 가치를 적용시켜 준다는 이론이다.

(2) 또 다른 견해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행실을 할지라도 그것이 그를 구원받은 사람으로 만들 수는 없다는 것

이다. 실로 구원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주님께 관해 받은 빛을 따라 산 사람을 발견할 때, 하나님은 기필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복음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신다는 견해이다.

우리가 믿기로는 두 번째 견해가 더 합당한 해석인 것 같다.

10:36-38 연이어 베드로는 비록 복음 메시지가 우선적으로 유대인에게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러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 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만유(萬有)의 주이심을 청중들에게 상기시켰다. 그 청중들은 나사렛 예수의 이야기를 들어야 했다. 그 이야기는 요한이 침례를 베풀 즈음에 갈릴리에서 시작되어 온 유대에 두루 전파되었다. 성령에 의해 기름 부음 받은 예수님은 타인을 위한 비이기적인 섬김의 삶을 사셨고,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

10:39-41 사도들은 예수께서 행하신 모든 진리에 대한 증인이었다. 그들은 주님과 함께 온 유대와 예루살렘을 여행하였다. 주님의 흠 없는 삶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분을 나무에 달아 살해하였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흘 만에 주님을 죽음에서 살리사 하나님께서 미리 택하신 증인들에게 나타나 보이도록 하셨다. 사실상 사도들은 그분을 보았을 뿐 아니라,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음식을 먹었다. 물론 이 사건은 주님의 부활하신 몸은 만질 수 있고 물질적이며, 육체적인 몸임을 보여준다.

10:42 부활하면서 주님은 사도들에게 자신을 ‘산 자와 죽은 자

의 재판장'으로 선포할 것을 명하셨다. 이같은 사실은 성부께서 성자에게 모든 심판을 위임했노라고 가르치신 많은 다른 성구의 지지를 받고 있다(요 5:22).

10:43 하지만 베드로는 심판에 관한 언급으로 시간을 다 소비하지 않았다. 대신 그는 연이어 장엄한 복음진리를 증거하면서 어떻게 주의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였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가 가르쳤던 것처럼 누구든지 메시아의 이름을 믿는 사람들은 죄사함을 얻을 것이다. 이 약속은 단지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어졌던 것이 아닌, 온 세계를 향해 약속된 것이다. 여러분도 진정 죄 용서를 받고 싶은가? 그렇다면 주님과 그분의 십자가 공로를 믿으라!

10:44-48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이방인들에게 부어졌다. 그리고 그들은 모두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이같은 현상은 고넬료와 그의 권속이 진정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당시 그곳에 출석해 있던 사람들에게 표지였다. 율바에서 온 유대 출신 방문자들은 이방인들이 이렇게 유대인으로 개종하지 않고도 성령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에 크게 놀랐다. 하지만 베드로는 지속적으로 유대교 편견에 묶여 있지 않았다. 그는 즉시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이방인간의 구별을 두지 않는다는 것을 감지하였다. 그래서 그는 고넬료 가족들에게 침례 받을 것을 권유하였다.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란 표현을 주목해 보라. 이 이방인들은 유대인과 동일한 방법, 즉 예수님께 대한 단순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던 것이다. 거기에는 율법 준수, 할례의식 준

수, 제반 의식법 등을 지키라는 조건이 없었다.

덧붙여 이방인이 성령을 받는 것과 연관된 순서를 주목하라.

(1) 그들은 말씀을 들었다. 즉 그들은 말씀을 들으면서 곧바로 믿었다(44절).

(2) 그들은 성령을 받았다(44,47절).

(3) 그들은 침례를 받았다(48절).

이것이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열국 중에서 사람들을 불러내실 때 이 세대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동일하게 나타났던 사건의 순서였다.

가이사라에서의 이같은 성령의 은혜의 사역 후에 성도들이 베드로에게 수일 더 머무르도록 간청한 것은 전혀 놀랄만한 일이 못된다.

11:1-3 베드로가 이방인에게 설교했고,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소식은 신속히 유대 성도들의 귀에 들어갔다. 그 결과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귀향했을 때, 그는 이방인과 더불어 음식을 먹은 일에 대해 할례자들의 비난을 받았다. 여기서 할례는 아직까지 유대교적인 사고방식에 젖어 있는 유대계 출신 그리스도인들과 연관되어 있었다. 예컨대, 그들은 주님의 완전한 복을 받으려면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믿었다. 그들은 아직까지도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식탁을 대한 것은 그릇되었다고 생각하였다.

11:4-14 자신의 행동을 변호하면서 베드로는 전에 일어났던 사건의 전모, 즉 하늘로부터 내려온 보자기, 고넬료에게 나타난 사자의 출현,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의 적시 도착, 그들과 동행하라는 성

령님의 명령, 이방인에 입한 성령의 부어주심 등을 간략히 재설명하였다.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독특한 많은 방법으로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 사실을 반대하거나 저항하는 것은 명백하게 주님을 반대하는 것이었다.

이번 메디지 가운데서 베드로는 전장에 언급되지 않은 여러 흥미 있는 설명을 덧붙였다.

(1) 그는 그 보자기 그릇이 하늘에서 자신이 있던 장소로 곧바로 내려왔다고 말했다(5절).

(2) 그는 그것을 의도적으로 주목했다고 말했다(6절).

(3) 베드로는 옴바에서 여섯 형제가 가이사랴까지 동행했다고 그 인원을 소상히 밝혔다(12절).

(4) 14절에는, 천사가 고넬료에게 약속하기를 자신과 자신의 권속들이 구원 얻을 말씀을 베드로가 전해줄 것이라고 했다고 알려준다. 이 구절은 고넬료가 베드로의 방문 이전에는 구원받지 못했다는 확실한 증거 중의 하나이다.

11:15 베드로의 말에 따르면, 성령은 그가 말하기 시작했을 때 이방인들에게 임하였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그는 이미 어느 정도 메시지를 전했던 것 같다. 정리해보면, 그는 말하기 시작했고, 그때 성령님이 임했기 때문에 그는 더 이상 이야기를 진전시키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다.

11:16 성령님이 이방인에게 임했을 때, 베드로는 즉시 오순절 사건을 기억하였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의 마음은 주의 말씀, 즉 주의 제자들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는 약속을 회상하였다. 그

는 그 약속이 오순절날 일부가 성취되었고, 지금 재차 성취되고 있음을 인식하였다.

11:17 그때 베드로는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할례당을 대면하였다. 그런즉 하나님이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전에 하셨던 것처럼 이방인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려고 선택했다면, 베드로인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는가?

11:18 할례자들이 베드로의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손길이 그곳 가운데 임재하사 모든 일들을 주관하셨음을 인식하였다. 이제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반대는 완전히 해소(解消)되었다. 따라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가 주어졌다고 하는 하나님께 대한 찬송이 그곳에 있었다.

2. 안디옥에서의 교회 개척(11:19-30)

11:19 이제 이야기는 다시 스테반 순교에 따른 환난의 시기로 뒤 돌아간다. 다른 말로, 그 사건들은 다음 아래 구절에서 고넬료의 회심 이전에 일어났던 일들로 묘사되고 있다.

환난을 인해 흩어진 자들이 다음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였다.

(1) 베니게-동북 지중해를 따라 위치한 좁은 해안지대로서 두로와 시돈(현재의 레바논)의 일부를 포함하는 지역.

(2) 구브로-동북 지중해에 위치한 하나의 큰 섬.

(3) 구레네-아프리카(현재의 리비아) 북쪽 해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복음을 단지 유대인에게만 전하였다.

11:20-21 그러나 구브로와 구레네 출신으로서 안디옥에 간 몇몇 그리스도인이 있었는데, 그들은 그곳에서 헬라인에게⁵⁰⁾ 복음을 선포하였다. 그들의 복음증거 사역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님께 돌아왔다. 그랜트(F. W. Grant)는 이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이 모든 사역에 있어 관제(官制)가 어떻게 배제되었는가 특이할 만하다. 실상 우리는 그 사역에 쓰임 받은 단 한 명의 이름도 모르고 있다.”

안디옥에서의 기독교 소개는 향후 교회의 진군(進軍)을 위한 중차대한 단계였다. 안디옥은 팔레스틴 북쪽, 시리아의 오르테스(Orontes) 강변에 위치하였다. 그것은 로마제국 중 세 번째로 큰 도성으로서 ‘고대 세계의 빠리’란 별명을 갖고 있었다. 이곳에서부터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후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선교여행을 떠나게 된다.

11:22-24 영적 대각성의 소문이 예루살렘 교회에 전해지자 그 안디옥에 친절하고 따뜻한 마음씨의 소유자인 바나바를 보내기로 결정했다. 이 사랑스런 성도는 주님께서 그들 이방인 가운데서 강력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한 눈에 알아보았다.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굳센 마음으로 주님께 붙어 있으라고 권하였다. 유아기 수준의 교회가 이처럼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일꾼의 방문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선한 일인가! 그가 그곳에 머무는 동안 큰 무

50) 신약에서 ‘헬라인’들은 일반적으로 헬라계 유대인을 가리킨다. 하지만 여기 본문에서는 헬라인(그리스인), 즉 이방인을 가리킨다. 여기서 문맥을 살펴보자. 19절에서는 “다만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했다”고 언급한 반면, 20절에서는 “또한 헬라인에게도”라고 덧붙이고 있다.

리가 주님께 더하였다. 게다가 예루살렘 교회와의 연합이 아름답게 보존되었다.

11:25-26 그럴 즈음 바나바는 다소의 사울을 기억하였다! 실상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에게 사울을 소개한 장본인이 바로 바나바였다. 그때 유대인의 암살 음모로부터 사울을 구출하기 위해 성도들은 그를 재빨리 숨겼다. 그 이후 그는 자신의 고향인 다소에 머물러 있었다. 사역에 있어 사울을 격려하려는 열망과 안디옥 교회에 바울을 통한 가르침의 유익을 주기 위하여 바나바는 다소에 가서 사울을 안디옥으로 데리고 왔다. 일 년 동안 이 환상적인 팀은 안디옥 교회에서 동역하면서 큰 무리를 가르쳤다.

제자들이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운 곳이 바로 안디옥이었다. 의심할 바 없이, 당시 그리스도인이란 용어는 비난의 말이었으나, 그 이후로 구세주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 의해 환영받게 되었다. 여기서 스투어트(J. A. Stewart)의 주석을 참고한다.

“덕망 있는 마이어(F. B. Meyer)는 말한다. 안디옥은 그리스도인 연감(年鑑)에 있어 가장 유명한 장소일 것이다. 왜냐하면 성직을 받지 않은 무명의 일단의 제자들이 사울의 핍박 아래 예루살렘으로부터 도피하여 감히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였고, 전적으로 유대교 우월주의와는 무관하게 회심자들이 함께 모여 하나의 교회를 구성했기 때문이다.

만일 이같은 신자들이 일인 목회를 하는 현대의 많은 교회 중의 하나에서 나갔다면, 결코 이같은 대승리의 역사가 교회사에 기록되지 못했을 것이다. 대부분의 신자들이 사역할 기회를 갖지 못했기 때문에 수많은 교회에서 성령의 사역의 은사들이 활용되지 못하는

것은 얼마나 서글픈 일인가!

모든 신자 그룹들이 일인 목회자에게 자신들을 향한 목회를 전담 시키는 한, 한 가지 분명한 결과 곧 세상의 복음화는 결코 성취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모든 자원하는 주일학교 책임자, 주일학교 교사 및 성경공부반 교사들 등 소위 평신도 일꾼들을 인해 하나님께 감사드리자! 만일 그들 모두가 자신들이 한 봉사의 대가(값)를 받았다면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재정적으로 제 기능을 담당할 수 없었을 것이다.”⁵¹⁾

11:27-30 비록 안디옥이 이방인 전도의 중심지가 되었을지라도, 안디옥의 그리스도인들은 유대인을 위한 복음 증거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 교회와 더불어 항상 거리낌 없는 뜨거운 사랑의 교제를 유지하였다. 이어지는 다음 사건은 이 사실을 잘 보여준다.

그 즈음에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온 어떤 선지자들이 있었다. 이 선지자들은 성령에 의해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 말하는 은사를 소유한 신자들이었다. 그들은 직접 주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아 그것을 사람들에게 전달하였다. 그 중에 아가보라 하는 한 사람이 곧 큰 흉년이 온 지면을 덮을 것임을 예언하였다. 그 흉년은 로마 통치자 클라우디스 때 임하였다. 그러자 안디옥의 제자들은 유대에 사는 그리스도인 형제들에게 부조(扶助)를 보내기로 서둘러 결정하였다. 이것은 확실히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고, 또한 옛부터 전수되어 온 피차간의 반목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 사라지는 감동적인 경험이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처럼 순전하고 자원하는 균형 잡힌 제자들 가운데 나타났다. 그들은 각각 그 힘이 닿는

51) James A. Stewart의 저서 *Evangelism*, p. 100,101를 보라.

대로 도왔다. 그랜트(F. W. Grant)는 슬프게 이같이 지적했다.

“오늘날은 마치 자신의 여분 중에서 극히 일부를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 돕는 것 같고, 풍부한 소유물 중에서 최소한의 것을 돕는데 쓰는 것 같이 보인다.”

모아진 연보는 바나바와 사울의 손을 통해 장로들에게 전달되었다. 이 부분이 교회와 연관된 장로들에 대한 최초의 언급이다. 하지만 장로들에 관한 개념은 회당에 장로들이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결코 낯선 것이 아니었다. 어떻게 이같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장로들이 되었는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방인 교회에 있어 장로들은 사도들이나 혹은 사도들이 위임한 대표자들이 위임하였다(14:23, 딤후 1:5). 이 장로들의 자격은 디모데전서 3장 1-7절과 디도서 1장 6-9절에 나타나 있다.

3. 헤롯이 가한 핍박과 그의 죽음(12:1-23)

12:1-2 교회를 향한 사단의 가혹한 공격은 계속되었다. 이번에는 헤롯왕으로부터 핍박이 시작되었다. 이 사람은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립바 1세였다. 그는 로마 황제인 클라우디스에 의해 유다 분봉왕으로 지명되었다. 모세 율법의 준수자인 그는 유대인을 기쁘게 하는데 주력하였다. 따라서 그가 교회 중 몇 사람을 괴롭히고,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살해한 것은 이같은 친유대인 정책의 일환이었다.

우리 주님과 더불어 변화산상에서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고보였다. 또한 자신의 두 아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좌우편 보좌에 앉게 해달라고 간구했던 여인도 바

로 이 야고보의 모친이었다. 본서 12장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방법들에 관한 흥미 있는 연구 자료를 제공한다. 야고보는 대적에 의해 죽임을 당했으나, 그러나 베드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감옥에서 구출되었다. 인간의 이성은 ‘왜 이같은 차별대우가 베드로에게 배려되었는가’라고 질문할 것이다. 하지만 믿음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를 신뢰한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질병은 우리에게 선(善)이고,
반면 축복받지 않은 선은 오히려 큰 질병이라네.
그리고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 있다면,
가장 최악의 상황처럼 보이는 것이
도리어 올바른 것일 수 있다네.”

(프레드릭 웨이버)

12:3-4 유대인들이 야고보의 처형에 열광적으로 반응하자, 격려를 받은 헤롯은 베드로도 동일하게 처형하려 하였다. 그러나 때는 무교절 기간이었다. 이 종교적인 축제 기간 중에 사람을 처형하는 것은 합당하지 못했다. 또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예배행사로 너무 바쁜 나머지 헤롯의 행동에 감사를 표현하지 못할 수도 있었다. 그래서 헤롯은 그 기간 동안 베드로를 옥에 감금하라고 명했다. 베드로 사도는 각기 4명으로 구성된 네 조의 병사들의 감시를 받았다.

12:5 예루살렘 교회는 이전에 있었던 야고보의 순교 상황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었기에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였다. 캠벨 몰간(G. C. Morgan)은 이같이 주석하였다.

“앞뒤가 맞지 않으나 이같은 간절한 기도의 힘은 헤롯의 권좌보다 크고, 지옥의 권세보다 더 막강하였다.”

12:6-11 헤롯이 베드로를 잡아내려고 계획한 전날 밤 베드로는 두 군사 틈에서 쇠고랑을 찬 채 곤하게 잠이 들었다. 어떤 사람은 그의 취침을 일컬어 믿음의 승리라고 했다. 아마도 그는 늙을 때까지 살게 되리라는 주의 약속을 기억했을 것이다(요 21:18). 따라서 헤롯이 지금 자신을 죽일 수 없을 것임을 알았을 것이다. 그때 갑자기 주의 사자가 나타났고, 감옥은 광채가 가득하였다. 베드로의 옆구리를 친 사자는 그에게 급히 일어나라고 명했다.

그 즉시 손에 묶여있던 쇠사슬이 벗어졌다. 간단명료한 말로 사자는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겹옷을 입고 자신을 따라라고 했다. 어리벙벙한 상태에서 베드로는 사자를 따라 감옥의 첫째, 둘째 경비병을 통과하였다. 그들이 철문에 이르자 자동문처럼 문이 저절로 열렸다. 그들이 도성의 한 거리를 지날 즈음에 사자가 사라져버렸다. 그때 비로소 베드로는 이것이 꿈이 아니고 생시라는 것을 알아차렸고, 주께서 기적적으로 자신을 유대 백성과 헤롯의 손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깨닫게 되었다.

12:12 가던 길을 멈추고 충분히 생각을 하자, 베드로는 제자들이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 집에서 기도하고 있을 것이라는 마음이 들었다. 베드로의 탈옥이 대략 새벽에 일어났을 것임을 감안해 볼 때, 그들은 필시 밤을 지새며 기도하고 있었을 것이다.

12:13-15 대문을 두드린 베드로는 잠시 밖에서 기다렸다. 로데

(헬, '장미'의 뜻)라 하는 소녀가 영접(迎接)하러 나왔다. 그러나 그녀는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너무 흥분해서 문을 미처 열지 못했다! 그녀는 기도하고 있던 성도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하고자 발걸음을 되돌려 달려 들어갔다.

하지만 소식을 들은 성도들은 그녀가 분명 미친 것임에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그 소녀는 베드로가 진정 문 밖에 서 있노라고 힘써 말했다. 그러자 기도하던 사람들은 “그렇다면 그것은 베드로의 수호천사임에 틀림없다”고 단정지었다. 계속해서 그녀는 적극적으로 베드로의 천사가 아닌, 베드로가 지금 와 있노라고 주장했다.

많은 경우 당시 이 신자들은 그들의 불신적인 기도 자세 때문에 비난을 받아왔다. 실상 그들은 그 기도가 응답되었을 때 몹시 당황해 하였다. 하지만 이같은 비평은 아마도 각자 우리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자의식에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타인을 비난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같은 믿음 없는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사실로써 위안을 삼아야 할 것이다. 솔직히 말해서 우리 모두는 불신할 때가 많은 신자가 되는 성향이 있지 않은가!

12:16-17 그러는 동안 베드로는 문 밖에 서서 문을 계속 두드렸다. 결국 대문을 열고 베드로를 목격한 뒤에야 그들의 모든 의심은 사라져버리고 큰 기쁨이 충만하게 되었다. 베드로는 급히 그들에게 조용히 하라고 주의시키고 간략하게 자신의 기적적인 구출사건을 보고하였다. 그리고 그는 야고보(아마도 알패오의 아들)와 형제들에게 이 소식을 전하라고 부탁하고 다른 곳으로 떠났다. 당시 그가 어디로 갔었는지 그 행선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12:18-19 아침 시간에 베드로가 실종된 것을 발견하자 불운한 병사들은 큰 혼란 속에서 몹시 당황하였다. 헤롯에게도 그 사건은 상식 밖의 충격적인 경험이었다. 군사들이 확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곤 아무것도 없었다. 게다가 군사들의 서툰 변명이 헤롯을 더 화나게 만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경비하던 병사들을 처형 하라고 명하였다. 그는 자신의 손상된 자존심을 치유하고자 가이사 라로 떠났다.

12:20 어떤 알려지지 않은 이유로 인해 헤롯은 지중해를 끼고 있는 두 상업 항구인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향해 대단히 노여워하게 되었다. 이 도성의 사람들은 가이사라에서 헤롯의 휴가를 이용, 그의 환심을 사고자 노력하였다. 왜냐하면 그들은 유대에서 곡물을 수입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왕의 침소(寢所)를 맡은 신하 블 라스도를 통하여 외교관계의 회복을 요청하였다.

12:21-23 어느 날 헤롯은 화려한 왕복(王服)을 갖추고 나아가 사 람들에게 연설하였다. 군왕들은 열광적으로 소리쳤다. “이것은 신 의 음성이지 사람의 음성이 아니라.” 그는 이같은 신적 칭송을 받을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주의 사자가 끔 직한 질병으로 치니 곧 죽었다. 이때가 주후 44년이였다.

이렇듯 유대인을 즐겁게 하고자 야고보를 처형했던 이 사람은 공 히 몸과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처형당 하고 말았다. 헤롯은 자신이 뿌린 씨의 열매를 스스로 거두었다.

4. 바울의 제1차 선교여행 : 갈라디아(12:24-14:28)

12:24 한편, 복음은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나갔다. 실로 하나님은 인간의 분노를 하나님께 대한 찬양으로 만드시고, 그 남은 분노는 그분께서 금하신다(시 76:10). 하나님은 사람들의 궤계를 무력하게 만드신다. 그러나 주님의 도모(圖謀)는 영원히 설 것이다(시 33:10-11).

12:25 안디옥 교회가 준비한 부조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하는 사명을 마친 바나바와 사울은 후에 제2복음서인 마가복음서를 집필한 바나바의 생질인 마가라고 하는 요한을 데리고 안디옥으로⁵²⁾ 돌아왔다.

바나바와 사울이 야고보의 순교와 베드로의 투옥, 그리고 헤롯왕이 죽을 당시에 예루살렘에 있었는지의 여부는 알 길이 없다.

많은 성경 주석가들은 본서 13장이 사도행전에서 하나의 독특한 분기점을 갖고 있다는 사실에 공감한다.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13장을 ‘사도행전 제2권’(Volume 2 of Acts)으로 일컫기도 한다. 이제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의 중심인물로 등장하며, 수리아 안디옥은 복음의 이방인 전파를 위한 중심지가 된다.

13:1 우리가 11장에서 살펴본 대로 안디옥에 교회가 형성되어 있었다. 담임 목회자나 목사처럼 위임받은 일인목회자 대신에 이 모임은 복수 은사자들을 소유하고 있다. 특별히 거기에는 최소한 5명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선지자는 성령의 특별한 은사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를 받아 그것을 다른

52) 알렉산드리아 사본과 대부분의 사본들은 ‘예루살렘으로’라고 번역되어 있다. 바나바와 사울이 13:1에서 다시 안디옥에 있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기에 필사자들이 ‘예루살렘에서’라고 정정하여 쓴 것 같다.

사람에게 선포하는 사람이다. 실질적 의미에서 선지자들은 주님의 대변자로서 종종 장래 일들을 언급하곤 했다. 교사들은 성령의 능력을 부여받아 타인에게 단순하고 이해할만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하거나 해석하는 사람들이다.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이름은 다음과 같이 언급되었다.

(1) **바나바**-우리는 이미 이 탁월한 그리스도의 종이요 바울의 충성스러운 동역자를 소개한 바 있다. 여기서 그는 첫 번째로 언급되었는데, 아마도 믿음의 연조에 있어서 혹은 그리스도를 위한 봉사 에 의해 최고의 연장자였기 때문이리라.

(2)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이름으로 추정하건데 그는 출생신분상 아마도 아프리카인 유대교 공동체에서 온 사람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이방인들 가운데서 사역하기 위해 편의상 니게르(‘흑인’ 혹은 ‘거무스름한’의 의미)라는 이름을 소유했는지 모른다. 아니면 그는 이름이 제시하듯이 흑인이었을지도 모른다. 그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가 전혀 없다.

(3) **구레네 사람 루기오**-그는 아마도 안디옥에 제일 먼저 와서 주 예수님의 복음을 전파한 구레네 사람들 중의 하나일 것이다(11:20).

(4) **마나엔**-그는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으로 언급되어 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진 최초의 회심자들 중의 하나로서 사악한 헤롯 안디바(Herod Antipas)와 그토록 가까운 친족이었던 것이 흥미 있다. 분봉왕이란 칭호는 헤롯이 자신의 선친 왕국의 4번째 영역을 통치했음을 지시해 준다.

(5) **사울**-비록 이 명단의 마지막에 언급되었지만, 사울은 ‘나중 된 자가 첫째가 되리라’는 진리의 생생한 실례가 되었다.

이 다섯 명은 초대교회가 인종차별 폐지와 피부색깔에 초월했을
을 잘 보여준다. “이제 새로운 척도가 생겼다. 즉, 그가 누구냐가 중
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의 소유인가가 더 관건이다.”

13:2 이 선지자들과 교사들은 아마도 전 교회와 더불어 기도와
금식의 시간을 함께 가졌던 것 같다. 문맥을 살펴볼 때, ‘주를 섬겨’
라는 표현은 그들이 기도와 중보로 시간을 보냈다는 의미이다. 금
식을 통해 그들은 육체의 합법적인 욕구를 부인했고, 그렇게 함으
로써 그들은 방해받지 않고 영적인 훈련에 자신을 드릴 수 있었다.

왜 그들은 함께 모여 기도했을까? 그들이 세계 복음화에 대한 큰
부담 때문에 그 모임을 소집했다고 믿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은
아닐까? 물론 본문에는 그 모임이 밤을 지새며 기도했다는 증거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그 모임이 오늘날 통상적인 기도 모임
보다는 더 신중하고 장시간에 걸친 기도모임이었음이 분명하다. 그
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명백하게 그들에게 지시하셨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에 두고 계신 특별한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는 것이었다. 덧붙이면, 이 본문은 성령의 인격성(人格
性)에 대한 명명백백한 증거 구절이다. 만일 성령께서 단지 하나의
영향력이셨다면, 본문에 이같은 언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은 납득하
기 어렵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어떻게 선지자들과 교사들에게 이같
은 메시지를 전했을까? 비록 정확한 답변인지는 모르지만, 성령께
서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등과 같은 선지자들 중의 한 사람을 통
하여 말씀하셨을 가능성이 크다.

여기서 바나바가 먼저 언급되었고 그 후에 사울 이름이 거론되었
다. 하지만 그들이 안디옥에 귀향했을 때는 그 순서가 바뀌어 언급

되어 있다.

이 구절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도하심에 대한 성령의 역할과 그분의 인도하심에 대한 제자들의 민감성을 매우 실제적으로 강조해 보여준다.

13:3 성령께서 이렇듯 그분의 뜻을 계시하신 후에도 그 사람들은 계속 금식하면서 기도하였다. 그리고 세 사람(시므온, 루기오, 마나엔)이 바나바와 사울에게 안수하였다. 이것은 오늘날 기독교계에서 교회 총회의 관할 하에 실행되고 있는 소위 ‘성직 수여식’과는 거리가 멀다. 이 안수는 단순히 성령께서 불러 세우신 두 사람에 대한 나머지 세 사람의 교제의 표현에 불과하였다. 사실상 성찬식 및 기타 교회예식을 주관하는 특별한 권위를 수여하는 위임식의 개념은 신약 성경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반 하우스(Barnhouse)는 이렇게 주석했다.

“현대교회의 목회 전반에 걸친 가장 큰 오류는 한 사람이 교회 지도력에 필요한 제반 은사들을 모두 소유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예컨대, 교회가 수 백 명의 교인을 두고 있지만 단 한 명의 목사만 있는 것이다. 그때 그 목사는 설교를 하고 심방이나 상담을 하며 여러 봉사들을 관여하는 등 전 영역에서 팔방미인이 되기를 요청받는다. 사실상 로마서 12장 6-8절에 언급된 여덟 가지 은사 중에 일곱 가지는 일반적으로 안수 받은 목회자의 기능이고 단 한 가지만 교회 회중의 기능이라고 흔히 생각한다. 그렇다면 도대체 회중에게 부여된 한 가지 은사는 무엇인가? 그것은 교회에 필요한 재정을 헌금하는 일뿐이다. 한마디로, 교회 기능에 큰 마비 현상이 온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다면 필자는 지금 평신도가 설교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의심할 바 없이, 평신도가 성경의 진리를 잘 깨닫고 있을 때, 그는 자신의 은사를 활용하고 기회가 되는대로 설교해야만 한다. 평신도 운동의 성장은 중차대한 일로써 올바른 방향 즉 신약성경의 실행에의 복귀를 향한 진일보(進一歩)이다.”⁵³⁾

바나바와 사울이 이전에 이미 8년 동안 주의 사역을 경험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봉사에 있어 뜻내기가 아니었다. 요컨대, 그들은 이미 ‘못에 찢린 주님의 손에 의한 안수식’을 경험하였다.

지금 안디옥 교회의 동료들은 이방인들의 복음 증거를 위해 특별히 위임받은 바나바와 사울에게 자신들을 동일시하는 표현을 하는 중이었다.

‘보내나라’는 표현은 문자적으로 사역을 위해 ‘그들은 그들을 가게 했다’ 혹은 ‘그들을 풀어 주었다’는 의미이다.

13:4 본문 4절을 기점으로 이른바 바울의 제1차 선교여행이 시작된다. 이 선교여행의 기록은 14장 26절까지 확대된다. 첫 번째 선교여행은 주로 소아시아 전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제2차 선교여행에서는 그리스(Greece)까지 복음을 전한다. 그리고 제3차 선교여행에서는 일전에 제1차, 2차 선교지였던 소아시아 교회들과 그리스를 재방문하는 것이 포함되었지만, 주 관심 영역은 아시아도(道)와 에베소 도성이었다. 이같은 바울의 선교의 노력은 대략 15년여간에 걸쳐 계속되었다(저자의 의도에 따라 바울 선교 여행지 중 최초로

53) Donald Grey Barnhouse의 저서 *The Measure of your faith*, 제 69권 p. 21를 보라.

언급된 지명은 고딕체로 표시하겠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두 명의 용감한 그리스도의 종들은 제일 먼저 안디옥에서 25.6km 정도 떨어진 항구인 실루기아로 내려갔다. 거기에서 그들은 구브로 섬으로 배타고 갔다.

13:5 구브로의 동쪽 연안인 살라미에 도착한 후에 그들은 여러 회당을 방문했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파하였다. 당시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구약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기회를 주는 것이 회당의 관습이었다. 이때 요한 마가는 바나바와 사울의 수종자(隨從者)로 섬겼다. 바나바와 사울은 회당을 먼저 방문함으로써 복음이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둘째는 헬라인에게 증거되어야 한다는 하나님의 명령을 성취하고 있었다.

13:16 살라미를 출발해서 그들은 서해안에 위치한 바보 섬 전체를 가로질러 관통하였다. 살라미는 그 섬의 최대 상업 도시였고, 바보는 그 수도였다.

13:7-8 바보에서 그들은 유대인 거짓 선지자 겸 박수인 바예수(‘예수 혹은 여호수아의 아들’이란 뜻)를 만났다. 어쨌든 이 박수는 로마 총독⁵⁴⁾ 혹은 이 섬의 행정관인 서기오 바울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

54) 흠정역에서 7절의 서기오 바울의 직급은 ‘대리인’(deputy)으로 표현되어 있으나 좀 더 정확하게는 ‘지방총독’(proconsul)을 가리킨다. 누가는 당시 로마 제국에서 잘 알려진 직급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상관(행정관; 16:20), 음장(17:6), 관원(19:31) 등이 있다. “이 모든 신분들은 도시나 로마 제국 등 각 지방을 통치하는 지역 통치자들을 지칭한다. 각 도성에 있는 지도자들의 정확한 직급을 기록함으로써 누가는 충성스러운 역사가로서의 신뢰를 더 없이 보여주고 있다 (C. E. Stuart).

었다. 서기오 바울은 지혜로운 사람으로 묘사되고 있다. 이 사람이 바나바와 사울을 청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 받고자 했을 때, 그 박수는 그 만남을 방해하려 하였다. 아마도 그는 복음을 방해하도록 사단의 사주(使囑)를 받은 것 같다.

8절에 언급된 이름인 엘루마는 ‘지혜로운 사람’이란 뜻이다. 물론 이는 끔찍한 오기(誤記)에 불과하다.

13:9-10 서기오 바울이 진리를 향한 진지한 구도자이고, 그 박수가 진리의 대적자임을 직시한 사울은 공개적으로 박수를 꾸짖었다. 우리는 사울이 육신적인 능력으로 이같이 말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본문은 당시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였다고 묘사하고 있다. 의도적으로 박수를 주목한 채 사울은 그를 모든 궤계와 악행이 가득한 자라고 정죄하였다. 사울은 결코 바예수란 이름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그 위선의 가면을 벗겨버리고 대신 엘루마에게 마귀의 자식이란 이름을 붙여주었다. 요컨대, 이 마술사는 모든 의의 원수로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리를 어그러뜨리기 위해 일하고 있다.

13:11 사도로서 자신에게 부여된 특별한 징계의 권위를 언급하면서 엘루마가 일시 동안 소경이 될 것이라고 사울은 선포하였다. 타인들 특히 총독과 같은 구도자를 영적 혼돈 가운데 붙잡아 두려고 했기 때문에 이제 그 스스로가 소경이 되는 심판을 받아야 했다. 그러자 즉시 어둠이 그를 덮쳤고 그는 방황하며 자신을 인도할 사람을 구하였다.

엘루마는 주 예수를 영접하기를 거절하는 이스라엘의 그림일 뿐

아니라, 그같은 태도로 타인을 방해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림이 될 수 있다. 그 결과 이스라엘은 법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잠시 동안 소경이 되었다. 그러나 결국에 가서는 이스라엘의 회개하는 남은 자들로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게 만드실 것이다.

13:12 총독은 하나님에 의해 베풀어진 기적에 분명 감동되었지만, 그보다는 바나바와 사울이 증거해준 가르침에 의해 더 깊은 감동을 받았다. 결국 그는 주 예수께 대한 참 신자가 되었는데, 실로 제1차 선교여행의 첫째 은혜의 우승 기념품(Trophy)이었다.

9절에서 누가 유대식 이름인 사울보다 이방인 이름인 바울을 사용하기 시작했음을 주목해 보라. 바울이란 이름은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확장이 진척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표시이다.

13:13 이제 바울이 선두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사실이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란 표현 속에 나타나 있다.

바보에서 그들은 밤빌리아에 위치한 버가 북서쪽으로 항해를 해 나갔다. 밤빌리아는 소아시아의 남쪽 해변에 위치한 로마 통치권 안에 있는 도(道)였다. 그 수도는 버가로서 체스트리스 강(The River Cestrus) 내륙으로 11km 가량의 떨어진 곳에 위치하였다.

사도 바울 일행이 버가에 도착하자 요한 마가는 그들을 떠나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갔다. 아마도 그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증거하는 일을 별반 환영하지 않았던 것 같다. 아무튼 바울은 요한 마가의 후퇴를 봉사에의 실격으로 간주하였고, 따라서 그는 제2차 선교여행시 마가의 동행을 거절하였다. 이같은 결단은 결국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날카로운 갈등의 소지가 되었고, 장래 그리스도인 봉

사에 관한 한 그들은 각기 서로 다른 길을 가는 결과를 초래했다. 궁극적으로, 마가는 사도 바울로부터 재신임을 얻었다(딤후 4:1). 더 이상 버가 방문에 관한 정보는 없다.

13:14-15 다음 방문지는 비시디아 안디옥이었다. 이곳은 버가에서 북쪽 방향으로 대략 160km 가량 떨어진 지역이었다. 다시 한 번 두 명의 십자가 전달자들은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갔다. 성경을 읽은 후에 회당장은 이 두 방문객이 유대인인 것을 인식하고는 회중에게 권할 말이 있다면 말하라고 초청하였다. 실상 회당에서 이처럼 복음진리를 선포하는 자유는 그리 오래 가지 않았다.

13:16 복음 증거의 기회를 놓칠 사람이 아닌 바울은 즉시 일어서 회당에서 증거하였다. 그의 일반적인 전도 전략은 유대 역사에 기초를 두었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사역으로 청중을 이끌어 그리스도의 부활을 중점적으로 강조하였다. 또한 구세주이신 그리스도를 통한 죄사함과 아울러 그분을 거절한 자들에 대한 경고를 선포하였다.

13:17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당신의 지상백성으로 선택했다는 내용을 필두(筆頭)로 메시지가 시작된다. 그리고 그들이 애굽 땅에서 나그네로 있었고, 하나님의 높으신 팔로 바로의 압제에서 그들을 구출하심으로 그분의 은혜를 드러내었던 정황으로 메시지를 이끌어 갔다.

13:18 약 40년간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의 삶의 방식에 대

해 참으셨다. ‘참으시고’로 번역된 동사는 관용어로서 좀 더 적극적인 의미, 즉 어떤 사람의 필요를 돌보는 의미를 지닌 단어에서 기원했다. 이 주님은 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온갖 불평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오래 참으셨다.

13:19-22 바울이 언급한 사백 오십 년은 팔레스틴을 정복하고 그 땅을 소유하기까지의 기간을 내포할 것이다.⁵⁵⁾ 가나안 땅 입성에 따라 하나님은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그 백성들에게 사사(재판관)들을 주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처럼 왕을 요청했을 때,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주셨다. 사울은 그들 위에 40년간 왕으로서 군림하였다. 사울은 불순종 때문에 권좌(權座)에서 물러나야 했고, 그 대신 다윗이 왕위에 올랐다.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의 뜻을 성취할 그분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큰 칭찬을 하셨다. 본문 22절은 시편 89편 20절과 사무엘상 13장 14절을 함께 인용한 것이다.

13:23 다윗이란 인물이 주제가 되자 바울은 이야기를 쉽고 빠르게 다윗의 씨인 예수로 전환시켰다. 어떤 사람이 잘 지적했듯이 “바울 설교의 모든 내용은 결국 예수께로 귀착된다.”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세우신 예수가 바로 구세주라고 이스라엘인들에게 선포하는 것은 바울 편에서 용기가 필요했을 것이다. 이 빛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께 대해 품고 있던 빛이 결코 아니었다!

55) 연대나 본문에 관한 문제를 더 살펴보기 원하면 Kelly의 책 *Acts*, p. 185,186을 참고하라.

13:24 이같은 간단한 서론 후에 바울은 세례 요한의 사역으로 주제를 되돌렸다. 그리스도의 오심(즉 그분의 공적 사역을 가리킴)에 앞서 요한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하여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였다. 이는 그가 메시아의 오심을 천명하였고, 그분의 오심을 예비하고자 회개하라고 백성들에게 선포했음을 의미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의 표시로써 요단강가에서 침례를 받아야 했다.

13:25 단 일부도 요한은 자신이 약속받은 메시아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사역을 마칠 때까지 자신은 과거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분이 아님을 주장하였다. 사실상, 그는 자신이 선포한 메시아의 신발 끈을 풀어드리기에조차도 부적합한 자라고 생각하였다.

13:26 바울은 청중을 일컬어 형제들과 아브라함의 후예들이라고 언급하면서 이 구원의 말씀이 첫째로 이스라엘에게 주어졌노라고 상기시켰다. 예수께서 오신 것은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들을 위함이었다. 제자들은 무엇보다도 이스라엘인들에게 메시지를 증거해야 했다.

13:27-28 하지만 예루살렘에 거하는 사람들과 통치자들은 바로 그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이심을 깨닫지 못했다. 그들은 예수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바로 그분임을 인식하지 못했다. 그들이 매 안식일마다 성경을 통해서 메시아에 관한 예언 부분을 들었을 때, 그것은 나사렛 예수와 연관을 짓지 못했다. 대신에 그들은 스스로 메시아를 정죄함으로써 성경의 말씀을 성취하는

수단이 되었다. 비록 그분에게서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그들은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13:29 본절의 첫 부분에 주님을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응하게 한 주체자인 ‘그들은’(우리말 개역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음)이란 말은 메시아를 거절함으로써 성경 예언을 성취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킨다. 그리고 하반절에 ‘그들은’(우리말 개역성경에는 생략되어 있음) 주 예수의 몸을 무덤에 장사지낸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를 가리킨다.

13:30-31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는 사실은 잘 증명되었다.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과 함께 올라간 사람들이 아직까지 생존해 있었고, 그들의 증거는 결코 부인될 수 없었다.

13:32-33 다음으로 사도 바울은 구약성경에서 조상들에게 주신 메시아 약속이 예수 안에서 성취되었다고 선포하였다. 베들레헴에서의 주님의 출생이 구약성경의 첫 번째 성취였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출생을 시편 2편 7절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란 말씀의 성취로 보았다. 물론 이 말씀은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 탄생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시작했다는 의미가 아니다. 그는 진정 영원부터 하나님의 아들로 존재하셨다. 그러나 그분은 자신의 성육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로서 세상에 나타내 보이셨다. 시편 2편 7절은 그리스도의 영원한 아들 되심을 부인하기 위한 구절로 사용될 수 없다.

13:34 주 예수의 부활은 이제 34절에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하나님은 그분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사 다시는 썩어질 것으로 돌아가지 않게 하셨다. 바울은 다시금 이사야 55장 3절을 인용하였다.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 인용구는 일반 독자들에게 다소간 어려움을 제공한다. 요컨대, 이사야 55장 3절과 그리스도의 부활 사이에 무슨 연관성이 있다는 것일까? 다시 말하면, 구세주의 부활이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과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것일까?

하나님은 다윗에게 영원한 보좌와 왕국 뿐 아니라, 그의 씨가 영원히 그 보좌에 앉을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그렇게 하는 사이에 다윗은 죽었고, 그의 몸은 먼지로 돌아갔다. 그 왕국은 다윗이 죽은 후에 몇 년간 지속되었으나, 400년 이상이나 이스라엘은 왕이 없이 존재해 왔다. 결국 다윗의 계보는 나사렛 예수까지 면면히 계속되었다. 그리하여 예수는 요셉을 통하여 다윗의 보좌에 대한 법적 권리를 상속받았다. 요셉은 주님의 실제 아버지가 아니라 그분의 법적 아버지였다. 주 예수는 마리아를 통한 다윗의 정통 후손이었다.

바울은 다윗에게 약속된 확실한 축복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보좌에 앉아 계실 다윗의 씨이다. 요컨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영생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이래로 다윗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의 영원한 측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확실히 이루어진 것이다.

13:35 이같은 내용은 사도 바울이 시편 16편 10절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는 말씀을 인용한 35절에서 좀 더 강조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주 예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이래로 사망이 더 이상 그분에게 권능을 행사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주님은 결코 다시 죽지 않으실 것이며, 그분의 몸도 썩지 않게 될 것이다.

13:36-37 다윗이 비록 시편 16편 10절의 내용을 발설할지라도, 그가 자신에 관해서 것처럼 말할 수는 없었을 것이다.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좇아 섬기다가 잠들어 땅에 묻혔고, 그의 몸은 먼지로 돌아갔다. 하지만 주 예수는 그 몸이 부패를 경험하기 전에 제 삼 일만에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13:38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분의 부활의 신적 공인(公認)을 근거 해서 바울은 이제 죄의 용서를 만인에게 선포할 수 있었다. 사도 바울의 선언을 주목해 보라.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한다.”

13:39 하지만 예수님을 힘입어 얻는 것은 죄사함 이상이었다. 덧붙여 바울은 모든 것으로부터 완전한 자유와 의로움을 얻을 수 있다고 선포하였다. 이같은 자유와 의로움은 모세의 율법이 결코 제공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었다.

칭의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구세주로 영접하는 죄인들을 향해 의롭다고 인정하거나 선포하는 하나님의 행위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법적 행위이며, 그로 인해 죄인은 자신을 향한 제반 고소들이 말끔히 취하(取下)되는 복을 얻게 된다. 하나님은 정죄받은 죄인을 의로운 방법으로 방면할 수 있다. 왜냐하면 범죄로 인한 형벌이 십자가상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에 의해 완전히 해결되었기 때문이다.

열핏 보면, 모세의 율법이 부분적으로 의롭다함을 줄 수 있다면,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도 여러 면에서 의로움을 더욱 줄 수 있다는 말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본문의 가르침이 아니다. 율법은 결코 어떤 사람을 의롭게 만들 수 없다. 오직 정죄만 할 뿐이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려는 바는, 사람은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통하여 자신을 향한 온갖 정죄로부터 의롭게 될 수 있으며, 그것은 모세의 율법 아래서는 결코 획득할 수 없다는 점이다.

13:40-41 곧이어 사도 바울은 구원이란 하나님의 위대한 제안을 거절할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한 엄숙한 경고로 메시지를 종결한다. 그는 하박국 1:5을 인용한다(아마도 이 구절은 이사야 29장 14절과 잠언 1장 24-31절을 부분적으로 인용한 것 같다).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인들에게 장차 할 일을 말했지만 그들이 엄청난 불신의 죄를 범하는 일에 대해 하나님이 친히 재앙을 내리실 것이라고 경고했었다. 바울 당시 이같은 예언은 주후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멸망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는 또한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한 자들이 장차 받을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내포한다.

13:42-43 회당에서의 말씀 강론이 끝나자 많은 유대인들과 유대교로 개종한 다수의 경건한 사람들이 깊은 관심을 보이며 바울과 바나바의 가르침을 좇았다. 주님의 이 두 종들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에 계속 머물라는 중심에서 나온 격려를 하였다.

13:44 일주일 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이 갔었던 회당에 재

차 방문하였다. 그때 온 성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여들었다. 이 두 명의 경건한 설교자들의 사역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

13:45 하지만 이같은 특별한 메시지가 흥왕하게 되자 유대인들은 분노와 시기로 가득 찼다. 그들은 이어 공개적으로 바울의 메시지를 반박했으며, 바울을 향하여 폭언을 하는 등 비방하였다.

13:46-47 바울과 바나바는 쉽게 위협에 굴복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이 복음 메시지를 일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파할 의무를 받았노라고 설명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복음을 거절하고 스스로 영생 얻기에 부적합한 자로 자처한 이래로 이 전도자들은 방향을 돌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겠노라고 선언하였다. 만일 유대 전통에서 이같은 분기점에 대한 어떤 권위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이사야 49장 6절의 말씀이리라. 사실상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일차적으로 메시아에게 하신 말씀이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지만 하나님의 성령은 메시아의 종들이 이 말씀을 자신들에게 적용하는 것을 승락하셨다.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들이 되어 이방인에게 빛과 구원을 가져다주기 때문이었다.

13:48 만일 이방인을 위한 이 구원의 선포가 유대인들을 분노케 했다면, 반대로 그것은 그 자리에 출석했던 이방인들 중에서는 큰 기쁨을 야기시켰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감사의 찬송을 올렸다. 요컨대,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作定)된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

을 가졌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 교리에 대한 간단한 진술이다. 이 교리는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져야 한다.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도록 사람들을 선택했노라고 성경은 명백하게 가르친다. 반면에 인간은 자유의지를 소유한 도덕적 존재로서 만일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기만 하면 구원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과 동일한 선상에서 이 인간 선택의 교리를 성경은 가르치고 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인간의 책임, 양자 모두가 성경적인 교리이며, 결코 어떤 한 측면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이 둘 사이에 모순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대립은 단지 인간 지성에만 존재할 뿐 결코 하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인간은 하나님의 행위가 아니라 자신의 선택에 의해 멸망을 당한다. 만일 온 인류가 정당하게 취급을 당한다면 사실 인류는 영원히 소망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은혜 안에서 이 세상에 손을 뻗치사 얼마를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이같이 행동하실 권리가 있으신가? 물론 그분은 그렇게 하실 권리가 있으시다.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의 교리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수 있는 우주의 통치자로 그분을 적절한 위치로 올려놓는다. 또한 이 교리는, 하나님은 어떤 불의하고 무자비한 것을 선택하지 않으실 자유가 있으신 분으로 받아들인다. 이 주제에 관한 대다수 사람들의 고민은, 만일 우리가 어드만(Erdman)의 다음의 말을 기억한다면 곧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은 절대적이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주권은 구원 받아야 하는 사람을 정죄하는데 행사되지 않는다. 오히려 그것은 영원히 잃어버려진바 된 사람을 구원하는 결과로 나타난다.”⁵⁶⁾

56) Charles R. Erdman의 저서 *The Epistle of Paul to the Romans*, P. 109를 보라.

13:49-50 유대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주의 말씀은 모든 주변 지역에 편만하게 전파되었다. 이같은 사실이 반대당파로 하여금 복음사역을 반발하도록 자극을 주었다. 결국 유대인들은 유대교로 개종한 몇몇 경건한 귀부인들을 사주하여 이 두 선교사들을 대항하도록 동요시켰다. 또한 그들은 자신들의 사악한 목적을 성취하고자 도성의 유력 인사들을 이용하였다. 이같은 핍박의 폭풍우는 급기야 바울과 바나바를 그 지역으로부터 강제로 추방당하게 만들었다.

13:51-52 주님의 교훈과 일치되게 그들은 자신의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 사건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패배나 후퇴행위로 해석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그곳에 거주하는 주의 제자들이 기쁨과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었다. 오늘날은 콘야(Konya)로 일컬어지는 이고니온은 소아시아에 있는 안디옥의 동남쪽에 위치해 있었다.

14:1-2 다른 회당처럼 이고니온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당시 유대인들의 관행대로 성경을 강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받았다. 하나님의 성령은 강론된 말씀과 함께 큰 능력으로 임재하여 다수의 유대인과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들로 하여금 주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하였다. 이같은 역사는 곧바로 복음을 거절하는 유대인들을 자극시켰고, 그러자 그들은 역으로 이방인들을 부추겨 형제들을 대적하게 만들었다.

요컨대, 사도행전에서 주님을 거절한 유대인들은 사도들을 강렬하게 핍박하는 교사자(敎唆者)들이었다. 그들 스스로가 직접적인 실행자의 실행자는 아니었다는 말이다. 진정 그들은 자신들의 사악한

목적을 수행하고자 이방인들을 교묘하게 설득시키는데 있어 기술자들이었다.

14:3 비록 사태가 심각하게 되는 것을 인식했지만, 두 설교자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복음증거를 계속하였다. 주님은 그들에게 표적과 기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으로써 그 메시지의 신적인 본질을 확증해 주셨다. 여기서 표적(sign)과 기사(wonders)는 기적을 가리키는 동의어이다. ‘표적’이란 말이 단순히 기적이 어떤 교훈을 전달해줄 때 사용되는데 반해, ‘기사’란 용어는 기적이 경외감을 불러일으킬 때 사용되었다.

14:4-7 도성 안에 긴장이 고조되자 자연스럽게 분파가 형성되었다.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 편에 섰고, 또 몇몇 사람들은 사도들을 쫓았다. 그러자 믿지 않는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사도⁵⁷⁾들을 무참히 공격하기로 결정하였다. 투석(投石)의 자리를 떠나 그들은 소아시아의 중심도시 중의 하나인 루가오니아의 두 성인 루스드라와 더베로 피신하였다. 그 도에서도 그들은 지칠 줄 모르는 열정으로 복음을 증거하였다.

바울과 바나바는 돌 맞을 위기에 있을 때 루가오니아로 피신하였다. 선교사역 중 그들은 어떤 때는 위험을 무릅쓰고 그 자리를 고수했던 것 같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어떤 경우에는 도피하고 또 다른 경우에는 머물러 있었는가?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알 길이 없다. 다만 사도행전 전반에 걸친 큰 원리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다. 이 사도들은 주님과 더불어 깊고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삶을 영위하였

57) 여기서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란 의미를 가진 말로써 ‘선교사’란 용어와 같다.

다. 주님 안에 거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감지하는 놀라운 특권을 부여받았다. 그들에게 있어,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일이 잘 조직된 행동 원리를 준행하는 것보다 더 중차대한 일이었다.

14:8-9 이 두 선교사들은 루스드라에서 출생시부터 불구자가 된 사람을 대면하였다. 그는 바울의 설교를 비상한 관심을 갖고 경청하였다. 바울은 이 사람이 고침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소유하였음을 인식했다. 우리는 바울이 어떻게 그같은 사실을 감지했는지 모르지만, 참된 전도자는 구도자들의 영혼의 상태를 분별하는 능력을 부여받았다고 우리는 믿는다.

14:10-12 바울이 불구자에게 ‘발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하자마자 그 사람은 일어나 걷고 뛰었다. 이같은 기적은 대중 가운데서 발생하였다. 게다가 바울이 큰 소리로 일어나라고 선포했기에 군중들은 그 소리를 듣고 그 기적을 보면서 큰 감동을 받았다. 그런데 묘하게도 이같은 대중운동은 바나바를 제우스로, 바울을 허메스로 경배하려는 데까지 발전하게 되었다.⁵⁸⁾ 그들은 자신들이 섬기는 신들이 이 두 선교사들의 인격을 통하여 방문했다고 믿었다. 이유는 모르지만, 그들은 바나바를 우두머리 신으로 여겼다. 아마도 바울이 설교를 했기에 그들은 바울을 제우스의 신탁(信託)인 허메스로 생각했던 것 같다.

14:13 심지어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조차도 신들이 방문했다고

58) 여기서 ‘제우스’와 ‘헤메스’란 헬라어 이름들이 원문에도 사용되었다. 그런데 1611년도 사본에서는 ‘쥬피터’(Jupiter)와 ‘머큐리’(Mercury)라고 썼는데, 이는 제우스와 허메스에 해당하는 좀 더 일반적인 라틴어 이름이다.

생각해 급히 신전에서 나와 황소와 화관을 제사드리려고 준비했다. 이같은 행동은 기독교 신앙에 있어 여타의 박해보다도 더 치명적인 것이다. 성공적인 그리스도인 일꾼에게 핍박보다도 더 큰 위협은 성도들의 영적 관심을 주님이 아닌 사람에게 주목시키려는 경향성이다.

14:14-15 처음에 바나바와 바울은 군중들이 무엇을 준비하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그것은 그들이 루가오니아인들의 토속어를 몰랐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들이 자신들을 신으로 경배하려 하자 이 두 선교사들은 자신들의 옷을 찢어 저항과 슬픔의 표시를 드러내었다. 그리고 무리 가운데로 뛰어들어 큰 소리로 그같은 어리석은 행위를 경고하였다. 그들은 동일한 사람으로서 다만 복음을 증거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생명 없는 우상을 받드는데서 돌이켜 살아계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사역할 뿐이었다.

14:16-17 바울과 바나바가 이같은 이방인들을 향해 유대인들에게 했던 것처럼 구약성경을 인용하지 않았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오히려 그들은 모든 나라와 시대에 이방인들에게 우선적인 관심의 주제인 창조기사로부터 시작하였다. 선교사들은 지나간 시대에는 모든 족속으로 자기의 길들을 가도록 허락하셨노라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그때조차 그들은 창조세계와 우주의 섭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증거들을 갖고 있었다. 예컨대, 은혜롭게 비를 내리시고, 인생들을 위해 철 따라 과일을 맺게 하고, 음식과 기쁨으로 인생을 만족하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셨다. 여기서 17절 하반절은 비유적인 표현으로써 인간의 육체에 음식을 공급하시

는 하나님은 그것을 먹음으로써 기쁨을 느끼도록 해주신 하나님이
심을 보여준다.

14:18 메시지는 그 의도하는바 목적을 달성하였다. 군중들은 주
님의 종들에게 희생을 드리려는 시도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14:19-20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은 루스
드라에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 잡았다. 그들은 이방인들을 선동하
여 선교사들을 대적하도록 만들었다. 그래서 그들을 신으로 경배하
고자 했던 바로 그 동일한 군중들이 이제 바울에게 돌을 던지고 그
가 죽었다고 생각해 성밖으로 끌어내었던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한
켈리(Kelly)의 주석은 아주 훌륭하다.

“그런데 왜 그들은 이렇게 변했는가? 루스드라 사람들이 경외감
을 갖고 숭배하려는 행위를 거절하는 것은 인간에게 가장 공격적이
다. 그리고 그같은 행위에 대한 거절은 경배하고자 했던 사람들에게
대한 증오를 불러일으켰다. 사람은 인간숭배를 통하여 스스로의 가
치를 높이는 법이다. 따라서 이 목적이 방해받을 때 추앙심은 곧바
로 적대감으로 변하며, 더 나아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추구하
려는 사람들을 죽이려들 것이다. 그같은 타락한 인간의 심리가 본
문에 잘 나타나 있다. 루스드라 사람들은 멜리데 사람들처럼 마음
을 바꾸지 않았다(본서 28장 6절에 보면 멜리데인들은 바울을 처음
에는 살인자로 생각했다가 후에는 신으로 여기게 되었다). 오히려
이 이방인들은 평상시 멸시해온 유대인들에게 귀 기울였고, 방금
전까지만 해도 희생을 바치려 했던 사람들을 거짓 선지자로 여겨
돌을 던지고 바울이 죽을 줄 알고 성 밖으로 끌어 내쳤던 것이다

바울은 실제로 돌 맞아 죽었던 것일까? 만일 이것이 고린도후서 12장 2절의 경험과 연관된 것이라면, 바울 자신은 잘 몰랐다. 다만 우리가 확실히 말할 수 있는 점은 그의 회복은 기적적이었다는 것이다. 제자들이 바울 주위에 몰려 있었을 때, 그는 기적으로 일어났고 제자들과 함께 재차 그 도성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다음날 그는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출발하였다.

14:21 개인 신변의 안전을 고려하는 것이 이 두 선교사들의 최우선 과제가 아니었다. 이같은 태도는 그들이 더베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다시 일전에 돌 맞았던 도성인 루스드라로 뒤돌아갔던 사실에서 엿볼 수 있다.

디모데의 이름이 여기에 언급되지 않는 것이라도 그는 아마도 이 기간에 바울의 전도 설교를 통해 구원받았을 것이다. 바울 사도가 다음 번에 루스드라에 방문했을 때, 디모데는 이미 구원받은 제자였고, 다른 형제들로부터 존경받고 있었다(행 16:1-2). 그러나 바울이 후에 그를 믿음 안에서 참 아들이라 불렀다고 해서 반드시 바울이 그를 주님께로 인도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어쩌면 디모데는 바울의 삶과 봉사의 본을 잘 좇음으로써 바울의 참 아들이 되었을 지도 모른다.

루스드라에서의 사역이 마무리되자 선교사 일행은 다시금 이고니온과 비시디아 안디옥을 방문했는데, 이곳에는 이미 주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 있었다. 이번 방문 목적은 오늘날 우리가 흔히 ‘양육

59) Kelly의 저서 *Acts*, p. 202를 보라.

사역'이라 부르는 일을 위해서였다. 그들은 복음을 증거하여 구세주께 영혼 구령이 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영혼 구령은 그들에게 단지 사역의 시작이었다. 더 나아가 그들은 가장 거룩한 믿음 위에 신자들을 굳건히 세우고자 했다. 특히 그들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교회의 중요성과 그 원리들을 가르침으로써 양육시키고자 했다. 어드만(Erdman)은 이렇게 지적했다.

“훌륭한 선교사역 프로그램은 선교지에 자치(自治), 자립(自立), 자력전도(自力傳道)하는 교회 설립을 목표로 삼는다. 이것이 바로 과거 바울이 소유했던 선교 목표이자 사역 원리였다.”⁶⁰⁾

14:22 양육의 본질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건히 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함으로써 믿음 안에 성도를 확립시키는 사역이었다. 바울은 이같은 양육과정을 골로새서 1장 28-29절에서 잘 묘사하였다. “우리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경고한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 관해 알고 있는 모든 내용을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사람에게 가르친다. 그렇게 함으로써 가능하다면 우리는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분량에 이르는 성숙한 사람으로 양육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능력 안에서 내가 항상 힘쓰고 있는 사역이다”(필립역).

또한 그들은 성도들에게 믿음에 거하라고 권고하였다. 특히 그들은 당시 광범위하게 확산된 성도를 향한 핍박의 시기에 적절한 격려를 하였다. 진정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했다. 여기서 ‘하나님의 나라’는 장차 신자들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누리기 위해 미래에 들어가게 될 천국을 가리킨다. 물론 사

60) Erdman의 저서 *Acts*, p. 109를 보라.

람은 먼저 중생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다. 요컨대, 핍박과 환난은 구원받는데 어떤 유익을 가져다주지 못한다. 하지만 현재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녀들은, 장차 누릴 천국에서의 영광을 위한 지름길이 현재의 환난으로 점철되어 있음을 약속받고 있다(빌 1:29).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롬 5:17).

14:23 이즈음 바울과 바나바는 각 교회에 장로들을 택하였다. 이 구절과 연관한 몇 가지 장로에 대한 고찰을 해보면 아래와 같다.

(1) 신약성경의 장로들은 각 지역교회에서 영적 지도력을 발휘하는 경건하고 성숙한 성도였다. 그들은 주교나 감독으로도 불리었다.

(2) 사도행전에서 장로들은 교회가 맨 처음 시작된 초기 단계에서는 임명되지 않았다. 오히려 사도들이 시작된 교회들을 계속 방문했을 때 비로소 장로들이 세워졌다. 다른 말로 하면, 과도기에는 성령께서 세우신 장로들이 공적으로 드러나는 기회가 되었던 것이다.

(3) 장로들은 사도들이나 사도들의 위임을 받은 일꾼들에 의하여 세움을 입었다. 신약이 기록될 당시에는 장로의 자격에 관한 정확한 교훈이 아직 성문화되기 전이었다. 하지만 사도들은 장로들의 자격 기준을 명백히 알고 있었고, 따라서 성경적인 요구를 갖춘 사람들을 장로들로 임명할 수 있었다.

(4) 오늘날 우리는 장로들을 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없다. 하지만 우리는 디모데전서 3장과 디도서 1장에 나타나 있는 장로들의 자격 기준을 갖고 있다. 그러므로 각 지역모임은 성경적인 자격 기준을 구비한 성숙한 성도들을 양떼의 목자들 곧, 장로들로 인식할 수 있

어야 한다.

바울과 바나바는 금식기도한 후에 장로들을 주님께 의탁하였다. 그런데 것처럼 단시일 내에 모임이 시작될 수 있었다는 것이 우리에게 비범하게 보인다. 사실상 그들은 이 선교사들로부터 짧은 기간에 걸친 교훈을 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립하는 교회로서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주님을 위한 사역을 수행해야 했다. 이에 대한 의문의 답은 하나님의 성령님의 막강한 능력에 달려 있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 능력이 바울과 바나바 같은 사람들의 삶 속에 가시화(可視化) 되었다는 점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 실상 그들이 가는 곳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 탁월한 영향력을 발휘하였다. 따라서 사람들은 사도들의 매일의 삶 속에서 성령님의 능력과 실재를 감지할 수 있었다. 그들의 공중 설교는 매일의 삶의 본을 통해서 그 가치가 더 드러났다. 이렇듯 삶과 가르침을 통한 이중적인 간증의 힘은 실로 가공할만한 것이었다.

21절에서 23절에는 사도들의 사역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것은 복음 선포, 회심자들에 대한 가르침, 그리고 교회의 확립과 무장에 힘씀 등이다.

14:24-26 비시디아 지역을 관통한 후 그들은 밤빌리아를 향해 여행했다. 그 후 그들은 버가를 재방문했고, 곧이어 앳달리아란 항구 도시에서 잠시 내렸다. 그곳에서 그들은 배를 타고 시리아에 위치한 안디옥으로 향했다. 이 여정으로 그들은 제1차 선교여행을 끝마치게 된다. 종착지는 안디옥으로서 그곳은 그들이 행했던 선교 사역을 위하여 과거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했던 도성이었다.

14:27 안디옥 교회가 함께 모여 이 하나님의 종들로부터 선교사역을 보고받았을 때, 그것은 얼마나 복되고 감격스러운 시간이었을까! 그리스도인의 겸손을 유지한 채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다. 실로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성취했던 일이라기보다는 주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성취하기를 기뻐하셨던 사역이었다.

14:28 그들은 제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안디옥에 체류하였다. 아마도 그 기간은 일,이년 정도의 기간으로 추정된다.

☞ 선교 전략

세상의 어떤 구석에 불품없는 소수의 제자들이 소위 세계 복음화란 영광스러운 비전에 사로잡혀 그 사명을 수행해가는 과정을 보는 것은 실로 감동적이다. 당시 주의 제자들은 모두가 이 엄청난 과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지체 없이 그 일에 자신을 헌신하였다.

대부분의 복음 전도는 각 지역교회에 소속된 신자들이 자신들의 일상생활 중에 행해졌다. 그들은 자신의 이웃에게 복음을 개인적으로 전했던 것이다. 덧붙여, 사도들과 다른 전도자들은 마을에서 마을로 다니며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를 개척하였다. 그들은 둘씩 팀을 이루거나 큰 그룹으로 나아갔다. 때로 젊은이는 연장자와 함께 전도 사역을 동역했는데, 바울과 디모데가 그 좋은 실례이다.

전도의 기본적인 두 방법이 있었는데, 하나는 개인 전도였고, 또 다른 하나는 대중 전도였다. 그중 대중 전도의 경우, 대부분의 설교는 즉석에서 선포된 것이었고, 어떤 지역의 특별한 상황이나 위기 속에서 행해졌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대부분의 설교는 설교자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준비한 설교 형태가 아니었다. 사실상 대부분의 설교는 전혀 예기치 못한 중에 실행되었다.⁶¹⁾

바운즈(E. M. Bounds)가 말했듯이, 그들의 설교는 지금처럼 잘 조직된 한 시간 분량의 설교가 아닌,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흘러 넘치는 은혜의 산물(産物)이었다.

사도들과 그 동행자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그렇지만 이같은 인도하심은 그들이 소속되어 있는 지역교회에 의해 확증되곤 했다. 예컨대, 안디옥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은 바나바와 바울에게 안수한 후 그들을 제1차 선교여행을 위해 타 지역으로 파송하였다(13:2). 또한 디모데는 바울과 동행하기 이전에 이미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신임을 얻고 있었다(16:2).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제2차 선교여행을 떠나기에 앞서 안디옥 교회로부터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았다(15:40).

선교를 위한 사도들의 지리적 전략은, 먼저 대도시로 가서 교회들을 개척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개척된 교회가 그 주변을 전도하는 것이었다고 흔히 받아들여져 왔다.

하지만 이 견해는 사도들의 사역을 지나치게 단순화시켰다는 느낌이 없지 않다. 사실상 그들의 선교전략은 그 도시가 크든 작든 기간에 기본적으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었다. 성령은 한참 사마리아에서 부흥을 경험하는 빌립을 이끌어 가사로 가는 노상(路上)의 한 사람에게로 인도하셨다(8:26-40). 그리고 성령은 바울을 일찌기 로마의 정치가인 키케로(Cicero)가 벽촌(僻村)이라 불렀던 베뢰아로 인도하셨다. 솔직하게 말하면,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선교

61) C. A. Coates의 저서 *An Outline of Luke's Gospel*, p. 254를 보라.

사역을 위한 확고부동한 지리적 전략을 발견할 수 없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자신의 의지에 따른 성령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을 볼 수 있다.

지역교회는 사람들이 복음에 응답하여 구원받는 곳마다 세워졌다. 이 모임들은 계속해서 주의 사역에 힘썼다. 실로 초대교회는 자치(自治), 자립(自立), 자력전도(自力傳道)할 수 있었다. 그때 사도들이 이 모임들을 재방문하여 성도들을 굳건히 해주고 격려해 주었다(14:21-22, 15:41, 20:1-2). 그리고 지역교회 성도들 중에서 장로들을 임명했다(14:23).

선교 여행 기간 동안 사도들과 동행자들은 때로는 자비량했고(18:3, 20:34), 때로는 교회들과 개인적인 지원을 기꺼이 받았다(빌 4:10, 15-18).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필요뿐 아니라, 그와 함께 한 동역자들을 위해서 일하였다(20:34).

그들은 비록 자신이 몸담고 있는 지역교회에 의해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지역교회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았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지역교회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의 제반 경륜을 선포하는 주님의 자유로운 도구였고, 따라서 성도들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언제든지 가르침을 베풀었다(20:20).

선교 여행 막바지에서 그들은 자신을 파송한 지역교회로 돌아와서 주님께서 선교지에서 자신들을 통해 일하신 내용을 보고하였다(14:26-28, 18:22-23). 이같은 원리는 시대를 초월해서 교회가 따라야 할 선교사역의 훌륭한 지표가 될 것이다.

5. 예루살렘 공동회의(15:1-35)

15:1 안디옥 교회 내에서 할례로 야기된 논쟁이 또한 갈라디아서 2장 1-10절에 묘사되어 있다. 본장과 갈라디아서 두 기록을 종합해 볼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이 추론할 수 있다. 즉, 예루살렘 교회에서 온 어떤 그릇된 형제들이 안디옥에 들러 그 모임에서 설교하였다. 그 설교는 주로 이방인이 구원받으려면 할례를 받아야만 한다는 내용이었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것은 구원받기에 불충분하다. 따라서 이방인도 율법 아래 순종해야 한다는 논리였다. 물론 이같은 주장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정면으로 공격하는 행위였다. 참 은혜의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구원에 필요한 사역을 완전히 끝마치셨다고 가르친다. 따라서 죄인이 할 수 있는 일은 믿음으로 구세주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것이다. 요컨대, 인간의 장점이나 공로가 구원사역에 첨가되는 순간, 그 복음은 더 이상 성경적인 은혜의 복음이 아니다. 은혜 안에서 모든 사람은 사람이거나 사람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만을 의존한다. 만일 구원에 인간적인 어떤 조건이 가미(加味)되면, 그것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라 빛이 될 뿐이다. 아무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것이다. 따라서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나 공로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15:2-3 바울과 바나바는 이 유대주의자들의 주장을 강렬하게 반박하였다. 그들이 이방인으로부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자의 자유를 빼앗으려고 했기 때문이었다.

여기 15장에서 우리는 안디옥에 있는 형제들이 바울과 바나바와 그 외 몇 명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결정했음을 알게 된다. 그런데 갈라디아서 2:2에서 자신은 계시의

해 예루살렘에 갔다고 바울은 언급한다. 물론 이 문맥 간에 모순은 없다. 사실상 하나님의 성령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야 한다고 계시하였고, 또한 안디옥 교회의 형제들에게도 바울을 보내야 한다고 계시했던 것이다. 예루살렘을 가는 도중에 바울 일행은 베니게와 사마리아 등 곳곳에 들러서 이방인의 회개에 관한 간증을 나눔으로써 듣는 이들에게 큰 기쁨을 선사하였다.

15:14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바울은 먼저 사도들과 장로들을 개인적으로 방문하였고, 그가 이방인에게 증거했던 전도사역을 상세히 보고하였다. 이제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장로들은 사도 바울 일행이 이방인에게 전한 복음이나 유대인들에게 자신들이 전하는 복음이 동일한 복음임을 인정해야 했다.

15:5 그 모임은 전 교회에 개방된 모임이었다. 이는 믿는 바리새인 중의 몇 명이 일어나 이방인은 할례를 받아야 하고, 진정한 의미에서 제자가 되려면 모세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변론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잘 말해 준다.

15:6 6절을 보면 이 예루살렘 공동회의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때는 단지 사도들과 장로들만 출석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12절은, 전 교회가 그곳에 함께 참석할 것을 지시하는 것같이 보인다.

15:7-10 베드로가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아마도 반대자들은 그가 자신들의 율법적인 견해를 지지해 주리라고 생각했을 것이다. 사실, 베드로는 할례를 받은 사도였다. 그러나 곧 그들의 희망은 물거품처럼 사라지고 말았다. 베드로는 몇 년 전에 자신의 입술을 통

해 이방인이 복음을 듣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셨음을 회중에게 상기시켰다. 이 사건은 이방인 고넬료의 집안에서 발생했다. 하나님이 그같은 이방인의 마음이 믿음으로 그분 자신에게 도달했음을 보았을 때, 오순절 날 유대인에게 행하셨던 것처럼 성령을 이방인에게 부어주셨다. 당시 하나님은 그 이방인들에게 할례 받을 것을 요구하지 않으셨다. 그들이 이방인이었다는 사실이 어떤 차이를 나게 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그들의 믿음을 인정하여 그들의 마음을 깨끗이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율법 준수가 아닌, 믿음의 원리로 영접하신 마당에 왜 지금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멍에를 메우려고 하는지를 베드로가 모임을 향해 반문했다.

사실상 그 율법의 멍에는 유대인 자신들과 그 조상들도 능히 메지 못하던 멍에가 아니던가? 요컨대, 율법은 결코 어느 누구도 구원할 수 없다. 율법의 사역은 정죄하는 것이지 의롭게 만드는 것이 아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우리는 죄로부터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

15:11 베드로의 최종결정은 특별히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그는 큰 확신을 갖고 선언하기를, “주 예수의 은혜를 통하여(율법 준수가 아님) 우리는(유대인) 저희(이방인)와 동일한 방법으로 구원을 받게 된 것이다.”

15:12 베드로가 연설을 마친 후에, 바나바와 바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인들을 찾아갔고, 어떻게 복음전도에 표적과 기사가 따랐는지를 소상하게 보고하였다.

15:13-14 베드로는 주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통하여 맨 처음으로 이방인에게 믿음의 문을 여셨는지를 말했다. 그러자 바울과 바나바는 주님께서 어떻게 자신들을 통하여 이방인을 전도하게 하셨는지에 대한 간증을 덧붙였다. 이제 야고보는 권위 있게 언급하기를,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이방인들을 불러 자신의 이름을 위한 백성으로 삼으려 하셨다고 밝힌다. 이 말은 시몬 베드로가 방금 언급한 말의 요지였다.

15:15-19 그때 야고보는 아모스 9장 11-12절의 말씀을 인용하였다. 여기서 이방인에 대한 부르심이 곧바로 아모스서의 예언 성취가 아닌, 아모스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과 일치되었다는 야고보의 언급을 주목하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도 구원하셔야 한다는 사실이 예루살렘 모임 성도들에게 이상한 일로 받아들여질 필요가 없었는데, 그 이유는 이방인의 구원이 구약성경에 명백하게 예언되었기 때문이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믿는 유대인과 마찬가지로 축복을 받은 것임을 미리 언급하신 것이다.

사실상 아모스서의 인용구절은, 그리스도가 다윗의 보좌에 좌정하고 이방인들이 주님을 찾을 때인 천년왕국을 대망하고 있다. 그런 까닭에 야고보는 아모스서의 예언이 그가 말하고 있는 당시의 문자적인 성취였노라고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방인의 구원이 아모스가 장차 훗날에 일어날 일에 대한 언급과 내용이 일치되었노라고 선언하였다.

야고보의 논리를 요약하면 이렇다. 처음으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이방인들을 찾아가셨다. 이는 야고보가 설교할 당시에 일어났던 일이고 또한 장래에도 발생할 내용이다.

회개한 이방인들은 회개한 유대인들과 함께 교회의 지체들로 더해졌다. 하지만 이같이 작은 규모(이방인 구원의 수)의 사건이 장차 미래에는 큰 규모의 이방인 회심으로 확대될 것이다. 요컨대, 그리스도가 재림하사 국가적으로 이스라엘이 회복할 때, 주님은 또한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이방인들을 구원하실 것이다.

야고보는 당시 이방인의 회심 사건을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방문으로 바라보았다. 하나님의 이러한 첫 번째 방문은 아모스가 예언한 바,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으로서 재림하실 때 있을 이방인을 향한 미래 방문과 본질적으로 완전한 일치를 이루는 것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실상 이 두 사건은 비록 시간적으로 일치하지 않지만 본질적으로는 일치를 이루고 있다. 이같은 사건의 순서를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1) 이 은혜의 현시대 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할 백성을 이방인 중에서 취하심(14절).

(2) 그리스도의 재림시에 이스라엘 국가 중에서 믿는 유대인들도 회복하심(16절).

(3) 이스라엘 회복에 뒤따른 이방 열방 민족을 구원하심(17절). 이때 이방인들은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모든 이방인들을 가리킨다.

아모스 9장 11-12절 내용에 대한 야고보의 인용은 구약성경에 나타난 본래 표현과는 사뭇 다르다. 그 차이점의 일부는 야고보가 명백히 헬라어로 인용한 사실로 설명될 수 있다. 하지만 그 인용구는 심지어 70인역(Septuagint, 구약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 성경과도 차이가 있다. 이 차이점에 대한 해석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래 성경에 영감을 불어넣으신 동일하신 성령께서 지금은 곧바로

닥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소 변개될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는 견해이다. 둘째, 히브리어 사본들은 아모스 9장을 여러 방법으로 읽을 수 있다는 이론이다. 야고보는 이미 받아들여진 히브리어 본문과 가장 유사한 헬라어 사본 가운데서 인용해야 했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바리새인들은 그 증거 자료로서 아모스 인용구절을 제시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알포드(Alford)는 주장한다.

“이후에 내가 돌아와서”(16절). 당대를 향한 하나님의 경륜이란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는 것이었노라고 야고보는 이미 밝힌 바 있다. 물론 이방인들이 전부 구원받지는 않지만, 하나님은 이방인 중에서 당신의 이름을 위한 사람들을 취하실 것이다. 이제 야고보는 ‘이후에’, 즉 교회가 열방으로부터 불러냄을 받은 후에 하나님께 돌아오사 이전에 파괴되었고 퇴락된 다윗의 장막을 재건하실 것이다. ‘다윗의 장막’은 주님의 집이나 가계(家系)를 묘사하는 수사학적인 표현이다. 따라서 이 회복은 왕가(王家)의 장래 회복의 모형이요, 왕으로서 그 장막에 좌정하신 그리스도의 다윗 보좌의 재확립에 대한 그림자이다. 이때 이스라엘은 전 세계를 위한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남은 유대인들과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 이방인 모두가 주님을 찾게 될 것이다. 인용된 아모스서에는 이것이 모든 일을 행하시는 주님의 말씀이라는 진술로 끝맺는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현재 목적이란 자신을 위한 백성을 이방인 중에서 불러내는 것이기 때문에 야고보는 이방인을 모세 율법 아래로 가두어 괴롭히는 행위를 경고한 것이다.

참으로, 구원에 관한 한 필요한 것이란 오직 믿음뿐이었다.

15:20 그러나 그는 안디옥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써서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삼가 하게 하자고 제안하였다. 얼핏 보면 야고보는 여기서 자가당착에 빠진 것처럼 보인다. 이같은 제안이야말로 율법주의적인 발상이 아닌가? 이제 그는 다시금 이방인들을 율법 아래로 가두는 것이 아닌가? 그에 대한 답변은 이것이니 곧 이같은 충고가 결코 구원의 주제와는 별개 문제라는 점이다. 구원의 주제에 관해서는 이미 일단락 지었다. 하지만 야고보의 이런 충고는 유대인과 이방인 신자들 간의 교제를 위하여 수용(受用)되어야 했다. 이 교훈에 대한 순종이 결코 구원의 조건은 아니었지만 초대교회 내 이방인과 유대 신자들 간의 날카로운 분열을 막기 위해서는 매우 중요하였다.

금기사항들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우상의 더러운 것**-29절을 보면 이것은 우상에게 드려졌던 음식이라고 밝히고 있다. 만일 이방인 신자들이 이같은 우상의 음식을 먹는다면, 그때 유대계 신자들은 그들이 진정 우상숭배를 포기했는지에 대해 의구심을 가질 것이다. 설령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이같은 음식을 먹을 자유가 있었을지라도 그같은 행위는 연약한 유대계 형제들에게 걸림돌이 될 것이 분명했으며, 그것은 옳바르지 못한 행위이다.

(2) **음행**⁶²⁾-음행은 이방인의 가장 대표적인 범죄였다. 그러므로

62) 어떤 사람들은 네 가지 금기사항이 아래의 실례를 들어 레위기 17-18장의 율법으로 되돌아간 것이라고 생각한다. 즉, 우상으로 더럽혀진 것(레 17:8-9 참조), 성적 부도덕-간음과 일부다처(레 18:20), 동성연애(레 18:22), 짐승과의 교접(레 18:23), 근친상간(레 18:6-14), 인척간의 결혼(레 18:15,16), 목매어 죽거나 무참히 죽은 것(레 17:15), 피를 먹는 것(레 17:10-12) 등을 금한 내용을 실례로 든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이같은 규례를 거스를 때 유대계 그리스도인들은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이었다.

야고보는 다른 금기사항과 함께 이 범죄를 특별히 독립해서 언급하고 있다. 자고로 성경 어느 곳에서도 성적 부도덕(음행)을 용납한 적이 없었다. 요컨대, 음행금지는 시대를 초월하여 지켜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다.

(3) **목매어 죽인 것**-이 금기사항은 홍수 이후 하나님께서 노아와 더불어 맺은 언약으로 거슬러 올라간다(창 9:14). 그러므로 이것도 단지 이스라엘 민족만이 아닌 모든 인류를 향한 내부규정(Standing order)이다.

(4) **피**-이 금기사항 역시 그 기원을 창세기 9:4에 두고 있고 후에 모세 율법에 전수되었다. 노아와 맺은 언약이 결코 폐지되지 않았음을 감안할 때 이 규정 역시 오늘날도 유효하다고 믿는다.

15:21 본문은 왜 20절의 충고 내용이 주어졌는지에 대해 설명한다. 때 성마다 이같이 야고보가 금한 내용을 행하는 것이 잘못되었노라고 항상 가르침을 받아온 유대인들이 있었다. 부도덕의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 잘못되었을 뿐 아니라, 우상에게 졌던 음식이나 목매어 죽인 고기나 피를 먹는 것 또한 그릇된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방인들이 성범죄를 자행함으로 하나님을 공격하거나 이같은 금기 행위를 행함으로 사람을 공격해야 하겠는가?

15:22 이제 이방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 받을 필요가 없음이 확실히 결정되었다. 다음 단계는 안디옥 교회에 이같은 결정을 기록한 편지를 공적으로 전달하는 일이었다. 그러자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은 전 교회 성도와 더불어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 교회로 보낼 자로 형제들 중에 인도자들인 바사바라 불리는

유다와 실라를 선택하였다. 이 실라는 후에 바울의 선교여행 동반자가 되었으며, 서신서에는 실루아노로 명명(命名)되는 성도이다.

15:23-29 편지 전모가 이 구절들에 소상히 밝혀져 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 교회에 내려온 거짓 형제들은 결코 어떤 권위나 예루살렘 교회의 공식 천거가 없었다는 사실을 주목해 보라(24절).

순간순간 성령님의 가르침을 의지하는 태도가 28절에 제시되어 있다. “성령과 우리는…것이 가한 줄 알았노니.” 어떤 주석가는 이를 성령님과 의 차원 높은 동반관계라고 묘사했다.

15:30-31 예루살렘에서 온 편지가 안디옥 교회에서 읽혀졌을 때, 그곳 성도들에게 큰 위로가 되었음이 확실하다. 예루살렘에서 온 주의 제자들은,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유대인으로 귀화하지 않고 그 자체로도 구원받을 수 있음을 확실히 깨닫게 되었다.

15:32-33 유다와 실라는 몇몇 집회를 위해 체류하며, 형제들을 격려하고 신앙 안에서 형제들을 세웠다. 안디옥 모임 안에서 얼마간의 행복한 교제와 봉사의 기간을 가진 후에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로 되돌아왔다.

15:34 흠정역(KJV)에 기록되어 있는 34절이, 가장 오래된 사본이나 대부분의 사본들에는 나타나 있지 않다. 실상 33절과 40절에서 보이는 모순을 설명할 목적으로 34절의 내용을 보충하는 것이 독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몇몇 필사자(筆寫者)들이 생각했던 것 같다. 33절에서 실라는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런데 40절에서 그는 제2차 선교 여행시 바울과 동행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하지만 이 문제에 대한 분명한 해결책은 다음과 같다. 즉, 실라는 예루살렘으로 귀향했다. 그런데 바울이 실라를 다시 접촉하여 그가 선교여행에 동참하게 된 것이다.

15:35 그 당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머물러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설교하였다. 그때 안디옥 교회는 주의 성도를 섬기는 다른 많은 주의 종들이 있었다. 갈라디아서 2장 11-14절에 언급된 사건이 아마도 이때쯤 발생한 것 같다.

6. 바울의 제2차 선교여행 : 소아시아와 그리스(15:36-18:22)

15:36-41 바야흐로 제2차 선교여행을 할 즈음이었다. 바울은 이 문제를 바나바에게 털어놓으면서, 그들이 이전에 주의 말씀을 전파했던 도성을 다시 방문하자고 제안했다. 그런데 바나바가 그의 조카인 마가를 선교여행에 동행시키자고 주장했을 때, 바울은 그 계획을 강하게 반대하였다. 바울은 일전에 마가가 어떻게 밤빌리아에서 자신들을 떠나갔는지 생생하게 기억했고, 또한 의심할 바 없이 그같은 일이 반복되는 것을 두려워했을 것이다. 바나바와 바울 사이의 다툼은 심화되어 이 두 존경받는 주의 종들은 마침내 각기 갈라서게 되었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자기의 고향이자 제1차 선교여행지의 첫 번째 방문지인 구브로로 향해해 갔다.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선택하여 수리아와 길리기아를 다녀가면서 교회들을 굳건히 하였다.

36절과 41절은 우리에게 바울의 참된 목회 정신에 대한 부가(附加)

적인 통찰력을 제공한다. 그는 실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사랑의 돌봄을 실행한 자였다. 그는 그리스도인 삶의 초보자 상태로 있는 수많은 사람보다도 차라리 목양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의 중요성을 분명 인식했을 것이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의문을 갖는다. 즉, 누가 옳았던 것인가? 바울이었나 아니면 바나바였는가? 아마도 모두가 실수한 것 같다. 아마도 바나바는 조카 마가에 대한 본성적인 동정 때문에 그 판단이 흐려졌을 것이다. 어쨌든 39절은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심한 다툼이 있었다고 지적한다.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으킬 뿐이다”(잠 13:10). 그러므로 그 문제에 관한한 교만 죄가 있었을 것이다. 바울이 옳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나바가 이 시점에서부터 사도행전 역사에서 사라진다는 점도 지적한다. 또한, 바울과 실라는 형제들에 의해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았지만, 반면에 바나바와 요한 마가의 경우는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다. 어쨌든 간에, 그후 마가는 자신의 신앙태도를 분명해 했고, 그 결과 그는 완전히 바울의 신임을 다시 얻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답후 4:11).

☞ 지역교회의 독립성

예루살렘 공회는 얼핏 일종의 교단의 총회 형식을 가진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다.

초대 기독교 시대의 각 지역 모임들은 독립성, 즉 자치권을 소유하고 있었다. 당시에는 각 지역교회를 총괄하는 조직화된 교단이 없었다. 게다가 교단 자체가 없었다. 그런 까닭에 교단 총회도 불필요했다. 각 지역교회는 전적으로 주님의 주권적인 책임 아래 있었

다. 이같은 모습은 요한계시록 1:13에 묘사되어 있는데, 그곳에서 주님은 일곱 금촛대 사이에 서 계신 분으로 등장한다. 이같은 모습은 당시 아시아 일곱 교회를 상징해 준다. 여기서 각 교회와 교회의 머리되신 그리스도 사이에 그 어떤 통치 기관이 없었다는 것이 핵심이다. 각 교회들은 주님에 의해 직접적으로 통치를 받았다.

그렇다면 이같은 내용이 왜 그토록 중요한가? 첫째로, 교회의 자치권이 인정될 때, 교리적인 오류의 편만(遍滿)한 악영향을 저지할 수 있다. 교회들이 교단으로 함께 연결되었을 때, 제반통치, 자유주의, 합리주의 그리고 심지어 배교 세력이 총회나 교파산하 신학교 등을 공격함으로써 전 교단소속교회를 쉽게 잠식할 수 있다. 하지만 교회들이 각기 독립적이라면, 그 위험한 공격은 하나의 총회가 아닌 각각 지역교회를 쉽게 잠식할 수 없을 것이다. 두 번째로, 지역 교회의 자치는 기독교에 대해 적대감을 가진 정권이 세력을 가질 때도 중대한 방어를 할 수 있다. 하지만 교회가 교단으로 연합되어 있을 때 절대 군주적인 통치에 의해 총회 본부의 소수의 지도자들을 통하여 교회를 통제할 수 있다. 하지만 교회들이 중앙집권적인 권위를 거절할 때, 교회들은 탄압의 시기에 지하로 내려갈 준비를 쉽게 할 수 있다.

오늘날 많은 정치 형태들은 예컨대, 그것이 민주주의나 군주정치를 막론하고 소그룹이나 독립교회의 연합을 유도하는 실정이다. 정권을 가진 자들이 주장하기를 수많은 지역교회의 무리를 다루기보다는 전체교회를 대표하는 중앙 위원회와 상대하기를 원한다고 말한다. 자유정치주의자들은 어떤 장점과 유익을 제공함으로써 교회단체를 운영하려 한다. 다른 정치체제는 제2차 세계대전 동안의 히틀러가 취했던 것처럼 칙령을 통하여 교회단체를 장악하려 한다.

어떤 경우이든 간에 정부의 압력에 굴복한 교회들은 근대주의(근대 사상의 입장에서 교리를 재검토하고 조화를 꾀한 신학의 한 사상체계)를 저항할 능력이나 핍박의 시기를 은밀히 감당할만한 능력을 잃을 뿐 아니라, 성경적인 원리를 잃게 될 것이다.

한편, 사도행전에 나타난 교회들은 중앙집권적인 권위체계, 다시 말하면,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던 예루살렘 공회같은 체계가 있었다고 반박하는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본문을 심도 깊게 연구해 보면, 이 공회는 공식적인 관리 기관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그것은 자문을 구할 목적으로 열린 사도들과 장로들의 단순한 모임이었을 뿐이다.

그 공회는 먼저 안디옥으로부터 사람들을 오도록 호출(呼出)하지 않았다. 오히려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과 상의할 목적으로 공회가 열리게 되었다. 공회의 결정 또한 교회를 억압하거나 묶는 것이 아닌, 일단의 그룹이 일치해서 내린 판단을 단순히 제시하는 정도였다.

교회사가 이렇듯 교회의 자치권을 상실했을 때의 폐해를 말해주고 있다. 중앙집권 하의 총회가 있는 곳마다 영적 침체가 가속되어 왔다. 요컨대, 하나님을 향한 가장 순수한 간증만이 외적인 인간 통치와 무관하게 교회의 생명을 면면히 유지시켜온 것이다.♠

16:1-2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 돌아왔을 때 과거의 기억들이 생생하게 밀려왔을 것임에 틀림없다. 특히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은 기억이 그로 하여금 다시 방문하는 것을 두렵게 만들었음지도 모른다. 하지만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 지역에 자기 백성을 갖고 계심을

아셨다. 따라서 그는 신변 안전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았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디모데는 바울의 사역 중에, 특히 디모데의 고향인 루스드라를 처음으로 방문했을 때의 전도를 통하여 회심했을 것이다. 디모데의 모친인 유니게와 외조모인 로이스는 유대계 신자들이었다(딤후 1:5). 디모데의 부친은 헬라인이었는데 아마도 바울이 이곳을 방문했을 무렵에 별세한 것 같다.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로부터 디모데가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에 있어 좋은 진보를 보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바울의 마음은 기쁨이 흘러 넘쳤다. 따라서 바울은 이번 선교여행에 함께 동행하자고 디모데를 청했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동년배와 더불어 사역했을 뿐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사역의 실재를 훈련하기 위해 젊은 청년 형제들을 동행시켰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다. 예컨대, 마가 요한과 디모데가 그 경우이다. 이같은 젊은이들이 노련한 그리스도인 선교사와 더불어 같은 멍에를 멘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특권이었는가?

16:3 선교여행을 출발하기에 앞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했다. 과거 몇 년 전에 디도가 할례 받은 것을 강력히 반대했던 그가 왜 이같이 행동했던 것일까?(갈 2:1-5). 질문에 간단히 대답하면 이렇다. 디도의 경우, 할례 문제는 본문의 경우와는 달리 근본적인 그리스도인 교리가 도전을 받았었다. 디도와 같은 완전한 이방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할례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한다고 거짓 교사들도 주장했었다. 그때, 바울은 이같은 주장이 곧 그리스도 속죄(贖罪) 사역의 완전성을 부인하는 행위임을 간파하고 결코 디도가 할례받지 못하도록 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사정이 완전히 달랐다. 이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은 디모데가 그의 모친과 같이 유대 배경을 가진 자임을 알고 있었다. 그런 바울, 실라, 그리고 디모데는 모두 복음사역을 위해 출전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들의 일차적인 접촉 대상자들은 주로 유대인들이었다. 따라서 만일 이 유대인들이 디모데가 할례 받지 않은 자임을 안다면, 그들은 바울 일행의 전도를 듣지도 않을 것이고, 디모데가 어디를 가든지 영적 전투를 해볼 가능성조차 갖지 못할 것이었다. 이렇듯 할례 받는 것이 근본적인 교리와 무관한 도덕적 차이점으로 부각되자 바울은 디모데로 하여금 유대 관습을 따르도록 했다. 그가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행함은 오직 그 수단들을 통하여 몇몇을 구원하고자 함이었다(고전 9:19-23).

바울이 디모데에게 할례를 베푼 것이 복음전도에 유대인들의 관심을 끌고자 했다는 해석은 다음과 같은 본문의 말씀에 의해 강력하게 지지를 받는다. “유대인을 인하여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이는 그 사람들이 그의 부친은 헬라인인줄 다 앎이러라.”

16:4-5 세 명의 선교사들이 루가오니아 도성을 통과하여 여행을 할 때,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장로들이 작성한 규례들을 교회들에게 전달해 주었다. 이 규례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구원에 관한 한, 믿음만이 구원에 필수적이다. 할례나 율법 준수가 구원의 조건으로써 믿음에 첨가되어서는 안 된다.

(2) 성적 부도덕(음행)은 시대를 막론하고 모든 믿는 성도들에게 금해졌다. 물론 이같은 권면은 일차적으로 회심한 이방인들에게 주어졌던 것 같은데, 당시 이방인들에게 만연된 죄였기 때문이다.

(3) 우상들에게 바쳐졌던 고기나, 목매어 죽인 고기들, 그리고 피를 먹는 것은 구원의 필수적인 조건으로써의 금기사항이 아니라 음식으로써 섭취하는 것을 금한 것이다. 또한 유대계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신자들 사이의 원만한 교제를 위해서도 금해져야 했다. 이 교훈들 중 어떤 것들은 후에 그 내용이 반복되었다(고전 8-10장, 딤후전 4:4-5 참조).

사도 바울 일행의 사역의 결과로써 교회들은 그리스도의 신앙 안에서 굳건해졌고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증가하였다.

16:6-8 이 구절은 굉장히 중차대한 구절들인데, 이 말씀들은 사도들의 선교전략에 있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감독하심에 대한 탁월한 교훈을 주기 때문이다. 브루기아와 갈라디아에 위치한 교회들을 재차 방문한 후에 그들은 안디옥 서쪽에 있는 소아시아로 가려고 생각했지만 성령께서 허락지 않으셨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지 않다. 이에 대해 어떤 사람들은 주장하기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지역은 베드로 사도에게 배정된 곳이라고 한다(벧전 1:1 참조). 어쨌든 그들은 무시아 지경에서 북서쪽으로 여행하였다. 이 무시아는 사실상 아시아 도(道)에 편입되어 이는 장소였는데, 그들은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지 않았다. 그들이 다음으로 흑해 해변에 위치한 비두니아 북동쪽으로 가려고 시도했으나, 성령께서 그들의 진행을 허락지 않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곧바로 드로아 해변도시를 향해 서쪽으로 직행했다. 그곳에서 이 선교사들은 유럽의 관문인 그리스를 향하고 있는 에게해를 가로질러 볼 수 있었다. 라이리(Ryrie)는 아래와 같이 썼다.

“아시아는 복음이 필요했지만 그때는 아직 하나님의 시간이 아

니었다. 필요성이 그들의 방문을 결정할 수 없었다. 그들은 방금 동쪽에서 왔다. 실상 그들은 남쪽이나 북쪽으로 가는 것이 금지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주님께서 그들을 서쪽으로 인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지시를 기다렸다. 분명한 사실은, 논리적인 생각만이 부르심의 기초는 아니라는 점이다.”⁶³⁾

16:9 한 밤중의 이상을 보는 중에 바울은 마게도냐 사람을 보았는데, 그는 바울을 향해 와서 도와달라고 요청했다. 마게도냐는 드로아의 서쪽 건너편에 위치한 그리스의 북쪽 지역이었다. 의식을 했든지 아니면 안했든지 마게도냐(그리고 전 유럽)는 구속의 은혜를 베푸는 복음을 필요로 했다. 아무튼 주님은 아시아의 문을 닫으사 당신의 종들로 하여금 복된 소식을 유럽에 전하게 만드셨다. 스토커(stalker)는 이 점을 이렇게 설명했다.

“마게도냐 사람은 유럽을 대표한다. 그리고 그의 도와달라는 요청은 유럽 사람들에 대한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바울은 이상 중에 하나님께서 소환하시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헬레스폰트(Hellespont) 해협으로 저물어가는 금빛의 석양빛이, 마게도냐 해변을 바라보고 항해하는 뱃머리에 앉아 있는 바울의 얼굴을 비추고 있었다.”⁶⁴⁾

16:10 여기에 인칭대명사 ‘그가’에서 ‘우리’로 바뀌는 의미심장한 전환이 있다. 이 시점에서 사도행전의 기자 누가가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와 함께 동행하였다고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진다. 여기서부터 누가는 각 사건을 목격자로서 기록하고 있다.

63) Ryrie의 저서 *Acts*, p. 88,89를 보라.

64) James Stalker의 저서 *Life of St. Paul*, p. 78을 보라.

☞ 하나님의 인도하심

지상에서 효과적으로 기능하기 위하여 초대교회는 하늘에 계신 교회의 머리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의존하였다. 그러나 어떻게 주님은 자신의 뜻을 종들에게 알리셨는가?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1:8)고 말씀하실 때, 그분은 제자들에게 그분의 일반적인 전략을 남겨두셨다.

승천 후에 주님은 자신의 뜻을 여러 방법으로 제자들에게 알게 하셨다.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가룟 유다 대신 12제자의 직분을 뽑을 때 구약성경의 인도를 받았다(1:15-26, 시 69:25).

최소한 다섯 번에 걸쳐서 주님은 환상(vision)을 통하여 사람들을 인도하셨다. 예컨대, 아나니아(9:10-16), 고넬료(10:3), 베드로(10:10,11,17), 그리고 바울(2회: 16:9-10, 18:9)이 그 경우들이다.

두 번에 걸쳐 주님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인도하셨다(11:27-30, 21:10-12).

어떤 때 그리스도인은 환경에 의해 인도를 받았다. 예를 들면, 그들은 핍박에 의해 전역에 흩어져야 했다(8:1-4, 11:19, 13:50-51, 14:5-6). 또한 당국자들이 바울과 실라에게 빌립보를 떠나달라고 요청하였다(16:39-40). 후에 바울은 로마 군 병력에 의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까지 호송되었다(23:33). 바울의 가이사에게 대한 호소가 로마 여행을 결정짓게 만들었다(25:11). 그리고 후에 그들이 탄 배의 침몰 사건과 이동이 시기적절하였다(27:41, 28:1).

때때로 인도하심은 다른 그리스도인의 권면과 제안을 통하여 왔다. 예루살렘 교회는 안디옥에 바나바를 보냈다(11:22). 아가보는 가뭄을 예언했고, 이 소식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

유대에 있는 성도들에게 부조(扶助)를 보내도록 했다(11:27-30). 안디옥 교회 형제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에 보냈다(15:2). 바울과 실라는 제2차 선교여행을 떠날 때 형제들에 의해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았다(15:40). 바울은 루스드라를 떠날 때 디모데를 동반자로 데리고 갔다(16:3). 데살로니가에 있는 형제들은 바울과 실라를 폭행의 위협 때문에 베뢰아로 보냈다(17:10). 역으로 베뢰아 형제들은 동일한 이유 때문에 바울을 데살로니가로 전송했다(17:14-15). 마침내, 바울은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마게도냐로 보냈다(19:22).

상술한 여러 인도하심의 방법 외에도 사람이 직접적인 하나님과 교통함으로 그 뜻을 알게 된 경우도 더러 있다. 주의 사자는 빌립을 인도하여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로 이끌어갔다(8:26). 성령은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금식하고 기도했을 때 그분의 뜻을 말씀하셨다(13:1,2). 바울과 디모데는 아시아에서 말씀 전파하는 일을 성령에 의해 제재(制裁)를 받았다(16:6). 후에 그들은 비두니아로 가고자 노력했으나 그때 성령께서 그들이 그곳에 가는 것을 허락지 않았다(16:7).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초대교회 성도들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았다.

- (1) 성경을 통하여 인도하심을 받았다.
- (2) 환상과 선지자를 통해 인도하심을 받았다.
- (3) 환경을 통하여 인도하심을 받았다.
- (4) 다른 그리스도인의 충고와 제안을 통해 인도를 받았다.
- (5) 직접적인 교통을 통하여, 그리고 내적인 복종의 태도를 통해서 인도함을 받았다.♠

16:11-12 드로아에서 북서쪽으로 향해하는 지칠 줄 모르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은 사모드라게 섬에 한밤중에 닻을 내렸다. 그들은 다음에 드로아에서 192km 이상 떨어진 네압볼리 본토에 도착했다가 대륙으로 수 킬로미터 떨어진 빌립보 도성으로 갔다. 이 빌립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째 가는 성읍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였다.

16:13-15 분명 빌립보 성읍에는 회당이 없었다. 하지만 바울과 그 일행은 유대 사람 몇몇이 안식일에 도성 외곽 강변에 모인다는 말을 들었다. 그 장소에 이르자 그들은 루디아란 이름을 가진 여인을 포함하는 일단의 여인들을 발견했다. 루디아는 아마도 유대교로 개종한 여인이리라. 본래 서쪽 소아시아 리디아 지경의 두아디라도성 출신인 그녀는 자주 옷감을 팔기 위해 빌립보로 이사해 왔다. 두아디라는 본래 자주 옷감 생산지로 유명했다.

그녀는 자신의 귀뿐 아니라, 마음까지도 복음에 대해 열려 있었다. 주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그녀와 권속은 침례를 받았다. 물론 그녀의 가족 식구들은 침례를 받기에 앞서 회개한 자들이었다. 루디아가 기혼녀인지에 대한 언급은 없다. 그녀의 가족은 종들을 두고 있었을 것이다.

루디아는 선행으로 구원받지 않았고, 그것을 행하기 위해 구원받은 여인이었다. 그녀는 바울, 실라, 누가, 그리고 디모테에게 가정을 개방하여 접대함으로써 자신의 믿음이 진실됨을 입증하였다.

16:16-18 어느 날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기도처에 가다가 귀신들린 여종 하나를 만났다. 그녀는 귀신들린 자로서 장래사를 예언하는 능력을 가져 못 사람을 놀라게 만들었다. 이같은 방법으로 점

을 쳐서 그녀는 주인에게 큰 수입을 가져다주었다.

그녀가 그리스도인 선교사들을 수일동안 만났을 때, 그녀는 그들을 따라 와서 부르짖었다.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그녀가 말하는 것은 사실이었으나 실상 바울은 귀신으로부터 증거를 받아 아는 것보다 더 명백히 그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 게다가 귀신의 종된 이 소녀의 불쌍한 처지가 그의 마음을 괴롭게 했다. 그래서 그는 모든 능력의 원천인 주 예수의 이름으로 그녀에게서 귀신이 나갈 것을 명했다. 그러자 즉시 그녀는 이 끔찍한 속박에서 자유케 되었고 다시 본래의 정상적인 모습으로 되돌아왔다.

☞ 기적(奇蹟)

기적은 사도행전 내용의 곳곳에 나타나고 있다. 다소 특이한 기적들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기적적인 방언의 선물(2:4, 10:46, 19:6)

성전 문에서 불구자가 고침 받음(3:7)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갑작스러운 죽음의 심판(5:5,10)

감옥에서 사도들이 극적으로 구출됨(5:19)

영광을 얻으신 그리스도를 만난 사울의 체험(9:3-6)

베드로를 통한 아나니아의 병 고침(9:34)

죽은 도르가의 회생(9:40)

베드로가 본 하늘에서 내려온 보자기 환상(10:11)

베드로의 감옥으로부터의 구출 체험(12:7-10)

천사를 통해 급작스럽게 죽임당한 헤롯(12:23)

박수 엘루아가 소경이 되고 심판도 당함(13:11)

루스드라 사람이 바울을 통해 불치병을 치료받음(14:10)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아 죽었다가 소생한 바울의 체험(14:19-20)
 바울이 본 도움을 청하는 마게도냐인의 환상(16:9)
 빌립보에 사는 소녀에게서 귀신을 쫓아냄(16:18)
 빌립보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가 구출 받음(16:26)
 바울을 통해 유두고가 희생함(20:10-11)
 아가보의 예언(21:10-11)
 멜리테에서 바울이 독사에 물렸으나 이상이 없었음(28:3-6)
 보블리오 부친의 열병이 고침 받음(28:8)
 다른 병자들이 고침 받음(28:9).

게다가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이적과 기사를 행했음을 언급한다(2:43). 예컨대, 스테반은 사람들 가운데 큰 기사와 기적을 드러내었다(6:8). 빌립은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다(8:6,13). 바나바와 바울도 바울의 손을 통해 기적을 일으켰다(19:11).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다음과 같은 질문이 자연스럽게 일어날 것이다. “오늘날 우리도 초대교회 당시와 같은 기적을 기대해야 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는데 있어 피해야 할 두 가지 극단적인 견해가 있다. 첫째, 예수 그리스도가 언제나 오늘날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기에 우리도 초대교회에서 발견할 수 있는 동일한 기적들도 기대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둘째, 또 다른 극단적인 것으로서 기적은 초대교회 시대를 위해 주어진 것이므로 오늘날 우리는 그같은 기적을 기대할 권리가 없다는 견해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날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심에

는 틀림없다(히 13:8).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나 방법이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아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징계의 수단으로 전염병을 사용하셨으나 그것을 결코 반복하지 않으셨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은 변함이 없으시다. 그분은 지금도 어떤 종류의 기적을 행사하실 수 있으시다. 그러나 이 말이 결코 하나님이 전 시대에 동일한 기적을 베푸셔야만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다른 한편으로, 우리는 그같은 기적이 교회시대에는 존재할 수 없다고 제쳐두어서도 안 된다. 사실 시대적으로 기적이 끝났다고 세대주의적인 틀을 주장하여 기적을 기대하지 않고 만족하는 것은 쉬운 일이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삶은 특별한 능력을 요청한다. 우리는 환경을 놀랍게 열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지속적으로 보아야 한다. 우리는 기적적이고 신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야 한다. 또한 우연의 법칙을 뛰어넘어 우리의 삶 속에 역사되는 사건들을 경험해야 한다. 하나님은 제반 만남을 주선하시고, 문을 여시며, 반대를 해결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인식해야 한다. 우리의 봉사는 비범한 능력과 맞물려야 한다.

우리는 기도가 어떤 방향으로 응답되는가를 보아야 한다. 우리의 삶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칠 때, 하나님을 위해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을 목격해야 한다. 우리는 삶을 영위하다 경험케 되는 좌절, 예기치 못한 사고, 불이익, 일의 연기 그리고 비극적으로 보이는 일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손을 보아야 한다. 또한 우리는 비상한 구원을 경험하고 능력을 공급받으며, 용기, 평강 그리고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지혜에 대한 신적 인식의 경험을 해야 한다. 만일 우리의 삶

이 보통 수준의 삶을 산다면, 우리가 불신자들과 비교해서 다른 점이 무엇이겠는가?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이 비범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를 통하여 흘러넘치는 것이다. 이같은 삶이 될 때, 불가능이란 회의는 사라져버리고 닫힌 마음의 문들은 열릴 것이며 능력은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온전케 될 것이고, 사람들이 우리에게 접근해 올 때, 그들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섬광(閃光)을 느끼게 될 것이다.♠

16:19-24 이 젊은 처녀가 귀신들린 상태에서 벗어났음에 대한 감사의 표현을 하기는커녕, 그녀의 주인은 돈벌이를 잃었다는 데 대해 강한 분노를 표출했다. 그런 후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잡아 끌고 가 행정관 앞에서 고소하였다. 종의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가 로마인의 삶의 방식을 전복시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유대인이라고 송사하였다. 폭도들은 이 말에 폭력적으로 행동하였고, 행정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옷을 벗기고 매를 치라고 명령하였다. 한참을 매질한 후에 선교사들을 감옥에 가두었다. 간수에게 그들을 확실히 지키라는 명령과 함께 말이다. 그러자 간수는 그들을 깊은 감옥에 밀어 넣고, 그 발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다.

본문에서 우리는 사단의 최대 공격법을 목도한다. 첫째로, 그는 거짓 친교를 시도한다. 이러한 시도는 귀신들린 소녀의 증거 속에서 발견된다. 그런데 이 방법이 실패하자, 그는 공개적인 박해를 행사했다. 그랜트(Grant)가 지적한 말이 옳다.

“동맹관계냐, 핍박이냐. 거기에는 오직 양자택일의 길이 있을 뿐이다. 요컨대, 거짓 타협 아니면 공개적인 전쟁이다.”

폴록(A. J. Pollock)은 다음과 같이 주석을 썼다.

“사단은 이 헌신된 그리스도의 종들의 생애에 뜻밖의 종말을 가져왔다고 생각했을 때, 분명 큰 승리감에 젖어있었을 터였다. 하지만 언제나 그랬듯이 사단이 승리감에 젖기에는 시기상조였다. 그의 성공의 전조(前兆)는 곧바로 실패로 뒤엎어졌고, 주님의 사역에 진보를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⁶⁵⁾

16:25 한 밤중에 바울과 실라는 주님께 기도와 찬양을 올렸다. 실로 그들이 소유한 기쁨은 지상의 환경을 완전히 초월한 것이었다. 그들의 찬양의 원천은 하늘이 높음같이 고매한 것이었다. 여기서 몰간(Morgan)의 글에 귀 기울여 보자.

“옥문이 열리고 자유의 몸이 되면 그 누구도 찬양할 수 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영혼은 감옥에서조차도 찬양을 올린다. 내가 실라였다면 아마도 바울이 독창으로 찬미를 올렸을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모든 처한 어려움들과 한계를 초월해서 역사하는 성령님의 영광과 위엄을 목도한다.”⁶⁶⁾

16:26 다른 죄수들이 하나님을 향한 이들의 기도와 찬양소리를 들었을 때, 갑자기 감옥이 이상스런 지진으로 말미암아 흔들렸다. 그러자 모든 옥문이 열렸고, 죄수들의 쇠고랑이 풀려졌다. 하지만 그 지진이 건물을 무너뜨리지는 않았다.

16:27-28 간수가 잠자다 깨서 옥문이 활짝 열린 것을 보자, 그는 곧바로 죄수들이 탈출을 기도한 것으로 단정했다. 자신에게 큰

65) A. J. Pollock의 저서 *The Apostle Paul and His Missionary Labors*, p. 56을 보라.

66) G. Cambell Morgan의 저서 *The Acts of the Apostle*, p. 389,390을 보라.

화가 미칠 것을 직감한 그 사람은 칼을 빼들고 자살을 시도하려 했다. 그러나 바울은 자살할 필요가 없음을 그에게 확신시켰는데, 그 이유는 모든 죄수들이 그곳에 남아 있었기 때문이었다.

16:29-30 이제 감동이 간수에게 임했다. 바울과 실라가 누구이고, 또 무엇을 하는 사람들인가를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그는 큰 두려움에 전율했다. 하나님의 존전에 있는 듯한 겸비한 마음속에 죄책감을 깊이 느끼게 되었다. 그는 울부짖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이는 진실로 회개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꼭 필요한 질문이다. 사람은 구원받기에 앞서 자신이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잃어버려진 자임을 깨달아야만 한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중심으로 “나는 실로 지옥에 들어가야 할 마땅한 죄인입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구원의 길을 가르쳐 주는 것은 큰 실책이다.

16:31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최초로 권고를 받게 될 이 간수는 자신이 죄인임을 깊이 자각하였다. 그는 죄책감으로 완전히 깨어진 심령이 되었다. 그때 그에게 다음과 같은 복음이 들려왔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만일 그가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의 가정이 자동적으로 구원받게 될 것이란 언급이 없다는 것이다. 만일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가 구원을 얻을 것이고, 그와 같은 방법으로 그의 가족들도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이 본문의 의미이다. 이를 다시 말하면 다음과 같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받을 것이다. 그리고 네 가족도 같은 방법

으로 구원을 받으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는 말의 의미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 하지만, 한 죄인이 자신이 잃어버려진 존재이고, 희망이 없고, 자신을 도울 자가 없다는 것을 깨닫고, 결국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될 때, 그리고 그가 그리스도를 주님과 구세주로 믿으라는 말을 들었을 때, 그는 명백하게 믿는다는 말의 의미를 알게 될 것이다. 그 시점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믿음 뿐이기 때문이다.

16:32-34 바울과 실라가 간수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다 증거하자 그 간수는 그들의 상처를 씻어주고, 지체 없이 침례를 받음으로써 자신의 회심에 진실함을 입증하였다. 그 후 그는 이 선교사들을 자기 집으로 청하고 음식을 대접하였다. 그리고 그와 온 집이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므로 크게 기뻐하였다.

침례를 받은 그 가족들 가운데 유아들이나 어린 아이들이 포함되었다고 믿는 이론은 전혀 근거가 없음을 우리는 재차 주목해야 한다. 요컨대, 그들 모두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장성한 사람들이었다.

16:35 분명히 행정관들이 밤사이에 마음이 바뀌었다. 아침에 그들은 부하들을 시켜 이 두 죄수를 풀어주라고 명했기 때문이다.

16:36-37 간수가 바울에게 이 좋은 소식을 전하자, 그는 그같은 처지에서 그냥 떠나려 하지 않았다. 사실상 바울과 실라는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이었다. 이 둘은 공히 로마 시민권을 소유하고 있었

다. 그러나 그들은 거칠게 다루어졌고 불공평하게 매질을 당했다. 이제 행정관이 생각했던 것처럼 이 두 선교사들이 치욕을 느끼며 허겁지겁 도망치듯 나왔겠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오히려 그 행정관이 직접 와서 자신들을 손수 풀어주어야 했다.

16:38-40 마침내 행정관들이 대경질색하여 찾아왔고 사과하면서 방면하였다. 그리고 그들은 공손히 바울과 실라가 더 이상의 충돌 없이 빌립보 도성을 떠나 주기를 간청하였다. 주의 종들은 왕의 자녀로서의 위엄을 갖고 감옥에서 나왔으나, 곧바로 그 도성을 떠나지는 않았다. 먼저 그들은 루디아의 집에 들러 형제들을 만났고 그들을 격려했다. 얼마나 놀라운 광경인가! 마땅히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었던 것이다.

17:1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를 떠나 남서쪽으로 53km 가량을 여행하여 암비볼리에 갔다. 다음 정착지는 아볼로니아로서 같은 방향으로 48km를 더 가야했다. 그곳에서 그들은 서쪽 방향으로 59km 가량 이동하여 데살로니가에 도착했다. 이 도성은 전략적으로 무역항로에 위치하였고 당대 활발한 상업 중심지였다. 성령께서 그곳을 근거지로 선택, 향후 복음을 다방면으로 전하게 되었다. 현재는 살로니키라는 지명으로 알려져 있다.

바울과 실라가 주를 위해 새로운 개척지를 찾아 떠났을 때, 누가는 빌립보에 계속 체류했던 것 같다. 이같은 추측은 계속되는 17장의 기사에서 1인칭 복수인 ‘우리’가 3인칭인 ‘그들’로 바뀐 사실이 뒷받침해준다.

17:2-3 습관대로 선교사들은 유대교 회당에 방문하여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였다. 세 번의⁶⁷⁾ 안식일에 걸쳐 바울은 구약성경을 열어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죽은 후에 다시 부활할 것이 예언되어 있음을 확신 있게 증거하였다. 이같은 교리를 성경으로 확립시키면서 바울은 나사렛 예수가 오랫동안 고대해 왔던 메시아이셨음을 선포하였다. 그분이야말로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셨고, 죽으셨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분이 아니시던가? 이같은 사실이 그분께서 바로 하나님 그리스도이셨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었던가?

17:4-7 유대인들 중 몇몇은 그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인의 신자로서 바울과 실라를 주목하였다. 또한 경건한 헬라인들과 도성의 많은 유력한 여인들이 회심하였다. 이같은 변화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격동시켜 걱정적으로 행동하게끔 만들었다. 그들은 시장에서 불량배들을 모아 바울과 실라가 손님으로 묵었던 야손의 집을 포위했다. 그들은 야손과 몇몇 동료 신자들을 붙잡아 성읍의 행정관 앞에 끌고 갔다. 그리고 의미도 모른 채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바울과 실라를 송사했다. 그들은 또한 이들이 다른 왕 예수를 전하면서 가이사 정부를 전복시키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노라고 고소하였다. 그런데 이렇듯 가이사 정부의 안전에 대해 그토록 염려하는 듯한 태도는 극히 이상한 일이었는데, 사실상 그들은 로마제국에 대해 무관심했고 심지어 증오해 왔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유대인의 이같은 고소는 진실인가? 의심할 바 없이 그들은 바울이 선포하는 설교, 즉 모든 지구의 왕으로서 통치하기 위해 오실 예수의 재림에 대해 들었을 것이다. 이같은 설교는 가이사 정

67)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데살로니가에서 단지 세 안식일 날을 회당에서 가르쳤지만 실상 3개월가량 체류했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권에 즉각적인 위협이 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그리스도는 이스라엘이 국가적으로 회개하기 전까지는 다시 오지 않으실 것이기 때문이다.

17:8-9 성읍의 행정관들은 이같은 보고로 인해 혼란스러웠다. 그들은 야손과 함께 한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그의 집에 손님으로 있는 사람들을 읍내 밖으로 내보내라는 권고와 함께 석방시켰다.

17:10-12 데살로니가에 있는 형제들은 그 설교자들이 떠나는 것이 좋겠다고 여겨 밤중에 그들을 베뢰아로 전송했다. 억누를 수 없는 이 불굴의 전도자들은 지체 없이 유대인의 회당으로 갔다. 그들이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유대인들은 구약성경을 살피고 점검하고 비교해 봄으로써 열린 마음을 보여주었다. 그들은 단순한 마음과 가르침 받고자 하는 태도를 소유하였다. 또한 모든 들은 설교 내용을 자신의 생각이나 전통이 아닌 거룩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려 하였다. 그 결과 많은 유대인들이 참 신앙을 갖게 되었다. 게다가 남자들 뿐 아니라, 상당수의 유력한 이방 여인들이 회개하는 열매를 보게 되었다.

17:13-14 바울과 실라가 베뢰아에서도 복음전도 사역을 감행한다는 소식이 데살로니가에 전해지자, 데살로니가에 사는 유대인들도 특별히 베뢰아까지 여행하여 사도들을 대항하도록 군중들을 부추겼다. 그리하여 형제들은 바울을 호위하여 해변으로 보냈다. 아마도 그들은 거기서 디움까지 가서 아텐의 항구 도시인 피레이우스

에 도착했을 것이다. 한편 실라와 디모데는 베뢰아에 그대로 머물러 있었다.

17:15 베뢰아에서 아덴(아테네)까지는 장시간의 여행거리였다. 따라서 몇몇 형제들이 바울과 함께 그 긴 거리를 기꺼이 동행하려 했다는 점은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진정으로 헌신했음을 입증해 준다. 아덴에 도착하여 작별할 시간이 되자, 바울은 그들을 전송하면서, 실라와 디모데에게 속히 아텐으로 오라는 메시지를 전해주었다.

17:16 아덴에서 실라와 디모데를 기다리는 동안, 바울은 그 도성에 가득한 우상 숭배의 모습을 보며 마음에 큰 부담을 느꼈다. 비록 아덴이 당대 문화, 교육, 예술의 중심지였을지라도 바울은 그같은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었다. 또한 그는 관광을 하면서 자신의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다. 아르논(Amet)의 주석을 참조해 보자.

“바울은 대리석 조각상들을 평가절하하지 않았다. 오히려 살아있는 사람의 가치를 인정하였다.…그는 나약한 사람이 아니라, 현란한 예술품보다도 불멸하는 영혼의 가치를 더 탁월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강한 사람이었다.… 바울은 우상 조각품들은 해가 없는 멋진 예술품으로 생각하기보다 큰 관심거리로 간주하였다.”⁶⁸⁾

17:17-18 바울은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이방인 예배자들과 변론하였다. 또한 시장에서는 경청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였다. 이런 방식으로 전도하다가 그는 철학의 한 줄기인 에피쿠

68) William Arnot의 저서 *The church in the House: A Series of Lessons on the Acts of the Apostle*, p. 379를 보라.

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을 만나게 되었다. 에피쿠로스 철학자들은 철학자 에피쿠로스의 추종자들로서 지식의 추구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정신적 쾌락을 추구하는 자들이었다. 반면, 스토아 철학자들은 범신론자들로서 격렬한 감정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지혜, 희노애락으로부터 요동치 않는 의지, 자연법에 기꺼이 엄격한 도덕법을 강조했다. 이 두 부류의 철학자들이 바울의 말을 들었을 때, 그들은 그를 말쟁이(문자적으로 ‘씨를 쪼는 사람’)요, 이방신의 포교자로 생각했다. 왜냐하면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을 전했기 때문이었다.

17:19-21 그들은 바울을 붙들어 마르스 동산(Mars Hill)에 위치한 대법원과 같은 재판소인 아레오바고에 끌고 갔다. 이 특별한 경우는 실상 심문이 아니었다. 다만 재판관들과 군중 앞에서 바울의 가르침을 듣는 기회를 갖고자 열린 일종의 공청회였다. 이같은 사실은 21절에 잘 설명되어 있다. 아텐 사람들은 둘러서서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기를 좋아했다. 그들은 이같은 토론을 무한정으로 즐겼다.

17:22 법정 중앙에 서서 바울은 ‘마르스 언덕 연설’로 알려진 내용을 증거했다. 이 내용을 연구함에 있어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에게 설교한 것이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이방인들은 구약성경에 대한 배경과 이해가 없었다. 그래서 그는 연설 초두에 그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일반적인 주제를 선택해야 했다. 그는 아텐 사람들이 상당히 종교적인 사람이었다는 관찰로부터 설교를 시작했다. 아텐 사람들이 심히 종교적이었다는 사실은 그 도시 안에 사람의 숫자보다 우상의 수가 훨씬 더 많았었다는 세

상의 평가에 의해서도 잘 입증된다.

17:23 주변의 각종 우상들을 생각하고 있을 때, 바울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겨진 제단을 기억해 냈다. 그는 그 돌판에 새겨진 글을 선포의 서론으로 선택했다. 사도 바울은 그 글에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첫째로 하나님 존재에 관한 사실, 둘째로 아텐 사람들이 하나님에 관해 무지하다고 하는 사실이 그것이었다. 따라서 바울이 그들의 신관(神觀)에서부터 참되신 하나님에게로 전환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귀결이었다. 어떤 사람이 언급했듯이, 그는 아텐 사람들의 방황하는 신앙심의 지류들을 올바른 통로로 전환시켰다.

17:24-25 이교도에게 하나님을 소개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곧 창조기사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이라고 선교사들은 말한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아텐 사람들에게 행한 방법이었다. 그는 하나님을 온 우주와 만유를 지으신 분으로 소개하였다. 그는 주변에 세워져 있는 수많은 우상들을 바라보면서, 참 하나님은 사람이 만든 성전(혹은 신전)에 계시지 않는다고 청중들에게 상기시켰다. 게다가 하나님은 인간의 손에 의한 섬김을 받을 만큼 의존적인 존재가 아님을 강조했다. 우상 신전에서는, 사제들은 종종 우상들의 음식이나 다른 신들의 필요들을 가져왔다. 그러나 참 하나님은 사람으로부터 그같은 도움이 필요하지 않으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과 호흡과 만물의 원인자요 공급자이시기 때문이다.

17:26-28a 바울은 이어서 인류의 기원을 언급하였다. 모든 민

족들은 본래 공통의 조상인 아담에게 뿌리를 두고 있다. 따라서 온 족속들이 하나님에 의해 시작되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온 족속들의 연대를 정하셨고, 다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국가와 그 경계를 정하셨다. 하나님은 이렇듯 온 인류에게 측량할 수 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셨는데, 이는 그들이 하나님을 추구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심지어 주님은 각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시지 않으므로써 우리가 그분을 더듬어 찾기를 원하셨다. 사실상 우리가 살고 움직이고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참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다. 요컨대, 하나님은 우리의 조물주이실 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환경도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다.

17:28b 피조물과 창조자간의 관계를 강조하고자 바울은 “우리는 신의 소생이다”라고 말한 어떤 헬라 시인의 시를 인용하였다. 이 말은 하나님의 부성과 인간의 형제애라는 개념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다만, 다신의 창조나 진화의 개념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의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생들이다. 그러나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

17:29 아무튼 바울의 논점은 계속된다. 만일 인간이 신의 소생이라면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 같은 우상으로 생각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 우상들은 사람의 손으로 다듬어지고 조각된 것이므로 결코 인간보다도 못한 존재이다. 어떤 의미에선 이같은 우상물들은 차라리 인간의 소생물이라 할 수 있다. 어쨌든 인간들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존재라는 사실이다.

17:30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을 폭로하면서, 많은 세대 동안 하나님은 이방인들의 무지를 간과했노라고 바울은 설파하였다. 하지만 복음의 계시가 밝혀진 지금,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회개, 즉 돌이킬 것을 명하고 계신다.

17:31 이것은 진정으로 긴급한 메시지이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실 날이 이미 정해졌기 때문이다. 이곳에 언급된 심판은, 그리스도께서 그의 대적들을 파멸시키고 천년왕국 통치를 실현할 목적으로 지상에 재림하시면 발생할 것이다. 이 사건 발생에 대한 긍정적인 확신은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주 예수를 살리셨다는 사실에서 발견된다. 이렇게 하여 바울은 선포하는 설교 주제인 주님의 부활로 논지를 이끌어가고 있다.

17:32-33 아마도 바울은 메시지를 완전히 끝마치지 않은 것 같다.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개념을 조롱하는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중단시켰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 그같이 조롱하지는 않았으나 믿기를 주저하고 있었다. 청중들은 “이 일에 대하여 네 말을 다시 들겠다”고 말하면서 어떠한 행동을 취하기를 망설였다. 분명 그들은 인생을 마감한 후에 심판받기 위해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그들은 ‘결코 믿지 않겠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그러나 ‘아직은 아니다’라고 미루다가 그같은 비극을 맞게 될 것이다.

17:34 하지만 바울의 설교가 완전히 실패로 끝났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 사실, 아레오바고의 재판 관원인 디오누시오가 주님

을 영접했다. 또한 다마리란 이름을 가진 여인이 믿었고, 익명의 몇몇 사람들이 신앙을 갖게 되었다.

이제 바울은 그들 가운데로부터 떠나갔다. “우리는 더 이상 아덴 사람들에 관한 언급을 못 듣는다. 핍박의 중심지를 향해 바울은 다시 들어갔다. 그러나 지식을 추구했던 경솔한 아덴 사람들에 관해서는 더 이상의 어떤 언급도 살펴볼 수 없다”(발취문).

어떤 사람들은 사실상 아덴 사람들이 우상 숭배 행위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마치 진정한 종교성을 가진 것처럼 칭찬했노라고 바울의 설교를 비평한다. 여기서 대충 비평적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 설교는 우상 숭배를 의도했을 비문 내용을 갖고 참되신 하나님의 개념을 끄집어 낸 것 같은 인상이다. 그것은 아덴 사람들의 관습에 너무 타협한 것처럼 보인다. 사도들이 증거한 다른 메시지처럼 힘 있고 명쾌하게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다.” 하지만 이 비평은 정당화될 수 없다. 우리가 이미 설명한 대로 바울은 먼저 그들과의 접촉점을 찾아서 단계적으로 참된 하나님에 관한 지식으로 이끌고, 더 나아가 심판자로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회개해야 할 필요성을 역설하였다. 몇몇 영혼들이 그 설교를 통하여 진정으로 회심했다는 사실로 보아 바울의 설교가 칭찬을 받아 마땅하다.

☞ 형식에 매이지 않는 강단 사역

마르스 동산에서 선포된 바울의 설교는 초대교회 신자들이 종종 선포했던 바, 일종의 틀에 박히지 않은 장소의 실례이다.

노방전도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즐겨 사용하던 전도방법이었다. 오순절 날 사도 베드로가 선포한 설교도 듣고 구원받은⁶⁹⁾ 사람들

의 숫자를 감안해 볼 때, 옥외집회였을 것이 분명하다(행 2:6,41). 다른 일반적인 노방 전도의 실례가 사도행전 곳곳에 언급되어 있다(8:5,25,40, 13:44, 14:8-18). 성전 안에서 메시지가 선포된 경우가 최소한 세 차례 있다(3:1-11, 5:21,42). 바울과 동역자들은 빌립보 성에 위치한 강변에서 말씀을 전파하였다(16:13). 이곳 아텐에서 그는 마르스 언덕의 설교에 앞서 시장 모퉁이에서 설교하였다(17:17). 예루살렘에서 그는 안토니아 요새의 계단에 선 채로 분노한 폭도들에게 증거하였다(21:40-22:21).

최소한 4회에 걸쳐 유대 공회(산헤드린)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었다. 예컨대,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4:8,19),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 의해서(5:27-32), 그리고 스테반(7:2-53)과 바울에 의해 말씀이 증거되었다(22:30-23:10).

바울과 동역자들은 습관적으로 회당에서 복음을 전파했다(9:20, 13:5,14, 14:1, 17:1,2,10,17, 18:4,19,26, 19:8).

또한 개인 집도 말씀 사역을 위해 자주 사용되었다. 베드로는 고넬료 집에서 복음을 전했다(10:22,24).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 간수 집에서 복음을 증거했다(16:31-32). 고린도에서 바울은 회당장 그리스보 집에서 말씀을 전했다(18:7-8). 또한 한번은 그가 드로아에 있는 어떤 민가에서 한밤중까지 설교하였다(20:7). 그는 에베소에서 가가호호 방문하여 전도하면서 말씀을 가르쳤다(20:20). 그리고 로마에서는 자신이 세든 집에서조차 복음을 전하였다(28:30-31).

빌립은 병거에 타고 있는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사역을 했다(8:31-35). 그리고 바울은 큰 배에 승선하여 설교했으며(27:21-26), 에베소 두란노 서원의 교실에서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69) 몇몇 학자들은 베드로의 설교가 성전 뜰에서 증거되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19:9).

바울은 시민 법정 안에서, 로마 총독 벨릭스, 베스도, 그리고 아그립바 앞에서 설교했다(24:10, 25:8, 26:1-29).

본서 8:4에서 핍박당하는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주의 말씀을 전했음을 우리는 읽는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메시지의 선포가 어떤 특별한, 봉헌된 건물(예배당)에서만 가능한 것이라고 전혀 생각지 않았음을 위와 같은 실례들은 보여준다. 당시 사람들이 있는 곳은 어디서나 그리스도를 위한 위와 같은 변호와 복음전파가 존재하였다. 심프슨(A. B. Simpson)은 이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동의하였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환경을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한 기회로 간주하였다. 심지어 왕이나 지방 행정관 앞에 서게 될 때라도 그들은 어떤 결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 밝히거나 간증하는 것을 꺼리는 일은 별로 없었다. 도리어 그러한 경우에 그들은 접근할 수 없는 왕들이나 지방 통치자들에게 복음증거의 기회로 삼았는데, 사실 그런 기회가 아니면 그들을 만날 수조차 없기 때문이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성도들의 삶의 여정에서 교차하도록 허락하사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하나님께 가까이하도록 자극하는 어떤 영향력을 던져주고 그들의 삶에 복을 남겨줄 기회를 주고자 하신다는 말은 그럴듯한 말이다.”⁷⁰⁾

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큰 사명을 위임하셨다(막 16:15). 사도행전은 주의 제자들이 그 명령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70) A. B. Simpson의 글로써 현재는 절판되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대부분의 복음 설교는 즉흥적이고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것 같다고 덧붙일 수 있다. 일반적으로 말해 갑작스럽게 대면하는 각 상황들 속에서 메시지를 준비할 시간이 충분하지 못했다. “설교는 한 두 시간의 준비로 완성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 완성되는 것이다.” 요컨대, 설교가 준비되기보다는 사실상 설교자가 준비되는 것이다!♣

18:1 흑자는 바울이 아텐을 떠난 이유를 전도사역의 결실이 미약했기 때문이라고 믿는다. 하지만 우리는 바울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서쪽으로 여행하여 아가야의 수도인 고린도에 가게 되었다고 믿고 싶다. 부도덕한 도시로 잘 알려진 이곳 고린도에서도 복음은 증거되고 교회는 설립되어야 했다.

18:2-3 고린도에 도착하여 바울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 자신의 생애 전반에 걸쳐 지속될 교제권을 형성하였다. 아굴라는 소아시아의 북동쪽 지방에 위치한 본도 출신 유대인이었다. 그 사람과 아내는 본래 로마에 살고 있었지만, 클라우디스 시이저의 ‘반셈족 칙령’ 때문에 로마에서 추방당하였다. 고린도가 로마에서 동쪽으로 가는 주요 통로였기 때문에 그들은 이곳에 정착, 장막 만드는 일을 하였다. 바울 또한 장막 만드는 일을 하고 있어서, 그들은 서로 잘 사귀게 되었다.

“인생의 최고의 계시는 우리가 각자의 터전에서 충실히 일할 때 나타나는 법이다. 따라서 매일의 생업을 계속하고 그 수고 가운데서 당신의 큰 복을 얻게 될 것이고, 기쁜 환상을 볼 것이다...가게나 사무실, 그리고 창고가 하나님의 집과 같이 될 수가 있다. 자신

의 일을 하라. 그리고 일하되 부지런히 하라. 그곳에서 당신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의 경우처럼 보기 드문, 특별한 교제권을 발견하게 될지도 모른다.”⁷¹⁾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났을 때, 그들이 이미 구원받은 성도였는지 아니면 바울의 전도를 통해 구원받았는지의 여부는 본문 구절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 아마도 그들이 고린도에 왔을 때 신앙을 갖는 편에 선 것 같다.

18:4 바울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말씀을 강론했다. 그리고 그는 예수가 참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였다고 믿는 이방인과 유대인을 얻었다.

18:5 바울이 베뢰아에서 아테네로 갔을 때, 실라와 디모데와는 떨어지게 되었다. 아테네에서 그는 그들이 자신에게 오도록 전갈을 보냈다. 그래서 그들은 고린도에서 바울을 상봉하였다.

실라와 디모데가 도착하자, 바울은 성령에 의해 강권되었다. 이 말은 주님께서 주신 강한 부담이 바울에게 임하여 그가 복음 메시지를 열심을 품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유대인에게 증거했다는 의미리라.

이 시점에서 사도 바울은 더 이상 텐트 만드는데 시간을 보내지 않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전적으로 헌신했던 것 같다.

이때가 대략적으로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를 썼던 시기였던 것 같다(A.D. 52년가량).

71) Dinsdale, T. Young의 저서 *Neglected People of the Bible*, p. 232,233을 보라.

18:6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바울의 설교를 반대하며 훼방하였다. 복음을 거절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그것을 주신 분을 거절하는 행위이다. 불신자들은 그 누구보다도 자신에게 가장 큰 손해를 끼친다.

바울은 자신의 겹옷을 떨며 그들에게 경고했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 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여기서 옷을 터는 것은 그들과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졌음을 상징하는 표현 행위였다. 그러나 이 행위가 다른 도시, 예컨대 에베소 같은 도성에서 회당에 가는 일을 금하게 하지는 않았다(19:8).

바울 사도의 말은 그같은 ‘피값’이 있다고 하는 말로써 모든 그리스도인이 엄숙하게 기억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사람들에게 빛진 자들이다. 만일 그가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므로써 그 빛을 갇는데 실패한다면, 하나님은 그에게 책임을 추궁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만일 그가 충성스럽게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복음을 거절하는 완고한 사람을 만난다면, 그때 그는 그 사람의 피에 대해 자유로울 것이고, 그 책임은 복음을 거절한 사람 자신에게 임하게 된다.

이 구절은 이스라엘 민족을 옆으로 제쳐놓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선포하게 하는, 또 다른 발걸음을 의미한다. 하나님은 복음이 첫째로 유대인에게 증거되어야 한다고 선언하셨다. 그러나 사도행전 전장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복음을 거절하자, 하나님의 성령은 근심하며 그 백성들로부터 등을 돌리셨다.

18:7-8 유대인의 분노가 뒤따르자 사도 바울은 회당 옆에 살고 있는 유대교로 개종한 이방인인 유스도의 집에 들어갔다. 그곳을 거점으로 삼아 하나님의 복음 진리를 증거했을 때, 사도 바울은 회

당장 그리스보가 온 집안사람들과 더불어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는 기쁨을 누렸다. 많은 그리스도인은 구세주를 믿고 침례를 받았다. 바울은 그리스보와 다른 소수의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었다 (고전 1:14-16). 하지만 그는 다른 형제들이 침례를 베풀도록 하곤 했다. 바울은 주 예수님께 충성하고 그분으로 인해 참 기쁨을 누리는데 대신에 바울 자신 주변으로 모여드는 것을 두려워했다.

18:9-10 한 밤중에 환상을 통해서 주님은 은혜롭게 바울에게 전혀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의식하면서 말씀을 계속해서 전해야 했다. 그 도성에 주님께 속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속에 역사하셔서 궁극적으로 구원받게 될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

18:11 바울은 고린도에 18개월간 체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이 기간에 관한 귀중한 배경 자료가 고린도전서와 고린도후서에 발견된다.

18:12-16 갈리오가 아가야의 총독으로 임명된 때는 아마도 바울의 고린도 체류 마지막 기간인 것 같다(주후 51년). 새로 부임한 총독이 자신들에게 친근히 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유대인들은 바울을 고린도 시장에 위치한 재판석(현, 베마)에 세웠다.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유대 율법과 반대되는 하나님을 섬기라고 설득한다는 것이 그들의 고소 내용의 요지였다. 바울 사도가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갖기도 전에 갈리오는 그 문제에 관여하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이 문제는 유대인의 법에 관한 것으로써 자신이 재판할 성격이 아니라고 유대인들에게 말했다. 이렇듯 신임 총독은 이 문제에 관해 재판하기를 원하지 않았고, 그래서 그는 그 사건을 무효화시켜 버렸다.

18:17 “모든 헬라인들이”(한글 개역성경은 ‘모든 사람’으로 언급되어 있으나 흠정역[KJV]과 새 흠정역[NKJV]에는 ‘헬라인들’로 표현되어 있다-역자주)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때렸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갈리오 앞으로 데려오게 하기 위해 회당장 소스테네를 잡아 때렸다고 생각한다.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치 아니했다”라고 표현했는데, 그 말은 그가 복음에 관해 무관심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물론 그가 복음에 무관심했던 것은 아니다. 어쨌든 그는 유대인의 법과 관습에 관여하기를 원치 않았다.

18:18 이 사건 후에 바울은 얼마 동안 고린도에 머물러 있었다. 아마도 그는 이 기간에 데살로니가후서를 썼을 것이다. 결국 바울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고린도에서 떠났을 때 그는 목적이인 안디옥으로 돌아가고자 수리아로 항해를 계속했다. 고린도의 동쪽 항구인 겐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은 사람이 바울이었는지 아니면 아굴라였는지에 대해서는 주석가들 중에 이견이 있다.⁷²⁾

“어떤 사람들은 서원의 관습은 강한 유대 전통으로써, 바울과 같이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그 같은 행위를 했을 리 만무하다고 생각한다.”

72) 머리를 깎는 것에 해당하는 관사가 ‘바울’이란 인명이 아닌, ‘아굴라’ 직후에 위치해 있다(실상 18절의 본문은 헬라어 한 문장으로 되어 있다).

18:19-20 탄 배가 에베소에 정박하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곳에 머무르기 위해 배에서 내렸다. 바울은 배가 잠시 정박하는 기회를 얻어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과 변론하였다. 놀랍게도 그곳 청중들은 바울이 좀 더 머물러 있기를 원했지만, 바울은 그렇게 할 수 없었다.

18:21 배는 에베소를 떠났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예루살렘에서 명절을 지킨 후에 에베소로 다시 올 것을 약속했다.

18:22 다음의 배 정박지는 가이사랴였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였다. 그 후 그는 그의 첫 번째 방문지였던 안디옥으로 내려온다. 이리하여 바울의 제2차 선교 여행의 막을 내리게 된다.

7. 바울의 제3차 선교여행 : 소아시아와 그리스(18:23-21:26)

18:23 안디옥에 얼마 기간을 체류한 후에 바울은 또 다른 선교 여행을 출발하려고 준비하였다. 이 3차 선교여행의 기록은 23절에서 시작하여 21장 16절까지 계속된다. 첫 번째 방문지는 갈라디아와 브루기아였다. 사도 바울은 그곳에 있는 교회를 차례로 방문하면서 모든 제자들을 강건케 하였다.

18:24-26 이제 장면은 다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머물고 있는 에베소로 급히 바뀐다. 그곳에 아볼로라는 이름을 가진 탁월한 설교자가 도착했는데, 그는 구약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었다. 그는

본래 유대인으로서 북이집트의 수도인 알렉산드리아 출생이었다. 그는 열정적인 소유자로서 설교에 대단한 힘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관한 참 지식을 충분히 알지 못한 상태였다. 그는 분명 침례 요한의 사역을 충분히 가르침 받았는데, 곧 침례 요한이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기 위해, 이스라엘 국가를 향한 회개 사역을 위해 어떻게 부르심 받았는지를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그리스도인의 침례와 근본적인 교리를 잘 이해하지 못했음이 분명하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회당에서 그의 설교를 들었을 때, 그들은 아볼로가 더 확실한 교훈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그래서 그들은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욱 정확하게 설명해 주었다. 실로 장막을 만드는 부부에게서 기꺼이 가르침 받고자 했던 모습을 볼 때, 이 탁월한 설교자는 신임을 받을 만하다.

18:27-28 가르침 받으려는 정신을 소유한 결과의 일환으로 에베소서의 형제들은 고린도 교회에 가서 말씀을 교제하도록 아볼로를 격려했다. 그 결과 그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큰 도움을 주었고, 공개적으로 예수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함으로 유대인들을 강력하게 논박하였다.

19:1 바울이 에베소에 처음 방문했을 때, 그는 회당에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면 재차 방문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는 갈라디아와 브루기아 지방에서 아시아 관하(管下)의 서쪽 연안에 위치한 에베소까지 이르는 산악지형을 따라 가면서 여행하였다. 에베소에 도착해서 그는 주의 제자라고 고

백하는 12명가량의 사람을 만났다. 그들과 교제하는 중에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대한 그들의 지식이 심히 빈약하고 불완전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그들이 진정 이전에 성령을 받았는지 의아해 하였다.

19:2 그런 까닭에 그는 이렇게 질문했다. “당신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 흠정역 성경은 바울의 이 질문을 이렇게 언급하였다. “당신들이 믿은 이래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이 번역은 성령을 받는 것이 구원받은 이후에 주어지는 것처럼 보여주는 별로 좋지 않은 번역이다. 본문은 성령을 받는 것이 구원 후에 따라오는 은혜의 사역이 아니라, 어느 죄인이 구세주를 믿게 되면 곧바로 그는 성령을 받는다는 사상을 가리킨다. 제자들의 답변은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것조차 들어보지 못했나이다”(미국 표준역). 이 사람들이 침례 요한의 제자였음을 다음 구절을 통해 알 수 있는데, 그들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성령의 존재에 관해 알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그뿐 아니라,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라고 제자들을 가르쳤다. 따라서 이 열두 명이 무지했던 것은 오순절 날 이미 주어졌던 성령이었다.

19:3-4 바울이 침례에 관해 질문했을 때, 그는 이 사람들이 단지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음을 발견했다. 다른 말로, 그들은 메시아가 가까이 오셨다는 것을 알았다. 또한 그들은 메시아를 왕으로서 영접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회개의 침례를 받아야 함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들은 그리스도께서 죽고 장사지냈다가 부활하여 하늘로 승천하신 후에 주께서 성령을 보내셨음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바울

은 그들에게 그 사건 전모를 설명해 주었다. 바울은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권고했었음을 그들에게 상기시켰다.

19:5 사도행전 전체는 예수의 주권을 독특하게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여기 요한의 제자들은 주 예수의 권위로서, 그리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주와 구세주로 영접했다는 사실에 대한 공적인 시인의 표시로써 침례를 받았다.

19:6-7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자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 이번이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주어진 네 번째로 독특한 경우이다. 첫 번째는 2장의 오순절 성령강림으로써 일반적으로 유대인들과 연관되어 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는 8장의 기록인데,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안수함으로써 성령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주어졌다. 세 번째 경우는 10장에서 나타나는데 이방인 고넬료 가족이 성령을 받았다. 전에 언급했던 것처럼 성령을 받는 일에 있어 각기 차이가 있다. 본장에 나타난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믿음→(2) 재침례→(3) 사도들의 안수함→(4) 성령을 받음.

요한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을 때, 그들은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했다. 이같은 특별한 능력은 신약성경이 완성되기 전인 당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던 방법이었다. 오늘날 우리는 회심의 순간에 성령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안다. 이제 성령은 표적이거나 기사, 느낌이 아닌 단순히 기록되어진 신약성경의 증거를 통해서 주어지는 것이다.

어떤 사람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그는 성령의 내주

하심을 경험한다. 다만 성령에 의해서 인치심을 받고 성령의 기쁨 부으심을 받는다. 그리고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성령의 침례를 받는다. 그러나 이같은 사실이 신자의 삶 속에 성령의 계속적인 탄식이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다. 실상 성령은 종종 하나님의 주권적인 방법으로 임하며, 특별한 사역을 위해 신자에게 권능을 주시기도 한다. 그리고 믿음 안에서 큰 담대함을 주기도 하며, 영혼에 대한 강력한 열정을 쏟아 부어주시기도 한다.

19:8 바울은 석 달 동안 에베소에 있는 회당을 방문하며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을 강론하고 권면하였다. ‘강론한다’(변론하다; reasoning)는 것은 그가 사람들의 지성(知性)에 말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권면한다’(설득하다; persuading)는 것은 그가 그들의 의지에 호소했다는 말로써 특히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는 믿음에 관해서 그들의 의지에 자극을 주었다는 말이다. 한편 그 강론의 주제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일들이었다. 스트어트(C. E. Stuart)는 이 부분을 명쾌하게 지적했다.

“바울이 왕국(나라)의 복음을 증거했다고 언급되어 있지 않다. 그것은 세대적으로 그 장소에서 증거되어질 성질의 것이 아니었다. 주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 그 왕국을 전파하셨다. 하지만 그 왕국은 주님의 죽음으로 인해 중지되었고, 장차 어느 날엔가 다시 그 왕국이 회복될 것이다(마 24:14, 계 14:6-7). 따라서 바울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증거하였다. 지금 이 지상에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말이다.”⁷³⁾

73) Stuart의 저서 *Tracings*, p. 285를 보라.

19:9-10 그러나 당시 몇몇 유대인들은 지성의 영역에 있어 완고하였고 의지의 영역에 있어 불순종하였다. 또한 ‘그 도’(道)에 대항하도록 군중을 자극시켰다. 그러자 바울은 제자들과 함께 회당과 유대인에게서 떠났다. 그리고 그 추종자들은 매일 자유롭게 가르칠 수 있는 두란노 서원으로 데리고 갔다. 여기서 두란노는 철학과 수사학을 가르쳤던 헬라인이라고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 2년 동안 바울은 그곳에서 제자들을 훈련시켰고 그 후에 그들을 보내어 타인에게 전도하고 가르치도록 했다. 그 결과 아시아의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주 예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비록 심한 곤란과 역경이 있었을지라도 바울에게 크고 효과적인 문이 열렸던 것이다(고전 16:9).

19:11-12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바울은 표적과 기사를 베푸는 능력을 소유하였다. 이같은 능력은 그의 사도권을 변호해 주었고, 그가 증거한 메시지가 진실됨을 증거해주었다. 심지어 그같은 능력은 그가 소지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만지는 사람들에게도 나타났다. 그리하여 병든 자가 치료받고 귀신들린 자가 온전케 되었다. 그런데 여기서 이같은 기적이 오늘날도 반복될 수 있을지 궁금할 것이다. 물론 하나님의 성령은 주권자로서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나 사도들과 그들에게서 위임받은 자들이 그같은 특별한 능력을 소유했었다는 것을 우리는 수긍해야 한다. 하지만 오늘날은 ‘사도’라는 말의 본래 의미하는 바, 진정한 ‘사도’가 없기 때문에 그들이 행사했던 기적이 지금도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는 말은 공허한 주장일 뿐이다.

19:13-16 하나님께서 능력 있게 역사하시는 곳마다 사단의 반대와 방해공작이 꼭 뒤따르는 법이다. 바울이 복음을 전파하고 기적을 행하는 동안, 에베소에 귀신을 쫓아내주는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다. 어느 날 이들이 악령 들린 사람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주술적으로 사용하면서 나오라고 명하였다. 실제적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가졌다는 유대인에 관한 일은 일찍이 주 예수에 의해서도 인식된 바 있었다(눅 11:19).

이같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는 유대인 마술사 중에 스게와의 아들들은 그처럼 말할 수는 있었어도, 그같은 능력을 소유하지는 못했다. 그런 까닭에 악령은 그들의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 사실상 악령의 말이 더 의미심장하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너희는 누구냐?”

마이어(F. B. Meyer)는 이것에 대해 가히 인용해 돌만한 가치 있는 주석을 달았다.

“스게와의 아들들이 악령을 쫓아내려 했을 때, 악령은 오히려 그들을 조롱했다. ‘이 조그만 자식들아, 너희들은 누구냐? 나는 바울을 알지만 너희들은 모른다. 전에 결코 너희들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 너희들의 이름이 저 아래 지옥에서 한 번도 거론된 적이 없단 말이다. 이 에베소라는 조그만 땅덩어리 밖에서는 너희의 이름이 알려진 바가 없다.’ 진정 그렇다. 오늘날도 내 마음에 떠오르는 하나의 질문이 있다. ‘지옥, 저 아래에서 누군가가 내 이름을 알고 있을까? 귀신들이 나에 관해 알고 있을까? 그들이 나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을까? 아니면 그들이 오히려 우리를 억누르고 조종하고 있을까?’ 우리가 주일에 설교하고 어떤 거처를 전도할 목적으로 방문할 때, 그리고 성경공부반을 인도할 때, 마귀는 이렇게 말할지도 모

른다. ‘나는 당신을 모른다. 당신은 내 힘과 공격을 받을만한 자격이 없다. 당신은 당신의 일을 계속할 수 있다. 나는 당신의 사역을 멈추기 위해 지옥을 혼란스럽게 하지 않을 것이다.’”⁷⁴⁾

성령이 악귀(악령, 15절)와 악귀 들린 자(악령 들린 자, 16절)를 어떻게 구별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은 흥미 있다. 15절에서 악귀는 말했다. 그러나 16절에서는 악귀 들린 사람이 스게와의 아들들 위에 뛰어올라 그들을 짓누르고 옷을 벗기며 상처를 가했다.

19:17 사단의 세력에 패배한 이 소식이 주변에 알려지자, 사람들의 마음이 두려움으로 휩싸였고 결국 주 예수의 이름을 드높이게 되었다. 바울이란 이름이 아니라 바울의 구세주 이름이 영광을 받았다.

19:18-19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강력하게 역사하였고, 그로 인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돌아와서 그들의 죄와 행위를 자복하였다. 그같이 죄를 자백한 후에 그들은 마술 관계 서적들을 모아다가 모두 불태움으로써 그들의 믿음이 진실됨을 증명하였다. 그런데 그렇게 불태운 책값을 계산해 보니 무려 은 오만이나 되었다. 이것을 현대 통화량으로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아마도 700-800만 원가량이 될 것이다.

19:20 그릇된 이교도 행위에 대한 이같은 공개적인 거부행위는 결국 주의 말씀을 능력 있게 증거되고 세력을 얻는 계기를 마련하

74) W. H. Aldis가 케직 사경회(1934)에서 F. B. Meyer의 글을 인용한 것에서 발췌한 것이다.

였다. 아마도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쓰레기 같은 책들과 잡지들을 불태워 버린다면 주의 말씀이 더욱 더 능력 있게 증거되고 세력을 얻게 되리라.

19:21 에베소의 체류 목적이 다 성취되자 바울은 마게도니아와 아가야를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서, 그 후에 로마를 방문하려는 결정을 내렸다. 바울의 큰 사랑과 열정은 항상 복음이 심겨질 수 있는 장소와 그곳으로부터 복음을 증거하는 곳에 가 있었다.

19:22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들인 디모테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먼저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신은 한동안 아시아에 머물렀다. 아마도 이 시기에 그는 고린도전서를 썼던 것 같다(A.D. 56년경).

19:23-27 바울의 복음 전도사역을 통하여 많은 에베소 사람들이 우상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아왔다. 그 도성 안에서의 영적 각성은 광범위했고 그것은 자연스럽게 우상 제조업자들의 사업에 큰 타격을 주었다. 데메드리오라 하는 은 세공장이는 그같이 사업에 큰 손해를 본 사람들 중의 하나였다. 그는 은으로 아데미(다이아나)의 신전 모형을 만들었다.⁷⁵⁾ 그 우상물 사업의 대변으로서 데메드리오는 모든 동료 사업가들과 종업원들을 불러 모아 어떤 단호한 조치를 취하도록 그들을 독려했다. 그는 바울이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설득하여 그들로 하여금 손으로 만든 신은 신이 아니라고 믿게 했는지를 상기시켰다. 그가 자신들의 사업이 위협에 처해 있다고 말했을 때, 그의 진심을 드러내었다. 하지만 그는 곧 다이아나 여신과

75) ‘다이아나’는 라틴어로서 헬라어 ‘아데미’에 해당하는 말이다. ‘다이아나’는 다수의 젓가슴을 지닌 풍요의 여신이었다.

그 신전을 크게 경배한 것처럼 말함으로써 종교적인 색채를 띠었다.

19:28-31 은 세공업자의 회합은 곧 폭도들의 시위로 발전되어 온 도성 사람들이 휘말려 들었다.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다이아나)여!”를 외치면서 군중들은 바울의 여행 동료인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잡아 죽이고자 급히 극장(콜로세움)으로 뛰어 들어갔다. 바울 자신도 그곳에 들어가 폭도들에게 말하고자 했지만, 제자들과 아시아 관원들의 만류로 들어갈 수 없었다. 바울에게 호의적이던 관원들은 바울이 극장에 들어가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고 말했다.

19:32 이제 폭도들은 완전히 자제력을 상실하였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왜 그곳에 모였는지 그 이유를 알지 못했다. 여기저기에서 다른 말을 외쳤기에 온통 혼란의 수라장이 되었다.

19:33-34 알렉산더라는 유대인이 앞으로 나아가 무리들에게 연설하려 하였다. 의심할 것 없이 그 사람은 유대인들이 이 문제에 관해 무죄하다고 변호하려 했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유대인인 것을 알게 된 군중들은 무려 두 시간 동안 저항의 큰 함성을 질렀다. “크도다, 에베소 사람들의 아데미여!”

19:35 이 결정적인 순간에 성읍의 서기장이 군중들을 조용히 만들었다. 그의 연설은 가히 성공적이었다. 그는 설득력 있게 에베소 사람들이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말했다. 결국 에베소가

위대한 여신 아데미(다이아나) 신전의 경호자임을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 비록 아시아에 13개 도성이 그 신전에 관심을 갖고 있었지만 에베소 사람들만이 그 신전의 엄연한 책임자들이었다. 또한 그들에게 하늘로부터 떨어졌다고 생각되는 우상의 전각지기가 되는 특권이 있었다.

19:36-40 자신들의 종교적 기초가 안전하고 아데미 여신 숭배가 위태롭지 않다는 것을 인식시키면서 서기장은 이같은 소동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그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신전의 물건들을 흠치거나 아데미 여신을 모독하지도 않았다.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장인들이 어떤 불만이 있다면, 정상적인 법의 절차를 따라 고소할 수 있고, 그때 총독이 그 문제를 재판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은 무질서한 폭도들 같은 회합을 가져왔다. 분명 로마제국은 이같은 행위를 좋게 보아줄 리가 만무하다. 만일 그들이 로마 관리들에게 불려가 이 폭동에 대한 진상을 보고하라는 명을 받는다면 그들이 변명할 말이 없을 것이었다. 게다가 서기장은 이같은 불법 집회 소식이 로마에 알려지면 자신의 직업과 생명이 위태롭다는 것을 알았다.

19:41 이제 폭도들은 냉정을 되찾고, 흩어져 집으로 돌아갔다. “이상한 말인 것 같지만 에베소에서의 바울의 사역을 중단시킨 것은 군중들의 소동이 아니라 시민의 질서에 관심을 두고 있는 서기장의 행동이었다. 어떤 건전한 반대가 있는 한, 바울은 전도 기회의 문이 에베소에 넓게 열려 있다고 생각하였다(고전 16:8-9). 하지만 그에게 시당국의 보호가 따르게 될 것 같자 그는 타지역으로 옮

겨 갔다”(발췌문).

‘모임’이란 낱말은 헬라어 에클레시아를 번역한 말로써 ‘불러냄을 받은 일단의 사람들’을 의미한다. 신약성경 다른 부분에서 ‘교회’라고 번역된 말과 동일한 단어이다. 본문의 경우처럼 이 낱말이 이방인 군중들을 가리키는지, 혹은 7:38처럼 이스라엘 회중을 가리키는지, 아니면 신약의 교회를 가리키는지는 문맥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에클레시아란 단어에 대한 해석을 ‘교회’(church)라는 말보다 헬라어 ‘모임’(assembly)이라고 하는 것이 더 잘된 번역이다. ‘교회’라는 낱말은 헬라어 ‘큐리아케’, 즉 ‘주님께 속해 있음’이란 말에서 유래했다. 그런데 현대 용례에 따르면, 교회는 일반적으로 어떤 종교 건물을 지칭한다. 그런 까닭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라는 말보다 모임이란 말을 더 좋아하는 것이다. 진정 모임은 교회가 건물이나 심지어 어떤 교단이 아닌 ‘불러냄을 받은 무리들’이라는 사실을 표현해 주기 때문이다.

20:1 본문을 보면 바울 사도는 에베소에서 마게도냐로 직접 여행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고린도후서에서 우리는 그가 먼저 드로아로 갔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그곳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파할 문이 열려 있음을 발견했다. 그러나 그는 디도도 몹시 만나기 원했고, 디도를 통하여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첫 번째 서신을 그들이 어떻게 받았는지 알기 원했다. 바울이 드로아에서 디도를 발견하지 못하자 그는 마게도냐로 가기 위해 에게해의 북동쪽 지역 모퉁이를 횡단하였다. 의심할 바 없이 그는 네암볼리에 잠시 들렀다가 빌립보 내륙으로 발걸음을 재촉했을 것이다. 마게도냐(아마도 빌립

보)에서 그는 디도와 재회했고, 그가 고린도 교회로부터 가져온 소식을 듣고 큰 위로를 받았다. 아마도 바울은 이 시기에 고린도후서를 썼을 것이다(AD 56년경?, 고후 1:8-9, 2:12-14, 7:5-7을 참조하라).

20:2-3a 마게도냐에서 얼마간 사역한 후에 그는 남쪽 방향인 헬라(그리스) 혹은 아가야로 여행하였다. 석 달이란 대부분의 시간을 그는 의심할 것 없이 고린도에서 보냈을 것이고, 이 기간 중에 그는 로마서를 기술했다. 어떤 학자들은 갈라디아서도 이 기간 중에 쓰여졌다고 믿는다.

20:3b 본래 바울은 고린도에서 곧바로 에게해를 통해 수리아(시리아)를 여행하려고 계획했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여행 도중 어디에선가 바울을 살해하려는 음모가 있다는 정보를 듣자, 바울은 여행 계획을 변경하여 다시 마게도냐를 통과해서 북쪽으로 여행하였다.

20:4 이 시점에서 우리는 바울의 여행 동료들을 소개받게 된다. 본문은 그들이 아시아까지 바울과 동행했노라고 언급되어 있지만, 이들 중 어떤 성도는 바울과 함께 로마에까지 동행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베뢰아 사람 소바더는 로마서 16장 21절에 언급된 바울의 친척 중의 하나인 소시바더일 가능성이 있다.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는 에베소에 폭동이 일어났을 때, 거의 목숨을 잃을 뻔했다(행 19:29). 우리는 후에 그가 로마에서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읽게 된다(몬 24절, 골 4:10). 세군도 역시 데살로니가 출신으로서 아시아까지 동행했는데 아마도 드로아나 밀레도까지

갔을 것이다. 더베 사람 가이오는 에베소에서 폭도들에 의해 결박 당했던 마게도니아 사람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행 19:29). 또 다른 가이오는 고린도 사람으로서 바울이 그곳에 체류했을 때 접대했던 사람이다(롬 16:23). 요한삼서는 가이오라는 사람이 수신자인데 아마도 에베소 근처 어떤 도성에 살았던 사람인 것 같다. 아무튼 당시 가이오는 흔한 이름이었다.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아시아까지 동행했을 뿐 아니라, 바울의 제1차 로마 투옥 때도 함께 있었다. 결국 그는 아시아 관하 전체 지역을 바울과 동행하였다. 디모데후서에서 바울은 그를 다시 만나고자 하는 소망을 표현했는데, 그러나 우리는 그의 이같은 소원이 성사되었는지의 여부를 알 수 없다. 소아시아 출신인 두기고는 아마도 바울과 함께 밀라도까지 여행한 것 같다. 후에 그는 로마에서 바울 일행과 다시 합류했고 바울의 제2차 로마 투옥 기간 중에 그를 도와 수고한 사람이었다. 드로비모는 분명 소아시아에 위치한 에베소가 거쳐졌을 것이다. 그는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까지 동행했는데, 그의 부주의한 행동 때문에 바울이 체포당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의 이름은 디모데후서 4장 20절에 언급되어 있다.

20:5-6 바울과 누가가 빌립보를 방문하는 동안 위에 언급된 일곱 명의 형제들은 먼저 드로아로 여행한 것 같다. 우리가 믿기로는 누가는 바울과 함께 동행했는데, 이는 5-6절에 ‘우리’라고 하는 인칭 대명사가 사용된 것을 통해 알 수 있다. 무교절 후에 바울과 누가는 마게도냐에서 드로아로 향해하였다. 그곳까지의 여행은 이상하게도 무려 5일 정도나 많이 걸렸지만 그 이유는 설명되어 있지 않다.

20:7-9 6절과 7절을 비교해 보면, 사도 바울은 목적을 갖고 드로아에서 7일을 기다렸고, 그래서 그는 주일날 드로아에서 떡을 떼는 만찬을 가질 수 있었다. 본문 7절 말씀을 살펴볼 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 후 첫날인 주일에 주의 만찬 예식을 갖기 위해 정구적으로 함께 모였다는 것이 분명하다.

사도 바울이 한 밤중까지 말씀 교제를 했다는 것 때문에 놀랄 필요는 없다. 교회의 영적 상태가 참만하면, 하나님의 성령은 시간의 속박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역사하신다. 밤이 길어지자 많은 사람들의 열기와 곳곳에 켜놓은 불은 다락방을 후덥지근하게 만들었다. 그때 유두고라는 이름을 가진 청년이 3층 다락의 창문에 걸터앉아 있다가 깜박 잠이 들어 창문 밖 아래로 추락사하고 말았다.

20:10 하지만 바울이 아래 내려가서 옛날 구약의 선지자들이 행했던 것처럼 죽은 청년 위로 엎드렸다. 그는 “유두고가 살아 있으니 너무 소란을 피우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주의를 주었다. 바울의 말에 따르면, 이 젊은 청년이 죽지 않았으니 크게 관심쓸 것이 없다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9절을 볼 때, 그는 분명 죽어 있었다. 사도의 능력으로써 바울은 기적적인 방법으로 그를 소생시킨 것이다.

20:11-12 바울이 윗층 다락으로 올라왔을 때 그들은 떡을 떼었다. 즉, 그들은 주의 만찬을 가졌는데, 그들이 모인 이유가 바로 성찬식(만찬)을 갖는데 있었다(7절). 그 후 그들은 일반적인 음식, 즉 아가페(애찬[愛餐])를 함께 나누었다. 이같은 교제의 음식은 초대교회 당시 주의 날에 실천되었지만 후에 그것에 대한 오용 때문에 점차적으로 지속되지 못한 것 같다(고전 11:20-22).

결코 잊을 수 없는 철야 모임을 가진 후에 사도 바울은 드로아의 성도들과 이별의 아쉬움을 나누었다.

20:13-15 바울은 드로아를 떠나 도보로 32km를 걸어 앗소까지 여행했다. 반면 바울의 동료들은 배를 타고 앗소에 가서 남쪽 지역에서 바울을 만나 승선시켰다. 아마도 그는 혼자 있는 시간을 내어 주의 말씀을 조용히 묵상했던 것 같다.

서해안을 따라서 남쪽 방향으로 항해하면서 그들은 리스보스 섬의 가장 큰 도시인 미둘레네에 도착했다. 그들은 5일간에 걸쳐서 항해를 계속하면서 기오, 사모 섬, 트로굴리움, 밀레도를 방문하였다. 밀레도는 소아시아 남서쪽 연안에 위치한 항구로서 에베소에서 남쪽으로 58km 가량 떨어져 있었다.

20:16 바울은 의도적으로 에베소를 지나쳤다. 그 이유는 방문하려면 많은 시간이 소비될 수도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가능하면 오순절 날에 예루살렘에 도착하려고 길을 재촉했다.

20:17 밀레도에 도착해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와서 교제하자고 전갈을 보냈다. 진정 장로들은 오기 위해서 상당히 긴 여행을 해야 했지만 와서 사도의 입술을 통하여 놀라운 메시지를 듣게 됨으로써 큰 보상을 받았다. 이 메시지 속에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상적인 종의 모습을 갖게 되었다. 우리는 여기서 구세주에게 놀랍도록 헌신된 사람을 목도하게 된다. 그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수고하였다. 그는 지칠 줄 모르는 열정과 불굴의 용기를 소유했을 뿐 아니라, 끈기 있는 인내의 소유자였다. 하지만

그는 진정한 겸손의 표상이었다. 그는 마땅히 해야 할 것은 아무리 큰 대가를 치르더라도 실행하였다. 그의 사역은 영혼 속 깊은 곳으로부터 나오는 진심의 열매였다. 그는 거룩한 담대함을 소유했고 곤란한 일들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에게 있어 죽고 사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었다. 다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것과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것이 그의 관심의 전부였다. 그는 이타적인 마음으로 제반 사역을 감당하였다. 그는 받기보다 차라리 주는 것을 좋아했다. 요컨대, 그는 설교한 그대로 실천하는 사람이었다.

20:18-19 사도 바울은 그들과 함께 지냈을 때, 어떠한 삶의 태도를 가졌었는지를 에베소 장로들에게 상기시켰다. 그가 아시아에서 온 첫날부터 그곳을 떠나기까지 그는 진정한 겸손과 자기 부인의 태도로 주님을 섬겼다. 그의 사역과 연관하여 그의 감정은 지속적으로 긴장되어 비애와 환란의 눈물을 흘렸다. 게다가 바울을 살해하려는 유대인들의 음모 때문에 술한 핍박을 감내해야 했다. 그러나 이같은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그의 사역은 담대하게 진행되었다.

20:20-21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의 영적 복지를 위해서는 자신의 입을 다물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의 사랑에 강권되어 공적으로 하든, 사적으로 축호(逐戶) 방문을 하든지 간에 성도들을 부지런히 가르쳤다. 그에게 있어서 정기적인 시간에 모임을 갖는 것보다도 오히려 가능한 모든 기회를 사서 성도들 가운데 찾아가 성장하도록 격려하는 것에 더 큰 관심을 기울였다. 국가적인 편견이나 종교적인 배경에 얽매이지 않고 그는 모든 사람을 향해 하나님께 대한 회

개와 아울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필요성을 설교하였다. 이것은 복음 증거의 가장 근본적인 두 가지 요소들이다. 모든 진정한 회심의 경우에 이 두 가지 요소, 즉 회개와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은 복음의 모습이다. 어떤 사람이 분명한 회개가 없이는 구원받는 믿음을 갖는 것이 불가능하다. 다른 한편으로, 회개는 하였는데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이 수반되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회개는 죄인이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자신의 처지를 인식하고 죄책감을 느끼며 하나님의 심판 앞에 엎드리는 이른 바 완전한 전향을 의미한다. 그리고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삶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신약성경 본문에서 믿음은 구원의 조건으로 언급되어 있다. 하지만 믿음은 회개를 전제로 한 것이다. 자신에게 구세주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인식하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는가? 성령님의 죄를 자각케 하시는 사역으로 인해 자신의 끔찍한 상태를 깨닫는 것이 바로 회개이다.

20:22-23 에베소 성도들과 함께 했던 과거 자신의 삶을 회고해 보았던 바울은 이제 그를 기다리고 있는 장래 고난을 바라본다. 그는 예루살렘에 가려는 심령의 매임을 당하였다. 그것은 분명 벗어던질 수 없는 내적 부담이었다. 그는 비록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들을 직면할지 몰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박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이 자신의 정상적인 삶의 일부분이 될 것임을 인식하였다. 성령은 각 성읍에서 바울에게 이같은 사실을 알게 하셨다. 아마도 성령은 선지자의 사역이나 신적 지식에 의한 신비스러운 내

적 교통을 통해서 알리셨을 것이다.

20:24 사도 바울이 마음속으로 이같은 생각을 했을 때, 그는 자신의 목숨을 대단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다만 그의 야망은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다. 만일 그 일을 성취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해야만 한다면, 그는 기꺼이 그렇게 했을 것이다. 그가 드릴 수 있는 어떤 희생도 자신을 위해 죽으신 주님과 비교하면 큰 것이 될 수 없었다. 전심으로 추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그가 달려갈 길을 끝마치고 그가 주님에게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온전히 증거하는 일이었다. 바울이 전파했던 좋은 소식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합당하다. 진정 복음은 영원한 지옥에 가기에 합당한 불경건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불가항력적인 은혜의 감동적인 메시지이다.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독생자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세상 비천한 곳에 오사 그분을 믿는 자의 죄를 사하시고 영생을 주시기 위해 어떻게 고난 받으시고, 피 흘리시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셨는지를 증거해준다.

20:25-27 바울은 자신이 사랑하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다시 볼 수 없을 것임을 확신하였다. 하지만 그의 양심은 그들을 떠남에 있어 깨끗했는데, 그것은 그가 숨김없이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그들에게 전파했기 때문이었다.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의 근본 진리 뿐 아니라, 경건한 삶을 위한 적극적인 제반 진리들을 가르쳤다.

20:28 바울은 지상에서 에베소 성도들을 다시 만나볼 수 없음을

인식하고 장로들에게 우선적으로 그들 자신들의 영적 상태를 위해서 조심해야 한다고 엄숙히 권면하였다. 장로들이 먼저 주님과 더불어 생생한 교제를 나눔이 없이 그들은 교회를 영적으로 인도하는 것을 기대할 수 없었다. 장로로서 그들의 기능은 성령께서 그들을 양무리 가운데서 감독자로 세웠기에 모든 양떼를 위해 조심해야 했다. 진술한 바와 같이 신약성경에 나타난 감독자들은 주교들, 또는 장로들, 또는 연장자들로 불리었다. 이 구절은 장로들이 지역 모임에 의해 임명되거나 선택되지 않았음을 강조해 준다. 그들은 성령에 의하여 장로들로 세움 받았으며, 따라서 그들이 섬길 믿는 성도들에 의해 인식되어야 했다.

다른 일들 가운데서 그들은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는 책임을 지고 있었다. 이같은 임무의 중요성은 다음 말씀 가운데 잘 나타나 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셨다.” 그런데 이같은 표현은 사실 성경 학자들 간에 심도 있는 토의와 아울러 불일치를 야기시켜 왔다. 난제는 바로 여기서 영이신 하나님이 자신의 피를 흘린 분으로 묘사되고 있기 때문이다. 비록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어느 곳에도 하나님이 피를 흘리거나 죽으신 분으로 표현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주요 사본들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주 하나님의 교회”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것은 분명 실제적으로 자신의 피를 흘리신 분은 하나님(주님)의 인격체임을 제시해 준다.

아마도 다비(J. N. Darby)의 새번역(The New Translation) 성경에는 그 본문의 의미가 잘 밝혀진 것 같다. “하나님의 모임, 그리고 주님께서 자신의 피로 그것을 획득하셨다.” 여기서 교회를 사신 분은 하나님이셨다. 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독생자 그의 사랑하는 주 예수

의 피로 그 교회를 사셨다.

20:29-30 바울은 자신이 떠난 후에 교회가 내적 외적으로 공격을 받을 것을 잘 감지하고 있었다. 양의 탈을 쓴 이리들인 거짓 교사들이 양떼들을 무자비하게 삼켜버릴 것이다. 교제권 내에서 어떤 사람들이 탁월한 위치를 갖기를 열망하고, 진리를 왜곡시키고, 자신들을 좇게 만들 것이다.

20:31 이같은 임박한 위협을 감안해서 장로들은 성도들의 보호자가 되어야 하고, 지속적으로 어떻게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밤낮으로 경고했는지를 기억해야 했다.

20:32 바울의 위대한 원천은 이제 그들을 주님과 그분의 은혜의 말씀에 위탁하는 것이었다. 바울은 그들을 다른 인간 지도자나 사도의 계승자로 생각되는 자들에게 위탁하지 않았다. 도리어 그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하나님과 성경에 위탁하였다. 이 말씀은 영감 받은 성경의 충분성에 대한 탁월한 증거이다. 성도들을 굳건히 세울 수 있고, 거룩하게 된 성도들 가운데서 기업을 주신 것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20:33-35 메시지를 끝맺으면서 사도 바울은 다시금 장로들 앞에 자신의 삶과 사역의 본을 상기시켰다. 그는 다른 사람의 은금과 의복을 탐내지 않았다고 중심으로 말할 수 있었다. 그로 하여금 주님의 사역에 헌신하도록 자극하는 것은 재물 축재의 소망이 아니었다. 물질에 관한 한, 그는 실로 가난했으나 하나님께 대해서는 부자

였다. 그들 앞에 손을 내밀면서 그는 자신과, 자신과 함께 한 사람을 위해 자신의 손으로 삶의 필요를 제공하기 위해 수고했음을 상기시켰다. 그러나 그는 단순히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육체적으로 병든 연약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병든 연약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수고하였다. 장로들은 바울의 이같은 권고를 기억하면서 타인의 선을 위해 모든 것을 추구해야만 했다. 게다가 그들은 “받은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했다. 흥미있는 사실은, 우리 주님의 이같은 말씀은 사복음서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말씀은 주님의 교훈을 요약한 것으로가 아니라, 사복음서의 주님의 말씀에 부가된 영감 받은 말씀이다.

20:36-38 메시지의 결론에서 바울은 땅에 무릎을 꿇고 장로들과 함께 기도했다. 장로들에게 있어 그 시간은 진정 슬픔의 시간이었다. 그들은 바울의 목을 끌어안고 그에게 입맞춤으로써 사도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였다. 그들을 특별히 슬프게 만든 것은, 바울이 다시는 자신들을 못 볼 것이라는 말 때문이었다. 무거운 마음을 갖고 장로들은 예루살렘으로 향해하는 배를 타는 곳까지 바울과 동행하였다.

21:1-4a 밀레도에서 부드럽고 애정 어린 작별을 고한 후, 바울과 그의 동료들은 고스 섬으로 향해하여 하룻밤을 머물렀다. 다음날 그들은 남동쪽으로 여행해서 로도 섬으로 갔다. 그 섬의 남쪽으로 갈 길을 재촉, 그들은 소아시아의 남쪽 해변에 위치한 루시아의 항구인 바다라에 도착하였다. 바다라에서 그들은 수리아의 연안 시

가지인 베니게로 가는 배로 갈아탔다. 두로는 베니게의 주요 성중에 하나였다. 그들은 지중해를 건너 남동쪽으로 항해하면서 구브로섬의 남쪽을 지나쳤다. 팔레스틴 본토의 첫째 항구가 두로였다. 그곳에서 배가 짐을 내리게 되자, 바울 일행은 그곳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찾아 교제하면서 일주일을 보냈다.

21:4b 이 기간 중에 어떤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바울을 만류하였다. 여기서 아주 오래된 질문이 떠오른다. 즉,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고의적인 불순종이었는가? 또한 그는 지혜롭지 못하게 주의 뜻을 분별하는데 실패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던 것인가? 4절 후반부에 대한 일반적인 해석은, 사도 바울이 의지적으로 완고하게 성령님의 역사에 도전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좀 더 주의 깊게 읽으면 바울은 그들의 이같은 경고가 성령을 통해 주어졌다는 것을 실제로는 몰랐던 것 같다. 교회사가인 누가는 독자들에게 이 두로의 신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았다고 말한다. 하지만 누가는 사도 바울이 이것을 분명한 성령의 뜻으로 알고 있었다고는 말하지 않았다. 오히려 바울은 그의 동료들의 충고를 육체적 고통이나 심지어 죽음으로부터 그를 구출하고자 하는 시도로 해석했다는 것이 좀더 개연성 있는 해석이다. 유대 동료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는 자신의 육체적 안녕을 중요한 일로 생각하지 않았다.

21:5-6 일주일이 경과한 후에 두로의 신자들은 몰려나와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랑의 표현의 일환으로 선교사들과 바닷가까지 동행하였다. 그곳에서 기도와 애정의 이별을 나눈 뒤에 바울 일행은

승선했고, 전송하던 성도들은 집으로 되돌아갔다.

21:7 다음 번 목적지는 두로에서 남쪽으로 40km 떨어진 돌레마이(Ptolemais)로서 지금은 악코(Akko)로 알려진 곳으로 하이파(Haifa) 근처에 있다. 이 지명은 톨레네란 인명을 따라 이름 지어졌다. 주의 종들은 그 곳에서 하룻밤을 머무르면서 그 지역교회 형제들을 방문할 기회를 가졌다.

21:8 이튿날 그들은 항해의 마지막 부분인 샤론 평야에 있는 가이사랴를 향해 남쪽으로 48km 가량 항해하였다. 거기서 그들은 전도자 빌립의 집에 머물렀다(동명인 빌립 사도와 혼동하지 말 것). 이 빌립은 예루살렘 교회에서 선택한 일곱 집사 중의 하나로서 복음을 사마리아에 증거한 인물이었다. 빌립의 전도를 통해 에디오피아인 내시가 구원을 받았다.

21:9 빌립은 예언하는 네 명의 처녀 딸을 두고 있었다. 그들은 주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메시지를 받아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증거할 수 있는 성령의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이 구절을 근거해서 여자도 교회에서 설교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허락되었노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여자가 모임 내에서 남자에게 권위를 갖고 가르치거나 말하는 것이 금해진 이래로 이 네 처녀의 예언 사역은 단지 가정이나 비공식적인 모임에서 행해졌었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고전 14:34-35, 딤후 2:11-12).

21:10-11 바울이 가이사랴에 머무는 동안 아가보라는 한 선지자

가 유대로부터 내려왔다. 그는 지난날에도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와서 글라디우스 치세 때 흉년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예언했던 사람과 동일 인물이다(행 11:28). 지금 그가 바울의 허리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手足)을 묶었다. 많은 다른 선임 선지자들의 경우처럼 이같은 극적인 장면을 연출함으로써 그는 자신의 메시지를 드러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실물 교육의 의미를 설명하였다. 그가 자신을 묶은 것과 동일하게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의 수족을 묶어서 이방인 당국에 넘겨줄 것이다. 유대인을 향한 바울의 섬김(허리띠로 상징되고 있음)은 결국 그들에 의해 결박당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21:12-14 바울의 여행 동료들과 가이사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같은 예언 소식을 듣자, 그들은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간절히 만류하였다. 그러나 그는 그들의 동정심에 동의할 수 없었다. 그들의 눈물은 바울의 마음에 고통을 가중시킬 뿐이었다. 결박과 투옥에 대한 공포가 그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되는 것을 실행하지 못하게 할 수 있겠는가? 그는 자신이 결박당하는 일뿐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기꺼이 죽을 각오가 되어 있음을 알렸다. 더 이상 그를 만류할 수 없음을 깨달은 성도들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소서!”라고 말하였다.

이같은 바울의 고별의 말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대해 고의적으로 불순종한 사람이 내뱉은 언사라고 믿기는 어렵다. 두로의 제자들이 바울에게 성령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고 했다는 것을 앞서 살펴보았다(4절). 그러나 당시 그들이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고 있었는가? 후에 주님께서 바울에게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23:11)고 말씀하셨을 때, 바울의 예루살렘 여행을 인정하신 것이 아니었는가? 어쨌든 전반 내용을 감안해 볼 때, 다음 두 가지 사실은 분명하다.

첫째, 바울은 개인적인 신앙 안전은 주님을 섬기는데 있어서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였다.

둘째, 주님이 이 모든 여건을 당신의 영광을 위해 섭리하고 계셨다.

21:15-16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여행은 육로로 80km 이상을 가야 했는데, 당시의 부진한 교통수단을 감안할 때 상당한 여행 거리였다. 바울의 여행 동료는 가이사라의 몇 제자들과 나손이란 한 그리스도인의 합류로 인하여 증가하게 되었다. 본래 구브로 출신인 나손은 그곳에서 초창기에 주님을 믿은 사람들 중의 하나였다. 지금 그는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었는데, 바울의 마지막 예루살렘 방문 기간에 사도 바울과 그의 여행 동반자들을 대접할 특권을 가졌다.

바울의 선교 여행은 그가 예루살렘에 도착하면서 사실상 종결되었다. 이제 사도행전의 나머지 장들은 예루살렘에서의 바울의 체포, 시련, 로마까지의 여행, 그리고 로마 투옥을 다루고 있다.

21:17-18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그곳 형제들은 바울과 그의 여행 동료들을 따뜻하게 영접하였다. 다음날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와 모든 다른 장로들은 모임을 주선하였다. 여기에 언급한 야고보가 정확히 누구를 지칭하는지는 모른다. 또한 같은 이름을 가진 또 다

른 야고보일 수 있다. 아마도 그는 주의 형제 야고보일 가능성이 많다.

21:19-20a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서 자신의 선교사역을 통하여 이방인 중에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상세히 보고하였다. 이같은 선교보고는 모든 성도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다.

21:20b-22 그러나 유대계 형제들은 바울에게 다소 우려를 표명했다. 사도 바울이 모세와 그 율법을 거슬러 설교하고 가르친다는 소문이 회자(膾炙)되고 있었다. 이같은 말은 필시 예루살렘에서 큰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다.

바울에 대한 구체적인 고소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즉, 바울이 모든 유대인들에게 모세를 배반하고 그들의 자녀들에게 할례를 금하고 유대 관습을 따라 행하지 말라고 가르쳤다는 것이다. 그런데 바울이 진정 것처럼 가르쳤던가?

그는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의를 위한 율법의 마침이셨다고 가르쳤다. 그는 한번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면 믿는 유대인이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다고 가르쳤다. 또한 그는 만일 어떤 사람이 의롭게 되려고 할례를 받았다면, 그렇다면 그같은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에서 끊어졌다고 가르쳤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오신 후 율법의 모형과 그림자에게로 되돌아가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행위이다. 이같은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왜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것처럼 반문했는지 그 이유를 쉽게 이해할 수 있다.

21:23-24 하지만 예루살렘의 유대계 형제들은, 동료 유대인들

을 회유(懷柔)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웠다. 그들은 바울로 하여금 유대인들의 서원을 실행하도록 제안하였다. 거기에 이미 이 유대인의 서원을 한 네 명의 사람이 있었다. 바울은 그들과 함께 하여 자신을 정결케 하고 그 비용을 지불해야 했다. 그랜트(F. W. Grant)는 이렇게 설명하였다.

“이 네 명의 믿는 자들과 함께 바울로 하여금 나실인의 서원을 준수하고 성전을 정결케 하는데 자신을 드리도록 만들어라. 그리고 그 성전을 정결케 하는데 필요한 경비를 담당하도록 만들라. 그렇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분명 바울이 율법을 준수하는 자라고 인식할 지도 모른다.”⁷⁶⁾

우리는 이 서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잘 알지 못한다. 사실 성경은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바는 그것이 유대인의 서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그 예식을 실행하는 것을 바울을 보았다면, 그들은 바울이 다른 사람들을 모세 율법으로부터 떠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믿었을 것이다. 그같은 행위는 사도 바울이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유대인들에게 비추어질 것이다. 이 유대인의 서원을 준행한 바울의 행위는 많은 사람으로부터 한편으로는 변호를 받았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비난을 받아왔다. 바울을 변호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다만 몇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들과 같이 되는, 자신의 삶의 원리를 따라 행동한 것이라고 주장한다(고전 9:19-23). 한편,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은, 바울은 유대인의 환심을 살려는 노력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마치 그가 율법 아래 있는 인상을 주도록 행동했다

76) Grant의 저서 *Acts*, p. 147을 보라.

고 주장한다. 다른 말로 하면, 신자는 의롭게 되기 위해서나 삶의 원리에 있어서도 율법 아래 있지 않다는 그의 가르침에 일관성을 갖지 못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같은 비판에 동조하는 경향이 많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바울 사도의 통기를 쉽게 판단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

21:25 예루살렘의 형제들은 과거 예루살렘 공회 때 제안된 내용들 이외에 다른 규칙들을 이방인 성도들에게 짐 지우지 않아야 함을 상기시켰다. 즉, 이방인 신자들은 우상에게 바쳤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을 먹지 말고, 음행을 피해야 했다.

21:26 바울이 실행한 예식 과정이 무엇이었는지는 잘 모른다. 다만 많은 주석가들은 이것이 나실인의 서원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가 나실인의 서원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자세한 과정들을 알지 못한다.

8. 체포당한 바울과 심판(21:27-26:32)

21:27-29 예식을 마치는 칠일이 거의 끝날 무렵,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는 바울의 수고는 수포로 돌아갔다. 아시아에서 온 믿지 않는 유대인 몇몇이 성전에서 바울을 발견하자, 그들은 바울을 대적하도록 사람들을 선동시켰다. 바울이 유대인과 율법에 반대되는 가르침을 전할 뿐 아니라, 성전 뜰에 이방인들을 출입시켜 성전을 더럽히는 죄를 범했다고 그들은 고소하였다. 당시의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그들은 이전에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드로비모와

함께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었다. 드로비모는 에베소 출신의 이방인 개종자였다. 유대인들은 그들이 함께 있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바울이 그의 이방인 친구를 성전 안뜰에 데리고 왔을 것이라고 추측한 것이었다.

21:30-36 비록 그 고소가 명백히 그릇되었을지라도 그 목표는 달성되었다. 온 성 사람들이 소동하였다. 폭도들은 바울을 붙잡아 성전 밖으로 그를 끌어내었다.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자, 그 소식이 안토니아 군대의 책임자인 천부장에게 들어갔다. 그는 급히 자신의 부하들을 이끌고 가 분노한 폭도 가운데서 바울을 체포하여 두 석사슬로 결박하라고 명령하고 그가 누구이며 무슨 일을 하였는지 물어보았다. 물론 폭도들은 모순되고 혼동되는 답변을 하였다. 그러자 어리둥절한 천부장은 죄수를 병영으로 데리고 가라고 명했는데, 이는 그가 좀 더 자세히 사태를 알아볼 의도에서였다. 그러나 병사들이 바울을 떠메어 가는 중에서도 폭도들은 뒤쫓아 오면서 ‘바울을 처단하라’고 소리쳤다.

21:37-39 병사들이 바울을 병영 안으로 데리고 들어가려 할 즈음에 바울은 자신이 말을 해도 좋으냐고 천부장에게 물었다. 천부장은 바울이 헬라어를 말하는 것을 보고 적잖게 놀랐다. 천부장은 즉시 근간에 소요를 일으켜 사천 명의 자객들을 광야로 이끌고 간 이집트인을 체포한 줄로 생각했다. 바울은 재빨리 길리기아의 한 성읍인 다소에서 태어난 유대인이라며 자신의 신분을 밝혔다. 바울이 말한 대로 그는 소읍이 아닌 다소 성의 출신이었다. 다소 성은 문화, 교육, 상업의 도시로 유명했고, 어거스투스(Augustus)에 의해

‘자유 도시’로 선포된 도시였다. 두려움 모르는 성품을 가진 바울은 천부장에게, 사람들에게 말하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21:40 허락을 받자 바울은 계단 위에서 손짓으로 군중들을 진정시켰다. 소동이 굉장했던 것처럼 침묵 또한 대단하였다.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증거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여기에 언급된 히브리어는 아마도 당시 히브리인들에 의해 통용되었던 아람어(Aramaic)를 가리킬 것이다.

22:1-2 유대 폭도들에게 설교함에 있어 바울은 지혜롭게 헬라어보다는 아람어를 사용하였다. 유대인들이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듣자마자 그들은 몹시 놀라면서 잠시 동안 침묵을 지켰다.

22:3-5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고 자신의 뿌리를 밝혔다. 그는 명망(名望) 높은 유대 랍비인 가말리엘 밑에서 유대주의 교훈을 받았었다. 그는 여기서 유대인으로서의 자신이 열심을 가졌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폄박했고, 예수를 신뢰하는 자들을 잡아 감옥에 넘겼다. 제사장과 산헤드린이 그가 행한 일의 전모에 대한 증인이 될 수 있다. 바울에게 다마스쿠스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와 심판하기 위해 권위를 부여해 준 사람들이 바로 제사장과 산헤드린이었다.

22:6-8 설교 내용 중 이 부분까지는 유대인들이 바울의 설교를 이해할 수 있었고, 만일 그들이 정직했다면 지금까지 증거된 말이 모두 사실이라고 동의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제 바울은 자신의 삶

을 완전히 삼백육십도 뒤바꾼 사건을 말할 참이었다. 그 사건이 하나님으로부터 기원했는지는 청중들이 판가름할 문제였다.

바울이 다마스쿠스로 여행하는 도중에 하늘로부터 내려온 큰 빛이 바울을 비추었다. 이곳 본문에 처음으로 기록된 바, 정오쯤에 일어났다는 사실은 그 빛이 중천에 떠 있던 햇빛보다도 더 밝고 영광스러웠다는 점을 지적해 준다. 빛에 압도되어 땅에 엎드린 이 핍박자는 하늘로부터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는 음성을 들었다. 그는 질문을 통해서 하늘로부터 자신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나사렛 예수이심을 깨달았다. 나사렛 예수께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사 이제 하늘에서 영광을 얻으셨다.

22:9 그와 함께 여행했던 사람들은 그 빛을 보았고 하늘로부터 온 음성을 들었으나, 그러나 그 말의 분명한 내용을 듣지 못하였다 (9:7 참조).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어떤 시끄러운 음성을 들었지만 또렷한 말로는 듣지 못했다는 말이다.

22:10-11 생명과 영광의 주님과 더불어 개인적인 만남의 경험을 한 후로 바울은 자신의 영, 혼, 몸을 구세주께 전적으로 헌신하였다. 이같은 사실은 “주여, 제가 무엇을 하리이까?”라는 질문 속에 잘 드러나 있다. 주 예수께서는 그에게 다메섹로 가라고 지시하였다. 소경이 된 그는 그곳에서 어떻게 할 바를 교훈 받을 것이었다.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빛에 의해 사람들의 이끌림을 받아 그 도성으로 들어갔다.

22:12 다메섹에서 그는 아나니아의 방문을 받았다. 바울은 아나

니아를 청중들에게 소개하기를,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자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고 했다. 이같은 아나니아의 증거는 바울의 회심에 관한 사실을 보강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다.

22:13 ‘사울 형제’라고 바울을 지칭하면서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잃어버린 시력을 돌려받으라고 명하였다. 바울이 처음으로 아나니아를 쳐다본 때가 이 때였다.

22:14-16 본문 14-16절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는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말한 내용이 무엇이었는지를 알게 된다.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너를 택하여 그분의 뜻을 알게 하시고 의로운 분을 보게 하시며, 또 그분의 입에서 나온 음성을 듣게 하셨느니라. 이는 네가 보고 들은 일에 관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그분의 증인이 되게 하려는 것이라. 이제 무엇을 주저하느뇨? 일어나서 침례를 받으라. 그리고 주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너의 죄를 씻으라.”

흥미를 끄는 몇몇 중대한 요점들을 우리는 아나니아의 언급 속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첫째, 아나니아는 유대 조상들의 하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일어났던 일을 섭리하셨다고 언급하였다. 따라서 만일 유대인들이 당시 바울에게 일어났던 일들을 거절하거나 저항하면, 그들은 사실상 하나님을 대항하여 싸우는 셈이었다. 둘째, 바울이 모든 사람 앞에서 주를 위한 증인이 될 것이라고 아나니아는 선언했다. 이 예언의 말은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았다고 하는 바울의 선언을 인정하도록 유대 회중을 준비시켰을 것이다. 셋째, 아나니아는 바울에게 일어나서 침례를 받고 죄용서를 받으라고 지시했

다.

본문 16절은 세례에 의한 중생(baptismal regeneration) 교리라는 그릇된 교훈의 기초가 되었다. 이 구절은 단지 유대인이었던 바울에게만 적용된 성구라는 해석은 합당하다. 실상 유대인들은 물세례를 받음으로써 그리스도를 거절한 유대인의 국가적인 죄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는 것이 요청되었다(2장 38절의 주석을 참조하라).

헬라이어 문법 구조에 근거한 간단한 해결법은 아래와 같다. 헬라이어에는 한 구절의 절반씩을 분사가 수식하는 한정동사가 있다. 따라서 본문에 대한 원어적인 의미를 살린 번역은 이렇게 된다. “일어나서 침례를 받고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죄사함을 받으라.”⁷⁷⁾ 이같은 내용이 성경의 일반적인 가르침과 부합된다(골 2:32, 행 2:21, 롬 10:13).

22:17-21 이제 우리는 처음으로 바울이 회심 후에 예루살렘을 최초로 방문한 경험을 접하게 된다. 그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동안에 무아지경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때 그는 예루살렘을 속히 빠져나가라는 주의 명령을 들었는데, 그 이유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에 관한 그의 설교를 듣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바울은 동족인 유대인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처음에는 믿을 수가 없었다. 사실상 유대인들은 바울이 유대인으로서 가졌던 열심을 알고 있었고, 그가 어떻게 사람을 감옥에 가두고, 스테반을 살해할 당시 어떻게 찬성했는지를 알고 있었다. 그러나 주님은 반복해서 명하셨다. “가라, 내가 너를 멀리 떨어져 있는 이방인들에게로 보내

77) 16절을 문법에 따라 풀어 쓰면 이와 같다. “일어나라(헬, *아나스타스*) 그리고 침례를 받으라(헬, *뱁티스타이*), 주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헬, *에피칼레사메노스*) 너의 죄 씻음을 받으라(헬, *아플로사이*).”

리라!”

22:22-23 유대인들이 이 부분까지는 조용히 사울의 설교를 경청하였다. 하지만 복음을 듣고 이방인에게 보냄을 받았다는 바울의 말은 그들의 비위를 거슬리게 하고 증오심을 유발시켰다. 그래서 그들은 무질서하게 소리를 지르면서 바울의 목숨을 없애라고 요구하였다.

22:24-25 천부장이 미칠 듯이 날뛰는 청중들을 보자, 그는 바울이 무슨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결론 내렸다. 실제로 천부장도 바울이 아랍어를 사용하여 연설했기 때문에 그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따라서 그는 바울을 채찍질로 심문하도록 부하들에게 명했다. 군사들이 가죽 끈으로 묶을 때, 바울은 조용히 백부장에게 로마 시민을 정죄하지도 않고 채찍으로 때리는 것이 합법적인지를 물었다. 사실상 유죄가 인정되지 않은 로마 시민을 결박하는 것은 불법이었다. 결국 무고한 로마 시민을 채찍질한다는 것은 심각한 중죄가 아닐 수 없었다.

22:26 그 말을 들은 백부장은 속히 천부장에게 달려가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 시민이니 조심스럽게 대하라고 전했다.

22:27-28 이같은 전갈은 천부장을 속히 바울에게 서둘러 오도록 했다. 질문을 통해 그는 바울이 진실로 로마 시민임을 확인했다. 당시에 로마 시민이 되기 위한 길은 세 가지였다. 첫째, 때로 시민권은 로마 제국을 위해 공을 세운 보상으로 주어졌다. 둘째, 출생시

부터 시민권이 주어졌다. 바울이 이 경우에 해당한다. 그는 로마제국에 부속된 다소 성읍 출신이었다. 그의 부친도 로마 시민이었다. 마지막으로, 고가(高價)를 지불하고 로마 시민권을 살 수 있었다. 이렇듯 천부장은 상당한 돈을 들여 시민권을 샀다.

22:29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이 밝혀지자 그들은 즉시 결박을 풀고 채찍질하려는 계획을 취소하였다. 오히려 그들은 이제 바울을 두려워하게 되었다.

22:30 하지만 천부장은 유대인들이 왜 바울을 송사했는지 그 이유를 몹시 알고 싶었다. 동시에 그는 법적인 절차에 따라 그 송사문제를 다루고자 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에서 폭동이 있던 다음날 그는 바울을 데리고 가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원 앞에 세웠다.

23:1-2 공회원들 앞에 서서 바울은 자신의 생애기간 동안 선한 양심을 따라 살았노라고 서론을 시작했다. 그때 대제사장인 아나니아는 바울의 말에 비위가 거슬렸다. 그는 의심할 바 없이 바울을 유대교를 탈당한 배교자(背敎者)로 바라보았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배교한 자가 어떻게 이렇듯 무죄를 주장할 수 있단 말인가? 바울의 입을 치라는 대제사장의 주장은 전적으로 불공평한 말이었는데, 그 이유는 이 송사 문제가 아직 심리 중에 있기 때문이었다.

23:3 바울은 곧바로 아나니아의 말을 되받아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회칠한 담과 같은 너를 치시리라”고 했다! 실로 외적으로 볼 때 제사장은 의롭고 공의로운 사람 같았으나, 내적으로는 완전히

씩어 있었다. 율법을 따라서 타인을 재판한다고 고백하는 그가 여
기서는 바울을 치라고 율법을 거스려 명하고 있었다.

23:4-5 몇 가지 잘 알려지지 않은 이유 때문에 바울은 아나니아
가 대제사장이었다는 것을 잘 몰랐던 것 같다. 공회원들은 짧은 시
간 내에 소집되었고, 아마도 아나니아는 공식적인 대제사장 옷을
착용하지 않았던 것 같다. 그는 아마도 대제사장 지정석에 앉지 않
았을 수도 있다. 아니면 바울의 시력이 좋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이
유야 어떻든 간에 바울은 합법적인 통치자를 의도적으로 욕하지는
않았다. 그는 출애굽기 22장 28절을 인용하면서 곧바로 사과했다.
“너의 백성의 관원을 욕하지 말라.”

23:6 바울은 법정 안에 있는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간에 대
화를 통해 서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감지하였다. 그래서 그
는 두 그룹간의 틈을 더 넓히고자 자신은 바리새인으로서 죽은 자
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심문을 받고 있다고 천명하였다. 물론 사두
개인들은 영이나 천사의 존재 뿐 아니라, 부활이 있다는 것을 부인
하였다. 반면, 바리새인들은 매우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자들로서
천사나 영의 존재, 그리고 부활이 있음을 믿었다(23:8을 보라).

여기서 바울은 청중들을 분열시키기 위해 육신적인 편법(便法)을
사용한 것 같다는 비평을 받아왔다. 폴록(A. J. Pollock)은 이렇게 기록
했다. “우리는 바울이 바리새인이라고 주장하고, 의도적으로 서로
상극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간의 불화를 조장시키는 것은 잘못되
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23:7-9 그의 행동이 정당하든지, 그렇지 못하든 간에 바울의 말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간에 분란을 일으켰다. 그래서 바리새파 서기관 몇 사람은 바울의 무죄를 변호하며 말했다. “만일 영이나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면 정말 어찌하겠느냐?”

23:10 두 당파간의 논쟁이 극도로 심화되자 천부장은 바울을 법정에서 호위하여 병영 안으로 데려가도록 군사들에게 명령했다.

23:11 다음날 주 예수님은 감옥에서 바울을 개인적으로 대면하사 격려하셨다. “바울아, 용기를 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에게 관한 일들을 잘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해야 하리라.” 사도 바울의 행동이 심각한 비난의 주제가 되어 왔던 문맥 안에서 주님께서 바울에게 예루살렘의 충성스러운 증거를 감당했노라고 칭찬하셨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거기에는 주님으로부터 한마디의 비난이나 책망의 말이 없다. 오히려, 바울을 향해 따뜻한 칭찬과 약속의 메시지가 주어졌다. 실상 바울의 섬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가 예루살렘에서 충성스럽게 사역했던 것처럼 그는 로마에서도 그리스도를 위한 충성스러운 증인이 될 것이다.

23:12-15 다음날 유대인 무리들이 악한 모의를 하고 사도 바울을 살해하려 했다. 사십 명이 넘는 무리들이 ‘이 험잡꾼’을 죽이기 전까지는 식음을 전폐하기로 맹세하고 선언하였다. 그들의 살해 음모는 다음과 같았다. 먼저 그들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찾아가 바울의 송사문제를 청문하기 위해 산헤드린 공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공회원들은 죄수 바울을 출두시키게 해달라고 천부장에게 부탁

했다. 그러자 40여명의 자객들이 바울을 살해하려고 감옥과 공회당
중간 어귀 쪽에 매복해 있었다.

23:16-19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바울의 조카 한 사람이 이갈
은 유대인들의 암살 계획을 듣게 되어 그 사실을 바울에게 통보해
주었다. 바울은 자신의 신변안전을 위해 합법적인 수단을 강구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 내렸다. 그래서 그는 그 사실을 백부장 한 사람
에게 보고했다. 그러자 그 백부장은 개인적으로 바울의 조카를 천
부장에게로 안내했다.

23:20-21 바울의 조카는 살해 음모 전반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
라, 절대로 바울을 데려가려는 유대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말라고
천부장에게 간청하였다.

23:22 천부장이 그 소식을 듣자, 그는 그 젊은이를 돌려보내면
서 절대로 타인에게 자신과의 만남에 대해 누설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었다. 이제 그는 유대인들의 불타는 분노의 위협에서 자신의 죄
수를 구출하기 위해 결단의 행동을 할 시기가 왔음을 인식하였다.

23:23-25 천부장은 재빨리 백부장 두 명을 불러 바울을 가이사
랴로 호송할 경호원들을 대기시키라고 명했다. 무장 경호대는 보병
200명,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으로 구성되었고 호송은 밤 9시 어둠
이 뒤덮은 시각에 이루어졌다.

대규모의 무장 경호대는 이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사자에게 예
우를 표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니었다. 도리어 그것은 자신의 품

위를 유지하려는 천부장의 결정의 표현에 불과했다. 만일 유대인들이 로마 시민인 바울을 살해하려는 음모가 성공했다면, 그 일을 책임진 군인으로서 천부장은 상부로부터 임무태만에 대한 책임 추궁을 당할 것이었다.

23:26-28 천부장은 로마 총독 벨릭스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의 이름을 글라우디오 루시아라고 밝히고 있다. 물론 편지를 쓴 목적인 바울에 관한 상황 보고를 하기 위함이었다. 루시아가 어떻게 자신을 공의(共義)의 변호자이자 영웅으로 묘사하고 있는지를 보는 것은 흥미롭다. 그는 아마도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를 정죄하지도 않은 채 결박했다는 사실이 벨릭스에게 보고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을 것이다. 글라우디오 루시아에게는 다행스럽게도 바울은 그 비밀을 누설하지 않았다.

23:29-30 천부장은 자신이 살펴본 바로는 바울이 사형이나 감옥에 갇힐 어떤 잘못이 없었고, 다만 그 송사 문제는 유대 율법에 관계된 것 같다고 보고했다. 바울을 대항한 암살 음모 때문에 그는 바울을 가이사라에 보내는 것을 합당하게 여겼고, 유대인 고소자들에게 그곳에 가서 그 문제를 벨릭스 앞에서 다루는 것이 좋겠다고 말한 것을 덧붙였다.

23:31-35 가이사라까지의 호송행렬은 잠시 안디바드리에서 멈추었다. 그곳은 예루살렘에서 대략 62km 떨어졌고, 가이사라에서는 32k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성이었다. 이제 유대인의 매복 위험이 거의 없는 위치에 이르렀기 때문에 보병들은 되돌아갔고 남

은 마병들이 바울을 호위하여 가이사랴에까지 여행하였다. 가이사랴에 도착한 경호대들은 루시아가 쓴 편지와 함께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 안내하였다. 일차적으로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임이 확인되자 벨릭스는 고소자들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면 이 문제를 재판하겠노라고 약속했다. 그동안 바울을 헤롯 궁전이나 회당에 두어 지키라고 그는 명령했다.

로마 총독인 벨릭스는 본래 노예 출신으로서 일약 로마제국의 정치가로 출세한 자신의 위치를 즐겼다. 그는 사생활에 있어서 극도로 부도덕한 사람이었다. 유다 도(道)의 통치자가 될 당시 그는 세명의 귀족 여인들을 아내로 두고 있었다. 공직에 몸담고 있을 당시 그는 이메사(Emesa)의 왕인 아지주스(Azizus)와 결혼한 왕비 드루실라에게 반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따르면, 결혼식은 구브로 출신인 마술사 시몬의 주례로 열렸다고 한다. 그는 아주 잔인한 폭군이었는데, 이는 자신의 실정(失政)을 비판한 제사장 요나단의 살해 음모를 주도한 사실을 통해서 여실히 증명되었다. 바울은 바로 이 벨릭스 앞에 심문받기 위해 서야 했다.

24:1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떠난 지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몇몇 공회원들과 함께 그곳에 도착했다. 그들은 기소를 위해 더둘로라는 이름의 로마 변호사를 고용했다. 그의 임무는 벨릭스 앞에서 바울을 대항하여 고소하는 일이었다.

24:2-4 더둘로는 총독에게 아침의 말을 던지면서 바울을 고발하기 시작했다. 물론 그가 말한 내용 중에는 사실도 더러 있었다. 벨릭스는 폭동과 반란을 진압함으로써 질서를 유지하고 자신의 통

치력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더들로의 연설은 진실을 뛰어넘는 아침의 말로써 총독의 환심을 사려는 행위임이 분명했다.

24:15-8 더들로는 사도 바울을 대항하여 구체적으로 네 가지 고소내용을 진행시켰다.

- (1) 그는 전염병자였다. 즉, 무서운 흑사병(黑死病)이란 의미이다.
- (2) 그는 전 유대인들 중에서 폭동의 주모자였다.
- (3) 그는 나사렛 이단의 두목이었다.
- (4) 그는 성전을 더럽히려 했다.

24:9 더들로가 벨릭스에게 바울에 관해서 확신 있게 고소하자 그곳에 참석한 유대인들은 더들로의 고발이 사실이라고 동의하였다.

24:10 총독으로부터 재가를 받은 바울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일어섰다. 먼저 그는 여러 해 동안 통치하는 가운데 유대인의 관습과 예절에 익숙한 총독 벨릭스 앞에 서게 된 것을 만족스럽게 여기고 있음을 표현했다. 이 말도 언뜻 아침의 말 같지만, 실상은 단지 예의 있게 사실을 말한 것에 불과하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향한 고발 내용에 대해 하나하나 답변을 제시해 나갔다.

24:11 공적인 방해 행위에 대한 고소에 대해,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열이틀 밖에 되지 않았다고 답변하였다. 게다가 자신은 분란을 일으킬 목적이 아닌,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밝혔다.

24:12-13 다음에 그는 자신이 유대인들을 선동했다는 고소내용을 반박하였다. 성전에서나 회당에서, 그리고 도성에서 한 번도 그는 유대인들을 선동한 적이 없었다. 이 주장은 사실이었기에 어떤 사람도 반박할 수 없었다.

24:14-17 바울은 세 번째 고소 내용인 자신이 나사렛 이단의 두목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고백하기를, 자신은 그 도(道)에 따라 유대인의 하나님을 섬기고, 구약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을 믿는다고 하였다. 또한 그는 모든 정통 유대인들 중, 특히 바리새인들이 고대하는바 의인과 불의한 자가 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되리라는 소망을 자신도 갖고 있음을 밝혔다. 장차 다가올 부활의 빛 가운데서 그는 주님과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거리낌 없는 관계를 맺고자 항상 힘썼다. 유대인들을 선동하기는커녕 그는 도리어 유대인들에게 구호금을 전달하려고 예루살렘에 왔다. 물론 그는 예루살렘에 있는 곤경에 처한 히브리계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교회에서 모금했던 구제금을 언급하고 있다.

24:18-19 네 번째 고소 내용, 즉 자기가 성전을 더럽혔다는 고소 내용과 연관해서 그는 이렇게 답변했다. 그가 유대인 서원법에 따라 제물을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정결례를 행하는 동안 어떤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자신을 발견하고 성전에 부정한 이방인을 데리고 왔다고 고소했노라고 답변했다. 물론 바울이 성전을 더럽혔다는 고소는 사실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이방인과 함께 갔던 것이 아니라 혼자 성전에서 결례를 행했다. 오히려 예루살렘에서 바울을

대항하여 폭동을 일으킨 장본인은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인데 이들이 만일 바울을 고소할 것이 있다면 마땅히 가이사랴에 와서 총독에게 고소했어야 했다.

24:20-21 이제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 공회에 출두했을 때, 무슨 불의한 일을 했는지를 확실히 말하라고 자기를 고소한 유대인들을 향해 도전하였다. 그들은 이에 대해 한마디로 답변할 수 없었다. 다만 그들이 할 수 있는 말이라고는 바울이 “죽은 자의 부활 때문에 내가 오늘날 재판을 받고 있다”고 그들 앞에서 외친 죄뿐이었다. 다른 말로 하면, 죄를 범했다고 고소당한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실제로 바울이 행한 것은 죄가 아니었다는 의미이다.

24:22 사건 전모를 들은 벨릭스는 진퇴양난에 처하게 되었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관해서 들어 충분히 알고 있었고, 누가 올바른지도 알고 있었다. 자신 앞에서 있는 죄수는 분명 로마 율법에 반(反)하여 어떠한 죄도 범하지 않은 무죄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만일 그가 바울을 인정하면, 그는 금방 유대인들의 원한을 사게 될 것이다. 정치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는 유대인들의 지지를 얻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다. 그래서 그는 다음에 그 사건을 심리하겠다는 입장을 취했다. 그는 천부장 루시아가 가이사랴에 올 때까지 기다리겠노라고 공포하였다. 실상 그것은 한마디로 연장 작전에 불과했다. 그 후 우리는 천부장이 가이사랴에 도착했다는 기록을 갖고 있지 않다.

24:23 그 사건을 일단락 지으면서 벨릭스는 바울을 지킬지라도

합당한 자유를 주고 친구의 방문을 허락하며, 의복과 음식을 제공하라고 부하들에게 명했다. 이 조치는 총독이 바울을 죄인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24:24-25a 그 후 며칠이 지난 후에 벨릭스와 그의 부인 드루실라는 좀 더 기독교 신앙에 대해 듣고자 사도 바울과의 사적인 만남을 주선하였다. 아주 담대한 태도로 바울은 이 방탕한 총독과 그의 간부(姦婦)에게 의와 절제, 그리고 다가올 심판에 관해 강론하였다. 그들은 공적인 삶과 사적인 삶에 있어서 ‘의’에 관해 무지한 자들이었다. 또한 그들은 현재 그들의 잘못된 결혼생활이 증거하듯이 ‘절제’에 관해서도 이방인이었다. 그리고 그들은 장차 닥칠 심판에 대해 경고 받는 것이 필요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용서받지 못한다면 그들은 영원한 불못에서 망하는 인생이 될 것이다.

24:25b-26 벨릭스가 드루실라보다 더 바울의 설교를 통해 마음이 움직인 것 같다. 하지만 그는 두려워했을 뿐, 구세주께 돌아와 믿는 결단을 하지 않았다. 그는 주님께 대한 신앙의 결단을 뒤로 늦추었다. “이제 그만 가라. 내가 틈이 나면 너를 부르리라.” 성경의 기록을 살펴보면, 슬프게도 그에게는 더 이상 틈이 생기지 않았다. 하지만 이것이 벨릭스를 향한 바울의 마지막 증거는 아니었다. 그 총독은 그 후에도 바울이 가이사랴에 갇혀 있는 2년 동안 줄곧 바울을 불렀다. 내면으로 벨릭스는 바울의 동료들이 바울을 풀어달라는 부탁과 함께 어떤 후한 뇌물을 가지고 오기를 희망하였다.

24:27 2년이 지난 후, 주후 60년에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후임자가 되니, 벨릭스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고자 하여 바울을 가이사라에 감금해 놓았다.

25:1 포시우스 베스도는 주후 60년 가을에 로마 황제인 네로에 의해 유대 총독으로 임명받았다. 가이사라는 수리아 지역에 대한 로마 제국의 통치를 위한 정치적 요충지로서 유대는 그 일부분에 배속되어 있었다. 그는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자신의 관할 하에 있는 종교 도시인 예루살렘으로 향하였다.

25:2-3 바울이 가이사라에 투옥된 지도 벌써 2년이 경과했지만 유대인들은 바울을 잊지 않았고 그를 살해하려는 증오도 수그러들지 않았다. 새로 부임한 총독으로부터 정치적인 혜택을 얻게 되지는 않을까 생각하여 대제사장과 유대 유력자들은 그에게 바울을 고소하고 재판을 위해 그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간청하였다. 명목상으로는 바울을 공회 앞에 세우려고 했던 것 같지만, 실제로는 길에서 매복했다가 바울을 살해하려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

25:4-5 그러나 베스도는 의심할 바 없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고자 계획을 세웠다는 사실과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가이사라에서 바울을 납치하기 위해 은밀한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것이다. 그래서 그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라는 유대인들의 간청을 거절하고 대신에 그들이 가이사라에 가서 바울을 고소할 기회를 주겠노라고 약속하였다.

25:6-8 예루살렘에 십여 일 머무른 후에 베스도는 가이사랴로 내려갔고 그 다음날 재판 자리에 앉았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향해 여러 번 고소를 했지만 그것들 중 어느 하나도 확실히 증명하지는 못했다. 유대인들의 빈약한 고소내용을 들으면서 바울은 자신을 율법이나 성전을 거스리거나 더 나아가 가이사 황제를 대적하는 어떤 범죄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항변하였다.

25:9-11 잠시 동안 베스도는 바울을 예루살렘 공회 앞에 출두시키라는 유대인들의 간청을 기꺼이 들어주려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는 죄수의 허락이 없이 이 일을 실행하지는 않았다. 분명 바울은 자신이 그곳에 가는 것을 허락하면 살아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인식하였다. 그러므로 그는 가이사랴 법정에서 서는 것이 심판 받기에 최적지라고 말함으로써 그 질문에 답변하였다. 만일 그가 로마제국을 대항하여 중죄를 범했다면 그는 그것에 합당한 처벌받기를 망설이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가 그같은 범죄를 자행하지 않았을진대 자신의 법적 입지를 구태여 유대인에게 양도할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로마 시민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최대한 활용하면서 사도 바울은 기억할만한 말을 하였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바울이 가이사에게 호소한 행위는 정당한가? 자신의 처지를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뢰하고 또한 자신의 지상 시민권을 의존하지 말아야 했던 것이 아닌가? 이는 바울의 실수 중의 하나가 아닌가? 하지만 우리는 그같이 결론을 내릴 수 없다. 다만 우리가 아는 것은, 그는 가이사에게 상소함으로써 당시의 위급한 상황을 벗어나려 했다는 것이다. 또한 만일 그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다른

방법으로 로마에 가게 되었을 것이다.

25:12 베스도는 잠시 동안 바울의 상소문제에 대해 자신의 법적 고문들과 상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그후 그는 다소 좋은 목소리로 바울에게 말했다. “네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로 가리라.”

25:13 이 일이 있은지 며칠 후에 왕 헤롯 아그립바 2세와 그의 여동생 버니게가 새로 부임한 베스도를 축하하기 위해 가이사랴에 방문하였다. 본문에 나타난 아그립바는 과거 야고보를 살해하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었던(12장) 헤롯 아그립바 1세의 아들이었다. 그의 누이 버니게는 빼어난 미모를 가진 자였다. 신약성경은 그녀의 개인 신상에 관해서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역사가들에 의하면, 그녀는 자신의 오라비와 근친상간의 관계를 갖고 있을 정도로 파렴치한 행실을 가진 여자였다.

25:14-16 그들이 가이사랴에 여러 날 머물게 되자, 베스도는 아그립바에게 자신이 직면한 바울이란 죄수에 관한 일을 말하기로 결정했다. 먼저 그는 심의도 없이 판결하려는 유대인들의 웅졸한 요청을 이야기하였다. 자신을 법치주의의 고수자로 묘사하면서 그는 피고가 원고와 대면하여 고소한 사건에 대해 변명할 기회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설명하였다.

25:17-19 그 사건을 심리한 결과 베스도는 죄수인 바울이 로마 제국을 대항하여 어떤 죄도 범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 오히려

그들의 고소내용은 유대인의 종교와 예수라는 어떤 사람이 죽었는데 바울이 살아났다고 주장하는 것에 관한 문제였다.

25:20-22 그때 베스도는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가겠느냐고 제안했고, 바울은 오히려 황제(“아우구스투스”는 이름이 아니라 가이사 칭호임)에게 상소했음을 회상시켰다. 물론 황제에게 상소하는 일에는 다소간의 문제가 있었다. 그를 로마에 보낼 때, 피고에게 무슨 죄목을 적용시킬 것인가? 아그립바가 유대인이었고, 이 문제가 유대교와 연관된 문제임을 안 베스도는, 아그립바가 적절한 죄목을 찾는 일에 어떤 도움이 되기를 바랐다.

세상의 구세주를 언급함에 있어 베스도는 ‘어떤 예수’라는 표현을 사용했다(개역성경에는 ‘예수라 하는 이’로 번역됨). 이같은 표현에 대한 벵겔(Bengel)의 주석은 참고할 만한 가치가 있다.

“이 가련한 베스도는 모든 인류가 무릎을 꿇어야 할 대상자이신 주 예수를 향해 그렇게 불렀다.”

25:23 그 다음날 공식적인 청문회가 열렸다. 아그립바와 버니게는 화려하게 외관을 갖추었다. 그리고 그들은 천부장들과 그 도성의 유지들과 함께 법정에 들어왔다. 그 후 바울이 출두하였다.

25:24-27 베스도는 반복해서 바울 소송에 관한 그간 상황을 설명하였다. 즉, 바울의 사형을 요구하는 유대인들의 주장, 사형당할 만한 혐의를 찾지 못했던 일, 그리고 가이사에 대한 바울의 상소 등등... 베스도의 딜레마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그는 바울의 상소대로 네로 황제에게 바울을 보내야 하는데 아직까지 그 고소사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너무 빈약함을 알고 있었다. 베스도는 솔직하게 이 부분에서 아그립바의 도움을 바란다고 밝혔다. 진정 죄목도 표시하지 않고 죄수를 보낸다는 것은 도리에 맞지 않는 것이었다. 따라서 이번에는 법적 심문보다는 오히려 청문회의 성격이 강했다. 실제로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고소하기 위해 법정에서 서지도 않았으며, 아그립바 역시도 결정적인 판결을 할 필요가 없었다.

26:1-3 우리 앞에 펼쳐진 장면은 ‘한 종의 신분이었던 왕과 한 보좌에 앉은 죄수’라는 말로 잘 묘사되어 왔다. 영적 관점에서 볼 때 아그립바는 불쌍한 존재였다. 반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환경을 초월하며 믿음의 날개로 비상(飛翔)했다.

아그립바의 신호에 따라 바울은 손을 펴서 자신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경험을 다시금 증거하였다. 먼저 그는 유대 사람들에게만 연된 제반 관례와 문제점에 익숙한 유대인 아그립바 앞에서 자신의 소송 건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 다행이라고 언급했다. 바울의 서론적인 언급은 단순히 아첨이 아니었다. 그것은 다만 그리스도인의 솔직하고 예의바른 인사일 뿐이었다.

26:4-5 바울의 초기 생활을 볼 때, 그는 율법을 모범적으로 준수하던 유대인이었다. 유대인들은 원하기만 하면 바울이 바리새파로서 엄격한 보수파 인물이었다는 것을 증거할 수 있었다.

26:6 이제 그가 심문을 당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약성경에서 유대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소망을 바울 자신이 붙들고 있는 까닭이었다.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논증은 대략 이렇다. 구약성경에서 하

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의 여러 지도자들, 예컨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과 솔로몬 등과 같은 사람들과 더불어 언약을 하셨다. 그중 중요한 언약은 메시아의 약속으로써 그분이 오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지상을 통치하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약시대 족장들은 이 약속의 성취를 목격하지 못했다.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언약을 백지화시켰다는 의미인가? 물론 그분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자격을 가지셨다. 그러나 그같은 족장들이 이미 죽었는데 어떻게 그들과 더불어 맺은 언약을 성취할 수 있겠는가? 그 답변은 그들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심으로서이다. 이렇듯 바울 사도는 구약 성도들에게 주었던 언약들을 죽은 자의 부활과 곧바로 연결시키고 있다.

26:7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들이 그 약속이 성취되기를 소망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겼노라고 묘사하고 있다. ‘열두 지파’라는 언급은 당시 가르침 중에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열두 지파 중 열 지파를 바벨론 포로 후에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비록 그들은 이방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을지라도 사도 바울은 그들을 독특한 민족, 주 하나님을 섬기고 약속된 구원자를 대망하는 사람들로 보았던 것이다.

26:8 바로 이것을 믿는 것이 바울의 죄였다! 그는 하나님께서 유대 조상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으로써 그분의 약속을 성취하실 것을 믿었다. 그런데 왜 그들은 그같은 약속을 믿지 못했단 말인가? 바울은 아그립바와 그곳에 참석한 모든 회중들에게 반문하였다.

26:9-10 바울은 과거에 기독교 신앙을 따르는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핍박했던 삶을 회상하였다. 그는 온 힘을 기울여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반박하였다. 그는 대제사장들로부터 권위를 위임받아 예루살렘에서 많은 그리스도인을 감옥에 가두었다. 체포된 그리스도인들이 공회 앞에서 심문을 받을 때마다 그는 반복해서 그들의 처형을 지지하는 찬성표를 던졌다. 반복해서 그는 여러 회당에서 발견한 그리스도인들을 형벌했고 그들이 주님을 부인하도록 모든 수단을 사용하여 그들에게 고통을 가했다. 물론 여기 ‘강제로⁷⁸⁾’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란 표현을 사용할 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그 일을 성공시켰다는 의미가 아닌, 다만 그렇게 시도했었다는 것을 가리킨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바울의 증오 섞인 핍박은 유대 지경을 넘어 외국에까지 미쳤다.

26:12-14 바울의 삶 속에 있었던 대전환의 경험은 이같이 외국에 있을 때 발생하였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체포할 공문서를 갖고 그들을 잡아 예루살렘에서 처벌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중이었다. 정오쯤 영광의 환상이 그를 압도하였다. 하늘로부터 한낮의 빛보다 더 밝은 빛이 그에게 비추었다. 땅에 엎드린 후에 그는 다음과 같은 질문의 음성을 들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그같은 음성은 다음과 같은 계시의 말씀을 더하셨다. “가시채를 걷어차는 것이 네게 고통이다.” 가시채는 완고한 짐승들을 앞으로 움직이게 할 목적으로 쓰는 아주 뾰족한 도구이다. 바울은 그동안 양심의 가시채를 걷어 차왔다. 하지만 더 중대한 문제는 그는 성령의 확실한 음성을 거스르는 삶을 살아왔던 것이다.

78) 헬라어 문맥은 “내가 그들에게…를 강요했다”는 의미가 강하게 나타나 있다.

그는 스테반이 죽을 때 보여주었던 태도와 은혜를 결코 잊을 수 없었다.

26:15 “주여, 누구십니까?”라고 바울은 물었다. 그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는 음성이 있었다. 예수라니? 어떻게 그분이 예수란 말인가? 예수는 십자가에 처형되어 장사지내지 않았던가? 예수의 제자들이 스승의 죽은 몸을 훔쳐서 은밀한 장소에 숨겨두지 않았던가? 그런데 어떻게 그 예수가 지금 나에게 말할 수 있단 말인가? 그때 갑자기 진리의 여명(黎明)이 바울의 영혼에 비취었다. 예수님은 죽어 장사지냈으나, 그러나 그분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것이다. 그 후 그분은 다시금 승천하사 지금 자신에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이다. 바울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했던 것은 곧 그들의 주인이신 주님을 핍박하는 행위였다. 그리고 주님을 핍박했던 것은 곧 이스라엘의 메시아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핍박하는 것이었다.

26:16 이어서 바울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에 대해서 요약해서 증거했다. 주님은 바울에게 일어나서 발로 서라고 명하였다. 그는 영광중에 계신 그리스도의 특별한 계시를 받았는데, 그것은 그가 주님의 종이 될 것이라는 것과 그날 그가 보았던 모든 일과 아울러 그가 알게 될 모든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관한 진리를 전해 줄 증인이 되리라는 것이었다.

26:17 유대인들 가운데서 바울을 구해준다는 약속은 그의 사역이 마쳐질 때까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구출을 의미한다고 이해되

어야 한다.

26:18 바울은 이방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돌아 오게 하고,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시켜 하나님의 권세를 받들도록 할 목적으로 보냄을 받았다. 그 결과 그들은 주 예수께 대한 믿음을 통하여 죄사함을 받고 거룩케 된 사람들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될 것이다. 도니(H. K. Downie)는 18절의 말씀 속에서 복음은 어떠한 일을 하는지를 잘 요약하였다.

- (1) 복음은 어둠에서 자유케 한다.
- (2) 복음은 사단의 권세에서 자유케 한다.
- (3) 복음은 죄를 용서받게 한다.
- (4) 복음은 과거 잃어버렸던 기업을 상속받게 한다.

26:19-23 이처럼 사명을 받은 바울은 아그립바에게 자신이 하늘의 계시(환상)를 불순종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메섹이나 예루살렘을, 그리고 온 유대를 막론하고 이방인들에게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선포하였다. 바울이 이 같은 복음 사역을 하고 있을 때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체포하여 죽이려고 했던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지금까지 만나는 사람에게 구약의 선지자들과 모세가 증거했던 메시지를 증거할 수 있었다. 그 메시지는 곧 메시아가 고난을 받고 먼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사, 유대인들과 이방인 모두에게 빛을 비추실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26:24-26 이방인으로서 베스도는 아마도 사도 바울의 설교 논

리를 따라오지 못했던 것 같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향해 칭찬을 못할망정 그는 오히려 많은 지식이 그를 미치게 했다고 비난하였다. 분노를 폭발하거나 비꼬지 않고 바울은 점잖게 비난의 내용을 부인하고 자신의 말이 진실되고 합당한 말이라고 역설하였다. 곧이어 아그립바 왕은 자신의 말이 진리임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바울은 확신있게 말했다. 바울의 삶과 간증은 숨겨진 것이 없었다. 사실상 유대인들은 바울의 언행을 잘 알고 있었고, 또 의심할 바 없이 아그립바도 바울에 관한 모든 소식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26:27 바울은 직접적으로 아그립바 왕에게 질문하였다. “왕이시여, 당신은 선지자를 믿으십니까?” 그리고 바울은 자신의 질문에 답변하였다. “물론 당신이 선지자를 믿으시는 줄 제가 압니다.” 이 같은 바울이 가진 논리의 힘은 막강하였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했던 것이다. “저는 구약성경에서 기록된 모든 선지자의 말을 믿습니다. 아그립바 왕이시여, 당신도 역시 그들의 증거를 믿으시지요? 그렇다면 유대인들이 어떻게 제가 죽을 죄를 저질렀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어떻게 자신이 믿고 있는 바를 제가 믿는다고 해서 정죄할 수 있겠습니까?”

26:28 아그립바가 바울이 증거한 논리의 힘을 느꼈다고 하는 점이 다음과 같은 그의 말 속에 나타나 있다. “네가 나를 설득시켜 거의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You almost persuade me to become a christian.). 하지만 아그립바가 한 말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서는 숙고할만한 이견(異見)이 있다. 흠정역본을 따르는 사람들은 아그립바 왕이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의 입문에 거의 가까웠

다고 생각한다. 그들은 29절에서 한 바울의 답변이 이같은 사실을 암시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아그립바는 반어법(反語法)을 사용했다고 믿는다. “너는 적은 설득의 말로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냐?” 다른 말로 하면, 진지한 도전의 말을 농담으로 회피하려 했다는 것이다.

26:29 아그립바가 진지하게 말했든지 아니면 농담조로 말했든지 간에 바울은 아주 진지하게 말하였다. 그는 설득의 말이 많은 적든지 간에 아그립바와 그곳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기쁨과 복에 들어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했다. 실로 그는 자신이 쇠사슬에 묶인 것 외에 모든 면에서 자신처럼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특권을 누리게 되기를 바랐다. 몰간(Morgan)은 이 부분을 이렇게 주석했다.

“바울은 아그립바를 구원하기 위해 죽을 수 있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이 당한 결박을 아그립바에게 주길 원하지 않았다. 그것이 바로 참된 기독교이다. 상대방을 핍박하는 것은 기독교 정신이 아니다. 타인을 결박하지 않고 오히려 타인을 구하기 위해 죽으려는 진실한 태도가 바로 기독교의 진수이다.”⁷⁹⁾

26:30-32 왕과 총독과 버니게와 다른 행정관들은 은밀히 이 사건을 마무리 짓고자 방을 나왔다. 그들은 바울이 감옥에 갇히거나 사형당할 만한 죄를 짓지 않았음을 수궁하였다. 이에, 아그립바는 만일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하지 않았다면 풀어줄 수 있을 뻔했다고 유감의 뜻을 표하였다. 우리는 종종 왜 가이사에게 상소한

79) Morgan의 저서 *Acts*, p. 528을 보라.

것이 취소될 수 없었는지 의문을 갖게 된다. 하지만 바울이 한 장소의 변경 가능성 여부와 무관하게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이 있다. 즉 이방인의 사도로서 바울이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심문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고(23:11), 거기에서 그는 주님의 죽으심에 부합하려는 그의 갈망을 이루려 했다는 것이다.

9. 바울의 로마 항해와 난파선(27:1-28:16)

본장은 사도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로마에 근접한 멜리테에 이르기까지의 여행 중에 경험한 감동적인 모험담을 기록하고 있다. 만일 바울이 한 여행객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로마까지의 여행에 관한 상세한 기록이나 심지어 난파선에 관한 소식을 제대로 듣지 못했을 것이다. 본문은 술한 항해 용어로 가득 차 있어서 다소 난해한 부분이 더러 있다.

27:1 여행은 가이사랴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바울은 율리오라는 장교의 호위를 받고 있다. 이 백부장은 로마군 정예부대인 아우구스투스 군(軍)에 예속된 사람이었다. 신약성경에 언급된 다른 백부장처럼 그는 친절하고 정직한 성품과 타인을 향해 배려하는 자세를 소유하였다.

27:2 배 안에는 바울처럼 심문을 받기 위해 로마에 가는 다른 몇몇 죄수들이 있었다. 또한 승객 명단 중에는 사도 바울의 초기 여행에 동참했던 아리스다고와 누가가 있었다. 그들은 소아시아 북서쪽 모퉁이에 자리한 미시아(Mysia) 도성인 아드라뭇데에서 제작된 배에

승선하였다. 그 배는 북서쪽으로 여행하면서 소아시아 서부 지역인 로마 령인 아시아 해면을 따라 항해하도록 계획되었다.

27:3-5 그들이 탄 배는 팔레스틴 연안을 따라 북쪽으로 여행, 가이사라에서 112km 떨어진 시돈에 도착하였다. 거기서 백부장 율리오는 바울에게 관대하게 대하여 주어서 육지에 내려 친구들을 방문하고 대접을 받도록 허락하였다.

시돈에서 출발한 항해여정은 왼쪽으로 구브로를 지나쳐 지중해 북동쪽 중심지역을 통과하는 것이었다. 그들은 해변을 끼고 항해하여 큰 바람을 피하여 소아시아의 남쪽 연안과 길리기아와 밤빌리아를 지나쳐 마침내 루시아의 항구도시인 무라 성에 도착하였다.

27:6-8 거기서 백부장은 죄수들을 다른 배로 옮겨 타도록 하였다. 그들이 옮겨 탄 두 번째 배는 아르니카 북쪽 연안에 위치한 알렉산드리아에서 건조된 것이었다. 그 배는 승무원과 승객을 포함해서 276명을 실을 수 있었고, 밀 창고까지 있었다. 그 배는 알렉산드리아에서 출발하여 지중해 북쪽으로 항해하여 무라 성에 도착, 이제 서쪽 방향인 이탈리아를 향하여 기수를 돌렸다.

며칠간의 항해는 역풍(逆風) 때문에 느리게 진행되었다. 실로 승무원들이 배를 소아시아의 남서쪽 끝머리에 위치한 니도 항구에 대는 것은 큰 어려움을 초래했다. 거기서 그들은 거슬리는 바람 때문에 서쪽으로 뱃머리를 돌려 그레데 섬의 동쪽 해안으로 항해를 계속하였다. 살모네 곶을 돌아 그들은 대풍에 시달리며 그레데의 남부 중심 해안 라새아 성 근교에 위치한 미항(美港)에 도착하였다.

27:9-10 심사숙고하느라 지체된 시간은 항해하기에 적합하지 못한 시기를 맞게 했다. 겨울이 임박한 날씨는 앞으로의 항해를 어렵게 만들 것이었다. 금식기간(속죄일)이 끝날 무렵으로 보아 아마도 9월 말에서 10월 초경쯤인 것 같다. 그래서 바울은 승무원들에게 경고하였다. 만일 이 항해를 계속하면 필시 배와 하물 뿐 아니라, 승선한 인명 피해도 있을 것이라고 말이다.

27:11-12 하지만 선장과 선주(船主)는 항해를 지속하기 원했다. 결국 백부장은 이 둘의 판단을 수용했고,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도 그같은 결정에 동조하였다. 그들은 현재 머무르고 있는 미항에서 겨울을 지나는 것은 안전하지 못하다고 느꼈다. 그래서 뵈닉스에 가서 겨울을 나기로 결정했다. 뵈닉스는 그레데 남서쪽에 위치한 항구로서 미항에서 64km 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다. 그 항구는 남서쪽과 북서쪽 양방향 모두를 향하여 열려 있었다.

27:13-17 남풍이 부드럽게 불어오자, 선원들은 뵈닉스에 손쉽게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닻을 거두어 해변을 가까이하여 남쪽으로 항해하였다. 그때 갑자기 유라쿨로⁸⁰)라는 광풍이 해변가에서 돌출하여 그들을 덮쳤다. 그들은 전혀 예기치 못한 폭풍에 밀려 정처 없이 배가 가는 대로 가야만 했다. 그들은 곧 남서쪽으로 떠내려가 그레데에서 40여km 떨어진 가우다(글라우다)⁸¹)라고 명명된 조그만 섬에 닿았다. 거기서 그들은 간신히 구명 밧줄로 배를 동여매었으니, 이는 그들이 모래톱에 빠질까 두려

80) 네슬 알란드 헬라이어판(미국성서공회)은 '유라퀼론'(Euraquilon)으로 번역되어 있다.

81) 네슬 알란드 헬라이어판은 '카우다'(Cauda)라고 되어 있다.

워서 돛을 내렸기 때문이었다. 실상 그 지역은 아프리카에 근접한 연안으로서 당시 항해하기에 위험스러운 곳이었다.

27:18-20 폭풍에 하루 동안 심하게 시달린 그들은 배를 가볍게 하고자 짐들을 바다로 던졌다. 삼일 째 되는 날 그들은 배의 장비들을 내버렸다. 의심할 바 없이 그 배는 다량의 화물을 운반하고 있을 것이다. 그들은 배의 침몰을 막기 위해 최대한 배의 무게를 가볍게 하는 것이 필요했다.

여러 날 동안 해와 별들을 보지 못한 채 절망 가운데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구조될 소망이 보이지 않았고, 또한 어디에 와 있는지도 판단할 수 없었다.

27:21-26 배고픔으로 인해 이들의 절망은 가중되었다. 배에 탄 사람들은 며칠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의심할 바 없이 그들은 배에 들이닥친 물을 퍼내는 등 배가 침수되지 않게 하려고 온갖 수고를 다했을 것이다. 게다가 배의 기물을 다 버려 요리할 기구들도 없었는지 모른다. 배 멀미, 두려움, 질병, 좌절감 등이 아마도 그들의 식욕을 다 빼앗아 갔을 것이다. 설령 배 안에 음식이 있었을지라도 음식을 먹고 싶은 식욕이 달아났을 것이다.

그러나 바울이 소망의 메시지를 가지고 그들 가운데서 일어났다. 먼저 그는 부드럽게 그들이 그레테에서 항해를 시도하지 말았어야 했음을 상기시켰다. 그러면서도 그는 그들에게 비록 배는 잃어버릴 망정 절대로 인명 피해는 없을 것이라고 확신시켰다.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그것을 알았을까? 주의 천사가 간밤에 나타나서 바울이 로마에 가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라고 확신시켰기 때문이다.

그때 하나님은 바울과 함께 항해하는 모든 사람들을 바울에게 붙였노라고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그들은 용기를 내고 격려를 받아야 한다. 바울은 그들이 비록 어떤 성에서 배가 파선하게 될지라도 배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안전하게 살 것임을 믿어 의심하지 않았다.

토저(A. W. Towzer)는 이 부분을 통찰력 있게 다루고 있다.

“남풍이 순하게 불 때 바울을 태운 배는 아주 부드럽게 항해를 시작하였다. 그때는 승선한 사람들 중 어느 누구도 바울이 누구인지 또한 평범한 외모 배후에 얼마나 탁월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인지 아는 사람이 없었다. 그러나 가공할 만한 폭풍 유라굴로가 그들에게 덮쳤을 때 바울이란 인물은 승선자들의 큰 화재거리였다. 비록 죄수의 몸이지만 바울은 침착하게 배의 지휘자로서 권위를 갖고 사람들의 생사 문제에 관해 결단하고 명령하였다. 내가 생각하기엔 바울에게도 다소 불분명한 어떤 일들을 그같은 위기가 명백하게 만들었던 것 같다. 폭풍이 몰아치자 하나님의 뜻이 바울에게 분명하게 각인(刻印)되는 전기가 되었던 것이다.”⁸²⁾

27:27-29 미항을 떠난 지 벌써 열나흘이 경과했다. 그들은 그리스와 이탈리아, 그리고 아프리카 사이 아드리아 해(海)라고 알려진 지중해에서 표류하고 있었다. 한 밤중쯤 되어 선원들은 육지에 가까이 온 줄로 알았다. 아마도 그들은 해변가에 부딪히는 파도 소리를 들었을 것이다. 수심이 점차 줄어들어 가는 것을 확인하면서 그들은 배가 암초에 부딪히지 않도록 닻을 네 개나 던져놓고 날이 밝기를 기다렸다.

⁸²⁾ A. W. Towzer의 저서 *That Incredible Christian*, p. 134를 보라.

27:30-32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몇몇 선원들은 해변가로 도망치려고 했다. 바울이 백부장에게 그들의 탈출 계획을 이야기하는 동안 그들은 닻을 내리는 것처럼 꾸미면서 바다 위에 거룻배를 내려놓았다. 바울은 만일 그 선원들이 배에 머물러 있지 않으면 나머지 사람들이 구출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러자 군사들이 거룻배의 닻줄을 끊어 떼어 버렸다. 선원들은 타인의 목숨 뿐 아니라 자신들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도 배에 남아 있어야 했다.

27:33-34 필립 역본은 본문 33-37절의 내용에 대해 ‘결단력 있는 바울의 상식’이라는 제목을 붙였다. 이같은 전경을 제대로 감상하기 위해서 우리는 바다 한 가운데서 만난 폭풍의 위력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게다가 우리는 바울이 그 배의 선장이 아니라 단지 평범한 죄수의 몸이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날이 밝아오자 바울은 사람을 불러 그들이 두 주 동안 제대로 먹지 못했음을 상기시키면서 이제 음식을 먹으라고 독려한다. 그들은 음식을 먹고 기력을 찾아야 했다. 이때 사도 바울은 머리카락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라고 그들의 안전을 천명(闡明)하였다.

27:35-37 바울은 먼저 하나님께 공적으로 감사를 드린 후에 음식을 떼어 먹었다. 우리의 기도는 타인들 앞에서 얼마나 담력을 잃고 위축되고 있는지! 그러나 이같은 공적인 기도가 얼마나 자주 우리의 설교보다도 더 큰 효력을 발휘하는지 모른다.

그러자 모두가 바울로 인해 격려를 받고 함께 음식을 먹었다. 그 때 배 안에는 276명이나 있었다.

27:38-41 식후에 그들은 배의 무게를 가볍게 하려고 곡식을 바다에 던졌다. 실상 육지가 그리 멀지 않았으나 그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그들은 닻을 올려 끊어버리고 키 줄을 늦추어 앞 돛을 바람을 향해 달고 해안으로 향해하였다. 그때 배가 두 물살이 만나는 곳에서 좌초되니 이물은 모래에 부딪쳤고 고물은 성난 파도에 의해 부서져 갔다.

27:42-44 그러자 군사들은 죄수들이 탈출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 그들을 죽이려고 제안했으나 백부장은 바울을 살리고자 그 제안을 거절하였다. 대신 그는 헤엄칠 줄 아는 사람들은 먼저 육지에 올라가라고 명령하였다. 그리고 나머지는 널판 조각이나 파손된 배 조각들을 의지하여 나가도록 했다. 그렇게 함으로써 승무원들과 승객 모두가 안전하게 육지에 도달할 수 있었다.

28:1-2 그들이 도착한 섬은 멜리데였다. 섬 원주민들은 배가 침몰하는 것과 배 안에 있던 사람들이 육지에 다다르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하는 것을 목격하였다. 그들은 파도와 비에 완전히 젖어 떨고 있는 새로운 방문객들을 위해 불을 피우는 등 관대함을 보였다.

28:3 바울은 불 피우는 것을 돕다가 갑작스럽게 독사에 물렸다. 아마도 독사가 주어온 나뭇가지 속에 들어 있었던 것 같다. 나무가 불에 타게 되자, 놀란 독사가 나무를 뒤적이고 있던 바울의 손을 물었을 것이다. 독사는 바울의 손을 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손을 짝 물은 채로 매달려 있었다.

28:4-6 처음에 원주민들은 사도가 살인자임에 틀림없다고 결론지었다. 비록 그가 좌초된 배에서 탈출하기는 했지만 공의가 그를 심판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하지만 바울이 뱀에 물렸어도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자, 그들은 이제 돌변하여 그가 신임에 분명하다고 생각하였다. 이는 인간의 간사한 마음의 정(定)함이 없는 모습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28:8-9 당시 멜리데 섬의 수장(首長)은 보블리오였는데, 그는 배가 침몰한 해변가의 토지 소유자였다. 이 부유한 로마 관리는 3일 동안이나 그 동행인들을 관대하게 영접하고 필요한 것을 공급하였다.

이 이방인의 친절은 오래지 않아 보상을 받았다. 그 때쯤 이 관리의 부친이 열병과 이질로 앓아누워 있었다. 그러자 바울이 가서 기도하고 안수함으로 병을 낫게 하였다.

28:9-10 이 치유의 기적에 관한 소문은 신속히 섬 구석구석으로 전파되었다. 그 일 후에 병자들은 석 달 동안이나 계속해서 찾아왔고 그들 모두는 고침을 받았다. 멜리데 사람들은 바울 사도와 누가⁸³⁾에게 깊은 사례를 표했다. 바울 일행이 그 섬을 떠날 때 그들은 로마 여행 중에 필요한 많은 물품들을 선물로 주었다.

28:11 석 달 간의 겨울이 지나가고 항해가 안전한 시기가 되자

83) 최소한 바울이 치유의 능력과 더불어 누가의 의술을 활용했었을 가능성이 있다. 만일 하나님께서 의사 직업을 인정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은 적어도 신약성경의 28%나 차지하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의사인 누가가 쓰도록 선택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백부장은 죄수들을 인솔하여 그 섬에서 겨울을 보낸 알렉산드리아 배를 탔다. 그 배의 기호(記號)는 ‘쌍둥이 형제’ 즉, 카스토와 폴록스였다. 이들은 이방인 선원들에게 있어 일종의 항해 수호신이었다.

28:12-14 그들은 멜리테에서 출발하여 130km가량 항해하여 시실리아의 동부 연안에 위치한 수도 수라구사에 도착하였다. 그곳에서 사흘을 체류한 뒤, 그들은 다시 항해를 계속하여 이탈리아의 남서쪽 끝부분 즉, 장화 모양의 이탈리아 지형의 발 끝 부분에 위치한 레기온에 당도하였다. 하루가 경과한 뒤 부드러운 남풍이 불자 선원들은 이탈리아의 서쪽 해변에서 북쪽으로 29km가량 여행하여 나폴리 만의 북쪽 해안인 보디올에 도착하였다.

보디올은 로마에서 남동쪽으로 240km가량 떨어진 곳에 위치한 도성이었다. 그곳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 형제들을 만나서 일주일에 걸친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28:15-16 보디올에 바울이 도착했다는 소식이 어떻게 로마의 성도들에게 들어갔는지 우리는 잘 모른다. 어쨌든 각기 다른 형제들 두 그룹이 바울을 방문하였다. 한 그룹은 로마의 남동쪽에 위치한 압비오 시장에까지 68km를 여행해서 왔다. 그리고 다른 한 그룹은 삼관(三館)까지 52km를 여행해 찾아왔다. 로마에 거주하는 성도들의 이같은 사랑의 영접을 받으면서 사도 바울은 적잖은 위로를 받았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자신을 감시하는 군인들과 함께 개인집에 거주하도록 허락받았다.

10. 바울의 가택연금과 로마 거주 유대인을 향한 전도(28:17-

31)

28:17-19 바울은 유대인을 향해 복음 전도를 우선적으로 힘쓰려는 자신의 정책에 부합해서 먼저 유대인 지도자들을 집으로 초청하였다. 그들이 자신의 셋집에 도착하자, 그는 어떻게 해서 자신이 로마에 오게 되었는지 전반 상황을 설명하였다. 그는 자신이 유대인들이나 유대교 전통을 대항하여 아무런 방해공작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결국 로마인들의 손에 심문을 당했노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이방인 지도자들은 자신에게서 아무런 혐의를 발견하지 못하여 풀어주고자 했으나 유대인의 강한 반발 때문에 마침내 자신이 가이사에게 호소했노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가이사를 향한 항소 행위는 이스라엘 민족을 정죄하려는 의도가 아니라, 자신의 신변 변호를 요청한 것임을 추가로 설명했다.

28:20 바울이 로마에 거주하는 유대인 지도자들을 초청한 것은 자신이 유대인들에게 아무런 대항할 의도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실상 자신이 쇠사슬에 매인 것은 이스라엘의 소망 때문이었다. 이전에 설명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소망은 유대의 족장들과 더불어 맺은 언약으로서 특별한 메시아에 관한 약속이었다. 이같은 약속의 성취는 본질적으로 죽은 자의 부활로 이루어졌다.

28:21-22 유대 지도자들은 사도 바울에 대해 전혀 알고 있는 바가 없노라고 고백했다. 그들은 바울에 대해서 유대로부터 어떠한 편지도 받지 못했다. 그리고 유대인 동료 중 어느 누구도 바울을 대

적하는 보고를 한 적이 없었다. 아무튼 그들은 바울의 말을 좀 더 듣고자 했는데, 그 이유는 바울이 관계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어디를 가든지 반대를 받는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28:23 그 후 며칠이 지나서 상당수의 유대인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자 그의 셋집으로 몰려 왔다. 그는 이를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에 관해서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십분 활용하였다. 이같은 복음사역을 함에 있어서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율법과 선지서들을 인용하였다.

28:24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증거한 메시지를 믿고 받아들였으나 또 다른 사람들은 불신하고 거절하였다. (여기서 믿지 않는 불신은 단순히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보다 더 강한 거절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28:25-28 바울은 다시 한 번 복음이 전반적으로 유대 민족에 의해 거절당하는 것을 목격하면서 이사야 6장 9-10절을 인용하였는데, 그 내용은 이사야 선지자가 마음이 완악하고 듣는 귀가 둔하며 눈이 장님이 된 사람들에게 설교하도록 위임받았다는 말씀이었다. 실로 바울 사도는 듣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겪는 마음이 찢어지는 듯한 심적 고통을 다시 느껴야만 했다. 그리고 이같은 복음에 대한 유대인들의 거절을 보면서, 바울은 이제 복음을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증거할 것이고, 그들은 그 복음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선포하였다.

28:29 바울의 설교를 다 듣고 난 후에 유대인들은 서로 큰 논쟁을 하면서 바울을 떠나갔다. 칼빈(Calvin)이 지적하듯이, 유대인들을 향한 대적 내용을 담은 바울의 예언서 인용은 메시아를 거절하는 불경건한 자들의 귀에 크게 거슬렸을 것이다. 그것은 결국 메시아를 받아들인 유대인들을 향한 분노로 표출(表出)되었다. 개혁자 칼빈은 이에 관해 유익한 적용을 한 바 있다.

“결과적으로, 이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논쟁을 일으킨다는 사실을 거절하는 것이 헛되다는 것을 명백히 보여준다. 사실상 이같은 논쟁은 인간의 완악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진정 하나님과의 평강을 즐기기 위해서는 주님을 경멸하는 사람들과의 다툼을 피할 수가 없는 법이다.”⁸⁴⁾

28:30 바울은 이처럼 2년 동안 셋집에 살면서 로마에 체류하였다. 그리고 그는 이 기간 동안 방문객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 아마도 바울이 이 시기에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기록했던 것 같다.

28:31 바울 사도가 상당한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지만 어느 누구도 그것을 금하지 않았다. 이로써 사도행전은 그 막을 내린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이 갑작스럽게 이상한 결말을 맺는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사도행전에 나타난 구도(構圖)는 그 목적을 성취한 셈이다. 요컨대, 그리스도의 복음은 예루살렘과 유다, 그리고 사마리아와 심지어 이방인 세계에까지 증거된 것이다.

84) John Calvin의 저서 *The Acts of the Apostle*, 제2부 314를 보라.

사도행전 이후 바울의 생애에 관한 전모는 바울의 후기 서신서들을 통해서만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일반적인 견해에 의하면, 바울은 로마의 셋집에 2년 동안 산 후에 네로 황제 앞에서 심문을 받고 무죄로 풀려났다고 한다.

그때 그는 소위 제4차 선교여행으로 알려진 사역을 착수하였다. 당시의 여행일정은 아마도 동일한 순서는 아닐지라도 아래와 같았을 것이다.

- (1) 골로새와 에베소(몬 22절)
- (2) 마케도니아(딤후 1:3, 빌 1:25, 2:24)
- (3) 에베소(딤후 3:14)
- (4) 스페인(서바나, 롬 15:23)
- (5) 그레테(딤후 1:5)
- (6) 고린도(딤후 4:20)
- (7) 밀레도(딤후 4:20)
- (8) 니고볼리(딤후 3:12)
- (9) 드로아(딤후 4:13)

우리는 사도 바울이 무슨 이유로, 언제, 어디서 체포되었는지 잘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그는 재차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끌려갔다는 것이다. 제2차 투옥은 제1차 투옥에 비하면 훨씬 고통스러운 것이었다(딤후 2:9). 그는 격리된 채로 거의 형제들을 만날 수 없었다(딤후 4:9-11). 그리고 그 즈음 그는 자신이 이 세상을 떠날 때가 임박했음을 감지하고 있었다(딤후 4:6-8).

전통에 따르면, 그는 주후 67년이나 68년경에 로마 외곽에서 순교당했다고 한다. 순교자 바울에 관한 찬사는 무엇보다도 그의 생전의 기록인 고린도후서 4장 8-10절, 6장 4-10절, 그리고 11장

23-28절의 내용으로 하도록 하자.

사도행전의 메시지

사도행전을 다 읽은 후에 초대교회 당시에 준수된 원리와 실행들을 복습하는 것은 합당하다. 당시 성도들의 삶의 특징과 그 지체들로 구성된 지역교회의 성격은 무엇이었던가? 먼저, 1세기 당시 초대 성도들은 주 예수님 섬기기를 생의 최우선으로 삼았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들의 전 생애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사는 것이었다. 그들은 삶의 존재 이유를 구세주를 증거하고, 그 복음 증거 사역을 심혈을 기울여 수행하는 것으로 삼았다. 그들은 미친 듯이 생존투쟁을 하는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열정적인 주의 제자들이었다. 그들에게 있어 삶의 전반사는 이같은 영광스러운 부르심을 위한 종속적인 일들에 불과하였다. 조웨트(Jowett)는 이를 탁월하게 묘사하였다.

“초대교회 제자들은 하나님의 제단에서 취한 거룩하고 강렬한 열정으로 세례를 받았다. 그들은 삶 속에 이 거룩한 불을 소유하였고, 그런 까닭에 삶의 다른 일이나 재능도 그 불을 더 강화시켜 주었다. 사도들의 영혼 속에 타오르는 이 불은 마치 풀무불처럼 제반 삶의 광풍과 온갖 조소, 그리고 극심한 박해들을 다 삼켜버렸다. 한마디로, 그 어떤 것도 이 제자들을 제지시킬 수 없었다! 그들의 발걸음은 어떠한 방해물들도 통과할 수 없었다. …그리고 제자들의 언행을 통하여 강력한 영적 파문이 일어났다. 그들은 뜨거운 열정으

로 불타오르고 거룩한 빛으로 밝게 빛났는데, 그 이유는 그들 모두가 성령의 능력으로 세례 받았기 때문이었다.”⁸⁵⁾

사도들이 증거한 메시지의 핵심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영광이었다. 그들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구세주를 증거하였다. 비록 인간이 메시아를 처형했으나 하나님은 그분을 죽음에서 일으키사 천상에서 가장 존귀한 위치에 앉게 하셨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영광 받으실 인자에게 모든 무릎이 꿇어져야 한다. 그 외에 결코 구원받는 다른 길이 없다.

증오와 비애, 그리고 탐욕이 만연되어 있는 환경 속에서 제자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참 사랑을 실천하였다. 그들은 핍박자들에게 친절을, 대적자들에게 기도의 선물을 주었다. 다른 성도들을 향한 초대교회의 사랑의 실천은 대적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같은 찬탄을 발하게 하였다. “보라, 이들은 서로 얼마나 사랑하고 있단 말인가!” 복음의 확장을 위한 그들의 희생적인 삶을 볼 때 우리는 큰 감동을 받는다. 그들은 자신들의 물질들을 자기의 소유가 아닌 하나님의 소유로 보고 청지기의 삶을 살았다. 따라서 필요가 진정으로 요청되는 곳마다 그 필요는 풍족히 공급되었다.

제자들의 전쟁 무기는 육신이 아니라 마귀의 요새를 분쇄하는 하나님의 강력이었다. 그들은 종교 지도자나 정치 지도자들과 싸우지 않고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 더불어 싸우는 군사임을 인식하였다. 그래서 그들은 믿음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였다. 실로 이슬람 종교의 실행과는 달리 기독교는 무력을 사용하여 성장하지 않았다.

85) J. H. Jowett의 저서 *Things that Matter Most*, p. 248을 보라.

이같은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 구별된 생활을 영위하였다. 그들은 세상 속에 존재했지만 결코 세상의 소유가 되지는 않았다. 그들은 복음증거를 위해서는 불신자들을 향해 적극적인 접촉을 시도했으나, 세상의 죄악과 쾌락에 관여함으로써 그리스도께 대한 충성심을 저버리지 않았다. 순례자와 행인으로서 그들은 이 세상의 죄악에 불참여하고, 모든 사람들의 영적 축복을 구하면서 이국땅을 여행하였다.

그들은 당시 정치권에 관여하고 사회악을 해소하기 위해 헌신했던가? 그들은 세상의 각종 질병과 남용이 인간의 죄된 본성에서 기인했다는 점을 인식하였다. 각종 악행을 치료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 악행의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 따라서 정치적, 사회적 개혁은 질병의 원인을 치료하지 않고 겉으로 나타난 증상만을 치료하는 행위와 진배없다. 요컨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문제의 본질을 해결하고, 사람의 사악한 본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 그런 까닭에 그들은 차선책을 강구하는데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다. 대신에 그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간에 인간 근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복음을 전파하는데 힘썼다. 그러자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꺾은 상처가 제거되고 완전한 삶의 치료가 결과로 나타났다.

핍박이 닥쳐왔다고 해서 그들은 크게 놀라지 않았다. 그들은 핍박이 닥칠 것을 예견하도록 가르침을 받았다. 핍박을 당할 때 그들은 저항하거나 복수를 하는 대신에 의로 판단하실 하나님께 자신들의 생애를 의탁하였다. 고난을 피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접촉하는 각 계각층의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담대히 선포하게 해달라고 그들은 간구하였다.

제자들의 전 생애 목표는 한마디로 세계 복음화였다. 그들에게

있어 국내 전도와 해외선교는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 다만 그들이 추수할 밭은 온 세상 사람들이었다. 그들의 전도 활동은 그 활동 자체로 끝나지 않았다. 다시 말하면, 그들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여 그들 스스로가 발버둥치도록 방치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았다. 오히려 회심한 성도를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임으로 인도하였다. 그곳에서 그들은 말씀으로 가르침 받고, 기도로 양육을 받고, 믿음이 든든히 세워져갔다. 그때 그들은 다른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세상으로 나가도록 도전을 받았다.

주변에 사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지속적인 사역을 하는 중심은 어디까지나 지역교회였다. 이 그리스도인의 모임은 독립성을 갖고 자치, 자급, 자력 전도를 힘썼다. 각 모임은 다른 모임에 예속되지 않고 독립적이었으나 상호간에 성령 안에서 활발하게 교제를 나누었다. 각 모임들은 합당한 지역에 다른 모임을 개척하는 등 재생산하기를 힘썼다. 또한 각 모임은 이방인이 아닌 성도들의 물질로만 공급되었다. 거기에는 각 교회를 총괄하는 중앙본부 성격의 띠 총회가 존재하지 않았다. 모임들은 구도자 중심으로 운영되기보다는 우선적으로 성도들의 영적 증진과 성장을 더 중시하였다. 교회 활동은 성만찬 예배, 기도, 성경공부, 말씀강론, 교제 등으로 이루어졌다. 복음집회는 모임 내에서 개최되기보다는 회당이나 시장터, 혹은 길거리나 감옥, 때로는 축호방문(逐戶訪問) 등 구도자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곳은 어디든 상관없이 열렸다.

교회 모임은 특별한 건물이 아닌 주로 성도들의 집에서 이루어졌다. 이 같은 모임은 핍박의 시기에 신속히 지하로 잠적할 수 있는 역동성을 갖추었다.

처음에는 기독교 안에 교파주의가 존재하지 않았다. 모든 신자들

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들로 인식되었고, 각 지역교회들은 이 우주적인 교회의 축소판이었다.

게다가 초대교회 당시에는 성직자와 평신도란 계급의 구분이 없었다. 또한 한 사람이 가르침이나 설교, 세례나 성만찬을 집례할 수 있는 특별한 권위를 소유하지도 않았다. 사실상 모든 성도들은 제각기 은사들을 소유하였고, 그 은사를 몸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자유롭게 사용해야 할 의무와 특권이 있음을 인식하였다. 사도, 선지자, 복음 전도자, 목자, 교사의 은사를 부여받은 사람들은 한 교회에서 절대적인 직분자로서 자신들을 세우고자 힘쓰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의 기능은 믿음 안에서 성도들을 세웠고, 그렇게 함으로써 성도들이 매일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였다. 신약 성경 시대의 이같은 은사자들은 성령님의 특별한 기름 부으심으로 그 사역을 감당할 능력을 부여받았다. 이는 배우지 못한 범인들이 당 시대에 것처럼 큰 영향력을 어떻게 끼쳤는지를 잘 설명해 준다. 그들은 오늘날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직업적인 목회자가 아니라 위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평범한 설교자들이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메시지 선포는 종종 기적과 기사와 성령의 다양한 은사들이 동반하였다. 이같은 기적적인 사건들은 사도행전 초반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부분에까지 나타난다.

지역교회가 형성된 후에는 사도들과 사도들의 대리인들이 영적으로 감독의 일을 하는 장로들을 임명하였다. 이 장로들은 지역교회 양떼들을 목양하였다. 또한 각 지역교회는 복수 장로들이 함께 동역하였다.

‘집사’라는 말은 사도행전에서 특별히 교회 직분자의 위치로서라기 보다는 영적, 실재적인 일에 있어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란 의미

에 강조점이 있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례가 아닌 침례(침수)를 실행하였다. 일반적으로 신자는 진정으로 회심한 직후에 침례를 받았다. 매 주일의 첫 날인 일요일에 제자들은 함께 모여 성만찬을 통하여 주님을 기억했다. 이 성찬예식은 오늘날의 그것처럼 그렇게 형식에 매여 있지 않은 것 같다. 당시에는 만찬이 식사나 애찬과 병행해서 실행되었던 것 같다.

초대교회는 기도하는데 전심전력하였다. 기도는 하나님께 연결된 생명선과 같았다. 그들의 기도는 진지하고 믿음이 충만하며 열정적이었다. 제자들은 또한 그들이 소유한 능력이 영적인 일에 아무런 방해 없이 나타나기를 위하여 금식하기도 하였다.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바나바와 사울을 특별한 선교사역을 위하여 파송할 때도 기도와 금식을 한 후였다. 이 두 선교사들도 얼마 동안 금식하면서 이 일을 준비하였다. 그러므로 파송은 안디옥 교회 인도자들이 공식적으로 그들을 선교사로 임명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진실로 그들을 선교를 위해 부르셨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에 불과했다. 또한 파송식은 바나바와 사울이 떠맡은 사역에 대해 모임 식구들이 중심에서 나온 교제를 표현하는 행위였다.

복음 사역을 위해 나간 자들은 사역함에 있어 자신을 파송한 교회의 통제를 받지 않았다. 그들은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주님을 섬길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사역 중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복과 열매를 자신들을 파송한 교회에 보고하였다.

이와 관련해서 교회는 고도의 조직 체계를 갖지 않았다. 오히려 교회는 주님의 인도하심에 지속적으로 순종하여 움직이는 유기체

적 존재였다. 교회의 머리되신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는 지체들을 직접적으로 주관하셨고, 따라서 각 지체들은 스스로가 배우려 하고, 지시에 순종하며 봉사의 책임을 져야 했다. 사도행전에서 우리는 봉사의 경직성(硬直性)을 발견하기보다는 역동적인 모습과 부드럽고 신선한 활동을 목격한다. 예컨대, 사도는 한 지역교회에서 얼마간 머물러야 한다는 확고부동한 규칙이 없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3개월가량을 체류했던 반면, 에베소에서는 3년이나 머물러 있었다. 사도들의 체류 기간은 성도들이 얼마 기간에 영적으로 세움을 입고, 성도 스스로가 사역을 할 수 있느냐에 전적으로 달려 있었다.

몇몇은 사도들이 소도시보다는 대도시에 집중적으로 사역하여 그 후에 교외로 사역을 확장하는 전략을 가졌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사도들이 진정 이같이 확고한 선교전략을 가졌던가? 오히려 그들은 중심지역이건 소외당한 지역이건 구별 없이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사역터로 떠나지 않았던가?

확실히 사도행전에서 우리가 크게 감동받는 내용 중의 하나는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했고, 그것을 철저히 의존했다는 점이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과감히 희생하였다. 그들은 주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소유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매일같이 주의 인도하심을 간구했고, 쉽게 실망하지 않았다.

초대교회는 이인일조(二人一條)로 순회하는 일꾼들의 사역을 받아들이고 활용했던 것 같다. 동행자는 흔히 스승인 양육자를 따라 다니는 젊은 일꾼들이었던 것 같다. 사도들은 가는 곳마다 제자로 훈련시킬 수 있는 젊고 충성스러운 일꾼들을 지속적으로 찾았다.

때로 주의 종들은 바울이 장막을 만들었던 것처럼 자비량하며 사

역하였다. 다른 경우에 그들은 개인이나 교회의 사랑스러운 공급을 통하여 삶의 필요를 채웠다.

또 다른 감동적인 내용은 영적 인도자들은 그들과 함께 일하는 성도들에 의하여 밝히 인식되었다는 점이다. 영적 인도자들로 하여금 권위를 갖고 설교하게 하는 능력은 성령님이셨다.

제자들은 일반적으로 어느 선까지는 인간 정부의 권위에 순종하였다. 그 한계선이란 제자들이 복음 증거할 수 있는 자유의 한계를 가리킨다. 하지만 법적으로 복음 증거를 금할 경우, 그들은 사람보다는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하였다. 당국에 의해 형벌이 주어지면 그들은 반정부 운동을 획책하기보다는 저항 없이 그 형벌을 감내하였다.

복음은 최초로 유대인들에게 증거되었다.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이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거절하자 이 복된 소식은 이방인들에게 전파되기 시작했다. “먼저는 유대인에게로”란 명령은 사도행전 역사를 통해 잘 수행되었다. 하지만 오늘날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다를 바 없이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토대를 갖고 있다. 즉,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롬 3:23).

초대교회 사역과 연관한 가공할만한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사람들은 가볍게 그리스도인이 되겠노라고 고백하지 못했다. 교회 안에 죄는 재빨리 침투했으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경우에는 하나님의 가혹한 심판이 곧바로 내려졌다. 사도행전을 공부해 볼 때 이 책이 주는 마지막 교훈이 이것이다. 즉, 만일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과 희생, 헌신과 정열적인 봉사를 본받기만 한다면, 분명 전 세계는 우리 세대에 복음화 될 것이

분명하리라.

참고 문헌

- Arnot, William. *The Church in the House: A Series of Lessons on the Acts of the Apostles*. New York: Robert Carter & Brothers, 1873
- Blaklock, E. M. *The Acts of the Apostles, TBC*.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59.
- Calvin, John. *The Acts of the Apostles*, 2 vols. Grand Rapids: Wm. B. Eerdmans Publishing Company, 1977.
- Erdman, Charles R. *The Acts*. Philadelphia: The Westminster Press, 1919.
- Kelly, William. *An Exposition of the Acts of the Apostles*. London: C. A. Hammond, 1952.
- Martin, Ralph. *Understanding the New Testament: Acts*. Philadelphia: A. J. Holman Company, 1978.
- Morgan, G. Campbell. *The Acts of the Apostles*. New York: Fleming H. Revell Co., 1924.
- Rackham, R. B. *The Acts of the Apostles*. London: Methuen, 1901.
- Ryrie, Charles Caldwell. *Acts of the Apostles*. Chicago: Moody Press, 1961.
- Stuart. C. E. *Tracings from the Acts of the Apostles*. London: E.

Marlborough and Company, n.d.